

## 第3章 鑛工業

### 第1節 概 觀

大邱는 朝鮮末期 이래 전국적인 商業中心地로서 또한 日帝時代부터는 嶺南의 넓은 농촌지역을 背後地로 하여 製絲工業을 중심으로 발전해 온 전형적인 內陸商工業都市이다. 이후, 1960년대에 시작된 우리나라 경제의 高度成長過程에서 大邱의 광공업은 양적으로는 상당한 발전을 이룩했으나, 發展程度나 成長水準面에서는 全國 平均水準에 미치지 못하는 落後性을 보였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工業化가 首都圈과 釜山圈, 臨海地域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옴으로써, 내륙도시인 大邱는 立地面에서의 취약점으로 인해 成長·發展이 상대적으로 弱化되어 온 데 따른 것이다.

또한 대구의 광공업은 섬유공업 중심의 脆弱한 公營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아울러 기업규모에 있어서 종업원 299인 이하의 中小企業이 99.1%<sup>1)</sup>, 企業組織形態에서는 個人企業이 90.0% 이상을 차지하는 등 광공업 자체의 구조적 취약성과 工業立地의 제한으로 발전의 한계를 보여왔으나 1990년대들어 자동차부품제조업을 중심으로한 기계공업 등의 비중이 점차 提高되고 있어, 産業構造改編이 일어나고 있다.

한편 1991년 말 현재 大邱의 광공업은 업체수에서 전국의 6.8%, 종업원수에서 5.4%를 점하고 있으나, 생산액(3.3%)과 부가가치(3.6%)는 업체수와 종업원수의 점유비중보다 더욱 낮아, 지역경제의 취약성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sup>2)</sup> 그 결과 대구지역 광공업체의 1991년도 종업원 1인당 附加價值生産額이 濟州道 다음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大邱의 광공업성장·발전이 그 만큼 제약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구지역 광공업의 지속적인 성장발전은 大邱工業의 구조적인 취약성에서 탈피하고 工業構造의 고도화를 이루는 데 있다 하겠다.<sup>3)</sup>

이하에서 大邱 광공업의 발전과정을 개괄적으로 제1절에서 서술함으로써 대구광공업의

1) 1991년 현재 대구시의 광공업 사업체수는 5,018개, 종사자수는 16만 696명으로 나타났다. 종업원규모별 광공업 현황을 보면, 총 5,018개 업체중 종업원 규모 5~49명이 4,360개로 전체의 89.6%나 되며 50~99명이 7.7%, 100~299명이 4.5%, 300명 이상은 46개업체로 0.9%에 불과한 실정임.

2)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1991)》 지역편, 1993, pp. 38~40.

3) 1991년 현재 광업부문 사업체수(11개)는 광공업 전체의 0.2%, 종사자수(360명) 역시 0.2%에 그치고 있다.

發展史 검토는 물론 앞으로의 지속적인 성장에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편제하되, 발전 과정의 시대구분은 《산업·경제》편의 총설에 따라, 解放前까지의 大邱鑛工業(1876~1945), 解放直後 및 韓國 戰爭期の 大邱鑛工業(1945~1953), 戰後 再建期の 大邱鑛工業(1954~1961), 經濟開發初期의 大邱鑛工業(1962~1971), 輸出主導成長期の 大邱鑛工業(1972~1980), 直轄市昇格以後의 大邱鑛工業(1981~1991)으로 구분하되 가능한 한 총설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언급하고자 한다.

그리고 각 시대별 경제흐름의 정리에 있어서는 그 시기의 시대적 배경을 토대로 광공업의 각 분야별 성격과 현황 및 변화를 다루고자 한다. 그렇지만 광업부문<sup>3)</sup>은 그 비중이 매우 낮기 때문에 제조업 부문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 I. 解放前까지의 大邱鑛工業(1876~1945)

### 1. 時代的 與件

朝鮮 500년간의 經濟는 토지국유제를 물질적 기초로 하는 중앙집권적 관료제 하에서, 반봉쇄적인 자연경제에 가까운 農業經濟의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1876년에 開港하였으나 1910년 韓日合併으로 日帝의 식민지로 전락한 韓國은 그 후 日本經濟에 예속되어 정상적인 近代化 過程이 아닌, 전형적인 植民地 從屬經濟로서의 변화과정을 걸어 왔다.

따라서 이러한 植民地 經濟體制下의 大邱經濟는, 근대적 공업이 이식되는 등 도시의 외형적 변화가 상당히 진전되었다고는 하나, 이 모두가 日本帝國主義의 논리와 필요성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결국 日帝下의 大邱는 植民政策과 中日戰爭을 수행하는 거점적 역할을 담당하면서 도시발전을 해 온 것이다. 즉, 한일합병 이듬해(1911년)에 불과 2만 8천명에 지나지 않던 大邱府의 인구는 1930년에 10만명을 넘어섰고, 1940년에 17만명을 돌파했으며, 해방전 해인 1944년에는 21만명에 이르러 급속하게 都市化가 진전되었음을 알 수 있다(表 3-1참조).

이러한 大邱府 인구의 급증현상은 1938년의 府域 확장과 공업화의 진전에 따른 농촌인구의 大邱流入의 결과로 볼 수 있으나, 이는 결국 日本資本主義에 의한 수탈의 결과, 공장노동자의 임금을 더욱 떨어지게 한다는 식민지적 경제성격을 가장 선명하게 나타내고 있다.

日帝下 大邱의 산업구조를 알 수 있는 통계자료를 구하기는 매우 힘들으나, 개략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1905년에 京釜線이 개통되고, 日本資本이 본격적으로 진출하여 상업분야를 장악하고 공장을 건설하게 됨에 따라, 1930년에는 이미 상공업도시로서의 성격이 확연하게 나타났다는

〈表 3-1〉 大邱府의 人口推移

調 査 基 準 日	面 積 (km <sup>2</sup> )	家 口 數 (家口)	人 口 (名)	人 口 密 度 (名/km <sup>2</sup> )
1911.	9.25	7,301	28,240	3,053.0
1919.	9.25	10,333	41,413	4,477.1
1925. 12. 31.	9.25	16,774	72,127	7,797.5
1930. 12. 31.	9.25	24,049	101,078	10,927.4
1935. 12. 31.	9.25	21,811	105,716	11,428.8
1940. 12. 31.	115.64	35,666	175,002	1,513.3
1944. 5. 1.	115.64	41,840	206,638	1,786.9

資料：大邱市,《大邱市 常住人口 調査報告書》, 1973, pp. 68~69.

大邱市,《大邱市史》第2卷, 1973, pp. 322~323.

것이다. 즉 1930년의 國勢調査 결과에 따른 산업별 취업구조를 보면, 농림업 종사자가 불과 3,035명(8.4%)에 지나지 않는다. 농업인구의 비중이 이렇게 낮았던 까닭은 1914년에 새로운 府制를 실시하면서 大邱府 농촌지역의 상당부분을 達成郡으로 편입시켰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 대신 공장근로자가 9,519명(27.1%)에 이르고 있으며, 상업이 1만 276명(29.3%), 교통업이 1,698명(4.7%), 공무·자유업이 4,320명(12.3%)으로 되어 있어, 大邱의 도시기능이 상공업과 관청업무에 特化되어 있음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단, 분류불능이 6,159명임).

한편 총설 2절 2항의 〈表 1-7〉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듯이, 1934년 현재 大邱 人口의 직업별 구성을 보면, 공업부문 취업자의 구성비가 전국 평균에 비하여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일본의 공업자본이 도시지역에 우선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상업교통업에 종사하는 인구비중도 전국 평균을 35% 포인트나 웃돌고 있어, 상업도시로서의 대구의 성격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그리고 이 당시 在邱 일본인의 직업구성비에 있어서 공업이 在韓 全日本人의 그것을 10% 포인트나 웃돌고 있는 것은, 大邱府에 살고 있던 일본인들이 大邱府 배후지역의 米穀, 棉花, 煙草, 누에고치의 가공에 일찍부터 눈을 돌렸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공무 및 자유업에 종사하는 자가 한국인의 경우에 12%, 일본인의 경우에는 34%를 차지하며, 다같이 전국의 평균수준을 넘어서고 있었다는 것은 당시 行政都市로서의 大邱의 중요성을 밝혀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日帝는 1937년 5월 大邱府의 시가지계획을 공고하고 이를 계기로 府域擴張을 계획하여 1938년 10월 1일에 達成郡 壽城面, 達西面, 城北面을 편입하여 공장지대를 조성함과 동시에 도시건설을 추진하였다. 물론 전쟁수행과 식민지 거점도시의 육성이 그 목적이었다.

이하에서는 日帝下 대구 광공업의 변천상과 그 발전의 의미를 살펴보기로 한다.

## 2. 鑛工業 現況

大邱의 근대적 공업은 日帝下에 비로소 발전하기 시작했으며, 일본 軍國主義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성쇠를 거듭하면서 발전해 왔다. 1910년에 불과 15개에 지나지 않던 공장수가 1941년에 927개로 늘어났고, 공장 근로자수도 같은 기간동안 9백명선에서 1만명선으로 무려 11배나 늘어나, 바야흐로 공업도시로서의 기반이 구축되게 되었다.

〈表 3-2〉 日帝下 大邱工業의 推移 (單位: 個, 名, 千圓)

年 度 別	工 場 數	從業員數	生 產 額
1910	15	926	—
1919	26	2,700	5,700
1925	207	5,762	23,011
1935 <sup>1)</sup>	140	4,158	12,547
1940	255	8,082	25,448
1941	927	10,194	38,719

註: 1)은 職工 5인 이상임.

資料: 大邱府, 《大邱府史》, 1943, pp. 153~154, p. 160.

大邱府, 《大邱府勢一覽》, 1939, p. 66.

大邱市, 《大邱市史》第2卷, pp. 237~243.

일변도였다. 大邱에서의 근대공업의 이식은 朝鮮總督府에 의하여 會社令이 발표된 1910년 전후이며 무력적 배경을 가진 일본인의 자본과 은행이 선도적 역할을 하였음은 물론이고, 이와 때를 같이하여 극소수이긴 하지만 韓國人의 土着資本이 공업자본화하기 시작하면서 비롯되었다. 식민통치 초기에 大邱에 건설된 이들 공장은 한국의 근대화공업과 마찬가지로 수출산업의 가공부문이거나, 또는 수입상품과의 非競爭部門에 국한되어 있었다. 당시 大邱에 설립된 공업을 보면, 수출산업의 가공부문으로서 精米業, 수입상품과의 비경쟁부문으로는 煙草製造業, 양조업, 기와 공장 등이 있었다. 이때 생겨난 연초공업은 三南地方을 主市場으로 하였는데, 지금도 대구공업생산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1908년에 설립된 石井染物工場과 實業傳習所 機械工場 그리고 1912년 2월에 세워진 大邱刑務所 附屬工場 등은 大邱織物工業의 효시가 된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인에 의해 세워진 최초의 직물공장은 1915년 秋仁鎬氏의 東洋染織所였다.

1910년에 특기할 사항은 경제불황으로 가장 심한 타격을 받고 있던 일본의 巨大製絲業體(長野縣 岡谷 소재)들이 大邱에 진출하여 山十製絲(1918년), 片倉製絲(1919년), 朝鮮製絲(1919년)를 설립함으로써, 大邱를 전국적인 製絲工業의 중심지로 만들었다는 점이다. 1920년대에는 이들 일본인이 경영하는 大小製絲工場의 폐품을 처리하는 40여개의 한국인계 경영의

日帝下 36년동안 大邱의 工業化 過程은 1910년에서 1928년에 이르는 대구공업의 發生期, 세계 대공황기의 침체기, 中日戰爭이후의 부흥기 등의 몇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다. 즉 1910년에서 1928년 사이의 大邱工業은, 日本資本의 진출에 의하여 농업 부문과 유기적 관련성을 가지면서 근대적 공업이 이식되었는데, 그 당시의 공업구조는 오늘날과 비슷한 소비재



고치加工工場이 세워져 製絲工業이 일단의 「피라밋」형을 구축하고 있었다. 日帝時代に 大邱를 「蠶都」라고 부른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러한 日本製絲工業의 대구진출과 때를 같이하여, 일본인들이 대거 大邱에 들어왔는데, 이들은 과자, 밀, 주류 등 식품공업과 직물공장, 인쇄공장 및 鐵工場에의 진출이 현저하였다. 이 때문에 1921년에서 1926년 사이에 100여개 공장이 증설되었으며 공업생산액도 4배로 늘어났다.

한편 1929년의 세계대공황은 大邱의 生絲業界에도 영향을 미쳐 생산액이 크게 줄어 들게 되었고, 1931년의 만주사변을 계기로 1937년에 중일전쟁이 일어날 때까지는 공장건설이 北韓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면서 大邱의 공장은 상대적인 침체기를 맞게 된다.

이처럼 1937년경 최악의 침체를 보였던 대구공업은, 그러나 日帝의 전쟁수행을 위한 특수 목적으로 인해 1939년 이래 다시 급진적인 발전을 보이게 된다. 특히 織物工場과 食料品工業, 製絲工業 및 鐵工業의 발전은 현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공업에서 차지하는 대구공업의 비중은 1939년 현재 생산액면에서 전국의 1.7%에 지나지 않았고, 남한공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4%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大邱의 都市計劃에 있어서 공업지구의 概念이 처음 도입된 것이 바로 이 시기였다. 즉, 1936년 7월 22일 朝鮮總督府 告示 제765호로 칠성동, 태평로3가, 원대, 침산, 비산, 평리, 조야, 노곡동 일대의 총면적 638만 2,085㎡가 一團의 공업지 조성지구로 지정된데서 비롯된다. 大邱府는, 이들 지구 중 시가지에 인접해 있었던 칠성동, 태평로3가, 침산, 비산, 원대동에 걸쳐 있던 농지 18만평을 1941년에 공업단지로 조성하여 17개 纖維工業과 機械製作工場 2개, 고무공장, 打綿공장, 染色공장 등 모두 26개 공장을 입주시켰다. 이곳이 이른바 대구의 제1 공업단지가 되는 셈이다.

日帝治下를 일관하여 大邱工業의 주요한 업종으로는 精米, 煙草製造, 製絲, 紡績, 양조, 유기제조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에서 精米, 煙草, 製絲의 3개업종이 거의 해마다 전체공업 생산액의 80%이상을 차지하였으며, 日帝末期에 을수록 生絲, 織物, 內衣製造 등 纖維工業의 비중이 높아져 직물공업 特化都市로서의 성격을 점차 드러내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 II. 解放直後 및 韓國戰爭期の 大邱鑛工業(1945~1953)

### 1. 時代的 與件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는 36년간의 植民統治의 굴레에서 벗어났으나 政治的 解放이 그대로

경제적 주권의 확립 내지 자립경제의 달성을 뜻하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 解放 이후 美軍政(1945. 9. 11) 및 過政(1947. 6. 24), 남한만의 單獨政府 수립, 6.25動亂이라는 험난한 과정을 거치면서 자립경제의 기반구축은 고사하고, 국민경제 자체의 위기적 상황까지 맞았던 것이다.

해방당시 한국경제는 日帝 植民政策의 유산으로서 경제기반의 취약과 산업구조의 불균형을 그대로 물려받게 되었으며, 국토분단의 비운 속에 자원과 공업면에서 유리한 입장에 있었던 북한을 상실하게 된다. 이러한 남한의 산업구조적인 취약성은 해방후의 정치적, 사회적 혼란과 더불어 심각한 물자부족 현상을 빚어내 경제불안을 조성하였으며, 수백만명에 이르는 歸還人口의 압력과 通貨의 남발로 인한 악성「인플레이」는 物價高, 실질임금의 저하, 실업자의 홍수, 기업수지의 악화를 가져와 국민경제를 파탄에 몰아 넣는 변혁적 위기를 자아내었다.

이러한 국민경제의 흐름은 그대로 大邱經濟에도 반영되었는 바, 해방 이후 1948년 8월 대한민국정부 수립까지의 混亂期동안 大邱의 중요한 사회경제문제는 이미 총설에도 언급되었듯이 급격한 인구증가, 물자부족과 물가고, 사회불안으로 인한 유통 질서의 파괴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소용돌이 속에서 1948년 8월 大韓民國 政府가 수립되고, 1949년 7월 4일 地方自治法の 실시에 따라 大邱府가 大邱市로 이름을 바꾸었다.

당시 우리 경제정세는 政府樹立을 계기로 경제건설이 기대되었으나, 돌발적인 6.25動亂은 이러한 기대를 물거품으로 만들고 말았다. 30억달러에 이르는 재산피해를 낸 6.25동란에서 大邱는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었고, 그리고 전쟁으로 인한 소비재의 特需때문에 工業都市로 크게 신장되는 계기를 맞았으며, 전쟁기간을 통해 약 10만명의 인구가 더 늘어났다. 즉 1953년 말 현재 大邱市内에는 12만명의 피난민이 집중되어 있었으며, 이들 중 要救護 대상자는 9만 5천명에 이르렀다. 결국 8년 동안에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20만의 인구가 40만으로 2배가 증가해 심각한 사회문제의 하나로 작용했으며, 商業서비스 부문에 寄生的인 취업인구가 늘어나 이 부문의 異常 비대화를 가져오기도 했다. 그리고 就業人口 가운데 日僱勞動者の 비중이 4분의 1에 이르렀고 실업율이 10%에 이르렀다는 것은, 이러한 시대상을 잘 말해 주고 있다. 이 시기에 있어서 大邱의 産業構造를 나타내 주는 統計는 1947년도의 직업별 인구구성밖에 없는데, 이 자료에 따르면 大邱府內 취업자 6만 8천명중 日僱勞動者가 24%로 가장 높았고, 商業이 21%, 工業이 18%, 農業이 13%, 公務員이 11%로 되어 있어, 日帝時代와 거의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sup>4)</sup>

4) 朝鮮銀行 調査部, 《經濟年鑑》, 1949, pp. 22~23.

## 2. 鑛工業 現況

### 1) 纖維工業

해방 당시 大邱의 中樞工業은 역시 製絲工業이었다. 그러나 일본인들의 철수와 전력부족 및 원료확보난 등으로 인하여 가동율이 크게 떨어졌으며, 이러한 상황은 상당한 기간 지속되었다. 1948년 상반기 현재 大邱府內 7개 製絲工場의 設備 중 가동된 것은 43%에 지나지 않았으며, 이때 생산된 生絲는 대부분 國內 織造用으로 소비되었고, 1948년 초에 들어 일부는 시험수출하는 단계에 머물렀다.

〈表 3-3〉 大邱府內 製絲工場의 稼動狀況(1948, 上半期) (單位: 個, %)

業 體 名	設 備 部 數	現 運 轉 部 數	稼 動 率
片 倉 工 業 (株)	800	252	31.5
朝 鮮 生 絲 (株)	458	226	48.6
新 興 工 業 (株)	650	326	50.2
日 出 製 絲 (株)	100	39	39.0
大 邱 繭 絲 (有限)	100	36	36.0
中 央 製 絲	30	22	73.3
大 邱 玉 繭 (株)	30	30	100.0
合 計	2,168	931	54.1

資料: 嶺南日報社, 《慶北年監》, 1949.

한편, 綿紡工業의 경우, 해방당시 大邱의 유일한 방직공장은 1940년에 세워진 日本郡是紡績 大邱工場(설립당시 1만 9,928추)이었는데, 일본군의 放火로 소실되었다가 1947년 5월 복구공사를 개시하여 1949년 11월 2일, 朝鮮紡織 大邱工場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이 공장의 1947년도 綿紡績設備는 3천 2백추에 불과했으나 1953년에는 2만여추에 달해, 전국 2위의 공장으로 浮上했다.

한편 大邱의 지역자본에 의한 최초의 紡績공장은 지금은 없어져 버린 三護紡績工場이라 할 수 있는데 1953년 말 현재 1만 3천추를 보유했었다.<sup>5)</sup> 大邱의 三大 紡織工場의 하나로 불리워지던 內外紡織도 休戰 직후인 1953년 8월에 방직부문에 참여했는데, 이 공장도 지금은 없어져 버렸다.<sup>6)</sup>

5) 이 공장은 1941년 鄭在護氏가 敵産인 溪網會社를 拂下받아 세웠으며, 1950년에 4천 8백추의 綿紡施設을 갖추었다.

6) 이 공장은 1941년 2월 朝鮮 大邱메리야스 工場으로 생산을 개시했는데, 해방 후 美軍에 접수되었다가 1949년 12월에 朝鮮에서 분리되어, 大邱 메리야스공사로 개칭된 후, 1950년 12월에 拂下되었던 것이다.

嶺南日報社에서 발행한 1949年版 慶北年監에 의하면, 製絲工業과 紡績工業을 제외한 나머지 섬유공업으로서는 1947년 8월 현재 대구지역에서는 被服工場이 42개업체, 메리야스공장이 41개업체, 직물공장이 85개업체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 해방전에 비하여 업체수가 크게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948년 10월 현재의 메리야스공장수는 98개로 나와 있어, 불과 1년동안에 47개 업체나 신설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시기의 대구 직물공장의 立地動向을 보면, 1930년대에는 비산동에 밀집되어 있었으나, 해방직전과 직후에는 침산동 일대로 자리를 옮겼다는 것이 특이하다. 이렇게 된 데에는 日帝가 1943년 纖維產業會라는 단체를 만들어 足踏機 40대 이하는 없애라는 企業整備令을 내려, 手足機 몇대로 생산해오던 직물업체가 전멸했음에도 불구하고, 침산동 일대에서 영세한 手·足踏機업자들은 명주모기장을 짜면서 건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해방이 되자 企業整備令에 묶여 있던 零細織物業者들은 集積의 이익을 찾아 침산동 일대로 몰려들었던 것이다.

그러나 원료의 재고가 바닥이 난 1947년경에는 직물업체의 稼動率이 60%, 생산능률은 39%로 크게 떨어졌으나 물가가 치솟는 바람에 足踏機 2대라도 호황을 누리는 업체가 많았다. 1948년에 朝紡 大邱工場이 정상가동에 들어가게 됨에 따라 원료난은 어느정도 해소되고, 직물업체는 다시 활기를 되찾았다. 6.25동란으로 우리나라 산업시설의 70%가 파괴되었음에도, 大邱는 다행히 戰禍를 면할 수 있었고 이것이 지역직물업체에 베풀경기를 안겨다 주었다.

1954년에 발간된 纖維年報에 의하면, 1952년 말 현재 대구지역에는 力織機 6천대와 手·足踏機 3,932대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는 動亂前에 비해 2배나 늘어난 시설규모이다. 그리고 1953년에 들어 力織機는 다시 8,200대, 手·足踏機는 7,019대로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 숫자는 嶺南日報社에서 펴낸 1954년도 한국연감에서 나타난 織機臺數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렇게 6.25동란에서 비롯된 特需景氣는 大邱를 한국 제일의 직물도시로 만들었고, 이러한 직물일변도의 공업구조는 그 뒤에도 지속되어 오늘에 와서는 대구경제발전의 제약요인의 하나가 되고 있다. 休戰 직후에도 大邱는 被服工業이 상당히 감소한 대신, 織物工業과 메리야스공업은 비약적인 성장세를 보임으로써, 織物工業의 對 全國比重은 약 60%를 차지하였다.

한편 메리야스 공업도 6.25동란을 계기로 일대 약진을 하게 된다. 전란으로 기반을 잃게 된 京仁地域의 메리야스업자들이 시설의 일부를 釜山이나 大邱 등지로 옮기게 되었는데, 이때가 大邱 메리야스업계로서는 일대 전성기라 할 수 있다.

〈表 3-4〉

大邱市内 纖維工業現況(1953)

(單位：個, 名)

業種別	業體數	生産品目	生産量	從業員數		
				男	女	計
綿紡織	4	綿絲 廣木	月 1,252 捆 月 17,150 疋	106	2,421	2,527
毛織物	1	毛織物	5,000 碼	24	38	62
織物	516	織物	296,797 枚	5,911	8,183	14,094
메리야스	438	샤스 장갑 양말 蚊帳	197,900 94,350 45,845 족 1,800 碼	3,973	5,389	9,362
撚絲	31	撚絲	28,520	86	303	389
被服	15	製服	114,800 着	493	605	1,098
合計	1,005			10,593	16,939	27,532

註：慶北染色加工組合 加入業體 58개가 빠져 있음.

이 表는 大邱市の 市勢一覽에 있는 것이나 慶北道 全體의 數值일 가능성이 큼.

資料：大邱市, 《1954年 市勢一覽》, 1955. 7, p. 142.

## 2) 機械·金屬工業

日帝末期에 전쟁수행을 위한 軍需下請工場의 성격을 띠고, 발전의 싹을 틔운 大邱의 기계공업은, 해방 후 대구 지방관할의 歸屬事業體 명단에 들어 있는 기계·금속공장만도 30개에 이르렀는데, 이들 공장은 해방후 農機具나 家庭用具 등의 鑄物工業으로 전환하였다.

한편 1947년 말 현재 大邱府內 鐵工業관계 공장으로는 농기구 등 기계공장이 58개, 製車(牛馬車 및 짐수레)공장이 7개, 鑄器工場이 12개가 있었는데, 당시 한국은행이 1949년 발간한 《한국통계연감》에 기록된 대구부내 기계·금속공업의 귀속사업체명단에 따르면 30개의 공장 가운데 개인공장이 19개, 주식회사가 10개, 합자회사가 1개로 나타나 있다〈表 3-5참조〉. 그리고 이들의 생산제품은, 배후지역인 농촌을 대상으로 한 農機器類를 원시상태로 공급하거나 鑄器工場의 모체가 된 식기류, 섬유공업을 뒷받침하는 메리야스 기계, 織機, 台丸機 등을 소량 생산하고 있었다. 그 후 1953년에는 年産 200여대에 이르는 인쇄기 생산과 더불어, 月産 20여대에 달하는 발동기 생산등은 발전적 현상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1953년 말 현재, 대구지역에는 85개 기계공업에서 1,333명의 종업원이 일하고 있었으며, 輕金屬業界에는 26개 업체에 451명의 종업원이 월간 40만點의 각종 알루미늄제품을 생산하고 있었다.

〈表 3-5〉 大邱府內 機械·金屬工業의 歸屬事業體名單(地方管轄) (單位:名)

工 場 名	管 理 者	住 所	生 產 品	形 態	人 員	資 本 金(圓)
勝 利 鑄 物 工 場	慕文錦	壽 昌	鑄 物	個 人	45	113,308
慶北自動車工業株式會社	鄭基文	太 平	自 動 車 工 業	株 式	—	2,400
南 鮮 重 工 業 株 式 會 社	宰聖祚	壽 昶	重 工 業	株 式	—	3,600
大邱重工業株式會社	安炳鎔	壽 昌	重 工 業	株 式	34	10,000
株式會社大邱製作所	李判述	東 仁	鐵 工	株 式	16	2,000
朝 鮮 鐵 工 株 式 會 社	羅 彬 彩	北 城	鐵 工	株 式	—	6,000
朝鮮機械製造株式會社		高 昌	機 械 製 造	株 式	78	10,000
朝鮮등사관工業株式會社	金 秉 轍	榮 洞	등 사 관 工 業	株 式	—	3,600
建 國 鐵 工 所	朴來鳳	太 平	鐵 工	合 資	107	40,000
吉 田 製 車 工 場	崔在茂	太 平	製 車	個 人	5	29,914
菊 地 鐵 工 所	李萬斗	丸山洞	鐵 工	個 人	4	20,300
朝鮮農器具製造株式會社	李壽祥	砧 山	農 機 具 製 造	株 式	25	42,280
大邱自動車株式會社	徐台龍	壽 昌	自 動 車 修 理	株 式	57	84,216
大 林 製 作 所	石貴奉	達 城	農 具	個 人	5	122,698
渡 邊 鐵 工 所	權海出	西 邊	鐵 工	個 人	11	18,600
上 村 鐵 工 所	李東制	壽 昌	鐵 工	個 人	—	300,000
上 村 鐵 工 所	李東制	壽 昌	鐵 工	個 人	—	300,000
薪 茂 登 鐵 工 所	陽 泰 根	錦 町	鐵 工	個 人	15	62,000
田 中 鐵 工 所		砧 山	鐵 工	個 人	—	—
中 村 鐵 工 所		八 雲	鐵 工	個 人	—	—
下 條 鐵 工 所	玄 玉 牙	太 平	鐵 工	個 人	12	32,760
達 城 製 車 (野中)	鄭來俊	達 城	製 車	個 人	5	50,600
大 燦 鐵 工 所	李高義	壽 昌	機 械	個 人	5	38,800
末 廣 鐵 工 所	李龍淳	太 平	機 械	個 人	5	9,500
八 谷 製 鐵 所	安貞植	壽 昌	鐵 工	株 式	58	168,717
大邱製車(氏家)	尹壽慶	太 平	製 車	個 人	6	60,000
高 須 賀 製 車	金學述	製 車	個 人	—	—	—
山 崎 (大 平) 農 機 具	金世祚	太 平	鐵 工	個 人	10	73,830
谷 金 鋼 工 場	李達凡	西 門	金 鋼	個 人	—	—
三 輪 度 量 衡 修 理 所	李正魯	文 化	도 량 형 기	個 人	—	—
岩 井 農 機 具	張 八 鳳	東 仁	鑄 物	個 人	16	38,900

資料：大邱市，《大邱機械金屬工業의 實態分析和 開發方向 調査報告書》，1973, p.180에서 再引用.

### 3) 其他 工業

纖維·鐵工所를 제외한 기타공업을 당시에는 화학공업으로 분류하였는데 인쇄, 성냥, 비누, 製粉, 고무, 양조 등이 모두 이 속에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1907년경 金光濟가 남산동에 최초의 인쇄소를 차린 이후 1945년 당시 大邱市内에는 64개의 出版社와 96개의 印刷所가 있었는데, 당시 월간 인쇄능력은 2만 4,170원 이었다. 그리고 식품공업을 보면, 1945년 말 현재 간장공장이

3개소, 두부공장 67개소, 食用油공장 16개소, 빵공장 87개소, 제과업 103개소, 氷菓業(아이스 케이크) 96개소가 있었을 뿐이다.

한편 精米業은 일제시대에 비해 활기를 잃어 지개공장밖에 없었고, 製粉業은 해방 직후 慶尚製粉大邱工場이 월평균 2천포씩 생산하는데 그쳤으나, 6.25동란 이후에는 191개의 군소공장이 亂立하여 활기를 띠었다. 그리고 당시 양조장은 李秉喆氏가 경영하던 朝鮮釀造場을 비롯하여, 여러 개의 공장이 있었으며, 사이다 공장도 1개소가 있어, 연간 23만 4천병 정도를 생산했다는 기록이 있다.

비누공업은 8.15해방 직후에는 외국제가 범람했기 때문에 큰 발전을 보지 못하였으나, 1953년 말 현재 9개업체가 243만개를 생산하였다. 이에 비해 성냥공장은 원료부족에 허덕이면서도 28개 업체가 난립하여 生産過剩 狀態를 빚기도 하였다. 한편 고무공업은 원료확보가 용이하여 활기를 띠었는데, 초기에는 고무신을 주로 생산하다가 6.25를 전후하여 혼련화를 많이 생산하였다.

### III. 戰後 再建期の 大邱鑛工業(1954~1961)

#### 1. 時代的 興件

6·25동란으로 시작된 1950년대의 한국경제는, 휴전후 본격적인 再建 復興段階에 접어들게 되는데, 이 시기는 美國을 비롯한 友邦의 경제원조에 힘입어, 동란중에 파괴되었던 생산시설의 복구와 戰後復舊를 통한 경제 재건사업을 활발히 전개한 시기이다. 당시 우리 경제는 休戰後 1958년까지 동란전의 경제수준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1950년대의 호경기를 잠깐 경험하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 20억달러가 넘는 미국의 경제원조는 經濟自立基盤의 구축에 그다지 기여하지 못하고 소비수요를 충족시켜 주는데 그침으로써 外援依存的 재정구조, 만성적인 國際收支의 역조, 消費財 輕工業 위주의 산업구조를 낳게 하였다.

또한 1960년의 「2.28 學生義舉」, 「4.19 學生革命」, 이어 1961년의 「5.16軍事革命」 등의 정치적 변혁과 그에 따른 사회적 불안, 그리고 밖으로 국제정세의 새로운 조정 등은 한국경제의 고통을 가중시킨 요인이 되었다.

이와 같은 한국경제의 상황 속에서 대구경제는 전쟁의 피해를 상대적으로 적게 입은 지역으로서, 戰後의 생필품 생산기지 내지 流通중심지로서의 기능이 더욱 강화되었다. 戰亂기간 중에도 인구가 많이 늘었지만, 전후복구과정에 농촌인구의 大邱 流入, 달성군내 5개면의 市로의

韓國經濟의 모습

〈表 3-6〉

區 分	單 位	1954	1955	1960	1961	平均 또는 合計 1954~1961
經 濟 成 長 率	%	5.5	5.4	1.9	4.8	4.4
人 口 增 加 率	%	2.88	2.88	2.88	3.25	2.93
1 人 當 G N P	달러	70	66	81	83	
國 內 貯 蓄 率	%	6.4	4.9	1.4	3.9	3.7
投 資 率	%	11.6	11.9	10.9	13.1	12.0
產 業 構 造						
農 林 漁 業	%	40.3	44.8	36.8	40.2	41.3
鑛 工 業	%	12.4	12.2	15.7	15.2	13.8
其 他	%	47.3	43.0	47.5	44.6	44.9
都 賣 物 價 上 昇 率	5	28.0	81.9	10.7	13.2	22.2
輸 出	百萬달러	24	18	33	41	200
輸 入	百萬달러	243	341	344	316	2,754
外 援	百萬달러	154	237	245	199	2,088

資料：經濟企劃院，《主要經濟指標》，1980.

편입(1957년 11월) 등의 복합작용으로 大邱의 인구는 급팽창하였다. 이러한 都市化의 급진전은 값싼 노동력을 풍부하게 제공함으로써 大邱의 산업경제발전에 큰「플러스」요인이 되기도 했지만, 취업기회가 극히 제한되었던 당시로서는 높은 失業率과 판자촌의 격증, 범죄의 격증 등으로 심각한 사회문제의 하나로 되기도 했다.

이 시기의 大邱 산업구조의 경향으로는 첫째, 상업·「서비스」부문의 취업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고 둘째, 製造業의 취업인구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편이며 셋째, 농림부문이 10%이상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 등이다.

## 2. 鑛工業 現況

6.25動亂 중 전쟁지구의 공업시설이 大邱로 반입된 데 힘입어, 休戰後 大邱工業의 비중은 크게 강화되었다. 특히 당시 慶南北 지역이 군수물자와 국민생활품 공급기지로 부상되고 外國援助에 의한 공업건설이 늘어남에 따라 大邱는 섬유공업이 급격히 발전하여, 섬유공업도시로서의 기반을 굳히게 되었다. 즉 당시 大邱가 日帝下의 製絲工業을 제외하면, 立地上 특별히 유리한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纖維特化 都市로 발전한 데는 6.25동란으로 말미암아 휴전 이후 경남·북 지역이 군수물자와 국민생활품 공급을 전담하는 과정에서 大邱의 섬유공업이



급격히 발전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후복구기에 있어서 대구공업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정확히 밝혀줄 자료는 매우 부족하다. 다만 1957년 3월부터 3개월간 商工部와 慶北道 상공과가 합동으로 5인 이상 雇傭業體를 대상으로 조사해서 작성한 공장명부를 토대로 보면, 시내에 소재하는 1,666개 공장 중 82%에 해당하는 1,368개업체가 섬유공장으로서 공장노동자 3만 3천명 중 78%인 2만 6천명이 섬유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다. 이로 미루어 당시의 대구공업은 곧 섬유공업임을 실감할 수 있다(表 3-7 참조). 그러면 지역섬유공업의 주요 업종별 동향을 살펴 보기로 한다.

〈表 3-7〉 大邱市内 業種別 工場分布 狀況 (單位: 個, 名)

業 種 別	工 場				從 業 員			
	1954	1956	1960	1961	1954	1956	1960	1961
合 計	280	1,666	1,136	1,225	14,275	33,456	26,613	28,379
纖 維	149	1,368	594	599	11,367	26,059	19,230	19,929
機 械	15	66	97	103	308	1,345	2,042	2,138
金 屬	18	62	83	107	430	1,377	1,205	1,934
電氣・器機	—	—	6	7	—	—	162	176
燃 料	—	—	43	62	—	—	492	628
製 材	13	21	37	33	147	205	189	176
化 學	14	52	31	39	305	1,307	410	429
紙類・文具	1	4	22	23	29	158	363	383
印刷・出版	16	17	21	21	353	258	172	177
食 料 品	41	25	64	71	950	710	494	504
고무・皮革	—	17	20	19	—	975	432	428
其 他	13	34	118	141	386	1,062	1,124	1,477

資料: 1954年分은 大邱市, 《1954年版 時勢一覽》, 1955. 7. p. 109. 工場數와 從業員數가 過小計上되어 있는 것 같음.

1956年分은 韓國銀行 大邱支店, 《慶尙北道 産業變遷史》, 1957. 11. pp. 632~767.

1960年, 1961年分은 大邱市, 《第2回 統計年報》, 1962. p. 85.

### 1) 綿紡織工業

〈表 3-8〉에서 나타나 있듯이, 휴전이 성립된 1953년 말 대구시내 3대 綿紡工場의 設備은 精紡機 4만 4천추로서 전국 시설의 37%를 차지하여 史上 최고로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그러나 전후 복구과정에서 타지역에 外援에 힘입은 공장설립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전국비중이 1955년에는 18%로 떨어졌고, 1961년에는 다시 17%로 낮아졌다.

〈表 3-8〉 綿精紡設備 現況 (單位：鍾)

年 度 別	國內總設備 (A)	大 邱 地 域				B/A (%)
		大 韓	三 護	內 外	小 計 (B)	
1953	117,432	20,768	12,976	10,000	43,744	37.3
1955	370,632	20,768	31,000	15,360	67,128	18.1
1957	440,558	32,576	31,600	15,360	79,536	18.1
1959	476,632	32,576	39,100	15,360	87,036	18.3
1961	492,576	23,865	38,800	15,360	83,025	16.9

資料：대구은행, 《대구지역경제분석》, 1976. 3~4, p. 52.

그러나 대구의 綿紡工業은 이 시기에 비로소 그 뿌리를 확고히 내렸다고 볼 수 있다. 즉 朝鮮大邱工場이 1955년 8월에 薛卿東氏에게 拂下되어 大韓紡織 대구공장으로서 출발을 하게 되었다.

또한 綿織工場과 漁網工場을 경영하던 鄭在護氏가 1951년 12월에 三護紡織을 발족시켰으며, 內外紡織도 1950년 12월에 李淳熙氏가 大邱「메리야스」公社를 拂下받아 1953년 8월부터 精紡機 1만추로 방직부문에 진출하였다.

## 2) 毛紡織工業

우리 나라에는 1937년에 朝鮮毛織이 일본인에 의해 처음 설립되었으며, 6.25사변 직전에 이미 毛紡績機 4,909추, 毛織機 82대가 있었으나 당시의 毛紡織工場은 모두 中古施設을 개조한 것이었다.

지역의 제일모직은 1954년 9월 15일 資本金 1천만원으로 呂相源을 회장, 李秉喆을 사장으로 하여 설립되었는데 1955년 3월에 공장건설에 착수, 1956년 3월 기계설치를 완료하였다. 당시의 설비로는 梳毛紡績 5천추, 紡毛紡績 360추, 織機 50대, 染色加工施設 등이었으며 국내 최고의 수준이었다. 당시 第一毛織의 생산실적을 보면 〈表 3-9〉와 같다.

〈表 3-9〉 第一毛織의 生産實績

年 度 別	梳毛絲(파운드)	紡毛絲(파운드)	服地(야드)
1 9 5 6	446,746	36,212	87,768
1 9 5 7	1,177,162	161,313	339,131
1 9 5 8	1,249,435	181,364	403,384
1 9 5 9	1,519,719	231,080	501,633

資料：第一毛織, 《毛織20年史》, p. 80.

## 3) 織物工業

6.25동란은 대구직물업계의 양적 팽창을 촉진한 일대 전기가 되었다. 즉, 戰時와 戰後에 폭

발적으로 증가한 의류수요와 호경기는 직물업체에로의 신규진입을 촉진하였는데, 이 시기에는 西門市場의 포목상인들과 공장의 기술자들이 앞다투어 직물업으로 진출하였다. 다시 말해서 大邱의 상업자본이 공업자본으로 轉化한 시기였던 것이다.

1956년 말 현재 대구시내에는 경북직물 공업협동조합 회원이 384개업체, 慶北中小纖維工業組合 會員이 289개업체로 모두 673개업체가 있었다(대구시내 전 공장수의 약 40%가 직물공장이었다). 업체평균 종업원수를 보면 직물협동조합 가입업체는 21.8명, 중소섬유공업조합 가입업체는 12.4명이었으며, 종업원 5~10명의 공장수가 많았다.

이 시기의 織機는 足踏機시대에서 벗어나 日帝下의 비자동직기 중 拂下된 것과 國產織機가 많이 사용되었으며, 제품면에서는 소창지, 뉴똥 등이 생산되었다. 1954년 3월에는 日帝때부터 시행되어 오던 織物類稅를 대구지역업자들이 적극적인 「로비」활동을 전개하여 철폐하는데 성공, 대구업체는 또 한번 큰 好況을 맞이하였다. 이러한 시기에 한국나일론(코오롱의 前身)이 1957년 4월 12일 大邱 新川洞에 자본금 2억환으로 한국「나일론」(株)을 설립하여 合纖時代의 개막을 준비하게 된다.

戰後 復舊期에 있어서 대구지역에 있었던 織機數나 織物生産量은 통계사정으로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참고로 이 시기의 織物生産 推移를 보면 <表 3-10>과 같다.

<表 3-10> 大邱市内 織物類 生産量 (單位: 야드)

織 物 類 別	1 9 6 0	1 9 6 1
毛 織 物	443,076	563,320
綿 布	10,821,456(碼)	15,507,900
人 絹 織 物	12,259,500	60,368,800
나 일 론 織 物	5,928,630	2,187,400
絹 織 物	8,427,510	49,278,000
S F 織 物	7,979,500	1,854,000
골 덴	325,950	69,935,250
別 珍	1,459,850	-
가 아 제	1,292,540	2,760,000

資料: 1960年分은 慶尙北道 工業課 統計

1961年分은 大邱市, 《統計年報》, 1962, p.96~97.

#### 4) 메리야스 工業

1950년대 大邱의 「메리야스」공업은, 軍納은 물론 內需用 內衣와 양말, 장갑등의 수요가 크게 늘어나, 전국 생산량의 70%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호경기를 누렸다.

1953년부터 1961년까지 域内 「메리야스」공업을 보면, 양말의 생산은 꾸준한 伸張勢를 보이고 있으나 餘他品目은 연도별로 심한 기복을 나타내고 있다. 공장수는 1955년말의 444개에서

59년에는 629개로 꾸준히 늘어났으나, 규모는 전반적으로 영세하였다. 그리고 1959년도 「메리야스」공업의 생산액은 모두 87억 5천만환이었는데, 이는 제일모직 1개공장의 74억 2천만환, 3개 綿紡織工場의 80억 9천만환 수준을 겨우 웃도는 것으로 규모의 영세성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 5) 機械·金屬工業

섬유공업 다음으로 중요한 기계·금속공업은 6.25동란 중에는 稼動狀況이 극히 저조하다가 휴전직후 부터 정상가동을 하는 업체가 늘어났다. 그러나 戰後復舊期를 통하여 輸入이나 ICA援助에 의한 최신식 시설의 도입이 거의 없었고, 舊式 노후시설로 운영되는 실정이었다.

1953년에서 1957년 사이에 상대적으로 농기계생산업체와 경금속제조업체가 크게 늘어났다. 이 시기에 경금속제조업체가 크게 늘어난 것은, 戰亂을 통한 「알루미늄」의 신제품이 선을 보였고, 여기에 더하여 「알루미늄」古鐵을 입수하기가 쉬워져 鑄物工業이 번창했기 때문이다. 특히, 朝光産業, 鮮鶴알루미늄공업, 南鮮輕金屬 등의 생산이 활발하여, 이들 3개업체가 전국 시장을 거의 석권하다시피 하였다. 또한 纖維機械는 三星製針, 명성금속공업 등 製針業이 일찍이 발달했고, 勝利機械도 1951년 3월 설립되어 踏織布機를 생산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大邱의 기계공업은 규모의 영세성, 기술의 낙후성, 시설의 노후화, 최신 도입시설 및 정밀기계의 부족, 자본부족 등으로 여전히 京仁地域의 그것에 비하여 크게 낙후되어 있었다. 그리고 당시 大邱 기계금속공업의 立地上 특징은 壽昌洞, 大新洞, 仁橋洞, 東仁洞 등 中區地域에 접근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表 3-11〉 大邱市内 機械·金屬工業 現況(1960)

業 種 別	業 體 數 (個)	從 業 員 數 (名)	生 產 實 績
合 計	46	1,377	—
製 鐵	3	34	500 M/T
鐵 筋	1	15	1,500 M/T
食 罐	2	30	7,100 개
알 미 늬 製 品	5	370	666 M/T
鐵 針	3	28	39 M/T
볼 트, 나 사 등	5	131	244 M/T
發 動 機	4	200	222 대
工業用 보 일 러	1	32	41 대
除 草 機	3	152	—
人 力 脫 穀 機	1	65	72 대
旋 盤 機	3	60	221 대
絹 織 機	1	6	27 대

業 種 別	業 體 數 (個)	從 業 員 數 (名)	生 產 實 績
綿 織 機	1	56	215 대
編 織 機	1	7	37 대
製 粉 機	1	15	2 대
印 刷 機	1	21	27 대
變 壓 機	5	62	72 대
電 球	2	25	228,000 개
電 氣 아 이 룡	1	25	17,000 개
電 氣 곤 로	1	20	6,000 개
소 켓 트	1	23	14,520 개

資料：慶尙北道,《主要行政統計調查綜合報告》, 1966, p.193~201.

## 6) 其他 工業

기타공업으로는 성냥, 비누, 양초공장이 대부분이었고, 연탄공장의 수가 크게 늘어났다. 또한 안경테 공업이 이 시기에 일어나, 지금은 大邱가 전국 안경테 산업의 중심지가 되었으며, 戰後 건축 「붐」에 편승하여 住宅建築關聯事業인 기와공장, 벽돌공장이 도시외곽에 생겨났고, 당시 연필공장도 서너개 있었으나, 都市型 雜貨工業은 산업기반이 아직 미약했다. 참고로 1960년도의 생산실적을 보면 <表 3-12>와 같다.

<表 3-12> 大邱市内 其他 工業의 工場數 및 生産實績(1960) (單位：個, 名)

業 種 別	事 業 體	從 業 員	生 產 實 績
合 計	132	1,767	—
製 氷	1	5	1,500 M/T
製 材	13	130	798,852 m³
印 刷 用 紙	6	192	6,186 M/T
印 刷, 出 版	17	206	—
고 무 벨 트	5	32	295,700 PLY
工 業 用 가 스	2	12	38,000 m³
카 바 이 트	4	56	2,320 M/T
其他工業用化學製品	11	67	—
비 누	11	199	3,139 M/T
煉 炭	32	544	330,409 M/T
마 세 크	1	46	76,600 M/T
기 와	4	31	784,000 板
벽 돌	6	35	3,932,000 個
一 般 유 리 製品	8	101	1,232 M/T
陶 磁 器 食 器	1	40	125,600 個

註：印刷用紙는 白上紙, 中質紙, 書籍用紙, 켄트지 및 기타인쇄용지의 합계임.

資料：<表 3-10>과 같음. pp. 181~193.

## IV. 經濟開發 初期의 大邱 鑛工業(1962~1971)

### 1. 時代的 與件

1960년대의 한국경제의 실상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만성적 빈곤으로부터의 탈피와 지속적인 고도성장을 위한 전초적인 개발의 연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962년부터 시작된 1, 2차 經濟開發5個年計劃 기간을 통하여 우리 경제는 종전까지 4~5%의 저성장 속도에서 고속성장으로 궤도를 수정하게 되었다. 1962~1971년까지 10년간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9.9%(1965년 불변가격 기준)를 기록하여, 같은 기간 중 세계의 연평균 성장률 5%를 훨씬 앞질렀다. 이에 따라 經常달러貨로 표시된 국민1인당 GNP는 1962년의 87달러에서 1966년 125달러, 그리고 1971년에는 285달러로 3.3배나 늘어났다.

그러나 이 시기의 大邱經濟는 발전속도나 성장수준면에서는 전국 평균수준을 밑도는 상대적인 낙후성을 보였다. 이는 1960년대의 공업화 정책이 주로 서울과 부산을 거점으로 한 그 주변 지역과 蔚山, 馬山, 여수 등 臨海地域을 중심으로 추진됨으로써, 大邱는 내륙도시라는 불리한 立地與件 때문에 상대적으로 성장이 둔화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大邱의 산업구조를 보면, 1960년대 前半에는 공업의 비중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으나, 그 後半에는 그 비중이 크게 떨어진 대신 3차산업의 비중이 이상비대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大邱工業이 下請中心의 섬유공업에 편중되어 있는 데다가 건설업과 운송 보관 및 통신업, 그리고 「서비스」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데서 비롯된 것 같다.

大邱의 GRP추계가 처음 시작된 것은, 1966년 내무부내의 지방행정연구위원회가 표본조사로 1962년도분을 추계한데서 비롯되는 데, 이 때 大邱의 住民總生産은 115억원으로 추계되었으며, 이 중 3차산업이 53.2%, 2차산업이 43.2%, 1차산업이 3.6%를 차지하여 표면적으로는 상당히

〈表 3-13〉 地域別 1人當 總生産比較(1967~1970) (單位: 달러)

연 도 별	전 국 <sup>1)</sup>	경 북 <sup>2)</sup>	대 구 <sup>3)</sup>	부 산 <sup>2)</sup>
1967	143.4	112.4	180.5	222.5
1968	164.7	127.8	196.9	282.4
1969	198.0	159.9	206.8	308.3
1970	223.6	169.1	238.6	325.5

資料: 1)은 經濟企劃院

2)는 內務部, 住民所得統計年報, 1972.

3)은 大邱市 企劃管理室

선진화된 산업구조를 보였다. 1962년도 대구시의 1인당 주민소득은 1만 6,044원으로 추계되었는데, 이는 同年의 서울시의 1인당 주민소득 2만 2,605원의 71%에 해당하는 것이며, 전국 1인당 주민소득 1만 942원의 166.6%에 해당되는 것이다.

한편 이 시기의 산업별 취업구조를 살펴 보면, 산업구조의 고도화경향이 분명히 드러난다. 즉, 농림업부문의 취업인구비율은 1962년의 9.85%에서 1971년에는 4.9%로 半減된 한편, 鑛工業의 비중은 17.6%에서 26.9%로 높아져 工業化가 착실히 진전되고 있었으며, 3차산업의 비중은 72.6%(분류불능 20.8% 포함)에서 68.2%로 낮아졌으나, 「서비스」업, 건설업, 운수 통신업의 비중은 더욱 높아진 것이 하나의 특징이다.

## 2. 鑛工業 現況

### 1) 工業發展의 明暗交叉

이미 총설에서도 언급되었듯이 1960년대의 대구공업은 양적인 면에서는 상당한 발전을 보였으면서도, 전국공업에서 차지하는 상대적 위치는 크게 格下된 것을 그 특징으로 들 수 있다. 즉 1960년대 大邱工業은 공장수, 근로자수, 공업생산액이 상당히 증가했고, 정부의 강력한 輸出 「드라이브」정책에 힘입어 공산품의 수출도 획기적으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전국공업에서 차지하는 대구공업의 비중은 국민경제의 고도성장기간 동안에 급격히 낮아졌다.

즉 업체수의 비중은 1963년의 6.6%에서 1971년에는 7.3%로 높아진 반면, 종업원수의 비중은 동기간중 10.8%에서 5.9%로 낮아졌으며 附加價値의 비중감소는 더욱 현저하였다.<sup>7)</sup>

〈表 3-14〉 大邱市 從業員規模別 工場數 推移 (單位: 個)

區 分	5 ~ 9	10 ~ 19	20 ~ 49	50 ~ 99	100 ~ 199	200 ~ 499	500 이상	합 계
1963 業體數 %	275 22.8	346 28.6	433 35.9	111 9.1	30 2.5	7 0.6	6 0.5	1,028 100.0
1970 業體數 %	886 40.5	525 24.0	538 24.6	145 6.6	56 2.6	28 1.3	9 0.4	2,187 100.0

資料: 1963年은 홍경희, 《大邱의 工業》, p. 25.

1970年은 大邱市, 《統計年報》, 1973, pp.108~110.

한편, 이 기간중 유의할 점은 1969년을 「피크」로 하여 공장수와 종업원수가 모두 줄어들고

7) 홍경희, 《大邱의 工業》, 1969, p. 9.

經企院, 《鑛工業統計調查報告書》, 1970~1971.

大邱市, 《大邱統計年報》, 1971~1972.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1960년대 大邱의 경제성장을 주도하던 섬유부문의 수출부진으로 지역경제가 1968년부터 심한 불황기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말해 준다. 즉 1966년 이래 호황을 누리오던 대구섬유업체가 1969년에 主市場인 美國의 섬유류 수입 규제조치의 단행과 保護貿易主義의 대두로 섬유수출에 制動이 걸리게 됨으로써 지역의 산업경제가 큰 위축을 당한 것이다.

〈表 3-15〉 1960年代 大邱市 業種別 工場數 및 從業員數 推移 (單位：個, 名)

區 分	1962		1966		1971	
	工場數	從業員數	工場數	從業員數	工場數	從業員數
合 計	1,206	27,860	1,288	46,380	1,933	53,525
飲 食 料 品 <sup>1)</sup>	71	504	50 64	668 641	193 <sup>2)</sup>	6,084 <sup>2)</sup>
纖 維 革	584 7	19,756 201	594 7	28,369 407	873	31,336
製 材 具	33 53	176 425	22 36	192 387	107	920
製 紙 版	23 21	383 177	10 43	573 494	102	2,127
煉 炭 學 具	62 38 12	628 421 217	34 63 14	574 958 446	88	2,167
유 리 · 토 石			17	446	106	1,173
1 次 金 屬			26	1,585	26	1,109
金 屬 製 品	106	1,924	94	2,389		
機 械	103	2,138	117	2,433	402	9,651
電 氣 機 器	7	176	17	479		
輸 送 機 械			32	936		
其 他	86	724	48	4,403	36	1,415

註：1)은 釀造業이 主가 됨.

2)는 담배공장이 포함됨.

資料：大邱市, 《大邱統計年報》, 1963~1973.

1960년대의 대구공업을 설명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우리 손에 의한 공업단지의 조성인 처음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日帝時代(1941년)에 침산동 일대에 조성된 제1공업단지(18만평



규모)만으로는 공장수용이 어렵게 되자, 토지구획정리법과 건설부의 특별 공업단지조성령에 의거하여 1968년에 第3工業團地(104만평)가 조성되었다. 大邱市는 1967년 4월에 「중소기업 공업단지조성계획」을 마련하여 이 단지 조성을 추진하였으며, 지금의 공식 명칭은 大邱地方 工業團地이다.

## 2) 纖維工業

이 시기의 지역섬유산업은 구조적인 일대 변혁기를 맞게되어, 1950년대에 핵심을 이루던 綿紡織工業이 화학섬유의 출현에 의해 그 자리를 비켜주게 되고, 섬유산업이 부분적이지만 수출개시 단계에 접어든 것이다. 韓國 「나이론」(株)이 「나일론」絲의 생산에 돌입하여 합섬직물시대의 개막을 先導했고, 梳毛紡績業界의 「톱 메이커」인 제일모직은 1967년과 1969년에 梳毛紡績施設을 늘려 22,472추의 시설을 갖추는 한편, 1969년 9월에 「폴리에스터/레이」混紡 1萬鍾를 경산공장에 건설하여 합섬부문에 진출하였다.

그러나 1960년대말의 극심한 不況은 三護, 内外紡織의 폐업(1967)과 大農으로의 이관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이 시기의 「미들 스트림」(middle-stream)에서는 직물공업이 꾸준히 늘어난 반면, 「메리야스」 공업은 상대적으로 위축기에 접어들게 된다.

1960년대 대구지역 섬유공업의 특징은 직물부분의 양적 팽창으로 지역공업구조에서의 위치가 더 확고히 된 반면, 전국 섬유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떨어졌다는 점이다. 또한 1962~1971년 기간 중에 섬유공업에 있어 특기할 만한 사실로는 섬유수출의 본격화를 들 수 있다. 이 기간중 10년간, 전국수출에서 차지하는 大邱의 비중은 2.2%에서 6.5%로 높아졌다. 더구나 수출참여업체수는 1962년에 불과 10여개에 지나지 않던 것이, 1971년에는 195개로 늘어나, 内需産業에서 수출산업으로의 전환노력이 가속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대구시의 수출실적을 품목별로 보면, 섬유공업제품이 90%내외를 차지하고 있으며, 섬유제품 중에는 對日 홀치기 수출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그 다음은 「나일론」직물, 絹織物, 「트리카트」地, 毛服地, 綿織物의 수출비중이 높았다.

다음으로 대구제품의 수출지역을 보면, 1970년 2개국에서 1971년 25개국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日本과 美國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어서, 이들 兩國에 대한 수출의존도는 항상 60%를 웃돌았다.

한편 1962년 7월에 通關業務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釜山稅關 大邱出場所가 1970년 8월 포항출장소를 흡수하여 大邱稅關으로 승격되었는데, 당시의 대구출장소는 섬유류의 수출과 内需 및 수출용 원자재인 「나일론」絲와 內需用 小麥의 수입물량을 주로 취급했다.

〈表 3-16〉 大邱稅關 通關輸出入額(1966~1971) (單位：천달러)

年 度	輸 出	輸 入	貿 易 收 支
1 9 6 6	3,275	1,539	1,736
1 9 6 7	15,513	21,384	△ 5,871
1 9 6 8	16,366	37,249	△ 20,883
1 9 6 9	23,370	44,206	△ 20,836
1 9 7 0	33,810	60,580	△ 26,761
1 9 7 1	45,000	71,271	△ 26,271

註：浦項出場所分 除外.

資料：韓國銀行, 《地域經濟統計》, 1972. 12, p. 29.

### 3) 機械·金屬工業

1960년대는 經濟開發計劃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機械·金屬工業界로서는 성장의 기운이 왕성하게 일어난 시기였다. 1次計劃期間 중에 韓國機械, 연합철강, 仁川製鐵등이 설립되고, 이어 2차계획기간 중인 1967년에 기계공업진흥법, 1969년에 전자공업진흥법, 1970년에 철강공업육성법 등이 제정되면서, 우리나라의 기계공업은 비로소 비약적인 발전의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이 시기는 大邱 기계·금속공업으로서도 여타산업에 비해 成長, 發展이 호조를 보여, 기계공업 업체수가 1962년의 216개에서 1971년에는 428개업체로 늘어나, 지역공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7.9%에서 22.1%로 크게 높아졌다. 그러나 당시 지역의 기계공업은 아직 內需 중심의 영세 중소기업수준을 벗어나지 못해 시설이나 규모, 생산품목면에서는, 타지역에 비해 상당한 낙후상을 보이고 있었다.

이하에서 1960년대 우리나라 기계·금속공업의 발전과정에서 대구 기계업계의 산업 특징을 요약해 보면<sup>8)</sup>, 첫째, 附加價値의 總量面에서는 증가가 나타났지만, 산업구조의 고도화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였다. 둘째, 전국 同業界에서 차지하는 부가가치의 비중이 1960년의 10.9%에서 1970년에는 3.8%로 급격히 하락하였다. 셋째, 기업규모면에서 他經濟圈에 비해 영세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았고, 그에 따라 施設投資가 미진하였고, 기술수준 또한 저수준에 머물고 있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1960년대 대구의 기계·금속공업은, 자동차·자전거부품공업을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의 분야에서 산업기반이 약하였다고 볼 수 있다.

8) 대구시, 《대구기계·금속공업의 실태분석과 개발방향》, 1973.

## V. 輸出主導成長期の 大邱 鑛工業(1972~1980)

### 1. 時代的 與件

1960년대의 한국경제는 對外指向의 공업화와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등에 개발계획의 중점을 두으로써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하였고, 이에 따라 경제규모도 크게 확대되었으며, 농업위주의 산업구조는 점차 2, 3차산업 중심으로 바뀌기 시작했음은 앞에서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와 우리 경제가 직면했던 주요과제는 (1) 균형적인 산업개발 (2) 기술 및 熟練勞動集約的인 산업의 육성 (3) 自力 성장구조의 실현과 확대균형 (4) 사회개발의 추진 등이었다.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제3차 계획기간(1972~1976)의 중점목표는 새마을운동을 주축으로 한 농어촌경제의 혁신적 개발, 수출의 획기적 증대, 중화학공업의 건설 등이 제시되었으며, 제4차 계획기간 중(1976~1981)에는 자력성장구조의 실현, 사회개발의 추진, 기술혁신과 능률향상이 그 중점목표로 등장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를 되돌아 보면, 1973년의 제1차 石油波動, 1979년의 제2차 석유파동이라는 불리한 세계경제 여건 속에서 자본, 인력, 기술, 시장의 제약을 무시한 중화학공업의 무리한 추진, 10月維新 이후의 정치권력의 硬直화와 官治金融, 1979년의 10.26사태에 따른 유신체제의 붕괴, 세계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우리 경제는 정말 힘든 한 年代를 보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1970년대의 대구경제는 위에서 본 국민경제의 동향에 보조를 같이 하면서도 인구의 급속한 증가, 공업화의 진전에 따른 시민소득의 향상과 산업구조의 개선, 섬유수출의 획기적인 증대와 流通産業의 근대화 등 많은 질적인 변화를 보였다. 그러나 공업구조가 景氣에 아주 민감한 섬유산업에 특화되어 있음으로써 1972년, 1974년과 1979년 등 세차례에 걸쳐 극심한 불경기를 겪었고, 그때마다 지역경제는 심한 진통을 겪었다. 더구나 인구증가율에 비하여 경제성장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하였고, 纖維一邊倒의 공업구조가 더욱 심화됨으로써, 大邱의 경제력은 상대적으로 더욱 약화되었다.

한편 大邱市の 인구는 1972년의 116만명에서 1980년에는 160만명으로 9년동안에 44만명이나 더 증가했다. 또한 대구경제력의 총량적 尺度가 될 수 있는 大邱市の 地域總生産(Gross Regional Product)의 추세를 보면, 통계이용이 가능한 1975년에서 1980년 사이에 연평균 7.0%의 성장률을 나타냄으로써 전국수준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산업구조면에서는 농림업이 1975년의 1.2%에서 1980년에는 0.5%로 낮아졌으며,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어비스」업도 58.6%에서 55.8%로 다소 낮아진 대신, 광공업의 비중은 40.2%에서 43.7%로 더욱 높아졌다.

〈表 3-17〉 國內經濟 主要指標(1970年代)

區 分	單 位	1972	1973	1975	1977	1979	1980
G N P 總 規 模 (GNP 成長率)	經常, 억원 1975年不變, %	41,540 (5.8)	53,785 (14.9)	100,922 (7.1)	181,154 (10.3)	312,487 (6.4)	366,723 ( 5.2)
1 人 當 G N P	經常, 원 달 러	123,982 316	157,712 396	286,053 591	497,512 1,028	832,544 1,662	769,076 1,589
產 業 構 造 (對 GDP)	經常,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農 林 漁 業	〃	26.4	24.5	24.4	22.0	18.5	14.6
鑛 工 業	〃	23.1	25.8	27.1	28.6	28.7	30.9
(製 造 業) <sup>1)</sup>	〃	(22.1)	(24.8)	(26.0)	(26.8)	(27.5)	(29.6)
SOC 및 기타「서비스」		50.5	49.7	48.5	49.4	52.8	54.5
經 常 收 支 (經常)	백 만 달 러	371	309	1,887	12.3	4,151	5,321
貿 易 收 支	〃	573.9	566.0	1,671.4	476.6	4,396	4,384
商 品 輸 出	〃	1,624	3,225	5,081	10,047	15,056	17,505
(前年比增加率)	%	(52.1)	(98.6)	(13.9)	(30.2)	(18.4)	(16.3)
商 品 輸 入	通關基準, CIF	2,522	4,240	7,274	10,811	20,339	22,292

註: 1) 產業構造 중 製造業比重은 GNP를 기준으로 한 것임.

2) 商品輸出入은 通關基準으로 輸出은 FOB, 輸入은 CIF基準임.

資料: (GNP) 韓國銀行, 《韓國의 國民所得》, 1982. pp.15~17. 《國民所得推定》, 1984.

(產業構造) 韓國銀行, 《國民所得推定》, 1984.

(經常收支) 經濟企劃院, 《韓國統計年鑑》, 1979. p. 262, 1981. p. 272.

(商品輸出入) 經濟企劃院, 《韓國統計年鑑》, 1981. p. 243, 1986. p. 243.

대구 GRP가 전국 GN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75년의 4.3%에서 1980년에는 4.1%로 낮아졌으나, 대체적으로 4%내외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주민 1인당 GRP는, 1976년부터 전국수준을 밑돌기 시작하였으며, 주민 1인당 GRP의 연평균 증가율도 전국수준 5.5%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2.1%에 머물러 大邱市民의 所得水準이 상대적으로 低位에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 2. 鑛工業 現況

### 1) 纖維工業

1970년대들어서도 大邱의 섬유공업은 사업체, 종업원수, 부가가치면에서 그 비중이 오히려 상승되었거나, 保合勢를 유지, 主宗產業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즉 1981년 현재 섬유공업이 역내공업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업체수면에서 50.1%, 종업원수 59.1%로 搖之不動이다.

몇차례의 불황을 겪으면서도 업체수는 늘어났고, 시설은 더욱 확충되었던 것이다. 1972년에서

1981년까지 10년동안 대구시내에 증설된 1만 1,810개 공장 중 섬유공업은 6,042개로 51.2%나 차지하였다.

大邱의 섬유업계는 1970년에 들어 정부의 강력한 輸出「드라이브」政策에 힘입어 대부분의 기업이 수출품의 생산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1980년에 들어서 더욱 심화되어 輸出依存度가 80%를 넘어서게 되었으며, 그 결과 해외시장의 수요변화는 대구섬유업계는 물론 지역경제 전반에 걸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와 같이 수출의 급격한 증대에 따라 판매와 생산사이에 분업관계가 뚜렷해지고, 大邱의 中小織物業者들은 原絲「메이커」나 대형수출업체 및 종합무역상사의 下請 賃織業體로 轉化되었다.

한편 직물업계의 主宗製品을 보면, P/C 混紡織物은 1970년대에도 계속 제작되고 있으나, 「나일론 다후다」는 「폴리에스터 조젯트」(갈갈이, 쿨론)쪽으로 王座를 물려주게 되고, 같은 합纖織物이면서도 「폴리에스터」絲를 원료로 하는 제품이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1970년대에는 직기의 성능면에서도 비약적인 발전이 있었다. 즉, 종전까지의 手·足踏機時代에서 완전히 벗어나, 「원 터치(one touch) 직기나 自動化施設(Shuttleless WJL, Rapier 등)이 대량 도입되었는데, 이러한 최신시설의 도입은 제품의 고급화나 차별화에 크게 기여했다기 보다는 小品種 大量生産體制를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는 데에 지역업계의 脆弱點이 있다.

그리고 이 기간 중 原絲를 생산하는 「업 스트림」부문이 강화되었다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 되겠다. 즉 綿紡部門에서는 嶺南紡織(1973년), 甲乙紡織(1976년) 등이 새로 입지했으며, 대구 주변 지역에 「폴리에스터」공장과 潤成紡織(1973년), 東國紡織(1976년), 第一合纖(1974년) 등이 들어섰다. 이를 통해 대구지역은 최종 제품부문인 縫製工業을 제외하면, 섬유산업의 거의 모든 업종이 골고루 입지하여 우리 나라 최대의 纖維產地일 뿐만 아니라, 세계 최대의 합纖織物基地를 형성하게 되었다.

한편 1950년까지 전국 제일을 자랑하던 「메리야스」업계는 1970년대 들어서는 域外 大企業의 시장침투가 더욱 가속화되어 영세기업 중심의 지역업계는 存立基盤 자체가 큰 위협을 받았다.

### 3. 機械金屬工業

한편 기계·금속공업은 1970년대에 들어와 섬유기계와 공작기계 등을 중심으로 품질향상 및 海外市場開拓이 이루어지고, 국내 자동차공업의 발달에 따른 自動車部品工業의 급속한 신장 등 제품생산면에서는 다양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전반적인 업종구성은 여전히 종래의 「패턴」을 벗어나지 못한 가운데, 성장업종의 유치나 성장주도적 대기업의 설립 등, 同業界의

획기적 발전을 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지는 못했다.

더구나 1970년대에 들어 浦項의 鐵鋼産業基地와 龜尾의 電子工團 등 대규모 공업단지가 건설됨에 따라 慶北道의 공업구조는 크게 변모되었고, 1974년 背後地域인 昌原에 기계공업단지가 조성되었으면서도, 大邱 기계·금속공업의 일부 업종은 오히려 위축되는 현상마저 보였다. 물론 포항제철의 설립은 원료확보의 용이, 수송원가의 절감 등 외부효과를 증대시키는 계기가 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 背後工業地域과의 연계성을 살려 系列化 및 協力體制를 구축, 지역산업의 발전을 기해 나간다는 지역 경제계의 당초 기대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大邱의 기계·금속업계의 생산구조가 과거에는 농기계공업이 중심이었으나 근래에는 섬유기계 생산업이 주축이 되었고, 이와 함께 자동차부품, 洋食器, 안경테 등 수출제품 생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과거 大邱가 주산지였던 농업용 機械·器具생산업은 大同工業이 晋州로 이주하고 서울의 동양물산이 최신설비를 갖추게 됨으로써 이 기간중 大邱의 同業種의 전국비중은 낮아졌다.

섬유기계 및 부품 생산업은 대구가 직물산지라는 유리한 立地條件에 힘입어, 1980년 현재 전국 생산량의 16%에 이르는 量的 확대를 하였으나 시설·기술 등은 그 여전에 비추어 크게 낙후되어 있다. 세계적인 직물공업의 產地에 직기공업의 발전이 매우 낙후되었다는 것은 산업정책의 관점에 있어서 큰 문제의 하나로 지적될 수 있다.

#### 4. 工業團地의 造成

1960년대에 처음 조성된 제3공업단지가 1972~1973년 사이에 본격적으로 가동이 이루어졌고, 1970년대에는 西大邱工團, 檢丹工團, 飛山染色工團이 잇따라 조성되었다. 이처럼 1970년대에 조성된 공업단지는 의도적으로 추진되어 종전의 自由立地에서 벗어나 공업화가 진행되었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

흔히 梨峴工團으로 불리어지는 서대구공업단지는 用途地域 위반공장을 집단화하여, 公害防止 및 기업의 系列化를 유도할 목적으로 조성되었다. 이 단지는 1, 2차로 나누어 조성되었는데, 총면적이 73만평으로 大邱市の 공업단지 중 市有地로는 그 규모가 가장 큰 도시형 內陸工業團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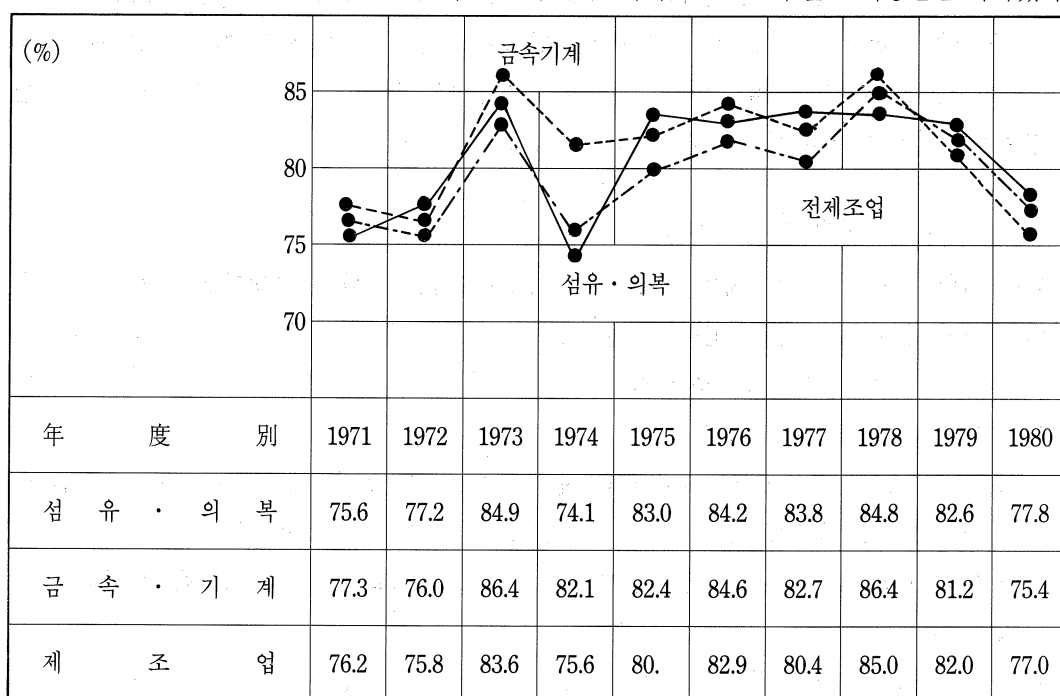
다음으로 1975년 12월에 완공된 檢丹工業團地는 섬유공업 전문화단지라 볼 수 있다. 이 단지는 섬유공업도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고용증대 및 소득향상을 목적으로 조성되었으나 단지 이전이 고려되고 있다.

국내 최초의 염색전용 전문화단지인 飛山染色工團은 1978년 5월부터 조성에 들어가, 1981년에 거의 입주가 완결되었다. 이 단지는 대구시내에 산재해 있는 염색업체들을 集團化하여 公害要因의 효율적 처리와 시설확장 및 근대화로 섬유제품의 질을 높여 국제경쟁력을 提高할 목적으로 조성되었다. 이 단지는 총부지 22만 1천평에 입주업체는 82개이다.

아무튼 1960년대 이후 본격적인 공업단지의 조성은 大邱의 공업발전과 시설이 근대화해 큰 밑거름이 되었다. 그러나 공단입주업체의 대부분이 섬유공업이고, 이들은 대부분 최신 시설의 도입과 증설을 도모함으로써 纖維一邊倒의 공업구조를 더욱 심화시켰다고 하는데 산업구조고도화의 점에서는 문제의 소지가 있었다.

## 5. 景氣動向과 財務構造

한편 1970년대 대구시내 중형제조업의 가동상황을 보면 <圖 1-1>과 같이 나타났는데, 경기변동상황이 잘 나타나고 있다. 즉, 1972년에는 1960년대 후반부터의 불황「터널」에서 벗어나 모처럼 景氣回復局面에 들어섰고, 1973년 3/4분기에는 85.1%의 높은 가동률을 나타냈다.



註：分期別 調査結果를 單純平均한 稼動率(%)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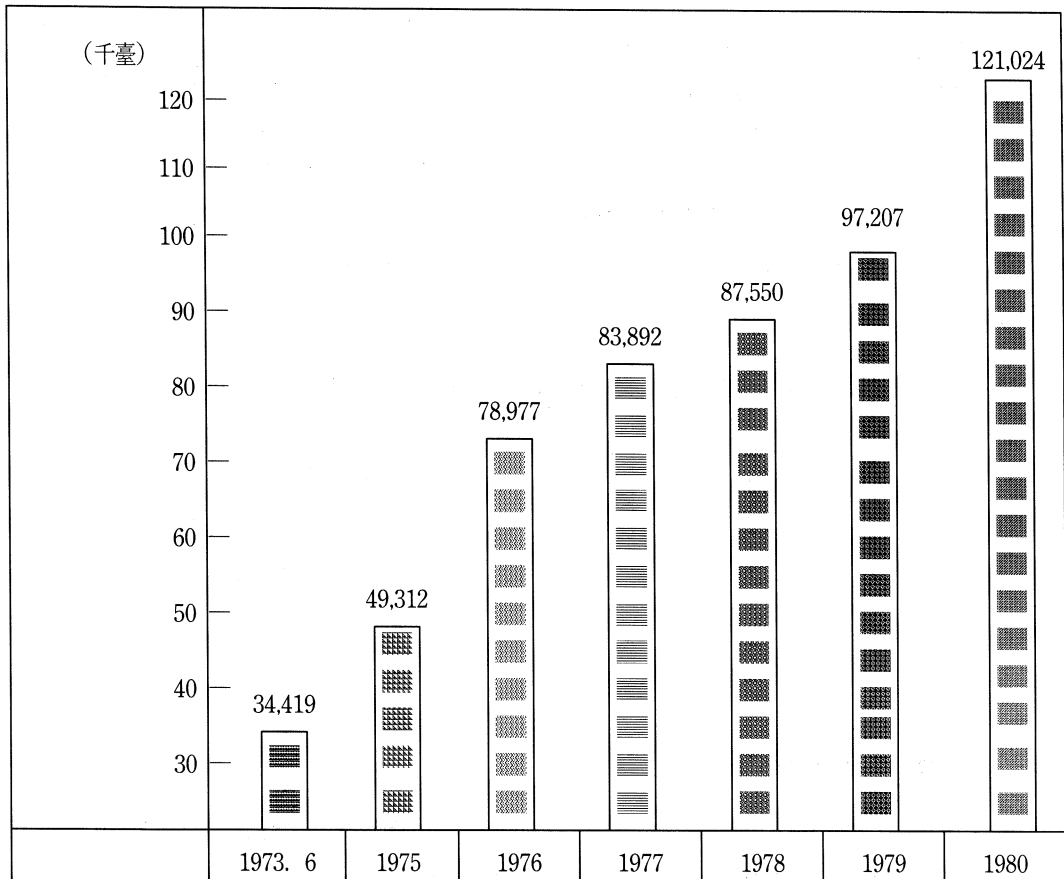
資料：大邱銀行 經營資料室 資料.

<圖 3-1>

大邱地域 製造業體의 稼動率 推移(1971~1980)

1979년에 접어들면서 景氣循環局面에 따라 하향세를 그리기 시작했고, 동년 10월의 제2차 석유파동은 대구업계에 치명타를 가했다. 이러한 경기의 下降局面에 호황기에 發注했던 기계시설이 들어와, 대구지역의 직기는 1978년의 8만 7천여대에서 1979년에는 9만 7천여대로 1만대나 늘어났다. 더구나 이들 직기 가운데는 재래직기의 4~5배 성능을 가진 최신기계(WJL)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다. 이와 같이 불황 속에 기계설비의 대폭적인 확장은 경기 침체현상을 더욱 심화시켰다.

1980년에 들어와서도 경기침체가 지속되었으나 同年 3/4분기를 기점으로, 서서히 회복기미를 보이기 시작하였으나, 1978년 수준에는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었으며, 과거 호황기를 누렸던 대다수 기업인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더욱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



資料：大邱銀行, 《大邱地域 經濟分析》, 1980. 1~2, p. 78.

慶尙北道, 大邱直轄市 工業課.

〈圖 3-2〉

大邱地域 纖維業界의 織機增設 推移



한편 대구제조업(12월말 결산법인기준)은 자본의 투자효율이나 부가가치율에서 1970년대 이후 최근에 이르기까지 전국 평균수준을 한번도 웃돌아본 적이 없다. 즉, <表 3-18>을 통해 보면, 1978년 현재 대구공업의 總資本投資效率(부가가치/총자본)은 22.2%로서 전국 제조업 평균 30.8%보다 약 8.6%포인트나 떨어지고 있으며, 附加價值率(附加價值/賣出額)에 있어서도 전국 제조업 평균 24.6%에 비해 3.3%포인트나 낮은 21.3% 수준에 머물고 있다.

<表 3-18> 大邱 및 全國 製造業의 生産性 推移 (單位: %)

區 分	總資本投資效率		附加價值率	
	1974	1978	1974	1978
大 邱	7.6	22.2	10.8	21.3
全 國	25.7	30.8	21.9	24.6

資料: 韓國銀行, 《企業經營分析》, 各 年度

大邱銀行, 《大邱地域 經濟分析》, 各 年度

또한 대구공업의 財務構造는 1970년대 중반 이후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다. 이는 <表 3-19>에서 보듯이, 전국제조업의 自己資本比率(자기자본/총자본)이 1974년의 24.0%에서 1978년에는 21.4%로 불과 2.6%포인트 낮아진데 비해, 대구 제조업의 자기자본비율은 같은 기간 동안 21.6%에서 13.4%로 무려 8.2%포인트나 낮아진 사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1978년 현재 대구 제조업의 부채비율(부채/자기자본)은 647%로서 전국수준 367%의 2배를 기록할 정도로 타인자본 의존도가 매우 높아 지역기업의 재무체질이 매우 허약한 실정이다.

<表 3-19> 大邱 및 全國 製造業의 安全性 및 收益性 推移 (單位: %)

區 分	自己資本比率		負債比率		總資本經常利益率	
	1974	1978	1974	1978	1974	1978
大 邱	21.6	13.4	362.1	647.0	1.8	3.9
全 國	24.0	21.4	316.0	366.8	5.7	5.0

資料: <表 3-18>과 같음.

그리고 大邱는 투자자본에 대한 수익률도 전국수준에 미치지 못해 기업의 경영환경이나 立地條件이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한 수준에 있음을 <表 3-19>는 역시 잘 나타내 주고있다.

## 6. 輸出伸張의 鈍化

1960년대에 연평균 60%이상의 신장률을 나타냈던 大邱의 수출은 1970년대에 접어들어 신장세가 크게 둔화되었다. 1972년에 1억달러를 넘어섰던 大邱의 수출실적은 1981년에는 10억달러를 육박하여, 10년 동안에 7.6배의 양적 팽창을 보이긴 했으나, 연평균 증가율이 28.4%에 그침으로써 동기간 중 전국의 연평균 증가율 36.8%를 크게 밀돌았고, 이에 따라 大邱 수출의

전국비중도 이 기간 중 7.8%에서 4.6%로 현저히 떨어졌다.

이러한 大邱 輸出의 신장률 둔화와 전국비중의 하락현상은 大邱의 공업구조 내지 수출구조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다. 즉, 大邱의 공업화가 1960~1970년대를 통해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진하였고, 공업구조와 수출구조가 纖維一邊倒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石油波動등 해외요인의 충격을 가장 크게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 중 전국의 수출구조는 輕工業偏重 體制에서 벗어나 중화학제품의 비중이 50%선으로 향상되었는데 반해, 大邱의 경우는 섬유류의 수출비중이 90%에서 81%선으로 소폭 낮아졌을 뿐이다.

한편 1970년대에는 섬유수출의 내부구조에서도 변화가 일어나, 홀치기와 絹織物製品의 비중이 크게 낮아지 대신, 합섬직물의 비중은 급격히 증대되었다. 합섬직물의 수출이 두드러진 신장세를 보인 데에는 1970년에 들어 中東地域에 대한 수출시장의 문이 점차 넓어지고, 「나일론 다후다」, 「조켓트」 등이 홍콩을 통한 第3國輸出 및 美國으로 輸出이 크게 늘어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섬유류 중에는 양말, 쉼터, 타올, 메리야스 등과 같은 編織物을 비롯하여, 刺繡織物 등도 수출실적면에서 다소의 기록은 있었으나, 대구지역 수출에 일익을 담당했다.

## VI. 直轄市昇格 以後의 大邱鑛工業(1981~1991)

### 1. 時代的 與件

1970년대의 고도성장으로 전세계의 각광을 받았던 우리 경제는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어려운 고비를 맞이하게 되었다. 즉 대외적으로는 선진제국의 保護貿易主義와 국제금융시장의 불안 등이 우리의 대외지향적 개방경제정책에 많은 制約을 가하게 되었으며, 대내적으로도 과거 政府主導의 성장위주정책에서 벗어난 우리경제의 왜곡현상이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阻害하는 요인으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의 국내경제는 1980년에서 1986년까지 7년동안 年평균 6.4%의 성장을 이룩함으로써, 1986년 중 국민총생산(GNP)은 1980년의 2.3배로 늘어났고, 1인당 GNP도 1980년의 1,589달러에서 1986년에는 2,296달러로 늘어났다. 특히 1970년대 이후 1981년까지 줄곧 두자리 수의 높은 「인플레이」를 보였던 국내물가는 1982년에 접어들면서 이른바 한 자리 수의 物價上昇에 그치는 등 현저한 안정추세를 보였다.

또한 1980년에 175억달러를 기록했던 상품수출은 年평균 12.9%의 신장률을 나타냄으로써

1981년에 200억달러를 돌파한데 이어, 1985년에는 300억달러를 넘어섰으며, 1986년에는 347억달러를 기록하였다. 이에 반해 상품수입은 제2차 石油波動 이후 국제원자재가의 안정과 輸入代替財의 개발노력으로 연평균 6.8% 증가에 그쳤다.

한편 1980년대 이후 중화학공업 건설을 통한 산업구조의 고도화 등의 산업구조개편의 노력에 따라, 전산업에 대한 鑛工業의 비중 또한 1980년의 30.9%에서 1986년에는 31.4%로 높아졌으며, 제조업 중 중화학공업의 비중도 51.0%에서 1985년에는 54.3%로 제고되었다.

이러한 國內經濟의 흐름 속에서 大邱는 1981년 7월 1일을 기해 直轄市로 昇格되었고, 그에 따라 행정구역, 인구 등 도시규모가 크게 확대되면서, 행정·재정·경제적으로 그 기능이 강화되고 국가경제에 대한 지위도 높아졌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 성장과 더불어, 大邱의 都市化가 급진전되면서 地價上昇등 大都市의 역기능이 점차 불거져, 脫製造業化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데 반해, 3차산업은 消費性「서비스」산업이 증대하여 산업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中樞管理機能은 상대적으로 미약하여, 실질적인 경제력은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大邱는 인구 230만의 대도시로서 그 외형만으로 볼 때는 서울, 釜山 다음가는 廣域大都市의 모습을 띠고 있다. 그러나 경제력을 중심으로 한 주요 지표들을 살펴보면 그 내용이 부실할 뿐만 아니라 비교가능한 여타 국내 대도시에 비해서도 뒤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1981년 7월 1일 大邱市의 법적 지위가 종전의 普通市에서 直轄市로 승격된 것은 大邱發展史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그것은 市域의 팽창이라는 측면 보다는, 오히려 인구가 160만명이 넘는 대도시이면서도 불합리한 法的地位 때문에 시민들의 경제활동에 비능률과 낭비가 따르고 도시발전이 상대적으로 정체될 수 밖에 없었던 제도적 굴레에서 벗어나, 산업경제·사회 등 모든 부문에서 自生的인 발전의 기틀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직할시 승격과 더불어 大邱는 영남생활권의 成長據點都市로서 사회문화적으로 많은 발전과 변화를 거치는 가운데 양적 성장이 더욱 가속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大邱의 경우 지역경제기반의 취약성으로 인해 주민소득 창출력은 전국 평균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大邱의 地域總生産(GRP)와 주민 1인당 GRP는 1980년대를 통해 급속한 伸張勢를 보였다. 즉, 1981년에 1조 9천억원이었던 대구지역의 GRP가 5년후인 1986년에는 3조 8,037억원으로 거의 2배의 성장을 시현, 6년동안에 약 2배 수준으로 커졌고, 1인당 GRP도 이 기간 중 대구지역의 경우 1,053달러에서 1,819달러로 늘어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인당 시민소득은 1970년대 이후

항상 전국 평균수준을 밑돌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1993년말 현재까지도 그대로 계속되고 있다.

한편, 지역총생산(경상가격)을 기준으로 본 大邱의 산업구조는 1985년에 정부 및 민간 비영리「서비스」부문을 제외한 지역산업부문의 총생산액 2조 9,657억원 중 농림어업이 1.6%, 鑛工業이 32.9%, 그리고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이 65.5%를 각각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1981년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1,2차산업의 비중은 다소 낮아진 반면, 3차산업의 비중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구경제의 「서비스」화’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지표가 될 수 있다.

統計廳이 1993년 5월 중 발표한「1985~1991년 道別 總生産」에 따르면 이 기간 중 大邱는, 주중산업인 섬유업종의 부진으로 전반적으로 성장·둔화현상을 보이는 가운데 건설업과 금융보험업 등 서비스업은 비교적 높은 성장세를 나타냈다. 그 결과 1991년 總生産 규모는 8조 4,900억원으로 전국 8위를 차지했으나 전국대비 비중은 4.1%로 인구구성비(5.1%)에 못미쳤고 1인당 생산액도 381만 5천원으로 전국 14위에 그쳤다. 이에 따라 1인당 생산수준도 79.6으로 전국 15개 시도중 忠南 다음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1985~1991년 중 經常成長率은 9.6%로 전국평균(10.8%)에 근접했으나 섬유업종의 침체가 가속화된 1989년부터 성장세가 급격히 둔화되기 시작해 지난 1991년에는 전국 평균(8.9%)의 절반 수준인 4.7%로 떨어졌다.

한편 大邱의 産業別 就業構造를 보면, 1989년 현재 총취업자 79만 5,650명 중 농림어업이 2만 6,842명으로 3.4%, 광공업이 26만 7,537명으로 33.6%,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이 50만 1,271명으로 63.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결국 산업구조 뿐만 아니라 就業構造面에서도, 大邱는 都市化의 진전과 더불어 3차산업의 비중이 높아, 先進國의 대도시가 지니고 있는 산업구조 형태를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내용과 질을 보면, 2차산업의 경우, 지나친 纖維 一邊倒의 공업구조에다가 높은 下請生産 依存度와 저생산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3차산업의 경우도, 도시의 中樞管理機能과 貿易·金融·情報 등 高附加價値의 전문적 생산「서비스」산업은 빈약하고, 반면에 단순 소비지향적인 상업「서비스」부문만 異常 비대해지는 등 3차산업이 비효율적으로 성장해 건전한 도시형 산업구조라고 말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表 3-20〉 地域別 主要指標(1991年 基準)

區 分	單 位	서 울	釜 山	大 邱	仁 川	光 州	大 田 <sup>2)</sup>
總 生 產(經常)	십 억 원	51,102	15,762	8,490	10,089	4,859	5,024
(全國 對比 構成比)	%	(24.6)	(7.6)	(4.1)	(4.9)	(2.3)	(2.4)
經 濟 成 長 率(不變)	%	6.5	4.8	4.7	8.9	3.8	10.7
(年 平 均) <sup>1)</sup>		(9.9)	(8.3)	(9.6)	(12.0)	(11.7)	—
生 產 構 造 (經常)	%						
農 林 漁 業		0.7	2.8	0.6	1.1	2.2	1.3
鑛 工 業		14.4	29.7	33.2	52.5	32.5	33.2
(製 造 業)		(14.4)	(29.7)	(33.2)	(52.3)	(32.5)	(33.1)
建設 및 電氣·가스·水道業		11.2	13.3	14.9	14.6	16.0	16.9
서 비 스 業 및 其 他		73.7	54.2	51.3	31.8	49.3	48.6
1 人 當	千 員	4,822	4,166	3,815	5,471	4,268	4,771
總 生 產	달 러	6,573	5,679	5,201	7,458	5,818	6,504
人 口	千 名	10,597	3,784	2,225	1,844	1,139	1,053
(全國對比 構成比)	%	(24.5)	(8.7)	(5.1)	(4.3)	(2.6)	(2.4)

註: 1)은 85~91년간 年平均임.

2)는 行政區域變更으로 年平均成長率 未集計.

資料: 統計廳.

## 2. 鑛工業 現況

### 1) 鑛工業體 現況 및 構造

大邱의 2차산업(공업)은 1910~1950년의 移植期, 1950년대의 기반조성기, 1960년대의 성장기, 1970년대의 상대적 침체기, 1980년대의 조정기를 거치면서 섬유산업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이러한 변화추이는 우리나라의 공업이 중화학공업화 단계로 進入할 때에도, 大邱는 유독 섬유공업 중심의 경공업위주로 발전해 온 데 그 원인이 있다. 이는 결국 지역공업의 成長·發展力을 약화시킨 主要因이 되어 공장수의 전국비중을 보면 1975년에 10.4%이던 것이 1981년에는 9.4%로 낮아졌고, 1989년에는 다시 7.1%로 떨어졌다. 附加價值도 1975년의 5.0%에서 1989년에는 4.0%로 낮아졌다. 결국 1960년대 이후 大邱의 공업은 양적 팽창을 거듭해 왔지만

직물 중심의 섬유공업과 영세하고 생산성이 낮은 기계금속업이 대종을 이룸으로써, 제조업의 생산기반이 상대적으로 크게 낙후된 것이다.

〈表 3-21〉 大邱 工業의 變遷推移 (單位：個，名)

年 度	企 業 體 數			從 業 員 數		
	纖 維 業	非 纖 維 業	計	纖 維 業	非 纖 維 業	計
1945	19	908	927	373	9,821	10,194
1950	70	1,377	1,447	1,450	12,880	14,330
1955	521	1,106	1,627	16,693	16,926	33,619
1960	599	632	1,231	19,929	8,455	28,384
1965	707	755	1,462	30,214	18,031	48,245
1970	971	1,115	2,086	37,460	26,322	63,782
1975	763	1,596	2,359	44,230	32,321	76,551
1980	1,439	1,098	2,537	49,853	33,514	83,367
1985	1,702	1,876	3,537	92,669	59,712	152,381
1988	2,066	2,476	4,542	103,704	79,829	183,533
1989	2,054	2,601	4,655	97,047	79,744	176,791
1990	2,045	2,780	4,825	89,046	75,451	164,497

資料：大邱市，《大邱統計年報》，各 年度

經濟企劃院，《鑛工業 統計調查報告書》，各 年度

이에서 볼때, 大邱는 6.25를 거치면서 우리 나라 산업시설의 70%가 파괴되는 가운데서도 大邱地域은 戰爭의 피해를 입지 않고, 전쟁 중 兵站基地 역할을 수행하여 바로 지역의 직물업이 비약적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大邱의 이와 같은 공업적 지위는 1970년대 중반 이후 정부의 重化學工業政策의 선언과 더불어 우리 경제가 점차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이행하면서 이 시기 전략산업인 전자, 자동차, 조선, 기계, 석유, 화학 등이 龜尾, 蔚山, 昌原, 여천 및 임해지역에 집중적으로 육성된데 반해, 大邱는 경공업의 공급기지로 그대로 남아, 정부의 산업육성정책의 受惠를 상대적으로 적게 받음으로써 지역 산업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한 점도 없지 않았다.

한편 1980년대에 들어서는 세계경제의 「글로벌」화로 해외시장에서의 경쟁이 더욱 격화되는 한편 국내적으로도 임금상승 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때로는 원화절상까지 겹쳐 지역공업의 성장속도가 더욱 둔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大邱市는 1980년대 후반부터 纖維偏重의 단선적인 지역 산업구조를 발전적으로 개편하고 국제화시대에 대비한 첨단산업도

시로 탈바꿈하기 위해 城西에 科學産業研究團地를 조성, 지역산업의 발전을 先導해 나가게 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경쟁력 提高 및 성장잠재력의 확충을 期待하고 있다.

〈表 3-22〉 工業의 業種別 成長推移 (單位: 個, 名 百萬원)

年 度	計		織 維		機 械		化 學		其 他		工業生産額 (經常價格)
	工場	從業員	工場	從業員	工場	從業員	工場	從業員	工場	從業員	
1 9 8 1	3,028	144,713	1,570	98,183	730	26,305	188	4,948	540	15,277	1,851,852
1 9 8 2	3,028	144,713	1,570	98,183	730	26,305	188	4,948	540	15,277	2,104,147
1 9 8 3	3,606	148,190	1,698	94,706	968	28,781	233	5,229	707	19,474	2,246,056
1 9 8 4	3,521	151,691	1,682	94,432	840	25,126	222	5,096	811	27,037	2,563,948
1 9 8 5	3,578	152,381	1,702	92,669	917	29,404	215	4,015	744	26,293	2,701,961
1 9 8 6	3,996	171,700	1,952	103,154	1,025	36,369	254	5,006	765	27,171	3,297,974
1 9 8 7	4,326	184,359	2,037	108,130	1,236	42,124	276	6,423	777	27,682	4,165,191
1 9 8 8	4,542	183,533	2,066	103,704	1,383	45,438	285	6,391	808	28,000	4,915,730
1 9 8 9	4,655	176,791	2,054	97,047	1,623	52,220	296	6,584	682	20,940	5,079,521

資料: 大邱市 工業課

1989년 현재 大邱의 종업원 5인 이상의 工場數는 4,655개, 공장노동자수는 약 18만명, 工業附加價値는 2조원으로 전국 비중의 4.2%에 이르고 있으며 중화학공업의 비율도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한편 1981년도에서 1989년에 이르는 9년 동안에 대구지역의 공장수는 3,028개에서 4,655개로 늘어나 53.7%, 종업원수는 14만명에서 18만명으로 28.5%, 생산액은 1981년 1조 8,000억원에서 5조 1,000억원으로 183.3% 증가했다. 그러나 大邱工業의 이러한 양적 성장도 동 기간 중의 全國工業의 성장수준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1989년 현재 大邱工業의 연간 附加價値創出額은 약 2조원으로 對全國比重이 4.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제조업의 업종별 구성을 중심으로 대구공업의 구조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大邱의 공업은 누차 지적되는 얘기지만, 섬유공업 특히 직물공업의 偏重度가 높은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즉, 섬유공업이 지역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1989년 현재 사업체수에서 44.1%, 종업원수에서는 54.9%, 附加價値 면에서는 46.1%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섬유업이 지역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잘 알 수 있다.

둘째, 규모의 영세성과 기업경영형태의 낙후성을 들 수 있다. 즉 제조업체를 규모별로 보면, 종업원 300인 이상의 대기업은 63개 업체로 전체의 1.4%에 불과한 반면, 중소기업은 4,592개

업체로 전체의 98.6%에 달하고 있다. 그리고 경영형태면에서는 個人企業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말하자면 대구는 전형적인 中小企業都市인 것이다.

〈表 3-23〉 大邱 製造業의 業種別 現況(1989年)

區 分 業 種 別	事 業 體 數		從 業 員 數		附 加 價 值	
	個	%	名	%	百萬元	%
飲 食 料 · 담 배	100	2.1	6,339	3.6	292,336	13.4
纖 維 · 衣 服 · 가 죽	2,054	44.1	97,047	54.9	1,005,304	46.1
나 무 및 나 무 제 품	132	2.8	1,558	0.9	13,960	0.6
종 이 · 印 刷 · 出 版	197	4.2	5,109	2.9	65,869	3.0
化 學 · 고 무 · 플라스틱	296	6.4	6,584	3.7	89,396	4.1
非 金 屬 鑛 物	73	1.6	2,125	1.2	43,203	2.0
第 1 次 金 屬	120	2.6	6,444	3.6	98,728	4.5
組立金屬 · 機 械 · 裝 備	1,503	32.3	45,776	25.9	521,044	23.9
其 他	180	3.9	5,809	3.3	50,489	2.3
計	4,655	100.0	176,791	100.0	2,547,358	100.0

資料：經濟企劃院，《鎭工業統計調查報告書》，1991，2.

셋째, 대구의 제조업이 지닌 특성 중의 하나로 下請貨加工生産의 比重이 높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대구지역 제조업의 委託生産比重(委託生産費/生産費×100)을 보면, 1989년 중 13.6%로 전국 제조업의 同比率 5.4%에 비해 2.5배나 높고, 14개 시도 중에서는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出荷額에서 차지하는 受託製造收入額의 비중(受託製造收入額/出荷額×100)은 대구제조업이 15.0%로 전국의 3.2%보다 4.7배나 높다.

넷째, 이와 같은 지역공업의 구조적 문제점으로 인하여, 地域 主軸工業의 생산성과 附加價值 창출능력이 자연히 미약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이자 문제점으로 추가된다.

예컨대 대구지역 제조업의 1인당 연간 생산량은, 1989년 중 2,873만원으로 전국 제조업의 4,799만원에 비하면 59.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1인당 연간 부가가치도 대구 제조업이 1,234만원으로 전국 제조업(1,777만원)의 69.4%에 그쳤다. 제조업의 경영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有形固定資産 投資比率 또한 전국 제조업 평균치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 2) 纖維工業

대구지역은 絲, 織物, 메리야스 이외에도 염색가공, 撚絲, 加糊, 縫製 등 素材部門에 이르기까지



여러 업종을 포괄하고 있는 대규모 섬유종합단지이며, 특히 合纖 强撚絲織物의 경우에는 세계 최대의 생산지가 되고 있다. 직물로 대표되는 대구지역 섬유산업은 그 소재를 기준으로 할 때 絹織物時代, 綿織物 및 人絹織物時代, 合纖織物時代의 순으로 변천해 왔다. 대구지역의 섬유산업은 1980년대 초에 성숙화 단계에 접어든 이후에도 成長과 試鍊을 거듭하여 왔다.

지역섬유 산업은 제2차 石油波動에 의한 세계적인 불황, 섬유소비량의 鈍化 및 수요패턴의 변화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으며, 특히 1988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원화의 평가절하, 勞使紛糾에 따른 임금인상,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국내외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경쟁력이 더욱 약화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지역섬유산업은 시설의 자동화, 省力化를 꾸준히 추진, 1981년부터 1989년까지 업계의 총고용인원이 9만 8,183명에서 1989년에는 9만 7,047명으로 줄어든 데도 불구하고 생산액은 1조 78억원에서 2조 3,414억원으로 2.3배 증가되었다.

### 3) 機械·金屬工業

1980년대 이후의 大邱의 기계·금속제조업체수는 1981년도의 730개 업체에서 1989년 현재 1,503개 업체로 2.1배 증가하였으며, 1989년 현재 종업원수는 4만 5,776명으로 지역 전제조업의 25.9%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생산액은 1981년 1,907억원에서 1989년에 2조 7,428억원으로 지역제조업 생산액의 54%이며 對 全國 비중은 4.1%이다. 반면 부가가치 비중은 24.4%로 나타나 타업종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表 3-24〉 機械·金屬工業 成長推移 (單位: 個, 名, 백만원)

區 分	業 體 數	從 業 員 數	生 產 額	附 加 價 值
1 9 8 1	730	26,305	190,776	85,006
1 9 8 3	968	28,781	268,561	116,785
1 9 8 5	1,011	34,122	528,293	214,656
1 9 8 7	1,331	47,915	1,031,288	410,451
1 9 8 9	1,503	45,776	2,742,823	521,044

資料: 大邱市, 工業課

### 4) 其他 工業

화학공업은 소규모의 설비와 축적된 지식, 기술을 이용하여 다단계의 공정을 거쳐 제품을 생산하는 공정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화학공업은, 본격적인 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1970년대 이전에는 주로 의약품, 합섬염료의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그 대부분의 화학제품을 해외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다.

그 후 1980년대 초반부터 정밀화학공업의 전 공정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원자재 합성기술에 대한 모방이 일부 업체를 중심으로 활성화되었으며, 농약 등의 50%가 국산화됨으로써 수입대체 효과가 급속히 이루어져 발전의 기틀이 확립되었고, 그에 따라 업체수도 상당히 늘어나, 지역의 化學業界 총사업체수는 1991년말 현재 927개 업체에 이르러 전국의 6.7%를 점하고 있다.

섬유, 화학, 기계, 금속을 제외한 기타 부문에 있어서는 1960년대 초기부터 설탕, 조미료, 안정, 양산, 제분업과 도입 원물에 의존하는 製材, 合板 製造業과 製紙 등이 주종이었고, 그외는 인쇄, 가발 등 잡화공업이 다양하게 분포되고 있었다. 그러나 1970년대 후기에 들어서면서부터 제지, 가발 등이 斜陽化되었고, 더우기 지역공업이 섬유일변도로 성장함에 따라 여타 산업은 그 발전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지역경제의 균형발전을 鈍化시키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 5) 工業團地

대구의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공업지역, 공업단지 개발은 1930년대부터라고 할 수 있으며, 대구지역의 최초 공업단지로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하에서 만주침략을 위한 兵站基地化의 목적으로 조성된 제1공업단지가 있었다.

1936년 7월 조선총독부 고시 제765호에 의해 칠성동, 태평로3가, 원대, 침산, 비산, 평리, 조야, 노곡동 일대의 총면적 6,382천㎡가 일단의 공업단지 조성지구로 지정되었으며, 大邱府는 이 지구 중 18만평을 1944년에 제1공업단지로 조성하였다. 그 당시에는 17개의 섬유업체를 비롯한 26개의 업체가 최초로 입주하였으며 현재는 대농, 대한방직, 제일모직 등의 섬유업체를 중심으로 하는 제조업체들이 위치해 있지만, 별도의 공단으로 구분짓기는 곤란하며 점차적으로 타지역 공단으로 이전함에 따라 주거지역화가 예정되어 있다.

1960년대에 들어서서 경제개발계획의 추진과 함께 경북 달성군 성서면에 제2공단을 구상하였으나 행정지역상의 문제로 조성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1967년 8월 10일 북구 노원동 일대에 제3공업단지 조성·실시인가를 받아 근대적 공업단지를 조성하게 되었으며, 섬유, 기계, 금속 등 여러 분야의 산업이 입주하면서 대구경제를 발전시키고 지역을 개발시키는 도약의 계기가 되었다.

1970년대에 들어와서는 검단공단, 서대구공단, 염색공단 등 3개의 공업단지가 조성되었고, 이들 공업단지는 대구지역 섬유수출의 선도적 역할과 지역산업구조 고도화에 기여하게 되었으며, 특히 지역섬유업체의 숙원사업이었던 염색업체의 專用 공업단지로 조성되면서 공단의 협업화, 공동사업의 추진, 관리의 효율성, 전문성의 제고 등 공업단지 정책의 일대 전환점을 마련하였다.

1980년대에는 1981년 7월 1일 大邱市가 直轄市로 昇格되면서 성서공단이 경상북도 달성군에서 대구시로 편입됨에 따라 공업단지 조성계획이 구체화되었다. 1차단지 88만평은 1984년 5월 31일 建設部로부터 성서공단 실시계획이 인가, 고시되면서 1984년부터 1988년까지 조성이 완료되었으며 2차단지 132만평은 1988년부터 추진중이다. 특히 대구시가 1995년까지 조성예정인 3차단지 104만평은 첨단산업의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공단별 주요 현황은 <表 3-25>와 같다.

<表 3-25> 工業團地 現況 (單位：千㎡, 개, 명)

區 分 工 團 名		面 積	業 體 數					從業員數	備 考
			計	纖 維	機 械	化 學	其 他		
計		12,030	1,696	635	714	59	288	85,969	
第 3 工 團		1,094	170	70	60	1	39	17,540	
檢 丹 工 團		790	32	12	17	—	3	7,152	
西 大 邱 工 團		2,417	351	160	79	19	93	26,500	
大 邱 染 色 工 團		811	111	111	—	—	—	14,477	
城 西	1 次	2,644	481	199	138	27	117	20,300	
工 團	2 次	4,274	546	82	419	12	33	—	조성중

資料：大邱市, 工業課.

1989년 10월말 현재 대구지역에서는 대구염색공단 등 5개의 공업단지가 조성되어 있는데, 이 중 공업단지 관리법의 적용대상인 관리공단으로는 성서, 검단 및 대구염색공단이 있다. 이중 대구염색공단은 조성과 동시에 공업단지 관리법 적용대상 공단으로 지정(1980. 11)되었으며 검단공단은 1986년 7월, 성서공단은 1988년 2월에 각각 지정되었고, 제3공단 및 서대구공단은 공업단지관리법 적용대상에 포함될 경우 받을 수 있는 直·間接的인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 第2節 纖 維 工 業

### I. 概 觀

대구지역의 纖維産業은 그 역사적 전통과 오랫동안 축적된 기술력에 의해 오늘의 지위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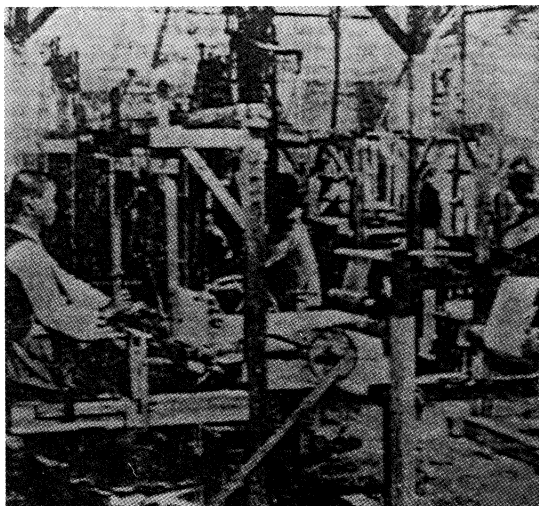
확보했다. 특히 직물로 대표될 수 있는 大邱纖維工業의 변천과정을 보면, 絹織物時代, 綿織物時代, 合纖織物時代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는 綿紡과 合纖 등의 업 스트림(up-stream)부문에서 織物과 니트(knit), 燃絲와 사이징 등의 다운 스트림(down-stream)부문에 이르기까지 술한 纖維關聯業種이 집적해 있는 섬유업의 종합적 集散地를 형성하고 있다.

### 1. 解放以前(絹織物時代)

대구지역에 있어서 織物의 기원은 명확하지는 않으나, 三國遺史에 의하면 신라 유리왕 3년(AD33)에 신라의 六部를 반으로 갈라 7월 보름부터 8월 보름까지 베짜기를 하고 진편이 이진편을 접대하는 것을 嘉俳라 한다고 기록되고 있어, 이미 신라때 섬유산업이 정책적으로 육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라시대에 麻織과 絹織이 수공업형태로 영위되었으며, 760년경부터 고려시대까지 絹織物 산업의 중심지 역할을 했다. 1370~1380년대에는 목화재배가 시작되었으며, 조선말엽까지는 絹布, 麻布 등이 가내수공업형태로 영위되었다.

한편 개항과 함께 우리 나라에서는 서구식 직조기계를 도입하면서 직조공장의 설립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사진 3-1〉참조).



〈사진 3-1〉19세기 말 소년들에 의해 다루어진 직조기계

이곳에 織物工業이 처음 들어선 것은 1908년 5월 일본인 纖維米吉에 의해서 大邱府 村上町에 纖維染物工場이 세워진 데서 비롯되었으며, 1915년에는 조선인에 의하여 東洋染織所가 세워졌다. 특히 대구에 직물업이 뿌리를 내리게 된 것은, 1916년에 개발된 東洋苧가 고종 황제의 국상을 맞아 크게 히트함으로써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시작된 대구섬유공업은 1918년 2월 일본 山十製絲(株) 大邱製絲所の 설립을 비롯, 일본 片倉製絲紡織(株) 大邱製絲所(1914.4), 朝鮮生絲(株)(1919.

5) 등 일본 製絲資本의 진출에 의해 대구가 絹(명주)의 도시로 부상하게 되었다. 이처럼 대

구지역에 製絲工業이 발달할 수 있었던 것은, 경북이 전국 누에고치생산량에서 단연 수위를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상주, 안동, 문경, 예천 등 낙동강 상류에 소재한 產地의 대부분이 논보다 밭이 많고 노동력이 풍부하여 양잠업이 발달하기에 호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예로부터 대구·경북지역은 기후와 토양이 양잠과 목화재배에 적합하고, 특히 대구는 대도시로서 노동력이 풍부하여 섬유공업이 발달할 수 있는 주생산지로 성장해 왔다. 그러나 이 지역에 근대산업으로서의 섬유공업이 발달한 것은, 1940년대 초 일본의 식민자본에 의해 면방직공장이 들어선 이후부터 라고 할 수 있다.

즉 1940년대 초 일본자본에 의해 日本群是紡織(株) 大邱工場과 朝鮮漁港(株) 大邱工場이 설립되었다. 그리고 2년 후인 1942년에는 朝鮮紡織(株) 대구메리야스 공장이 설립되어 地域纖維工業의 근간이 되었다. 그러나 이들 3개의 綿紡工場은 현재와 같은 근대적인 면방업은 아니었고, 大麻와 生麻를 주원료로 한 군복지와 메리야스 생산이 고작이었다.

## 2. 解放以後~1950年代(綿織物 時代)

해방 직후에는 남북분단과 原絲不足 등으로 織物景氣가 다소 저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 織造工場들이 자연 발생적으로 많이 세워졌으며, 小倉地生産과 莫大小로 일컬어지는 메리야스 공업이 주축을 이루었다. 특히 1950년대 초에는 日帝時代에 세워졌던 日本群是紡織 등 3개의 면방직공장이 이 지역 자본가에게 불하되어 三護(1949), 内外(1952), 大韓(1955)紡績 등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이같은 근대적 방직공장의 설립과 미국의 原綿無償補助로 지역 섬유업계는 본격적인 綿織物時代를 열었으며, 특히 한국전쟁 이후에는 特需景氣를 맞게 되어 서문시장 상인과 기술자들이 대거 직물업에 손을 댔다. 이를 계기로 대구지역의 섬유업계는 황금기를 맞았으며, 서문시장은 전국적인 織物都賣機能을 수행하게 되었다. 한편 한국전쟁으로 인한 國民衣類需要를 긴급히 충당하기 위해, 대구지역에는 第一毛織을 비롯한 많은 織物工場이 집중적으로 세워졌는데, 1955년 말 현재 842개로 늘어났다. 결국 대구가 한국전쟁으로 인한 전쟁피해를 가장 적게 입었다는 것이 직물의 산지로 등장하게 된 결정적 요인의 하나가 되었다.

그러다가 1950년대 말에는 나일론직물이 등장하면서 合纖織物時代로 이행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특히 이 시기에는 나일론사, 人絹絲, 아세테이트사의 도입을 위한 원조자금의 확보경쟁이 치열했다. 그리고 섬유수요면에서는 1950년대까지를 섬유공업의 전량내수단계로 볼 수 있는데, 대구지역의 경우 纖維類의 輸出代替期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3. 1960年代(나일론織物 時代)

1960년대는 대구지역 공장에 있어서 纖維産業의 비중이 크게 높아진 年代라고 할 수 있다. 즉 従業員數와 生産額 및 附加價値面에서 대구지역 제조업의 50% 이상을, 그리고 사업체수도 30% 이상을 각각 차지하고 있었다. 특히 수출면에서 공산품의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도 섬유류 수출증가에 힘입은 바가 컸다고 할 수 있다.



〈사진 3-2〉 纖維工場이 들어서기 前の 桑田(大邱, 1960年)

그런데 광공업 센서스를 중심으로 대구지역 섬유산업의 전국비중을 보면, 사업체수가 전국의 20~24%에 불과, 50년대에 비해 60년대의 점유비가 상당히 떨어졌으며, 종업원수도 1969년을 정점으로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지역공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비중이 오히려 떨어진 것은, 대구에는 대기업이 별로 없어 여타지역 섬유공업의 증가세를 따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섬유공업 중에서도 縫製工業이 크게 뒤졌다는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1960년대 대구지역에는 經濟開發計劃의 본격적 추진으로 나일론F사 공장이 들어섰고,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에 따라 綿織物과 人絹織物은 급격히 쇠퇴한 반면, 合纖織物時代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絹織物은 内需 중심으로 전환되고, 나일론 등 合纖織物이 대거 수출됨으로써 업종간에 현격한 성장격차가 발생하게 되었다.



〈사진 3-3〉 여인들의 복장(1960年)

〈表 3-26〉 地域纖維工業의 全國比重(1960年代)

區 分		1955년	1960년	1963년	1967년	1971년
業 體 數 (개)	大邱·慶北(A)	1,097	1,012	782	1,276	1,297
	全 國(B)	3,218	4,218	3,821	6,149	6,287
	比 重(A/B)	34.1	24.0	20.5	20.8	20.6
從業員數 (인)	大邱·慶北(A)	24,485	24,053	28,156	49,060	43,145
	全 國(B)	93,098	97,521	128,470	214,492	274,734
	比 重(A/B)	26.5	24.7	21.9	22.9	15.4
附加價值 (백만원)	大邱·慶北(A)	—	1,472	2,661	10,801	17,678
	全 國(B)	—	6,354	12,308	47,922	120,804
	比 重(A/B)	—	23.2	21.6	22.5	14.6
生 產 額 (백만원)	大邱·慶北(A)		—	5,836	32,597	57,080
	全 國(B)		—	37,608	129,962	333,831
	比 重(A/B)	—	—	15.6	25.1	17.1

資料：經濟企劃院, 《鑛工業統計調查報告書》, 각 연도



〈사진 3-4〉 朴正熙大統領 코오롱工場 訪問(1969年)

특히 1960년대 말에는 코오롱의 전신인 한국나이론(주)이 나일론사의 생산에 착수함으로써 化纖時代의 개막을 선도했다. 또한 나일론직물과 양말의 수출이 개시되었으나, 전체적으로는 내수의 비중이 70%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수출하청업체도 이 무렵에 출현하게 되었다.

한편 1968년에는 제3공단이 완공되어 공단입주업체들은 경영규모를 확대시켰으나, 경제개발과정에서 신규 原絲메이커들이 서 울지역에 대거 설립됨으로써 대구섬유의 지위는 상대적으로 저하되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1960년대의 대구섬유산업은 지역공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향상된 반면, 전국섬유산업에서 차지하는 몫은 점차 줄어들었고, 1950년대 이후부터 쌓여온 문제들이 본격적으로 드러나면서, 1960년대 후반부터는 産業構造改編論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 4. 1970年代(폴리에스터織物 時代)

1970년대에는 龜尾工團과 대구 근교에 폴리에스터공장이 준공되었고, 嶺南, 潤城紡織 등 근대적 면방공장들이 대거 세워져 업 스트림(Up-Stream)부분이 크게 강화된 데다가, 製織部門의 대량증설이 이루어짐으로써 대구섬유의 위치는 더 한층 강화되었다. 당시 지역섬유산업의 전국적 위치를 사업체수로 보면, 전국 섬유공업의 22~25%, 종업원수로는 16~21%, 부가가치



면에서는 16~22%를 차지했다(<表 3-27>참조).

<表 3-27> 地域纖維工業의 全國比重(1970年代)

年度	事業體數(개)			從業員數(인)			附加價值(백만원)		
	全 國	大邱·慶北	比重(%)	全 國	大邱·慶北	比重(%)	全 國	大邱·慶北	比重(%)
1970	6,393	1,411	22.1	267,479	50,920	19.0	93,750	19,765	21.1
1974	6,202	1,431	23.1	427,644	68,165	15.0	385,919	61,087	15.8
1977	7,491	1,800	24.0	657,847	122,363	18.6	1,059,347	206,413	18.8
1979	7,940	1,951	24.6	642,932	134,162	20.9	1,806,544	388,151	21.5
79/70(배)	1.24	1.38		2.40	2.63		19.27	19.64	

資料：經濟企劃院，《鑛工業統計調查報告書》，각 연도.

<表 3-28> 大邱地域 纖維의 品目別 輸出實績(1970年代) (단위：백만달러)

區 分 年度	全 國 (A)	大 邱·慶 北 地 域						B/A
		計(B)	홀치기	織 物	衣 類	絲 類	양 말	
1971	519.5	40.7	18.8	9.3	8.1	3.6	0.8	7.8
1975	1,869.8	195.5	36.8	125.6	18.6	12.2	2.4	10.5
1979	4,501.3	641.4	116.3	466.3	18.2	23.1	17.4	14.3
79/71(배)	8.7	15.8	6.2	50.1	2.2	6.4	21.9	

資料：大邱地域經濟協議會，《大邱地域 纖維産業의 實相과 育成》，1983. 3. p. 65

특히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정책에 따라 섬유공업의 수출산업화가 가속화되고, 수출과 내수의 비중이 7:3으로 역전되어 輸出指向性이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지역 섬유수출의 전국비중은 1971년의 7.8%에서 1978년에는 15.2%로 크게 높아졌으며, 纖維額 輸出實績도 1971년에 4,070만달러이던 것이 1979년에는 6억 4,142만달러를 기록, 무려 15.8배나 증가하였다(<表 3-28>참조).

品目別 수출실적도 큰 변화를 보여, 1971년에 931만달러(22.9%)에 불과했던 織物額 수출이 1979년에는 4억 6,621만달러(72.7%)에 달해 섬유수출의 주종을 이루게 되었다.

한편 化纖部門에서는 第一毛織, 한국폴리에스텔(주) 등이 폴리에스터原絲의 생산에 돌입하여 1970년대 조젯트織物時代의 개막을 촉진함으로써, 동기간 중에는 나일론 타프타보다 조젯트가 주요 품목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특히 1970년대의 國內化纖工業은 내수의 급신장과 정부의

수출용 원자재 국산화시책에 따라, 개별업체들이 경쟁적으로 시설의 신증설을 꾀함으로써, 1970년의 日産 234m/T에서 1979년에는 日産 1,179m/T로 늘어났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대구지역의 化纖工業도 1960년대 후반 이후 지속적인 시설확장과 가동률의 상승에 힘입어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즉 1976년 중 대구지역의 總化纖生産量은 6만 4,893m/T에 불과했으나, 1980년 중에는 8만 3,880m/T에 달함으로써, 5년 동안 약 29.3%나 늘어났다. 이와 같이 70년대에 化纖工業이 급성장한 것은 纖維消費의 패턴 변화가 기본적 요인이 되겠으나, 우리나라의 입지조건이 天然纖維를 생산하는데 부적합하여 그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고, 化纖이 가격면에서도 유리했다는 것이 가장 큰 성장요인의 하나가 되었다.

〈表 3-29〉 域内 主要 纖維機械 登録現況(1970年代)

區 分	1975년 말(A)	1977년 말	1979년 말(B)	B/A(배)
總 計	58,933	103,558	117,611	2.0
精 紡 織 (추수)	745 (298,000)	1,506 (602,969)	2,040 (821,793)	2.74 (2.76)
機 械	49,312	83,892	97,207	1.97
編 機	4,218	7,664	7,849	1.86
染色加工機	1,447	1,919	2,064	1.43
裁 縫 機	2,958	7,712	7,580	2.56

資料：大邱銀行, 《大邱地域 經濟分析》, 1980. 1~2, p. 77.

1970년대에는 대구지역 섬유산업의 성장과 함께, 워터젯트직기(WJL)를 비롯한 혁신직기가 등장하고 染色施設도 개체되는 등 시설의 근대화가 추진되면서 施設規模 또한 크게 증가했다. 즉 지난 1979년 말 현재 지역섬유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總登録施設臺數는 11만 7,611대에 달했는데, 이는 75년도의 5만 8,923대에 비해 약 2배가 늘어난 것이다(〈表 3-29〉참조). 불과 5년 사이에 이같이 施設臺數가 크게 불어난 것은 纖維工業이 수출증가와 함께 그만큼 호황을 누려왔음을 시사해주는 것이다.

纖維施設을 類型別로 그 증가추세를 보면, 精紡幾가 1975년까지 745대(29만 8천추)에 불과하던 것이 1979년에는 2,040대(82만 1,793추)에 이르러 지난 5년간 2.74배나 증가했으며, 기계도 1975년의 4만 9,312대에서 1979년에는 9만 7,207대로 매년 계속 늘어났다. 이처럼 70년대의 지역섬유산업은 1978년의 대호황을 계기로 신규참여업체가 크게 늘어남과 동시에, 직기의 대

량증설이 이루어짐에 따라, 직기의 과잉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다.

또한 70년대 들어서는 시설의 근대화와 함께, 自動機械의 보급도 점차 높아졌는데, 1979년 11월 말 현재 역내자동기계는 Water Jet Loom이 1,360대, Shuttleless Loom이 230대, Cop Change가 2,860대로 총 4,450대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는 그 당시의 총 직기대수 9만 5,121대의 4.68%를 차지하는데 그쳐, 域内 섬유직기의 자동화를 자체는 아직 만족할 만한 상태에 이르지 못했다.

〈表 3-30〉 自動機械現況(1979년 11월 말 현재)

區 分	總臺數 (A)	自 動 機 械				自動化率 B/A(%)
		小計(B)	Water Jet Loom	Shuttleless Loom	Coop Change	
總 計	95,121	4,450	1,360	230	2,860	4.68
總 織 機	29,800	2,548	—	188	2,360	8.53
絹 織 機	61,488	1,816	1,316	—	500	2.95
手 織 機	1,328	42	—	42	—	3.16
P.P織機	502	44	44	—	—	8.76
其 他	1,923	—	—	—	—	—

資料：慶尙北道 工業課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구의 섬유공업은 1970년대에 이미 비약적인 수출신장을 통해 대량수출단계에 들어섰으며, 1980년대에는 成熟段階로 이행하기 위한 전환기의 과제를 풀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따라서 1980년대에는 섬유산업의 구조개선사업이 적극화되어야 하며, 혁신직기에 의한 코스트다운이 가능한 小品種大量生産體制와, 차별화에 따른 비가격경쟁력의 강화를 목적으로 한 多品種小量生産體制로의 양면 전략이 요청된다고 하겠다.

## 5. 1980年代 以後

### 1) 成長基調 및 位相

대구·경북지역은 우리나라의 3대 기간산업인 섬유·전자·철강공업이 고루 배치되어 있으나, 그 중에서도 섬유산업이 사업체수·종업원수·부가가치면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대구지역의 섬유산업은 합纖·綿·絹·混紡 등의 직물제조 이외에도 염색가공·메리야스·사

이징·봉제 등 각양각색의 업종이 몰려 있어, 오랜 세월 지역의 産業經濟를 지탱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대구지역의 섬유공업도 1960~90년대의 전 기간을 통해서 볼 때, 순탄한 성장만을 지속한 것은 결코 아니며, 오히려 수많은 시련과 도전 속에서 번영과 쇠퇴를 거듭하여 왔다. 즉, 1960년대 중반까지는 국내경제의 고도성장에 발맞추어 비교적 순풍의 돛을 달았으나, 1960년대 말에는 진폭이 다소 큰 循環性 不況을 겪었으며, 1970년대 초와 말에는 각각 두차례의 석유파동으로 극심한 逆風에 시달리게 되었다. 이에 덧붙여 1980년대 초에 일어난 일련의 私債波動과 金融緊縮政策은 지역섬유업계의 심각한 타격을 주었으며,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에 빈번한 노사분규와 그에 따른 임금인상은 지역업계 전반에 강력한 구조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을 반영, 지역(대구·경북)의 섬유산업이 한국 섬유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낮아지게 되었다. 즉 지역의 섬유업종수는 1966년만 하더라도 전국의 20.7%(1,054개 업체)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1989년에는 16.9%(2,771개 업체)로 떨어졌으며, 종업원수도 같은 기간 중 20.8%에서 20.5%로 그 비중이 낮아졌다. 이에 따라 동업계의 생산액과 부가가치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중 각각 24.6% 및 26.0%에서 19.8%와 21.9%로 떨어지게 되었다.

이처럼 지역섬유산업의 전국비중이 1970년대 이후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은, 원사 및 봉제부문이 취약해진 데다가, 여타지역의 섬유업체 증설로 지역업체 비중이 상대적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전국비중의 저하에도 불구하고, 섬유산업이 그 동안 정부의 수출 드라이브 정책에 따른 고도성장의 정책에 따른 고도성장의 주력산업으로 성장함으로써, 종업원수나 부가가치 등에서는 여전히 전국 섬유공업의 2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表 3-31〉 地域纖維産業의 對全國比重 推移

區 分	1980	1986	1989
事業體數	23.1	18.9	16.9
從業員數	17.0	20.4	20.5
生産額	17.7	20.1	19.8
附加價値	20.0	22.4	21.9

資料：統計廳, 《鎭工業統計調查報告書》, 各年度.

〈表 3-32〉 地域纖維産業의 對全國比重(1989)

區 分	事業體數(個)	從業員數(名)	生産額(10억원)	附加價值(10억원)
大邱·慶北(A)	2,771	151,575	4,090	1,690
全 國(B)	16,349	740,366	20,655	7,709
比重A/B, %	16.9	20.5	19.8	21.9

資料: 앞의 책.

이에 따라 지역의 섬유산업이 역내공업에서 차지하는 위상도 연도별 또는 부문별로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그 점유비가 대략 20~40%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지역의 공업구조가 섬유업 위주에서 기계·금속업 중심으로 서서히 바뀌어져 감에 따라, 지역의 섬유산업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즉, 사업체수에서는 1976년의 39.9%, 1980년의 41.9%에서 1989년에는 37.8%로 떨어졌으며, 종업원수는 1966년에 49.5%이던 것이 1989년에는 39.7%로 낮아졌다. 그리고 생산액과 부가가치의 비중도 1966년에 각각 49.0%와 44.9%에 달하던 것이 1989년에는 22.7%와 23.7%에 그쳐, 그 점유비가 해마다 떨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이들 섬유업체의 지역별·규모별 분포를 보면, 1989년 현재 대구에 2,054개, 경북에는 717개업체가 있는데, 여기서 한가지 특기할 사항은 대구에는 중소영세기업이 많은데 반해, 경북에는 신설업체의 증가로 중견 내지 대기업이 많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은 지역 섬유업체의 종업원 규모별 현황을 살펴보면 잘 나타나 있다. 즉 대구에 있는 2,054개 섬유업체 중에서는 20인 미만의 영세기업이 45.8%, 50인 미만의 업체는 무려 79.4%나 차지한 반면, 300인 이상의 대기업은 16%에 불과하다. 이를 경북의 경우와 비교하면, 20인 미만 업체 38.6%, 50인 미만 업체 70.3%, 300인 이상의 대기업이 4.5%인 점과 비교해 보면, 대구의 섬유공업이 얼마나 영세한가를 잘 알 수 있다.

〈表 3-33〉 地域纖維産業의 對製造業 比重 推移 (단위: %)

區 分	1980	1986	1989
事 業 體 數	41.9	41.3	37.8
從 業 員 數	51.1	51.1	39.7
生 産 額	26.3	26.3	22.7
附 加 價 值	31.6	31.6	23.7

資料: 統計廳, 《鑛工業統計調查報告書》, 各 年度.

대구·경북지역 전체로도 종업원 300인 이상의 대기업은 전체의 2.3%인 64개 업체에 불과하며, 나머지 2,707개 업체(97.7%)는 중소기업인데, 특히 이중 20인 미만의 종업원을 보유한 영세기업은 총 1,216개 업체로 전체의 43.9%를 차지, 지역섬유업체의 대부분이 영세중소기업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지역섬유산업의 이와 같은 영세성은 그 성질상 과당경쟁을 불가피하게 하고, 그 결과 생산유통 과정에서 공정한 부가가치의 배분을 곤란하게 할 뿐만 아니라, 기업수익의 저하를 초래함으로써 동업계의 성장발전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表 3-34〉 地域纖維産業의 從業員 規模別 比重(1989年末) (단위: 개, %)

區 分	全 國		大 邱		慶 北		大邱+慶北	
	事業體數	比重	事業體數	比重	事業體數	比重	事業體數	比重
合 計	16,349	100	2,054	100	717	100	2,771	100
5~9	4,222	25.8	408	19.9	127	17.7	535	19.3
10~19	4,397	26.9	531	25.9	150	20.9	681	24.6
20~49	4,766	29.2	691	33.6	227	31.7	918	33.1
50~99	1,696	10.4	224	10.9	109	15.2	333	12.0
100~199	782	4.8	133	6.5	55	7.6	188	6.8
200~299	221	1.4	35	1.7	17	2.4	52	1.9
300~499	127	0.8	20	1.0	19	2.7	39	1.4
550인이상	138	0.8	12	0.6	13	1.8	25	0.9

資料: 經濟企劃院. 《纖維工業調查報告書》, 1991

한편 대구·경북지역의 섬유산업을 업종별로 보면, 직물업체가 1990년 말 현재 1,966개(전국의 65.8%)로 가장 많고, 그 중에서도 조젯트와 나일론·타프타를 생산하는 화섬직물업체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직물 다음으로는 메리야스업체가 446개(전국의 30.8%)로 수적으로 많으나, 90%가 종업원 50인 이하의 소기업으로 대기업의 시장침투에 밀려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염색공업은 대구·경북지역에 총 350개 업체(전국의 45.8%)가 있는데, 최근 들어 폐수처리시설의 미비와 염색가공능력의 부족 및 기술낙후 등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리고 대구·경북지역의 봉제공업은 종업원 5인 이상인 업체가 319개로 전국의 5.5%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기업형태도 80%이상이 個人企業이며, 공장의 소유형태도 약 50%정도가 傳貫내지는 月貫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처럼 대구지역은 명실공히 纖維特化地域으로 군림해 왔으면서도 縫製工業部門은 매우취약하고 낙후된 상태에 있다. 섬유산업의 최종단계이면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봉제공업의 후진성은 지역섬유산업 전체의 발전을 가로 막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가 되고 있다.

한편 역내 섬유업체에 종사하는 종업원수는 1989년 말 현재 총 15만 1,575명으로 지역제조업 전체의 39.7%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를 대구시에 한정해서 보면 9만 7,047명으로 대구 제조업의 54.9%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비중은 연도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1960년대 이후 纖維一邊倒의 취업구조에는 조금도 변동이 없다. 특히 섬유업체 근로자의 2/3가 여성들이며, 최근에는 불경기 속에서도 織手의 확보가 어렵고 기능인력의 離職이 잦아 기술축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表 3-35〉 大邱 慶北地域의 衣類製造業體 現況 (단위: 個, %)

區 分	1989	1990	1991
地 域	356(5.5)	330(5.5)	319(5.5)
大 邱	298(4.6)	276(4.6)	267(4.6)
慶 北	58(0.9)	54(0.9)	52(0.9)
全 國	6,497	6,007	5,791

註: 從業員 5人以上 業體 기준, 1990·91年度 業體數는 推定値임.

資料: 韓國纖維產業聯合會, 《纖維年鑑》, 各 年度, 統計廳, 《鎭工業統計報告書》, 各 年度.

다음으로 지역 섬유공업의 부가가치를 보면, 1989년의 경우 1조 6,899억원으로 전 제조업 부가가치의 23.7%를 점유하고 있으며, 대구의 경우는 약 1조 50억원으로 대구 제조업 전체의 46.1%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역의 섬유산업이 사업체 및 종업원수의 비중은 높은데 반해, 부가가치의 비중이 크게 낮은 것은, 鐵鋼이나 電子產業보다 섬유산업의 부가가치가 그 만큼 낮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 2) 施設規模 現況

대구·경북지역의 섬유산업은 그 동안 자체의 성장과 함께 그 시설 또한 크게 증가했고, 특히 대구섬유의 주력업종인 직물부문에서의 제직시설은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즉, 1990년 말 현재 대구·경북지역의 직물제조업체(1,966개 업체로 전국의 65.8%)가 보유하고 있는 織機臺數는 총 10만 3,097대로서, 전국직기(17만 8,966대)의 67.6%가 지역에서 가동되고 있는 셈인데, 이는 1970년의 2만 8,740대(전국의 50.0%)에 비하면 무려 3.6배나 늘어난 것이다.

〈表 3-36〉 地域纖維產業의 對製造業 比重(1989)

區 分	事業體數(個)		從業員數(千名)		生産額(10억원)		附加價值(10억원)	
	製造業	纖 維(%)	製造業	纖 維(%)	製造業	纖 維(%)	製造業	纖 維(%)
地 域	7,334	2,771(37.8)	382	152(39.7)	18,016	4,090(22.7)	7,134	1,690(23.7)
大 邱	4,655	2,054(44.1)	177	97(54.9)	5,080	2,041(46.1)	2,180	1,005(46.1)
慶 北	2,679	717(26.8)	205	55(26.6)	12,937	1,749(13.5)	4,954	685(13.8)

註：( )안은 對製造業 비중임.

資料：統計廳, 《鑛工業統計調查報告書》, 1991.

〈表 3-37〉 製纖業體 및 施設現況

區 分		全 國(A)	大邱·慶北(B)	전국比重(%)
業 體 數(個)		3,035	1,966	65.8
從 業 員 數(千名)		226	79	35.0
施 設	絹 織 機	98,987	68,043	68.7
	綿 織 機	66,526	30,587	50.0
	毛 織 機	4,171	1,452	34.8
	其 他 織 機	9,282	3,015	32.5
	計	178,966	103,097	67.6

資料：纖維技術振興院, 《纖維工業統計》, 1990. 12.

한편 이들 보유직기를 분야별로 보면, 1990년 말 현재 絹織機가 6만 8,043대로 전국의 68.7%를 차지해 가장 많고, 다음이 綿織機로 3만 587대로 50.0%, 毛織機 1,452대로 1.4% 기타직기 3,015대로 2.9%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들을 성능별로 살펴보면 一般織機가 7만 8,296대로 전국의 57.4%, 革新織機는 2만 4,801대로 전국의 57.9%를 지역에서 차지하고 있는데, 이 중 「워터 제트룸」(Water Jet Loom ; WJL)은 1만 6,655대로 전국의 70.0%를 지역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다. 특히 1988~91년간에 셔틀직기는 36.6%가 감소한 데 반해, SJL은 58.7%, AJL은 366.5%, 레피아 직기는 39.8%의 증가를 보였다. 이처럼 在來織機보다 5배 이상의 성능에다 완전 자동화되는 SJL, AJL 등의 도입이 늘어남으로써, 지역업체의 織機自動化率은 1988년의 37.7%수준에서 1991년에는 60.7%로 크게 향상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WJL을 도입한 것은 1976년 鮮京合纖이 150대를 도입, 설치한 것이



효시였으며, 대구지역의 경우는 1970년대 말부터 나일론 타프타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일본(NISSAN, TSUTAKOMA)이나 체코(INVESTA) 등에서 도입하기 시작, 주로 트로피칼, 나일론 타프타, 개버딘 등을 製織하고 있다.

〈表 3-38〉 織機施設 現況(1990년 말) (단위: 臺, %)

區 分		全 國(A)	大邱·慶北(B)	比 重(B/A, %)
一 般 織 機		136,200	78,296	57.4
革 新 織 機	W. J. L	22,500	16,655	70.4
	A. J. L	3,628	1,756	48.4
	Rapier	16,638	6,335	38.0
	其 他	—	—	—
	小 計	42,766	24,801	57.9
合 計		178,966	103,097	57.6

資料: 纖維技術振興院 《纖維工業統計》, 1990. 12.

〈表 3-39〉 大邱·慶北地域의 年度別 纖維自動化 現況 (단위: 臺, %)

區 分	1988	1989	1990	1991
自 動	45,853	48,808	51,980	57,878
半 自 動	75,681	66,712	51,117	37,429
計	121,534	115,520	103,097	95,307
自 動 化 率	37.7	42.3	50.4	60.7

資料: 纖維技術振興院 《纖維工業統計》, 1990. 12.

이같은 고성능 혁신직기의 증설은 産業合理化期間(1989.7~1992.6) 중 활발히 추진된 제직업체의 설비개체에 따른 것인데, 이는 최근 들어 시설과잉 및 염색가공난을 유발하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그리고 대구·경북지역의 메리야스업체는 1990년 말 현재 대략 446개(대구·경북 메리야스공업협동조합 가입기준)로 전국 메리야스업체의 30.8%(메리야스조합연합회에 가입한 1,446개 업체 기준)을 점유하고 있는데,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대수는 8,118대로서 전국의 23.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이들 보유시설을 품목별로 보면, 양말이 3,410대(전국의 33.7%)로 가장 많고, 다음은

丸編이 2,825대(전국의 27.5%), 장갑 1,234대(전국의 20.2%), 經編 408대(전국의 50.2%) 등 비교적 많은 시설이 지역에 밀집해 있으나, 橫編은 141대(전국의 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구·경북지역의 염색공업은 1990년 말 현재 3,500개 업체로 전국의 45.8%를 차지하고 있으며, 생산능력 및 시설규모도 각각 전국의 62.4%, 39.2%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表 3-40〉 메리야스工業 比重

區 分	業 體 數			施 設 保 有 臺 數		
	全 國	大邱·慶北	比 重(%)	全 國	大邱·慶北	比 重(%)
丸 編	382	107	28.0	10,284	2,825	27.5
橫 編	177	2	1.1	7,823	141	1.8
양 말	179	110	61.5	10,131	3,410	33.7
장 갑	625	179	28.6	6,102	1,234	20.2
經 編	74	48	64.9	812	408	50.2
其 他	8	—	—	—	—	—
計	1,446	446	30.8	35,152	8,118	23.1

註：1990년 말 현재의 조합가입업체 기준임.

資料：메리야스工業協同組合聯合會

여기서 이들의 생산능력을 분야별로 보면, 絹織物染은 58억 5천만야드로 전국의 64.0%, 捺染은 7억 2천야드로 전국의 51.9%, 絲染은 8만 3천톤으로 전국의 17.5%를 점유하고 있으며, 염색시설은 직물염색기가 2,553대(전국의 44.7%)로 가장 많고, 다음은 絲染色機 425대(18.7%), 폭출기 316대(54.5%), 捺染機 218대(54.2%)를 지역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지역염색업체의 시설규모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1986년 이후 섬유자동화율의 제고로 직물생산이 3~4배로 급증함에 따라, 염색 가공능력은 매월 약 4,700만야드(염색가공부족율：8.5%)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동업체는 지난 91년 4월의 폐수방류사건 이후 조업단축에 따른 納期遲延, 品質低下 등으로 대외신용도가 실추되어 바이어 이탈현상이 가속화되어 왔다. 더욱이 최근 들어서는 대구염색공단의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부실공사의 파문으로 正常操業이 불투명한 가운데, 타지역에 염색공장의 신축 허가를 받은 업체들의 공장설비가 늦어지거나 염색가공을 포기하고 있어, 직물에 대한 염색 가공난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表 3-41〉 染色業體 및 加工生産能力 現況(1990년 말 기준) (단위: 직물-백만yds, 염색-천톤)

業種別	區 分	大 邱·慶 北		全 國	
		業 體 數	生 産 能 力	業 體 數	生 産 能 力
絹 織 物		269 (55.7)	5,852 (64.0)	483 (100.0)	9,139 (100.0)
捺 染		54 (49.1)	721 (51.9)	110 (100.0)	1,390 (100.0)
絲 染		27 (15.7)	83 (17.5)	172 (100.0)	474 (100.0)
計		350 (45.8)	6,573백만야드 (62.4) 83천톤	765 (100.0)	10,529백만야드 (100.0) 474천톤

註: 生産能力의 算出은 1월 20시간 기준  
資料: 染色組合聯合會

끝으로 原絲部門의 시설현황을 살펴보면, 대구·경북지역 화섬업체의 생산능력은 1990년 말 현재 30만 6,684만톤으로 우리나라 화섬생산의 23.7%를 차지하고 있으나, 그 증가율은 1987년 대비 15.9% 증가에 그쳤다. 이는 전국의 화섬생산증가율이 같은 기간 대비 31.8%인 것과 비교하면 소폭의 증가에 그친 셈이다.

그리고 대구·경북의 방적시설은 전국의 총시설 368만추 중에서 21.5%인 79만추를 점유하고 있으며, 모직시설은 梳毛紡이 7만 2,080추로 전국의 8.0%, 梳毛紡은 1만 2,027추로 전국의 6.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表 3-42〉 染色加工施設 現況 (단위: 臺, %)

區 分	全 國	大邱·慶北(%)	서울·中部	釜山·慶南	其他地域
織 物 染 色 機	5,712	2,553(44.7)	2,395	593	171
絲 染 色 機	2,273	425(18.7)	1,238	561	49
폭 출 기	580	316(54.5)	204	55	5
捺 染	402	218(54.2)	153	23	8
계	8,967	3,512(39.2)	3,990	1,232	233

註: ( )안은 對全國比重  
資料: 染色組合聯合會

〈表 3-43〉 地域纖維産業의 原絲生産施設 및 生産能力比重

區 分	單 位	基 準 年 度	大邱·慶北	比 重(%)	全 國
化纖生産能力	톤	90년	306,684	23.7	1,292,000
紡績施設	추	90.12월말	793,920	21.5	3,686,260
梳毛紡施設	추	90.12월말	12,027	6.6	183,341
梳毛紡施設	추	91.9월말	72,080	8.0	906,132

資料：大邱商工會議所, 《大邱纖維産業의 現況과 課題》, 1991. 10.

### 3) 輸出動向

대구·경북지역은 섬유산업이 지역의 주종산업을 이루어 온 만큼, 그 수출실적도 60년대의 나일론 직물시대 이후 크게 신장하였다. 특히 지역의 섬유류 수출실적은 70년대 들어 대부분의 직물공장이 수출제품을 생산하게 됨으로서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해 왔다. 이에 따라 지역섬유제품은 지난 1970년대 중 연평균 수출신장률이 46.1%에 달해, 타제품의 추종을 불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총수출에서도 절반이상을 섬유제품이 차지, 지역수출신장의 주역이 되어 왔다.

여기서 대구세관 통관분만으로 1970년대 이후 지역 섬유제품의 수출실적추이를 보면, 1971년에 4천만달러를 겨우 넘던 것이 1976년에 3억3천달러, 1980년에 8억달러에 이르더니 1986년에는 15억달러, 무려 79배의 수출신장을 보인 것이다. 우리나라 전체의 섬유수출이 같은 기간중 29.8배의 증가에 머물렀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역의 섬유수출은 1970년대 이후 급신장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역의 섬유수출이 전국 섬유류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71년의 7.8%에서 1980년에는 15.9%, 그리고 1991년에는 20.8%로 늘어나 20년만에 13% 포인트나 높아졌다.

그러나 지역섬유수출의 이러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역내의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들어 지역의 공업구조가 섬유류 위주에서 기계금속 중심으로 서서히 바뀌고 있음을 반영, 1971년에는 35.7%로 점차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같은 섬유수출의 변화추세를 더불어 지역 섬유제품의 수출구조도 상당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1970년대 초에 활기를 보였던 홀치기와 의류의 수출비중이 급격히 낮아진 반면, 직물류 수출의 비중이 크게 높아졌고 사유는 그 비중이 높아지면서도 제일 기복이 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기서 품목별 수출구조 추이를 보면, 1971년에 전체 섬유수출액 중 46.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던 홀치기 수출은, 1979년을 고비로 절대금액 자체가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1991년에

이르러서는 지역 섬유수출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로 급격히 낮아졌으며, 中國產 등에 밀려 사양화 경향이 가속화 되고 있다.

〈表 3-44〉 地域纖維製品의 輸出實績推移 (단위: 백만달러)

年 度	地域纖維(A)	地域總輸出(B)	全國纖維(C)	A/B(%)	A/C(%)
1980	799.3	2,235.5	5,014.3	35.8	15.9
1983	1,066.9	2,760.1	6,050.9	38.7	17.6
1986	1,465.9	4,198.0	8,744.9	34.9	16.8
1988	2,270.1	7,313.5	14,143.4	31.0	16.1
1991	3,217.3	9,009.8	15,495.7	35.7	20.8
91/71(배)	79.0	182.8	29.8		

資料: 大邱銀行, 《大邱地域 經濟分析》, 各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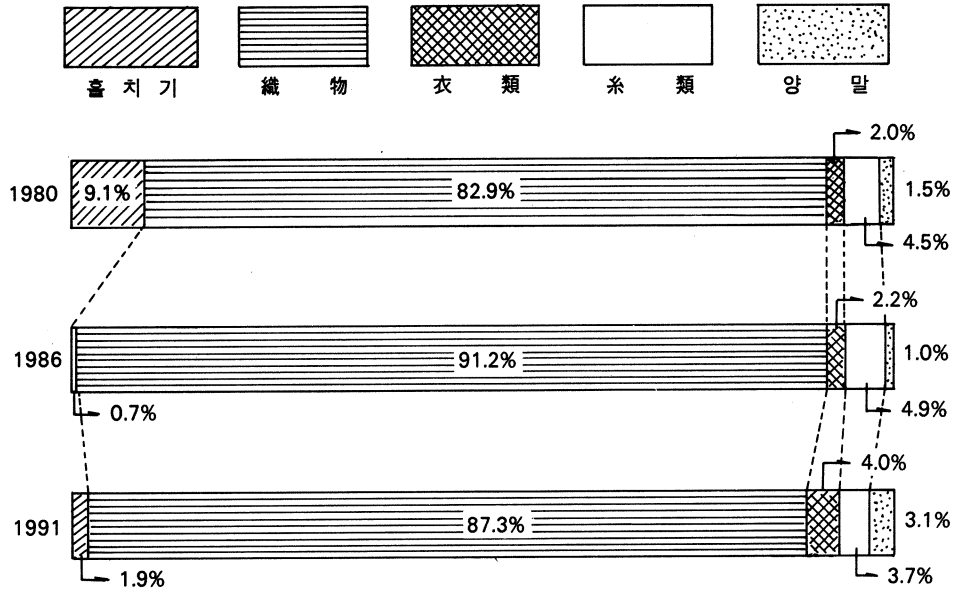
이에 반해 1971년에 9백만달러의 수출로 전체 섬유수출의 22.0%에 그쳤던 織物類는 1973년부터 홀치기 제품의 수출실적을 앞지르기 시작했고, 1991년에 와서는 수출실적이 28억달러에 달해, 지역 섬유수출총액의 87.3%를 차지하고 있다. 이같은 직물수출은 대구지역의 섬유를 대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비중이 높는데, 여기에는 폴리에스텔 직물이 약 50%, 나일론 직물이 약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자수직물, 벨벳트, 장갑 등의 수출이 많은 편이다.

그런데 직물류의 수출은 직수출보다는 수출상사의 하청을 받아 생산·수출하는 간접수출이 대부분일 뿐만 아니라, 고부가가치의 수출품인 의류 및 홀치기 등의 수출비중이 줄어들고 있어, 지역섬유제품의 수출구조상 문제가 되고 있다.

## II. 紡績・製絲工業

### 1. 解放以前

대구지역은 양잠에 적합한 기후조건과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일찍부터 방적공업과 제사공업이 발달하기 시작했다. 특히 이 지역의 제사공업은 1918년 山十組製絲工場을 비롯하여 1919년 朝鮮生絲(株)와 片倉製絲所가 신설되면서 본격적인 기계제사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대구지역은 섬유공업도시로 산업구조를 전환하게 되었다.



〈圖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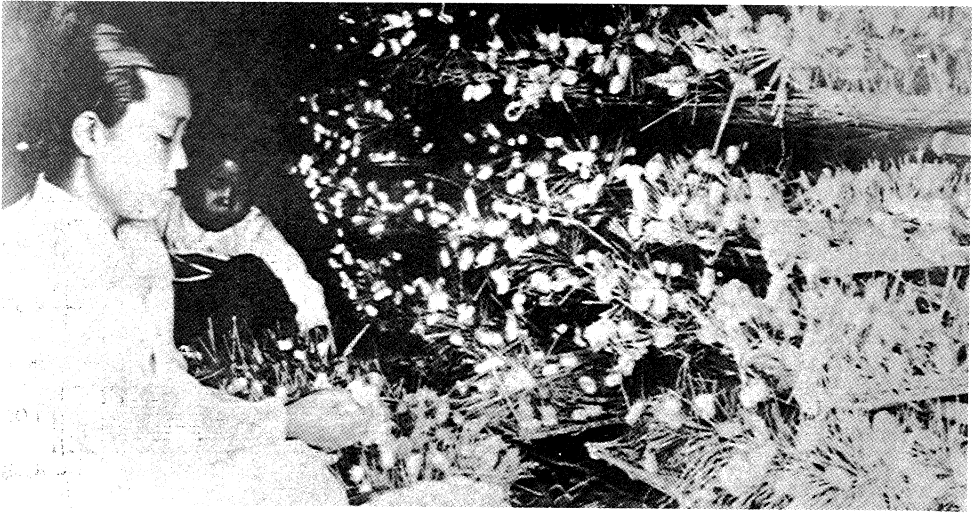
地域纖維製品의 輸出構造推移

이들 3개 공장에서 생산된 생산물은 전량 일본 絹絲工場의 원료로 반출되었으며, 잠업의 전성기이던 1936년의 경우 이들 공장의 연간 처리능력은 전국 蠶繭 총생산량의 17%인 12만석에 달하였다.

〈表 3-45〉 大邱·慶北地域의 生絲生産 推移(1919~1928)

年 度	總 數				機 械 絲			
	製絲戶數	繰絲釜數	生産量 (貫)	金額(圓)	製絲戶數	繰絲釜數	生産量 (貫)	金額(圓)
1919	991	1,960	11,434	1,721,790	3	960	10,667	1,632,051
1920	1,210	2,567	17,186	1,757,072	3	1,360	16,240	1,688,960
1925	627	2,225	55,989	6,698,010	4	1,550	55,300	6,636,000
1928	26,275	27,445	79,860	6,313,251	7	1,696	66,930	5,689,0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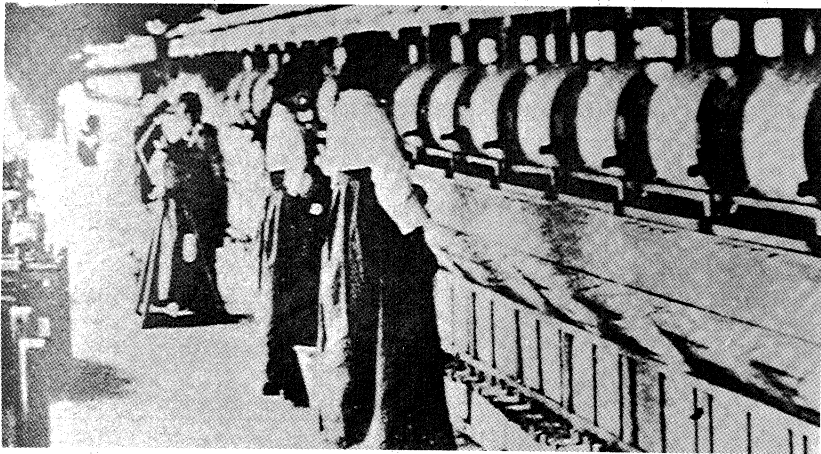
資料：朝鮮總督府, 《統計年報》, 1940.



〈사진 3-5〉

옛날의 누에上簇收繭 과정

세계적인 공황과 일제자본에 의한 가내공업의 위축으로 인하여 1932~1937년 사이 상대적 침체를 보이던 지역제사공업은 1941년에 접어들면서 전국 점유비가 製絲家數의 23.5%, 시설 24%, 생산량 27.3%에 달하는 등 급속한 성장을 거듭하였다.



〈사진 3-6〉

조선생사 공장내부(1940年代初)

한편 1905년 陸地棉이 대구지역에서 처음 재배되기 시작한 후, 1906년 大邱棉花試作場의 설립이 있었고, 1911년 大邱棉花種圃가 경산으로 이전되면서 육지면의 재배가 대구·경북 전 지역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대구·경북지역의 제사공업이 발전하게 된 것은 지리적 입지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상대적으로 절대농지가 적고, 북부지역에 비해 기후가 온화해 목화재배에 적당하였기 때문이다.

## 2. 解放直後～1950年代

### 1) 製絲工業

#### (1) 現 況

해방 이전까지 일본인의 자본에 의해 운영되던 대부분의 제사공업은 해방과 더불어 경영권이 한국인의 손으로 넘어 왔다. 해방직후의 국내제사공업은, 정치·사회적 혼란으로 경영여건이 불안정하였고, 기술자의 일본귀환과 기능노동력의 이탈, 양잠사육농가의 감소로 인한 원료난 등으로 대부분의 공장이 조업정지 상태였으며, 일부 공장만이 해방전의 재고원료를 이용, 부분조업을 하는 처지였다. 1946년 당시 한국잠사공업은 제사공장 42개, 조업釜數 4,347釜, 생산량 81,088貫으로 해방전인 1944년의 수준에 비하여 저조한 상태였다.

해방전(1944년)까지 地域製絲工業은 工場數 10個所, 業釜數 1,472釜, 生絲生産量 51,535貫으로 이는 全國 製絲工業의 工場數 20.4%, 操業釜數 22.5%, 生産量의 28.8%에 해당하는 것이다. 製絲工業의 원료확보면에서도 전국 家蠶共販의 25.3%, 絹生産量 29.9%, 桑田面積의 23.1%를 차지함으로써 우리나라 生絲工業의 중심지 역할을 담당하였다.

해방후(1946년)에도 地域製絲工業의 전국점유비중은 工場數의 21%, 繰絲金額의 23.1%, 生絲生産量의 30.3%, 絹生産量 32.2%, 共販量 26.4%, 飼育戶數 27.6%나 되는 등 전국적인 위상은 변함이 없었다.

#### (2) 生産 現況

해방 직후 생산농가의 飼育 및 共販의 기피현상과 敵産工場의 管理不在로 지역기업의 생산 활동은 급격히 감소되었다. 특히 慶北 製絲工業의 生絲生産量은 해방 전까지만 하더라도 연간 51,535貫의 실적을 나타내었으나, 解放이후 1,562貫을 시현하는등 전년에 비해 3% 수준에 머물렀다.

그러나 1946년부터 점차 生産活動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1946년에는 47.7%인 24,573貫의 실



적을 올렸으며, 1947년에는 61.7%까지 회복되었다. 이렇게 慶北製絲工業이 생산활동을 조기에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原料調達 기반이 견고하였던 점 이외에도, 해방 전에는 함경도 등지에서 수집된 원료가 大邱에서 가공됨으로써, 在庫養蠶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역제사공장들은 1948년에 와서도 해방 이전의 생산수준까지는 회복하지 못하여, 지역에 있는 10개의 제사공장 중 대구소재 7개 공장의 시설가동율은 42.9%(931釜) 수준에 머물렀다.

〈表 3-46〉 養蠶業의 變動推移

年 度	飼 育 戶 數 (春蠶)			繭生産量(千貫)			繭共販量(千貫)		
	全 國	慶 北	%	全 國	慶 北	%	全 國	慶 北	%
1944	821,605	162,563	19.8	2,426	726	29.9	1,865	471	25.3
1945	614,955	162,563	26.4	1,890	1,890	38.4	—	—	—
1946	505,912	136,619	27.6	1,560	503	32.2	568	150	26.4
1947	492,976	121,031	26.2	1,686	480	28.5	573	128	22.3

資料：朝鮮銀行 調査部, 《朝鮮經濟年報》, 1948.

〈表 3-47〉 解放前의 生絲工業

年 度	工 場 數			操 業 釜 數			生 絲 生 産 量(貫)		
	全 國	慶 北	%	全 國	慶 北	%	全 國	慶 北	%
1944	49	10	20.4	6,540	1,472	22.5	178,803	51,535	28.8
1946	42	9	21.0	4,347	1,006	23.1	81,008	24,573	30.3

資料：《朝鮮經濟年報》, 1948.

## 2) 綿紡工業

### (1) 現 況

만주사변 이후 일본섬유산업의 한국이전으로 인하여 부흥기를 맞이한 韓國紡織工業은 해방전까지 군수산업으로써 발전을 계속하여 韓國工業 총생산액의 16.8%(1943년 기준)에 달함으로써, 해방 이전 섬유산업의 큰 부분을 차지하였다. 하지만 해방이 되면서 면방공장들이 敵産化되면서 管理의 소홀, 일본인 기술자의 本國歸還, 전력부족 등으로 인하여 가동률이 점차 낮아졌으며, 그 결과 1946년 말 기준으로 면사의 생산량은 8,825천파운드, 면포의 생산량은 22,043yds로 해방 이전(1944년)의 19.9%(면사), 27.4%(면포)로 낮아졌다.

新興紡織과 郡是工業의 대구공장(현 대한방직 대구공장)이 중심이 된 지역면방업계는 해방 이전 시설면에서 전국대비 10.3%에 불과하였으며, 그나마도 해방이 되면서 적산자산의 관리 부재와 자금 부족에 따른 원료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보유하고 있는 시설의 가동마저도 어려운 실정에 있었다.

이와 같은 어려움에 있던 地域綿紡業界가 각광을 받게 된 것은 한국전쟁으로 경인지역에 산재해 있던 생산시설의 파괴로 공장가동이 불가능하였으며, 그리고 戰爭特需로 인한 수요량의 증가에 그 원인이 있었다.

## (2) 生産 現況

일본인들이 퇴거하면서 지역면방생산시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郡是工業 대구공장을 방화함으로써 생산시설과 원료 등이 소실되어 가동되지 못하였고, 新興紡織도 원료난으로 가동중지상태에 있어, 해방 직후부터 1947년까지 지역면방의 생산실적은 부진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하지만 1947년 말 귀속재산에 대한 관리인이 선임됨으로 수리공사 실시에 따라 조업을 부분적이거나 재개하게 되었고, 1949년 三護織物(현 三護紡織) 직기 2,800錘를 설치, 1950년 조업을 시작함으로써 점차 지역면방업계도 활발한 생산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表 3-48〉 大邱 綿紡績設備 狀況 (단위: 錘)

年 度	全國設備 (A)	大 邱 地 域				B/A(%)
		朝紡大邱	新 興 紡	三 護 紡	計 (B)	
1947	275,390	(20,800) 3,200	(5,360) —	—	(26,160) 3,200	(9.5) 1.2
1948	288,256	(20,800) 10,100	(5,360) —	—	(26,160) 10,000	(9.1) 3.5
1949	304,522	(20,800) 12,000	(5,360) —	(2,800) —	(29,960) 12,000	(9.8) 3.9
1950	94,592	(20,800) 14,800	(5,360) —	— 4,800	(31,960) 19,600	(33.8) 20.7

註: ( )는 非稼動 保有現況

資料: 大邱銀行, 《大邱地域 經濟分析》, 1976. 3~4月號.

### 3) 繰綿工業

#### (1) 現 況

해방 전 일본식민지 정책상의 지원혜택으로 성장을 거듭하던 繰綿工業은 해방 이후 이러한 지원의 결여로 인한 농민들의 재배의욕 저하 및 공판의 기피와 원조물자인 원면의 도입으로 조면공업의 경영여건이 악화되었다.

한편 韓一綿業의 대구공장과 안동공장을 중심으로 한 지역조면산업은 해방전인 1944년 기준 면화수집량이 전국대비 13.5%인 1만 7,380斤에 이르는 등 생산활동이 매우 활발 하였다. 그러나 해방 이후 한국전쟁까지 농민의 재배기피와 물가고, 원면도입 등으로 인하여 연간 조업도가 20%에도 미달하는 등 생산활동이 매우 위축되었으며, 1952년 귀속재산의 불하와 더불어 조면공장이 전업함으로써 소수의 가내공장을 중심으로 지역조면업체는 그 명맥을 겨우 유지하였다.

## 3. 1950年代

### 1) 製絲工業

#### (1) 現 況

한국전쟁으로 인한 國民總生産의 감소와 극도의 전시인플레이가 동반되었던 1950년~1953년에, 정부는 생사수출에 관한 大統領의 指示 및 蠶業増産 5個年計劃(1952~1956년)을 수립함으로써 蠶業生産의 戰前回復에 관한 노력이 일어나게 된다. 大統領指示로 絹絲의 絹織物生産을 중시하고 輸出로 전환시키는 동시에 絹織物工場施設을 綿織物工場으로 활용토록 하였고, 그 결과 1952년부터 生絲는 각광받는 수출품으로 등장되었으며 單一品目으로서는 1, 2위를 다투는 輸出主導品目이었고 總輸出額의 비중도 3~5%를 점하게 되었다.

그러나 계속되는 戰時下の 通貨膨脹, 經濟 및 社會不安 등으로 養蠶農家가 희망하는 누에고치값을 반영하여 주지 못하게 되자 養蠶意慾은 低下되었으며, 특히 남부지방에서는 고치의 暗去來가 盛行하여 共販實績 低下에 따른 蠶業増産 5個年計劃의 목표달성에 미치지 못하였다.

한편 原料供給能力이 製絲施設能力에 비하여 절반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고자 1954년부터 養蠶收買價 引上和 埴桑獎勵策도 실시하였다. 1955년 이후 蠶絲振興對策으로써 蠶繭賣買競爭入札制, 生絲에 대한 品質稅免除, 蠶絲融資金 金利引下 桑田國庫補助, 蠶繭生産장려금지급 및 先貸制, 戰後復舊工場 이후 新規工場設立 면허중지(製絲工場整備) 등을 수행하여 왔으나 製絲工場의 稼動率は 1960년까지 극히 저조하였다(〈表 3-49〉 參照).

## (2) 生産 現況

達城製絲慶, 大韓生絲, 新興工業, 慶北蠶絲를 중심으로 생산활동을 전개하던 지역제사공업은 慶北蠶業増産 5個年計劃기간동안의 蠶産計劃量은 1952년 44만 9,400貫, 1953년 50만 2,200貫, 1954년 55만 1,800貫, 1955년 61만 8,500貫, 1956년 71만 4,300貫 설정하였으나, 실제의 생산 실적은 52년도에만 계획량을 상회하였을 뿐 나머지 년도에는 미달하였다.

〈表 3-49〉 蠶絲의 動向

區 分 年 度	全 國				慶 北		全 國 施 設	
	고치 生産量	고치 販賣量	生絲 生産量	生絲 輸出量	고치 生産量	고치 生産量	施設 釜數	稼動率 (%)
1951	45,710	15,364	—	—	14,412	5,875	2,386	42.9
1952	58,861	30,377	445,136	60.1	18,587	8,780	2,721	74.4
1953	58,553	39,333	506,059	86.6	16,100	10,728	3,167	82.8
1954	57,330	31,632	601,579	202.4	16,725	8,246	3,898	54.0
1955	65,350	41,042	541,759	163.0	19,609	10,899	3,982	66.9
1956	59,335	35,368	613,590	211.6	19,390	10,829	4,425	53.2
1957	57,555	34,647	551,040	119.3	16,311	9,692	4,516	51.1
1958	56,700	32,834	562,151	79.8	16,435	9,464	5,053	43.5
1959	54,770	31,866	470,610	101.0	14,822	9,117	5,091	41.7
1960	45,991	28,869	470,235	163.9	13,583	8,026	5,292	35.1

資料: 《蠶絲報》(1956), 大邱蠶絲會. 《韓國蠶業史》(1963), 大韓蠶種會

경상북도내 製絲業의 生絲生産量은 1952년의 경우 전국의 43.4%인 4만 9,524貫, 1956년에는 36.9%인 6만 518貫을 生産함으로써 傳統의인 國內生絲工業의 중심지로서의 기반을 유지하여 왔다.

전국 製絲工業중 慶北 製絲工場의 比重을 살펴보면 거의 絶對的이었다고 할 수 있다. 工場數는 37%인 10個로써 施設釜數는 1955년도에 1,552釜, 1956년 1,239釜, 1958년 1,303釜로써 全國 比重은 各各 36.9%, 29.7%, 25.9%였다. 1955~1958년도에서 비록 施設釜數의 占有率は 매년 조금씩 減少되어왔으나 工場基盤은 여전히 全國 1位를 계속 고수 하였다.

또한 같은 期間中 慶北 蠶絲工業이 購買하였던 年度別 實績을 살펴보면 1955년 31만 3,089貫, 1956년 31만 2,302貫, 1957년 29만 8,629貫, 1958년 29만 3,446貫로 1956년 이후 매년 조금씩

감소하였다.

慶北道內 10個工場 중 大邱 所在 6個工場의 施設能力은 1958년도 基準 運營釜數의 경우, 慶北의 83.9%인 1,093釜, 原料繭所有量은 84.5%인 45만 7,200貫, 購繭實績은 84.2%인 24만 7,199貫으로서 절대적이었다.

## 2) 綿紡織工業

### (1) 現 況

한국전쟁으로 큰 피해를 입었던 綿紡工業은 전쟁 이후 경제재건과 산업부흥 정책 및 의류자급화 정책의 영향으로 1954년에는 전쟁 전의 가동수준까지 증가하였으며, 특히 5.16이 전까지 비약적인 성장을 계속했다.

이러한 성장을 배경으로, 방적설비추수는 1951년 7만 9,794추였던 것이 1959년에 이르러서는 47만 6,632추로 597%의 급성장을 하였으며, 생산실적 역시 이 기간 동안 800%의 성장을 보였다.

한편 전쟁 중 피해를 전혀 입지 않은 지역면방업계는 한국섬유공업부흥대책요강의 발표가 있는 다음해인 1953년부터 급속한 발전을 하게 된다. 1950년대 지역면방업계를 주도한 기업은 大韓紡織, 三護紡織, 内外紡績 등이었으며 이들 기업들은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면방적발전에 큰 공헌을 하였다.

〈表 3-50〉 慶北製絲工場 運營實態(1955~1958)

區分	工 場 數				運 營 釜 數				免 許 釜數				原 料 繭 所 要 量 (貫)			
	1955	1956	1957	1958	1955	1956	1957	1958	1955	1956	1957	1958	1955	1956	1957	1958
경기	4	4	3	2	278	353	426	426	111,200	141,200	170,400	170,400				
충북	2	2	2	2	262	259	280	306	104,800	103,600	112,000	122,400				
충남	3	3	3	3	573	593	656	593	237,200	237,200	262,400	237,200				
전북	3	3	3	3	443	451	443	531	177,200	180,400	177,200	212,400				
전남	4	2	2	2	348	348	336	414	319,200	139,200	134,400	165,600				
경북	10	9	10	10	1,552	1,228	1,239	1,303	505,800	511,200	515,600	541,200				
경남	2	1	1	1	234	234	313	387	93,600	93,600	125,200	154,800				
강원	3	3	3	3	516	670	823	1,057	206,400	268,000	329,200	430,000				
계	31	27	27	26	4,206	4,136	4,516	5,035	1,575,400	1,674,400	1,826,400	2,034,000				

區分	購 繭 實 績 (貫)				所要量 對 購繭比率(%)			
	1955	1956	1957	1958	1955	1956	1957	1958
경기	79,025	65,547	58,069	54,659	71.1	46.4	34.1	32.1
충북	66,102	78,185	74,068	67,116	63.1	75.5	66.1	54.8
충남	140,707	99,639	98,681	57,596	59.3	42.0	34.2	24.3
전북	125,923	96,613	94,483	105,434	71.1	53.6	53.3	49.6
전남	51,522	37,819	34,824	31,724	16.1	27.2	25.9	19.2
경북	313,089	321,310	298,629	293,446	61.9	62.9	57.9	54.2
경남	73,636	58,546	54,441	65,662	78.7	65.6	43.5	29.5
강원	185,842	171,336	216,493	223,605	90.0	63.9	65.8	52.0
계	1,065,846	928,995	920,625	879,242	67.6	55.5	50.4	43.2

資料：《纖維工業統計年報》，1966.

〈表 3-51〉 綿紡工業의 主要指標

年 度	紡 績 錘 數		織 機 錘 數		紡績生産量 (M/T)		綿織物 KM <sup>2</sup>	原絲(M/T)		綿織物 輸出量	雇 傭
	設 備	運 轉	設 備	運 轉	綿 織	化纖絲		消費量	輸入量		
1951	79,794	55,641	1,883	1,636	5,920	—	27,503	6,909	7,303	—	6,831
1953	177,432	127,978	3,822	3,331	13,296	—	55,250	15,838	12,747	—	15,125
1955	370,632	259,704	6,742	5,290	26,570	—	80,263	31,125	38,155	—	21,425
1957	440,552	333,391	10,473	7,151	41,405	82	126,932	47,800	37,263	1,787	18,286
1959	476,632	391,924	10,820	7,299	48,483	838	145,716	55,596	51,847	8,659	—
1960	469,648	416,782	10,054	6,482	49,204	596	137,982	55,985	56,321	12,580	18,164

資料：《紡協 40年史》，p. 755.

## (2) 生産 現況

한국전쟁으로 國內紡績施設의 65.7%인 20만 7,970추와 織機施設의 62.7%인 5,687대가 피해를 입었지만 지역면방직업계의 피해는 전혀 없어 1953년 말경에는 전국방적추수 중 30%를 차지 하였다. 또한 1953년 三護紡織은 UNKRA 원조자금을 기반으로 1만 2,920추의 시설을 도입 하였으며, 内外紡績도 정부보유달러의 지원으로 10,000추를 신설하였다. 그리고 大韓紡績 大邱工場도 1955년부터 기존의 노후시설의 개체 및 증설에 따라 지역면방업계의 생산시설은

1960년에 8만 6,736추에 달하게 되었다.

그리고 면사생산량에 있어 1957년에는 전국대비 18.6%, 1958년 17.0%, 1959년 17.4%, 1960년에는 16.5%를 점유하였으며, 원면소비량의 경우 1957년에는 전국대비 20%선에서 60년에는 16.5%를 각각 차지하게 되었다.

대구면방직공업이 보유한 직기의 전국비중은 9.7%(1956년)에서 14.9%(1960년) 수준으로 5년간 816대(1956년)에서 1,500대(1960년)로 증가 되었다. 한편 지역면방업계는 높은 직기의 비중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의 전국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1956년 9.2%의 전국점유율을 보인 생산비중은 1960년에 10.3%로써 1950년대 말 지역의 3대 면방공장에서는 389千疋의 생산실적을 나타냈으며, 이는 1953~1955년의 전국점유비중 11.0%~15%를 감안한다면 매우 낮은 생산성이었다. 1950년대의 주요면직제품을 살펴보면 廣木, 內廣木, 唐木, 玉洋木, 「포플린」, 「프래넬(웅)」 등이 있으며 1958년 이후에는 「덕크」, 「코디드쉬딩」, 「플레인-쉬팅」, 「드릴」, 「코오듀로이(골덴)」, 防風「트월」 등이 새로운 제품으로 등장하였다.

### 3) 毛紡績工業

#### (1) 現 況

한국전쟁 이후 군수모포 등의 국내조달시책으로 毛紡績工業은 급속한 발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지역모방직공업은 1955년 설립된 第一毛織과 三護紡織을 중심으로 시설을 증설시켜 1960년에는 전국생산시설의 44.1%인 19,888추까지 증설되었다. 특히 이 기간 중 地域毛紡績工業은 第一毛織의 설립으로 인하여 본격적인 모방직생산에 돌입하게 된다. 1954년 자본금 1천만원으로 설립된 제일모직은 1956년 서독기술진과 공동으로 梳毛紡績機械를 설치함으로써 본격적인 毛絲생산에 돌입하였으며, 제일모직은 梳毛服地를 출하함으로써 당시 밀수품으로 크게 유행하던 「마카오」양복지를 국내에서 몰아내는 데 성공하였다.

〈表 3-52〉 大邱綿紡工業의 位置(1957~1960)

	區 分	單 位	1957	1958	1959	1960
設備  錘數	全 國	錘	440,558	468,792	476,632	474,848
	大 邱	(%)	(18.1)	(17.0)	(16.9)	(18.3)
			79,536	79,536	80,436	89,736
	三護紡織	錘	31,600	31,600	32,500	38,800
	大韓紡織	錘	32,576	32,576	32,576	32,576
	内外紡績	錘	15,360	15,360	15,360	15,360

區 分		單 位	1957	1958	1959	1960
綿絲 生產 量	全 國	M/T	41,405	43,751	43,483	49,204
		(%)	(18.3)	(17.0)	(17.4)	(16.5)
	大 邱	千Lbs	16,838	16,554	18,755	17,965
	三 護 紡 織	千Lbs	7,265	6,661	8,567	8,869
	大 韓 紡 織	千Lbs	6,202	6,136	6,446	6,158
	內 外 紡 績	千Lbs	3,371	3,767	3,742	2,938
原綿 消費 量	全 國	M/T	47,800	50,244	55,596	55,984
		(%)	(20.0)	—	—	(16.5)
	大 邱	千Lbs	20,136	19,359	16,685	20,555
	三 護 紡 織	千Lbs	8,535	7,818	9,968	10,131
	大 韓 紡 織	千Lbs	7,194	7,136	2,380	7,005
	內 外 紡 績	千Lbs	4,407	4,405	4,337	3,419

資料：《纖維年報》，1968.

〈表 3-53〉 大邱綿紡工業의 生産實績推移 (단위：천Lbs, 천yds)

年 度	1952	1953	1954	1955	1956	1957	1958	1959
品 目								
綿絲	12	11	19	22	26	11,855	13,756	15,447
全國比重(%)	26.0	15.0	16.6	15.0	15.4	12.9	14.1	14.3
廣木	109	212	198	240	237	13,025	12,563	17,016
全國比重(%)	11.0	15.3	11.9	11.9	10.0	10.1	8.6	10.6

註：1) 綿絲 '52~'56년 단위 千梱, 단위 천Lbs '57~'59

2) 廣木 '52~'56년 단위 千疋, 단위 천yds '57~'59

資料：1) 慶尙北道, 〈産業經濟圖表〉, 1958. 韓國銀行大邱支店

2) 慶尙北道, 〈道勢一覽〉, 1958~1960년.

## (2) 生産現況

1956년 이후 480천Lbs의 생산실적을 보인 지역 梳毛絲의 생산량은 계속적인 시설증가로 1959년 1,520천Lbs로 증가 하게 되었다. 특히 제일모직은 1959년 1,520천Lbs를 생산함으로써 지역전체생산량의 100%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 4. 1960年代

### 1) 製絲工業

#### (1) 現 況

정부의 增産 5個年計劃 등 강력한 장려시책으로 양적이나 질적으로 큰 발전을 이룩하였으며, 1964년 이후 도시화의 진전과 농림부의 양잠육성시책에 의하여 桑田면적은 감소하였고 반대로 산잠량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1970년에는 桑田면적이 1960년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으나 산잠량은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表 3-54〉		梳毛紡績 施設			(단위: 鍾)
區 分		1957	1958	1959	1960
全 國		37,040	37,040	45,136	53,040
大 邱		(40.5)	(40.5)	(40.5)	(44.1)
		14,992	14,992	14,992	22,392
	第一毛織	9,792	9,792	9,792	14,688
	三護紡織	5,200	5,200	5,200	7,704

資料: 《纖維年報》, 1968.

한편 정부는 1964년 4월 누에고치의 生産増大와 製絲工場의 合理化를 위하여 제사시설을 대폭 증설함에 따라 대구의 製絲工場들도 施設을 크게 늘렸다. 당시 전국의 製絲施設은 3,563대 (옥사기 100대 포함)이었고 업체수는 25개(공장단위)이었는데 이 증설시책에 따라 전체 27개 업체에 8,982대의 시설을 갖추게 되었다. 그후 1967년 5월 企業養蠶 육성요강이 발표됨에 따라 신규로 製絲業에 참여 하려는 업자는 桑田을 조성하여 생산단지를 만들고 누에고치에서 직접 생산품을 산출해 내야만 제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기업양잠업에 의한 제사시설이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하여 자동제사기 도입이 활발해졌고, 1968년경 대구의 製絲業界도 대폭적인 시설개체가 이루어졌으며 60년대 말에는 대구를 비롯한 전국에 50여개 공장에 제사기 면허대수만도 1만 5천여대에 이르렀으며 생산량도 크게 증가하였다.

#### (2) 生産 現況

1960년 3만 7,779개(기계사는 10개 공장에 지나지 않았으며, 나머지는 在來絲를 生産하던 家庭)이던 대구지역의 생사생산업체는 1969년에는 3만 2,042개로 10년간 많은 기복을 나타내었다. 이들 공장에서 생산한 생사는 1960년 3만 9,000Kg이던 것이 1969년에는 71만 8,944 Kg으로 18배 이상의 증가를 나타냈다(〈表 3-56〉 참조).

〈表 3-55〉 大邱 桑田面積 및 家蠶生産 및 共販量

年 度	상전면적 (단보)	양잠호수		소립매수 (단위: 반)			산잠량(kg)			공판량(kg)		
	계	봄	가을	계	봄	가을	계	봄	가을	계	봄	가을
1960	1,159	1,145	707	780	527	253	3,507	2,771	736	5,719	5,716	3
1961	1,255	1,582	508	728	468	260	3,636	2,336	1,300	821	603	218
1962	1,278	1,428	774	744	483	261	3,844	2,800	1,044	2,505	1,975	530
1964	632	160	142	106	54	52	2,950	2,170	780	3,012	2,236	776
1966	443	199	149	234	127	107	6,114	2,904	3,210	7,076	3,350	3,726
1967	534	190	164	278	151	127	6,100	3,300	5,800	6,621	3,891	2,730
1968	512	222	222	343	176	167	7,162	4,012	3,150	5,561	3,841	2,720
1969	353	276	162	428	234	194	10,200	6,850	3,350	10,190	6,844	3,346
1970	353	162	162	—	—	—	7,792	5,192	2,600	6,111	3,611	2,500

資料: 大邱直轄市, 《大邱統計年報》, 1960~1970.

〈表 3-56〉 大邱 生絲業體 生産 實績 (단위: 個, 名, kg)

年 度	總 數			機 械 絲			在 來 絲		
	工場數	從業 員數	生産量	工場數	從業 員數	生産量	工場數	從業 員數	生産量
1960	37,779	36,093	39,364	10	1,359	22,158	37,769	34,734	17,206
1961	20,710	19,058	42,590	9	1,049	32,811	20,701	18,009	9,779
1962	22,901	20,973	56,882	10	1,385	48,205	22,891	19,583	8,677
1965	14,744	16,095	253,005	9	1,497	226,112	14,735	14,598	26,893
1966	25,155	26,355	343,795	10	1,031	318,491	25,145	25,324	25,604
1967	31,933	34,120	462,001	11	2,165	429,156	61,922	31,955	32,845
1968	41,333	43,183	569,491	12	2,190	510,106	41,321	40,993	59,385
1969	32,042	36,009	718,944	15	2,400	682,245	32,027	36,699	36,699

資料: 慶尙北道, 《慶北統計年報》, 各 年度.

## 2) 綿紡織工業

### (1) 現 況

綿紡織工業은 적합한 기후조건과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일찍부터 발전을 하여 왔으며

우리나라 공업화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대구지역 역시 해방 이후 綿紡織工業을 기반으로 공업화를 이룩하여 왔으며, 면방직을 중심으로 한 섬유산업은 지역경제발전에 공헌한 바가 크다.

〈表 3-57〉 大邱 生絲業體 生産 實績 (단위: 個, 名, kg)

年 度	總 數			機 械 絲			在 來 絲		
	工場數	從業員數	生産量	工場數	從業員數	生産量	工場數	從業員數	生産量
1960	37,779	36,093	39,364	10	1,359	22,158	37,769	34,734	17,206
1961	20,710	19,058	42,590	9	1,049	32,811	20,701	18,009	9,779
1962	22,901	20,973	56,882	10	1,385	48,205	22,891	19,583	8,677
1965	14,744	16,095	253,005	9	1,497	226,112	14,735	14,598	26,893
1966	25,155	26,355	343,795	10	1,031	318,491	25,145	25,324	25,604
1967	31,933	34,120	462,001	11	2,165	429,156	61,922	31,955	32,845
1968	41,333	43,183	569,491	12	2,190	510,106	41,321	40,993	59,385
1969	32,042	36,009	718,944	15	2,400	682,245	32,027	36,699	36,699

資料: 慶尙北道, 《慶北統計年報》, 各 年度.

초기 수입대체산업으로 발전을 거듭하던 면방직산업은 지속적인 시설확장과 기술의 개발, 경영의 합리화를 통하여 196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수출주도산업으로 전환되었다. 60년대 지역면방공업은 大韓紡績 大邱工場, 三護紡績, 内外紡績 등 3대 면방직업체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면방산업의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들 면방업체들은 綿絲생산으로 지역직물업체에 원자재를 공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면방직 생산시설을 갖추으로써 지역섬유산업의 주축기업으로서의 자리를 굳혀왔다.

## (2) 生産 現況

지역면방업체들은 1960년대 이후 정부의 면방업육성정책에 힘입어 착실한 성장을 계속하여 왔으며 대한방직을 비롯한 3개 면방공장의 면방직설비는 1960년 기준 총 8만 6,736추로써 전국의 18.3%의 비중을 점하고 있다. 하지만 1968년 전국 17개 방적공장의 설비추수는 4만 4,677추로 1960년대에 비해 50.6%가 증가한 데 비하여 지역방적공업의 설비는 17.4%의 증가에 그치고 있어 3개 공장 모두 전국평균 증가율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또한 이들 3개 공장들이 보유한 제직부문설비 역시 1960년 이후 시설의 증가가 전혀 보이지 않는데, 제직부문의 경우는 방적부문과는 달리 전국적인 현황 역시 큰 변화가 없었다.

〈表 3-58〉 綿紡績設備 狀況 (단위 ; 추)

年度	國內總設備 (A)	大邱地域(B)				B/A (%)
		大韓紡織	三護紡織	内外紡織	計	
1960	474,848	32,576	38,800	15,360	86,736	18.3
1961	492,576	28,865	38,800	15,360	83,025	16.9
1962	543,720	30,959	38,800	15,360	85,119	15.7
1963	590,680	35,384	35,151	17,104	90,639	15.3
1964	606,680	35,697	40,906	17,104	93,707	15.4
1965	628,928	36,232	49,480	17,104	102,816	16.3
1966	677,284	35,374	42,144	17,104	94,622	14.0
1967	728,672	39,432	38,800	20,304	98,536	13.5
1968	759,512	32,576	38,800	30,384	101,760	13.4

註：設置鍾數는 期末基準인.

資料：大邱紡績協會, 《纖維年報》, 1969.

한편 이 시기의 직물산업은 화학섬유의 등장이라는 큰 변화를 겪게 된다. 화학섬유의 등장은 1950년대에서 1960년대까지 섬유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던 면방직산업의 위치를 차지하였으며, 지역면방직 산업은 이러한 화학섬유의 등장과 1960년대 말 불경기는 삼호, 내외방직이 폐업, 경영권이 대한농산으로 이관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大韓紡織을 제외한 2개 공장의 경영층의 교체로 정상조업을 하지 못하였으며, 대구지역의 생산실적이 전국실적에 크게 미달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表 3-59〉 織物設備 狀況 (단위 : 鍾)

年度	國內總設備	大邱地域				大邱의 比重(%)
		大韓紡織	三護紡織	内外紡織	計	
1960	10,054	816	272	330	1,418	14.1
1961	9,815	816	272	330	1,418	14.4
1962	9,480	816	272	330	1,418	15.0
1963	9,527	816	272	330	1,418	14.9
1964	11,300	816	272	330	1,418	12.5
1965	11,428	816	272	330	1,418	12.4
1966	11,102	816	272	330	1,418	12.8
1967	11,162	816	272	330	1,418	12.4
1968	9,473	816	272	330	1,418	14.1

資料：大邱紡績協會刊, 《纖維年報》, 1969.

大邱紡績協會, 《紡績》, 1976. 3~4.

전쟁 중 한때 전국생산량의 27.1%를 공급하던 지역면사생산은 휴전후 복구과정에서 타지역의 면사생산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그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졌다. 이 시기의 면사생산량은 1960년 8,149M/T의 생산을 기점으로 더 이상 증가하지 않았는데, 이는 화학섬유의 등장이 그 주된 요인이다.

### 3) 毛紡織工業

#### (1) 現 況

羊毛생산에 부적절한 환경으로 인하여 비교적 짧은 역사를 지닌 우리나라의 毛紡織공업은 매우 빠른 성장을 하여 단기간에 기술과 제품생산이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렀다. 당시 모직공업은 절대공급량이 부족한 시기에 매우 유망한 업종이기는 했지만 原毛의 전량수입으로 원모수입량에 따라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表 3-60〉 地域 綿絲生産量 (단위 : M/T)

年度	國 内 總生産量	大 邱 地 域				大 邱 의 比重(%)
		大韓紡織	三畿紡織	内外紡織	計	
1960	49,204	2,793	4,023	1,333	8,149	16.6
1961	44,190	2,686	2,503	1,359	6,548	14.8
1962	52,503	2,681	2,517	1,506	6,704	12.8
1963	62,566	3,221	3,899	1,836	8,956	14.3
1964	64,881	3,562	3,560	2,316	9,483	14.5
1965	66,054	3,907	2,503	2,533	8,943	13.5
1966	69,799	3,903	3,394	2,909	10,206	14.6
1967	75,303	3,384	3,236	3,028	9,648	12.8
1968	84,556	3,803	5,200	3,539	12,542	14.8

資料 : 大邱地方國稅廳, 《纖維年報》, 1969.

한편 지역모직공업은 1954년 第一毛織 설립이후 급성장하여 1960년대 초반에는 10여개 미만의 업체수가 1960년대 후반에는 급속도로 증가하였다. 초기에 제일모직을 제외하고는 이들 모직업체들은 한개 업체당 5~10개의 직기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1960년대 후반에 이르면서 10~20대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또한 생산형태도 1960년대 초까지는 단순한 검은색 계통의 복지를 주로 생산하였으나 1960년대 말에 와서는 패션의 변화와 해외수요로 인해 점차 多品種少量生産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었다.

한편 이시기에 활약한 毛織業體로는 第一毛織을 비롯 慶北企業(大和毛織), 玉山毛織(현 경도섬유), 성신모직, 신일모직, 한창모직, 삼영모직, 신영모직, 신창모직, 한원모직, 옥일모직, 영남모직, 영화모직 등 10여개 업체였다.

## (2) 生産 現況

1956년 제일모직이 梳毛紡施設 4,896추를 가동하면서 시작된 지역 소모사공업은 1961년 전국비중 32.5%의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이후 타지역의 급격한 생산시설의 증가와 1965년까지 생산시설의 증설이 이루어 지지 않아, 1970년에는 전국대비 7.0%로 감소하였다.

第一毛織 생산실적을 기준으로 한 지역모사생산량은 1970년까지 연평균 18.2%의 성장률을 유지하였으며, 毛服地の 경우 연평균 37.2%의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이러한 성장을 바탕으로 지역 梳毛紡工業의 주종품인 梳毛絲와 梳毛織物의 생산량은 괄목할 만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그 동안 대구지역이 전국 모직물 시장을 주도하면서 국내시장을 확보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품의 개선을 통한 해외시장개척에 힘써 왔기 때문이다.

〈表 3-61〉 梳毛紡施設 推移

年度	全國(A)	大邱(B)	B/A(%)
1960	45,136	14,688	32.5
1961	53,040	14,688	27.7
1962	54,240	14,688	27.7
1963	54,240	14,688	27.7
1964	70,644	14,688	20.8
1965	76,164	14,688	19.3
1966	77,844	14,688	18.9
1967	167,844	20,288	12.1
1968	196,966	20,288	12.1
1969	271,900	22,472	8.3
1970	320,300	22,472	7.0

資料：韓國梳毛紡協會 및 第一毛織 《毛織二十年史》.

〈表 3-62〉 大邱地域 梳毛紡織物 生産現況 (단위: 천L/B, 천yds)

年 度	梳毛絲	紡毛絲	計	梳毛織物	紡毛織物	計
1960	1,521	194	1,715	571	15	586
1961	2,093	191	2,284	933	68	1,001
1962	3,037	174	3,211	1,252	113	1,365
1963	3,386	190	3,576	1,281	113	1,365
1964	1,603	179	1,782	1,112	120	1,232
1965	2,142	144	2,286	1,666	117	1,783
1966	2,955	205	3,160	1,816	146	1,962
1967	4,102	244	4,346	2,727	143	1,962
1968	4,730	351	5,086	3,364	235	2,870
1969	4,788	407	5,195	3,494	293	3,787
1970	4,215	313	4,528	3,710	323	4,033

註: 1) 1969년도 505방모사 생산실적은 1,284.4L/B임.

2) 제일모직외의 하청업체생산량은 제외됨.

資料: 第一毛織 《毛織二十年史》.

### (3) 毛織物 輸出實績

초기의 모제품은 품질면에서 외국제품에 비해 어느 정도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으나, 생산 후 2년만에 영국제 양복지와 대등한 수준으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품질의 향상을 바탕으로 제일모직은 1961년 2월 服地 3천yds를 UN군에 군납하였고, 동년 7월 장미표 梳毛絲 8천Lbs를 홍콩으로 처음 수출하면서 본격적인 수출을 시작하였다. 그후 1962년, 1963년 毛絲와 服地를 이란과 싱가포르에 수출하면서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된다.

이러한 수출의 신장세는 1960년대 말까지 지속되어 1969년에는 356만 4천달러를 달성함으로써 지역 梳毛織 수출실적은 우리나라 모직수출의 50%상당을 달성함으로써 국내 유모방 수출을 주도 하였다. 수출제품도 초창기에는 毛絲가 주를 이루었지만 1964년 이후 복지 수출의 증가로 인하여 모직물 수출이 모사수출보다 증가하게 되었다.

〈表 3-63〉 大邱地域의 毛製品 輸出 伸張推移 (단위: 달러)

年度別 製品別	1961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毛 織 物	—	—	11	725	2,041	2,019	2,874	3,239	2,093
毛 絲	12	32	575	237	362	538	604	332	661
合 計	12	32	586	962	2,403	2,557	3,478	3,571	2,754

資料: 大邱市 輸出實績 및 第一毛織, 《毛織二十年史》.

한편 지역 모직공업의 주요 수출시장을 보면 초기에는 홍콩을 포함한 동남아에 치우쳐 있었으나, 차츰 輸出市場의 다변화를 통해 1969년경에는 수출시장이 10여개국으로 다변화 되었으며, 미국시장은 1964년 이후 꾸준한 수출의 증가로 인하여 최대수출시장으로 부상하였다.

#### 4) 化纖工業

##### (1) 나일론공업

지역섬유산업의 전통적 생산품은 廣木, 玉洋木 등 100% 견직물이었으나 한국나일론에서 「나일론」絲를 생산함으로써 「나이론타프타」의 제직이 급증하였고, P/C 혼방직물의 생산으로 견직물과 인견직물의 생산비중은 크게 줄어든 반면 나일론타프타를 선두주자로 하는 합섬직물 시대가 개막되었다.

1938년 미국의 듀퐁(Dupont)사가 개발한 나일론이 지역에 등장한 것은 한국나일론(코오롱의 전신)이 1963년 8월, 대구에서 나일론필라멘트사를 생산하면서 부터이다. 나일론섬유공업은 한국나일론의 생산시설 가동으로 종래 수입에만 의존하던 상태에서 수요량의 일부나마 국내에서 공급하게 되었다.

초기 한국나일론은 1일생산 2.5M/T규모로 시작한 1960년대 초만 하더라도 국내에서는 가장 많은 양의 合纖原料를 공급하여 사실상 국산 나일론의 원료공급을 사실상 지배하였으나 1960년대 중반 이후 타경쟁사의 시설확장으로 인하여 1970년에는 전국 나일론F사 생산시설의 37.4%만을 차지하였다.

한국나일론의 1960년대의 이러한 활약은 20세기 후반 세계적인 성장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화섬공업을 우리나라에 도입하였다는 점에서 평가되어야 하며, 기타 합섬섬유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약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表 3-64〉 우리나라 나일론F사 生産能力 推移 (단위: 톤)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코오롱 (한국나일론)	2.5 (100)	2.5 (65.8)	2.5 (65.8)	2.5 (65.8)	2.5 (45.5)	10.0 (48.8)	10.8 (54.5)	21.2 (37.4)
동양나일론	—	1.3 (34.2)	1.3 (34.2)	1.3 (34.2)	3.0 (54.5)	10.5 (51.2)	15.0 (45.5)	35.5 (62.6)
합 계	2.5	3.8	3.8	3.8	5.5	20.5	33.0	56.7

資料: 《코오롱 20年史》



## (2) 폴리에스터 공업

1960년대 우리나라 의류제품 소재는 純毛 또는 「毛/폴리에스터」의 混紡織物, 棉이 주를 이루고 있었으며 대체적으로 의복의 소재가 풍부하지 못한 실정이었다. 또한 폴리에스테르와 면의 혼방직물의 개발이 별로 되어있지 않았으며 폴리에스터의 생산도 초창기에 있었다.

第一毛織은 이러한 국내섬유산업의 배경을 바탕으로 「폴리에스터/레이온」 혼방부내의 사업을 확장시키려고 시도하였고, 곧이어 1969년 9월 「폴리에스터/레이온」 혼방 1만추를 경산공장에 건설함으로써 합섬부문에 진출하였으며, 1970년 8월에는 2만여 추를 완성하여 모두 3만추의 설비를 갖추게 되었고, 제직설비도 함께 갖추게 됨으로서 원사에서부터 제직 생산설비를 갖추게 되었다. 第一毛織은 학생복지, 신사복지 등을 주로 생산하였으며, 또한 第一毛織은 1960년대의 나일론시대를 거쳐 1970년대 폴리에스터 시대를 개막하게 되었다.

## 5. 1970年代

### 1) 綿紡績工業

#### (1) 現 況

정부의 강력한 經濟開發計劃과 海外市場의 수요가 급증하기 시작한 1970년대 초 지역면방 업체들은 대규모 공장들을 건설하기 시작하였다. 즉 1973년 1월 嶺南紡織의 설립을 시작으로 韓一合織을 비롯한 16여개의 工場이 가동을 시작하였다.

1970년대에 들어와서 설립된 공장들은 기술축적 기간이 일천하여 고급제품 및 細番手綿絲의 생산은 어려웠으나, 생산시설이 비교적 양호하여 품질수준은 기타지역에 비해 큰 차이가 없었다. 당시 지역면방공업의 평균시설규모는 약 8만 8,778추로써, 전국 평균 10만 2,973추에 비하여 규모가 다소 적은 편이며, 시설규모가 가장 큰 공장은 한일합섬 대구공장(15만 3,672추)이었다. 당시 역내 면방업체로는 大韓紡, 大農, 韓一合織, 嶺南紡, 甲乙紡, 東國紡 등이 있었으나, 토착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東國紡, 嶺南紡, 甲乙紡 등 3개사에 불과하였고 나머지 업체들은 공장만을 역내에 소재하여 생산활동을 하고 있을 뿐 실질적인 영업활동은 서울에서 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면방업체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화섬업체를 비롯한 대부분의 섬유업체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 (2) 生産 現況

## ① 生産實績

지역의 면방생산량은 1948년 大韓紡織 大邱工場이 생산을 시작한 이래, 한국전쟁을 전후해 한 때 全國生産量の 27.1%의 높은 비중을 차지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1970년대 들어서면서 大韓紡織을 제외한 2개의 공장이 자사의 경영문제로 정상조업을 중단하게 되었고 새롭게 건설된 공장들의 조업이 1975년 이후에야 가동을 하게 되어 조업상태가 지속되지 못하였다.

한편 면방직은 1950년 대한방직이 생산을 시작한 이래 1970년대 전반기에는 영남방직과 태화방직, 1970년대 후반에는 갑을방직과 동국방직이 본격적인 생산활동을 개시함에 따라 「링(Ring)」방직의 경우 지역생산량이 전국비중의 22.7%를 차지하는 등 급속한 성장을 계속하였다. 한편 1960년대 중반부터 새로운 紡績法으로 주목을 집중시켰던 空氣精紡機(Open End Spinning)에 의해 갑을방직과 영남방직 등이 OE紡績施設 4,892臺를 보유하게 되었다. 그리고 1982년 3월 말 현재 전국시설 2만 1,896臺의 22.3%를 차지하였으며 생산량은 26%를 점유하게 되었다. 그러나 다른 纖維製品과는 달리 綿絲部門은 지역적으로 고루 분산되어 있어 지역적인 특성을 찾아보기 힘들다 하겠다.

「링(Ring)」방직의 경우, 우리나라 면방업체의 綿絲平均番數가 27手 수준인데, 대구·경북지역의 면방공장 중 平均番數 이상을 생산하는 업체는 韓一合纖과 泰和紡織 2개사 뿐으로 나머지 6개 공장은 국내 平均番數 이하의 제품을 주로 생산하고 있다. 이는 일부 업체의 경우 직기의 노후화로 인한 탓도 있겠으나 주된 원인은 자금사정으로 低級原綿을 사용하여 물량위주로 생산을 하는데 기인한다고 하겠다. OE紡績의 생산량은 Ring紡績에 비해 약 3배 가까이 되나 細番數의 생산은 어려운 실정이며, 우리나라 및 역내 면방업체의 OE紡績에 의한 平均番數는 11手 정도였다.

## ② 輸出入實績

대구지역의 絲類 수출실적은 1970년 54만 4천 달러에서 1979년에 2,318만 9천달러로 10년 동안 42.6배의 성장을 보였으나 직물류 수출도 동시에 급성장함에 따라 섬유류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79년 현재 3.6%로 매우 낮았다.

〈表 3-65〉 大邱地域의 原綿輸入 實績 (단위: 천달러)

연	도	실	적
1971		11,854	
1972		5,160	
1973		4,710	
1974		5,059	
1975		15,022	
1976		26,314	
1977		44,789	
1978		58,319	
1979		62,441	

資料: 大邱稅關

그리고 대구지역 면방업계의 原綿輸入 상황을 보면 1973년 이후 新增設이 가속화 됨에 따라 수입액이 해마다 크게 늘어났다. 大邱地域業界의 原綿購買資金은 업체별로 상이하나 CCC資金, GSM102資金, 180일「유산스」 등이며 수입대상국은 주로 미국이었다.

## 2) 合纖工業

1970년대의 대구 섬유산업은 수출 드라이브정책에 힘입어 급격한 신장세를 보였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化纖工業의 성장이 돋보였다. 이 기간 동안의 꾸준한 수요 증가 추세에 발맞추어 한국나일론(현재 코오롱 大邱工場)을 비롯한 제일, 고려 등이 속속 「나일론」原絲와 「폴리에스터」原絲를 공급함으로써 地域纖維産業은 본격적인 合纖織物時代에 돌입하게 되었다.

지역화섬산업의 생산현황을 살펴보면, 1974년 기준으로 실생산량이 나일론의 경우 37.4%, 폴리에스터의 경우는 82.0%으로 전국대비 각각 30.8%, 28.2%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1975년 4월 말 현재 지역 화섬방시설은 제일합섬이 5萬鍾, 중앙섬유가 2만 5,200鍾, 한일합섬이 1만鍾, 모두 8만 5,200鍾에 이르렀다.

한편 1970년대 후반에 들어 코오롱이 「나일론 F」를 78년에 27%, 82년 14%을 증설하였으며 「폴리에스터 F」는 1980년~1982년까지 매년 10%씩, 그리고 「타이어 코드」는 1980년에 10%를 증설하여 1982년 말 현재 「나일론 F」 83.1%, 「폴리에스터 F」(타이어코드용 포함) 104%의 시설을 보유하게 되었다. 그리고 제일합섬은 1980년에 「폴리에스터 SF」 20% 증설과, 82년 24.0% 규모의 「폴리에스터 F」 공장 준공으로 「폴리에스터 SF」 70.0%, 「폴리에스테르 F」 24.0%의 시설을 갖추었다.

1970년대 말이 되면서 地域化纖業界는 전반적인 생산구조가 나일론 중심에서 폴리에스테르 중심으로 바뀌게 되었다. 즉 「나일론 F」絲는 1976년 22,543%에서 1980년에 27,578%으로 5년동안 22.3%의 증가에 그쳤으며, 「폴리에스테르 F」와 「폴리에스테르 SF」는 동기간 동안 각각 34.8%와 33.8%가 증가하였다.

〈表 3-66〉 大邱地域 化纖業界의 生産 推移 (단위: %) (단위: %)

年度別 品目別	1976	1977	1978	1979	1980
나일론	22,543	24,013	25,302	27,332	27,578
타이어코드	7,280	9,530	7,178	8,412	9,293
폴리에스터F	17,368	17,917	20,569	22,364	23,413
폴리에스터F	17,702	20,328	24,816	22,651	23,596
합 계	64,893	71,788	77,865	80,759	83,880

資料: 코오롱, 제일합섬

〈表 3-67〉 大邱·慶北地域 化纖業界의 需要別 出庫 現況 (단위: %) (단위: %)

區 分	1976	1977	1978	1979	1980
內 需	16,183	19,693	26,524	26,962	23,542
輸 出	37,994	40,079	44,114	48,845	55,078
計	54,177	59,772	70,638	75,707	78,620

資料: 코오롱, 제일합섬

한편 이 기간동안 지역업체의 總出荷量은 78,620% 으로서 수출 55,078%, 내수 23,542% 로 수출의 비중이 70%를 차지하였다. 업종별 수출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表 3-68〉 地域 化纖産業의 需要 狀況 (단위: %) (단위: %)

區 分		1976	1977	1978	1979	1980	80년 構成比
나일론F	內需	7,558	8,890	13,771	10,496	10,021	29.9
	輸出	16,279	16,912	18,088	23,150	23,461	70.1
	計	23,837	25,802	31,859	33,646	33,482	100
폴리에스테르SF	內需	2,781	3,568	5,348	7,881	4,839	15.6
	輸出	10,860	13,137	4,174	13,695	31,303	84.4
	計	13,641	16,705	19,514	21,576	31,047	100
폴리에스테르F	內需	5,844	7,235	7,413	8,513	6,352	28.9
	輸出	10,855	10,030	11,852	12,036	15,662	71.1
	計	16,699	17,265	19,265	20,549	22,014	100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국내섬유를 中間製品 및 最終製品으로 수출함에 따라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을 기반으로 한 地域化纖工業은 原料供給基地로서 급격히 성장하여 왔다. 이러한

地域纖維産業의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地域合纖維物業界는 자체적인 기술개발의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化纖原絲素材의 貧困 등으로 인해 대부분 下請生産을 하는 실정이었다. 이처럼 자발적인 수요창출이 아니라 모기업의 지시와 해외수요에 의존한 생산을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에서 地域化纖業界는 高價品の 高級製品보다는 低價品위주의 생산에 치중함으로써 後發開途國의 추격과 先進國의 輸入規制를 동시에 받는 어려운 국면에 처하게 되었다.

## 6. 1980年代以後

### 1) 現 況

1986년 3월 기준 대구·경북직물조합에 등록된 면직물업체수는 299개로서 전국 1,164개 업체(1984년 말 기준)의 25.7%를 차지하고 있으며, 域內纖維業體에 대한 면직물업체의 비중은 20.3%에 달하고 있다. 생산시설면에서는 1980년 전국대비 61.6%의 점유도를 보였으나, 타지역 시설의 증감에 따라 점유도는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어 1982년의 경우 전국대비 77.4%의 높은 비중을 보이기도 했으나, 1985년 6월에는 50.7%로 감소되었다.

이러한 감소는 그 이후에도 계속되어 1991년 12월 현재 대구 경북직물조합에 등록된 면직물업체수는 545개업체, 등록기계대수는 2만 5,555대로, 업체당기계수 역시 지난 1990년 대비 16.5%의 감소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감소의 원인은 산업합리화와 관련, 구직기의 폐기와 면직물의 경기침체로 汎用機械 보유업체들이 화섬직으로 업종전환을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역면방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직기 중 減價償却 기한 경과분이 전체의

〈表 3-69〉 地域 綿紡業界의 綿織機 現況

구 분	1988	1989	1990	1991
총 시 설 대 수	34,825	33,993	30,857	25,55
반 자 동	21,162	19,097	14,689	9,037
자 동	9,997	10,630	9,452	9,342
A. J. L.	493	624	1,759	2,300
그 리 퍼	—	—	52	64
레 피 어	3,173	3,642	4,635	4,812
등록업체수	688	675	630	545
업체당기계수	50.6	50.2	48.6	46.9

註：등록시설기준

資料：섬유진흥기술연구원

36.1%인 9,216대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16년 이상 경과한 직기도 13.6%에 달하고 있다.

한편 1988년 이후 3고대근무의 실시와 급격한 임금상승으로 인한 원가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역면방업계는 생산시설의 자동화를 서두르게 되었고 이에 힘입어 1988년 말 기준 자동화율이 34.5%에 달하게 되었다. 고용면에서 지역면방업계의 총 고용율은 1990년 12월 기준 84.3%에서 1991년 말 현재 82.6%로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고용률의 감소는 3D현상으로 인하여 타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근무환경과 후생시설의 수준 및 임금수준이 낮은 면방업계를 기피하기 때문이다.

## 2) 生産 現況

1980년대 地域綿織物業界의 생산시설가동률은 상승과 하강을 반복한다. 84년 2/4분기 중 72.8%의 보인 가동률은 그후 하락하기 시작하여 85년 3/4분기에는 66.3% 까지 하락하였다. 85년 4/4분기 이후 수출의 증가로 인하여 다시 상승을 보이기 시작한 가동률은 87년 7월에는 83.0%까지 상승하였으며 87년 이후 원화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수출의 감소와 중국산 면직물의 수입증가로 다시 하강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1987년 4월 403억원의 생산실적을 보인 地域綿織物業界는 88년 4월에는 전년의 6%가 감소한 377억 달러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생산이 저조한 것은, 미국 및 구주지역의 섬유경기가 둔화되었고, 환율의 상승으로 손익분기점인 750원대를 돌파하면서 채산성이 극도로 악화 된데 있다.

〈表 3-70〉 大邱地域 綿織物業界의 稼動狀況 및 生産實績

區 分	1986	1987	증가율 (%)	1987 (1-4월)	1988 (1-4)	증가율 (%)
正常稼動業體比率(%)	75.6	80.6	5.0	81.2	76.0	-5.2
生産實績(백만원)	98,249	118,242	20.3	40,353	37,732	-6.5
平均調査業體數	323	412	-	412	412	-

資料：中小企業協同組合中央會, 大邱·慶北支部.

한편 견직업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大邱·慶北織物組合加入業體의 1987년도 평균고용률은 1986년도의 85.6%보다 1.5%가 떨어진 84.1%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합리화업종 지정에 따른 산업합리화 자금지원으로 직기의 改替 및 増設이 이루어짐으로써 인력절감효과가 발생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1988년에 들어오면서 고용률은 다시 약간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3교대 근무제의 정착으로 雇傭增大效果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 3) 内需 및 輸出

G-5회담 이후 지속된 엔화의 강세는 地域纖維産業의 가격경쟁력을 제고시켜, 유럽, 일본, 중동지역으로의 수출을 증대시켰다. 특히 87년에는 9,727만 1천 달러의 수출실적을 보여 전년대비 34.4%가 증가했다. 하지만 1988년에 들어오면서 美洲市場의 경기위축으로 인한 수요의 감소와 중공, 파키스탄 등 원면생산국들이 자국의 저임금 노동력을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국내시장에 진출함에 따라 지역수출은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1988년 1~4월 동안 전년대비 11.6%가 감소한 107억 7천만원에 그쳤다. 이러한 감소의 요인중 주된 요인은 저렴한 중국 및 파키스탄의 저렴한 원사가 대량으로 수입되고 있는데다가 지역기업의 내수기반마저 취약해 이에 적절히 대응할 태세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수출감소는 1991년에 들어서면서 최대수출시장인 홍콩과 동남아 등지의 봉제용직물 수출이 증가하면서 다시 호조를 보이기 시작하여 전년대비 8.8%가 증가를 보이게 된다.

한편 원화의 절상과 저가 면사의 수입으로 지역면사의 가격은 1988년 5월 말 기준으로 20수가 1987년 말보다 11.1% 하락한 422만 5천원의 가격으로 거래되었으나 1991년 상반기 중 일본지역의 오더증가, 이란지역의 「카드」絲와 「P/C」絲의 특수, 호주시장회복에 의한 면사 직수출 증가와 인력난에 따른 생산차질로 구득난이 심해져 가격이 폭등하였으나 할당관세의 실시로 중국, 파키스탄 등지에서 수입물량이 증가되었고, 買氣부진에 따른 수요감소로 공급과잉을 초래하여 가격이 크게 하락하여 현재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면사의 가격하락의 주된 요인 중의 하나로 지적되어야 하는 것은 1987년 말 면사부족시기에 地域綿絲生産業體들이 재고를 비축한 것도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 III. 織物製造工業

### 1. 解放以前

대구지역에 있어서 織物의 기원이 언제부터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신라시대에 麻織과 絹織이 수공업형태로 영위되었으며, 760년경부터 고려시대까지는 絹織物産業의 중심지 역할을 하였다. 1370~1380년대 목화재배가 시작된 이래로 대구지역은 朝鮮時代 후반까지 絹布, 麻布

등이 가내수공업형태로 영위되었다.

대구지역에 織物工場이 처음 들어선 것은 1908년 5월 大邱府 村上町에 일본인 纖維米吉이 세운 纖維染物工場이며, 한국인이 설립한 최초의 직물공장은 1915년 秋仁鎬씨가 대구의 인교동에서 足踏機 20대를 갖춘 東洋染織所를 설립한 것이 그 시초이다. 그리고 1920년대에 접어들면서 洪在龍가 合同織物工場을 설립하였고, 김문식, 이복바우, 김병필씨 등이 직물제조업에 참여함으로써 달성동 근처에는 베틀소리가 그치지 않았다고 할 정도로 직물공업이 번창하였다. 특히 대구에 織物業이 뿌리를 내리게 된 것은, 1916년에 개발된 東洋苧가 고종황제의 國喪을 맞아 널리 알려지면서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하였다.

1910~1920년대에 호황을 누리던 지역직물업계는 1930년대에 침체기로 접어들면서, 1935년 기준 전국직물공업의 8.4%를 점유하던 지역직물업계의 생산량이 1939년에는 6.3%로 감소되었다. 1930년대 地域織物工業의 이러한 침체는 世界大恐慌의 영향을 받은 地域織物業體의 연쇄도산과 일본자본이 하청생산조직을 지배할 목적으로 가내공업을 위축시킨데 그 원인이 있다.

1940년대에 접어들면서 1930년대의 침체기를 벗어난 지역직물업계는 일본자본이 설립한 日本群是紡織(株) 大邱工場과 朝鮮漁港(株) 大邱工場을 기반으로 하여 近代産業으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이들 3개의 綿紡工場은 현재와 같은 綿紡業은 아니었고, 大麻와 生麻를 주원료로 한 군복지와 「메리야스」생산이 고작이었다.

## 2. 解放以後~1950年

### 1) 現 況

이 기간의 國內織物工業은 국내에서 생산된 繭絲와 재고수입품인 人絹絲를 원료로 한 絹織業이 중심을 이루었다.

國內 絹, 人絹 製造工場은 146개로서 이들 공장이 보유하고 있는 織機 總臺數는 11,540臺였으며 연간 최고생산능력은 5만 2,038천야드에 달하였다. 그러나 원료사정의 악화와 시설 노후로 인해 1947년의 가동률은 總織機臺數의 36.9%인 4,258臺만이 가동되었으며, 생산실적 역시 연간 최고생산능력의 10.4%인 5,395천야드 정도를 舉場하였다.



〈表 3-71〉 慶北織物業의 位置 (단위: 千圓)

區 分		年 度	1935	1938	1939
慶 北 織 物 類 生 產 額	綿織物		1,093	1,748	1,379
	絹織物		1,384	2,053	3,584
	絹綿織物		60	33	6
	麻織物 및 麻交織物		1,113	1,325	1,258
	毛織物		—	—	—
	人造絹織物		—	98	40
	人造交織物		8	15	156
	其他織物		—	5	986
小計(A)			3,658	5,277	7,409
慶北 工業生產額(B)			48,236	65,179	81,357
全國 織物類生產額(C)			43,772	86,118	101,963
比重	A/B(%)		7.6	8.1	7.9
	A/C(%)		8.4	6.1	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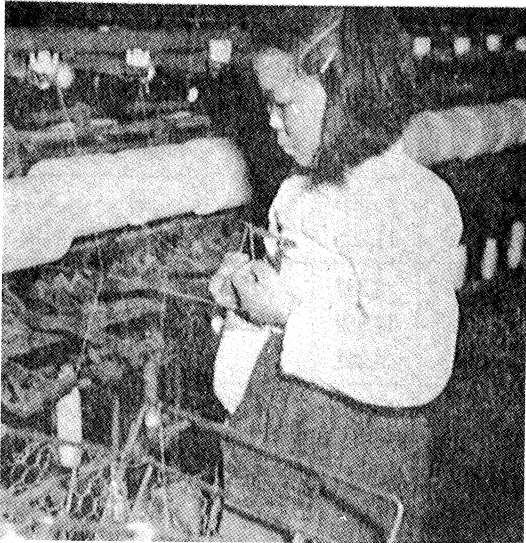
資料: 《慶尙北道史》 하권.

〈表 3-72〉 絹·人絹織造工場 分布狀況 (1947年)

道別	總工場數	總臺數	運營臺數	運休臺數	年間最高生產能力(천yds)
경북	37	3,164	960	2,214	14,238
충북	2	279	140	139	1,255
경남	6	892	446	446	4,104
전북	9	923	277	646	4,153
전남	10	1,674	502	1,172	7,533
경북	51	2,634	1,329	1,305	11,961
경남	30	1,867	560	1,307	8,402
강원	1	107	54	53	481

資料: 朝鮮銀行調查部刊, 《朝鮮經濟年報》, 1948.

해방 이후 전국의 대형 綿紡業體들과 製絲業體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후원을 받았지만, 규모가 영세한 지역직물업계는 정부의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 기간동안 지역직물업계는 정치적·사회적 변혁을 겪으면서 수많은 기업들이 생성 소멸되었고, 인근지역의



〈사진 3-7〉 1940년대末 紡織工場作業光景

풍부한 천연 섬유자원과 유휴노동력을 최대로 활용하여 스스로의 입지를 다져나갈 수밖에 없었다.

해방직후부터 1947년까지 주로 明紬製品을 생산해온 지역직물업의 전국비중을 살펴보면 공장수 34.9%(51개업체), 總織機臺數 22.8%(2,634台) 연간 생산량의 23.0%(1만 1,961천야드)로 명실공히 한국 직물공업의 중심지로 부상하였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가내 수공업의 역사적 배경을 지닌 대구지역은 해방과 더불어 발달된 가내공업의 영향을 받아 공장들의 직기시설 가동률은 50.5%의 수준에 그쳤다.

### 3. 1950年代

#### 1) 現況

한국전쟁으로 인한 산업시설의 파괴로 53년 말의 국내직물공업은 고용과 설비면에서 전쟁 이전보다 급격한 감소를 보였으나, 공장수에서는 오히려 증가하는 기현상을 나타내었다. 이는 1953년부터 정부가 衣類窮乏을 해소하기 위해서 農村小工業 育成施策을 실시하였고, 이에 의해 소규모 가내공업형 공장이 급속히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1955년의 직물업체의 규모를 살펴보면, 종업원 5명 이상인 공장이 전체 5,282개 중 2,800여개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이들 家内手工業型 工場들은 援助物資의 중지로 인한 원료조달의 어려움과 수해로 인한 농촌구매력의 감소로 57년 이후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1950년대 직물공업의 현황을 업종별로 상세히 살펴보면, 먼저 絹織物工業의 경우 업체수는 1953년의 1,059개 업체에서 1958년 2,887개 업체로 증가하였으나 시설규모는 오히려 축소되었다. 이러한 견직물공업의 시설규모 축소는 달러부족으로 인한 人絹絲 輸入이 곤란해지고 원료의 가격이 불안정해짐으로써 야기되었다(〈表 3-73〉 참조).

〈表 3-73〉 織物工業의 施設變動 (단위: 個, 臺)

區分 (年度) 施設			全 國			大 邱		
			1953	1957	1958	1953	1957	1958
絹織 施設	力織機	工場數	—	500	500	—	164	164
		臺 數	11,770	11,209	11,209	4,039	3,412	3,412
	手・足踏機	工場數	1,059	2,387	2,387	162	812	812
		臺 數	15,920	16,959	16,959	2,423	5,418	5,418
綿織 施設	力織機	臺 數	—	4,242	4,242	—	1,355	1,355
		計	27,690	15,451	15,451	6,462	4,767	4,767
	手・足踏機	工場數	—	296	296	—	152	152
		臺 數	9,466	4,670	4,670	4,223	1,951	1,951
毛織 施設	手・足踏機	工場數	2,579	2,083	2,083	465	36	36
		臺 數	28,337	10,471	10,471	4,596	190	190
	計	臺 數	—	2,617	2,167	—	47	47
		計	37,803	7,287	7,287	8,819	1,998	1,998
臺數	力織機	工場數	—	812	812	—	319	319
		臺 數	—	144	144	—	24	724
	手・足踏機	工場數	—	812	812	—	319	319
		臺 數	21,236	16,023	16,023	8,262	5,387	5,387
臺數	手・足踏機	工場數	3,638	4,470	4,470	627	848	848
		臺 數	44,257	27,430	27,430	7,019	5,608	5,608
	計	臺 數	—	6,859	6,859	—	1,402	1,402
		計	65,493	23,882	22,882	15,281	6,789	6,789

註: 1953년 종업원수 전국: 83,949名, 대구: 16,681名

1958년 종업원수 전국: 66,874名, 대구: 22,012名

資料: 大邱紡績協會, 《纖維年報》, 1966~1968.

綿織物工業도 원사의 수입중지 및 「스프」직물의 수요감퇴, 환율인상 등에 따른 국내 원사의 수급불안, 모사수입금지 등에 의해 큰 타격을 받아, 1953년 力織機 2만 1,236臺, 手・足踏機 4만 4,257臺가 1958년 각각 1만 6,032臺, 2만 7,430臺로 감소하였다. 한편 地域織物工業은 1953년 기준으로 기업체수가 627개였으며, 생산시설면에서는 力織機 8,262臺, 手・足踏機 7,019臺, 고

용 인원 1만 6,681名으로서 전국 직물공장수의 17.2%, 力織機의 38.9%, 手·足踏機의 15.9%, 고용인원의 19.9%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1958년에 이르러서는 업체수가 1,162개로 증가한 반면, 생산시설은 力織機 5,387臺, 手·足踏機 5,608臺로 오히려 감소하였다. 하지만 전국적인 점유도를 살펴보면 공장수는 22%, 力織機는 33.5%, 手·足踏機는 18.5%, 종업원수는 32.9%로서 53년보다도 더 높은 점유비를 보이고 있다.

이렇듯 1950년대 후반기에 대구를 포함한 전국의 직물 생산시설이 감소한 이유는 1953년부터 1958년 사이에 원조물자인 원료의 수입 감소와 가격의 폭등으로 인한 원료공급의 불안정 때문이었다.

## 2) 生産 現況

대구는 한국전쟁으로 인한 피해가 거의 없어 타지역에 비해 원활한 生絲原料를 공급받을 수 있었기에 전후의 대표적 직물생산지로 급부상하게 되었다. 1951년 9월 대구직물공업은 전국대비 시설보유율 60%이상, 綿織物과 人絹織物 생산량의 80%이상을 점유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전쟁 중 높은 점유비를 보이던 지역직물생산실적은 전후 피해지역의 복구와 산업재건 등으로 인하여 상대적 비율의 감소를 가져와 1952년부터 1954년까지의 직물업 전국생산점유도(군납실적포함)는 시설보유율 70%, 綿織物 55%, 人絹織物 60%의 수준으로 감소하게 되었다.

한편 1955년 이후 大邱織物工業의 생산실적을 살펴보면, 1955년의 3,200천疋의 생산실적을 보이던 것이 1957년 5만 2,152천야드, 1959년에는 6만 3,167천야드로 전국의 총생산실적 중 40.5%를 차지하였다.

年 度	1952	1953	1954	1955	1956	1957	1958	1959
生産實績	1,850	2,200	2,985	3,200	3,620	52,152	58,334	63,167
全國比重	—	—	—	54.8	55.3	35.1	37.8	40.5%

註: 1952~1956년 단위는 千疋임. 1957~1959년 단위는 千야드임.

資料: 慶尙北道

1955년 이후에서 1960년대 사이 지역직물업계는 황금기를 구가하면서 月産 297千疋~370千疋(1953년 기준)의 생산실적을 보이고 있지만, 이러한 생산실적은 생산능력대비 60~70%에 지나지 않는 실적으로서, 이는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원료공급의 불안정에 주원인이 있었으며, 시설의 노후화와 가내공업의 몰락으로 인한 공업기반의 약화도 한 몫을 하였다.

지역직물업체가 전성기를 구가하던 이 시기의 주요 생산품은 「뉴똥」, 양단, 平織, 「도비」직, 「골텐」, 「포플린」, 모직 등이 주를 이루었으며,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南鮮織物, 東興産業, 三和織物, 東洋織布, 大東織物 등이다. 그리고 종업원 100명 미만의 기업을 운영하면서도 각종 경제단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기업인들로는 東國織物의 白潤其, 東信織物의 呂相原, 七星紡織의 金文植씨 등이 있었으며 특히 呂相原씨는 纖維業 뿐만 아니라 言論社, 大邱商議, 市政諮問委員으로도 크게 활동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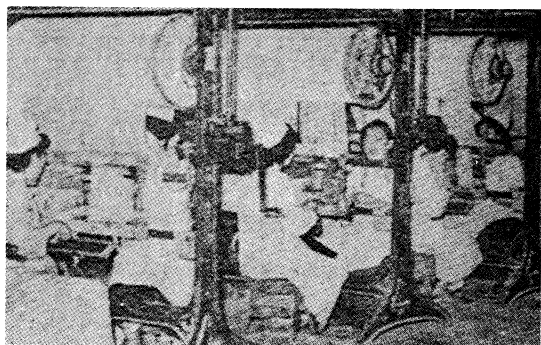
#### 4. 1960年代

##### 1) 現 況

朝鮮末期以後 평양과 더불어 우리나라 2大 纖維工業의 중심지로 부상한 대구지역은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근대적인 면모를 갖추기 시작하였고 해방과 한국전쟁을 거치며 그 기반을 다져나갔다. 이 기간동안 대구의 織物工業은 綿織物, 絹織物 등 각종 天然纖維을 위주로 생산하여 오다가 第一毛織과 韓國나일론으로 인해 梳毛, 「나일론」이라는 新纖維時代로 접어들게 되었다. 즉, 1950년대 말 수입산 「나일론」絲를 이용한 직물공업이 크게 번창하였으나, 1963년 한국나일론이 「나일론」, 「필라멘트」絲를 직접생산, 공급하기 시작하면서 1960년대 나일론시대를 여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나일론」絲로 제작하는 직물중에서 약간의 무늬를 넣어서 짠 「자카드」직물은 당시 최고의 인기품목이었으며, 「트리코트」직물은 여자들의 치마, 저고리감으로 특별수요가 일어나 衣服史에 一大革命을 가져다 주었다. 따라서 1960년대는 대구지역공업에서 직물공업의 비중이 크게 높아진 시대라고 할 수 있으며, 이 시기 직물공업의 발달사에서 드러난 몇가지 특징들을 살펴봄으로써, 이 기간의 흐름을 짐작할 수 있다.

첫째, 綿織工業의 쇠퇴와 絹織工業의 일시적 사양을 초래한 반면, 化學纖維의 織物工業이 발달하였다는 점이다. 둘째, 織物業體의 양적인 팽창도 있었지만 질적인 성장도 현저했다는 점이다. 셋째, 商業資本이 工業資本化하는 일대혁신의 시대였으며, 分家形態의 企業膨脹은 물론 일부 기능공 내지 기술자들이 賃貸形式의 기업경영을 하기도 하였다. 넷째, 中小企業協同組合法의 제정으로 중소기업들이 결속하여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체질을 강화하는 시대였다는 점이다. 다섯째, 協業化와 동시에 1960년대 후반부터 下請系列化의 시도가 이루어졌다. 즉 1960년대 초 확장위주의 섬유정책과 수출 제일주의에 의한 수출의 획기적인 증대는 대량생산을 요구하게 되었고,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동일공정간의 계열화를 필요로



〈사진 3-8〉 1950年代 織物製織光景

수출주도정책에 부응하여 시설을 확장하고 기술을 축적함으로써 크게 발전하여 1980년대까지도 대구의 직물업계를 이끌었다.

한편 기업들의 전문분야 혹은 품목을 살펴보면 「조젯트」는 九極織物, 「자카드」직물은 東亞織物, 자수직물은 東信纖維가 가장 먼저 시작하였고, 곧이어 東國織物, 李哥織物이 참여하였다. 또한

하게되었다. 특히 일부 섬유수출의 총아로 등장한 대기업들은 몰려오는 수출주문을 처리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에 하청을 주지 않을 수 없었다. 당시 東國織物과 甲乙絹織, 南鮮物産 등은 많을 때는 수백업체와 하청계약 체결하였다. 이들 기업들은 하청업체에게 자원의 지원은 물론 기술지도 등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계열화라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 相互共生하는 자리를 굳혔다.

또한 이 기간동안 지역직물업체는 눈부신 성장을 거듭하여 1960년에 1,012개였던 업체수가 1971년에는 1,297개로 증가하였고, 종업원수는 2만 4,053명에서 4만 3,145명으로 크게 늘어났으며, 수출은 1964년 기준 338만 9천달러이던 것이 70년에는 6,355만 8천달러로 대구지역 전체수출의 90%를 점하게 되었다. 당시 섬유산업 구조상 봉제와 같은 어패럴제품이 거의 없던 상태인 점을 감안하면 전액 직물 수출로만 이루어진 결과였다.

이 시기 대구직물업체를 주도하던 기업으로는 東國織物, 新韓絹織, 新興織物, 保國織物, 李哥織物, 高麗興業 등이었으며 이들 先導企業의 경영자들은 1960년대를 통하여 경영상의 어려움도 겪었지만, 대부분 정부의

「트리코트」는 李哥織物, 「테피트」는 三共직물 등이 선구자로 기록되고 있다.

이와 같이 발전을 거듭한 1960년대 織物工業은 1968년 이후에 새롭게 등장한 섬유원료인 「폴리에스테르」의 시대로 진입하게 되었다. 「폴리에스테르」는 「나일론」보다도 더 다양하고 실용적일 뿐만 아니라 고급제품을 생산할 수도 있어서, 직물공업은 「나일론」시대에 이은 제 2의 도약기를 맞이 하게 되었으며, 大邱地域 織物工業의 發展은 1960년대 우리나라 유통 및 수출면에도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다.

## 2) 綿織物工業

1960년 대구지역 綿織物業은 업체수로는 전국의 24.0%를 점하였고 부가가치생산의 28.0%를 차지하는 비중있는 사업이었으나, 4.19와 5.16 등으로 인하여 경영환경이 불안해지자 지역업체도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당시 地域綿織物業界는 2,073개업체의 54.9%인 1,138개업체가 휴업하고 43개가 폐업하는 등 불황의 심도가 매우 컸다. 이와 같은 사회적인 불안 요인외에도 계절적인 영향에 따라 호·불황을 거듭하였는데, 이 시기의 綿織工業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1960년대 초에는 勞動集約的인 傳來產業으로서 경제개발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 왔을 뿐 아니라 고용증대와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여 近代產業化의 근간이 되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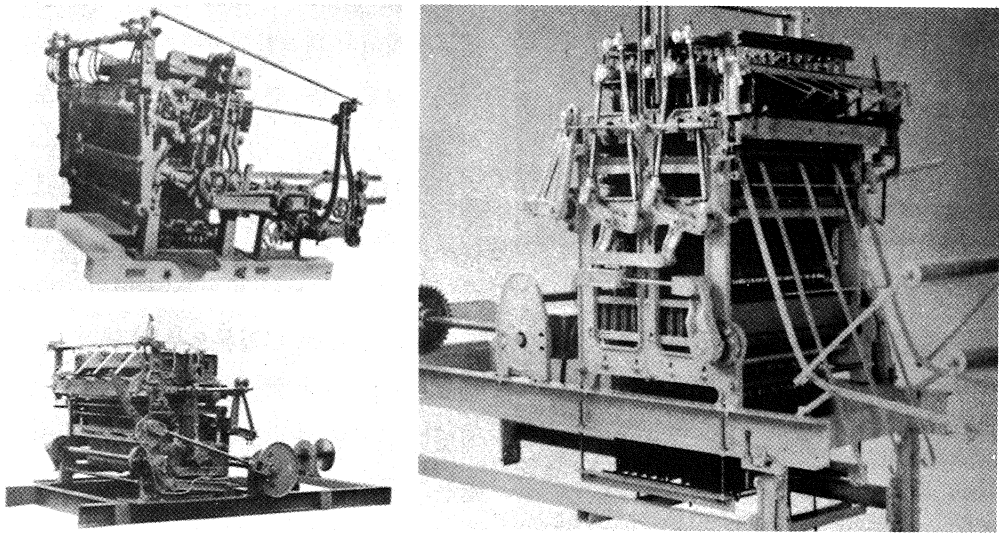
둘째, 1960년대 전반에 걸쳐 특정한 경기흐름과는 무관하게 계절적인 요인으로 호황과 불황을 왕래하는 특성을 가졌다. 이것은 綿織工業이 특수한 제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내수 위주이었음을 나타내주고 있다. 즉, 여름철이 다가오면 휴업이 속출하고 가을이 되면 호황을 누리는 소위 철새와 같은 입장이었다.

셋째, 原絲需給의 애로와 價格騰落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輸入原絲의 부족, 軍納用 綿絲供給의 증가, 原絲메이커인 綿紡業의 여건변화, 原絲告示價의 지정과 폐지 등 사건이 있을때마다 原絲需給에 차질이 오고 가격이 폭등하는 등 1년 사이에도 몇번씩 애로를 겪는 실정이었다.

넷째, 化學纖維의 出現으로 수요가 감퇴되고 생산이 위축되었으며, 또 한편으로는 綿織工業이 化纖織工業으로 전환하는 등 規模面에서나 양적인 면에서 점차 약화되었다.

## 3) 나일론 織物工業

1960년대 초반까지 輸入原絲에 의존하여 小量生産에 지나지 않았던 지역 나일론 직물공업은 1963년 韓國나일론에서 「나일론」사 생산을 계기로 나일론 직물은 빠르게 綿織物의 內需市場을 잠식하였고, 급기야는 1966년 이후부터는 수출시장까지 점유하는 등 急成長勢를 보였다. 또한 天然纖維의 생산증대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과 나일론의 성질이 불에는 약하지만 질기고 구겨지지



〈사진 3-9〉

1960年代 大邱에서 生産된 각종 자카드機

않으며 세탁이 용이하다는 점으로 인해 1960년대 초반 수출과 내수에서 급성장을 나타내었다.

이렇게 급성장을 하던 나일론직물공업은 原絲需給의 不均衡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즉 1962년의 경우 과잉시설로 말미암아 지역업체의 가동률이 62%에 불과하였고, 1964년의 경우는 업체의 절반 이상이 原絲不足으로 인하여 休業事態를 빚기도 하였다. 또한 처음 나일론직물이 출현하였을때는 高級品の 취급을 받았으나 점차 대중화되고 또 製品自體의 속성상 곧 低級品으로 전락하게 되어 衣服材料가 아닌 他製品의 原料로 사용되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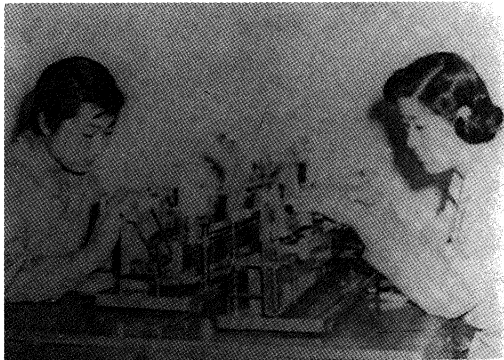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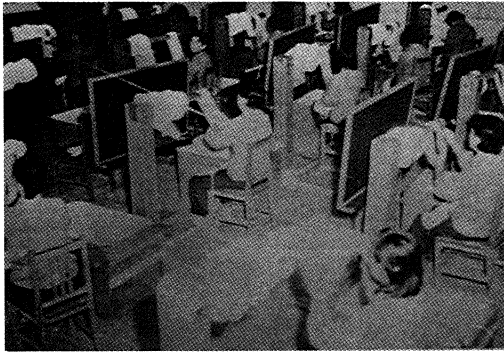
이 당시 나일론 직물공업은 대부분 注文生産에 의한 생산구조로서, 1968년경에는 下請業體만도 500여업체가 있었다. 특히 이들 下請業體들은 서울 大商의 주문에 따른 것이어서, 대구의 織物商權이 서울로 이전되는 시기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60년대를 대표하던 나일론직물의 첫 수출은 1963년에 시작되었다. 당시의 대표적인 수출품은 「나일론 타프타」였으며, 주요 수출대상지는 홍콩이었다.

#### 4) 자카드織物工業

자카드직물공업이 대구에서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록이 없으나 秋信鎬씨가 지금의 桂山東에서 해방 전부터 시작한 것이 시초로 고증되고 있다. 이러한 자카드





〈사진 3-10〉 1960年代 흘치기 作業 工程

### 5) 絹織物(흘치기)工業

신라시대의 비단 이후 근세의 일본인에 의한 明紬에 이르기까지 地域絹織工業은 꾸준한 발전을 하였다. 하지만 1950년대 이후 생산공정의 복잡성과 높은 가격으로 인하여 지역 견직 공업은 한동안 부진을 면치 못하였다.

그러나 地域絹織業界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달성견직 등의 노력으로 대일본 수출의 길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점차 활기를 찾기 시작하였다. 처음 대구의 흘치기산업은 달성견직, 東信洋行(呂相愿), 内外紡績(李淳熙), 三慶物産(李愿万), 南鮮物産(尹經普) 등 극히 소수의 기업에서만 출하였으나 1960년대중반에는 원단제직업자만발하였으나 1960년대중반에는 원단제직업자만도 38개업체로 늘어났다. 당시 부산의 김지태는 織機가 1,200臺나 되는 大企業이었으며 서울의 東亞貿易(東亞실크)도 상당히 큰 규모였다. 당시 전국에는 약 50개의 기업이 흘치기산업에 참여하였으며, 그후 이 업체들은 화학섬유업종으로 전향하여 우리나라 섬유산업의 주역으로

직물은 그동안 많은 발전을 거듭하여 1960년대에는 약 80개 업체에서 2,500臺의 직기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1960년대 초 義信織機와 培昌機械에서 제작한 K형직기가 공급되어 주로 「뉴퐁」양단, 양복안감 등을 내수위주로 생산하였다.

1960년대 중반까지는 주로 나일론사를 주 원료로 하여 圖色제품, 金銀絲양단, 물양단, 미술단 등을 생산하여 인기를 끌었고, 1960년대 후반에는 經絲는 나일론으로 偉絲는 폴리에스테르로 제직하는 兩色紋織製品의 생산에 주력하였다. 이후 내수공급을 주로하던 자카드직물은 수출로 전향하여 직물수출의 주류를 이루어 왔고 지역의 섬유공업의 발전에 기여해왔다. 특히 「헤드타이」제품이 중동으로 수출된 이후 자카드 직물의 수출은 날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등장하였다. 그러나 이처럼 어렵게 성장한 홀치기산업도 中國產 製品으로 인해 그 힘을 잃고 말았다.

中國의 生絲는 연사 중에 실마디가 없어 生産技術면에서 우리보다 앞설 뿐 아니라 가격도 낮아 우리나라의 生絲가 경쟁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 6) 織物流通

1960년대의 地域織物業界는 나일론직물의 등장에 따른 綿織物의 수요감퇴와 家内工業形 纖維工業의 企業形工業化 등으로 큰 변화를 맞이하였다. 특히 1960년대 초의 生絲輸出 장려에 따른 蠶繭販賣統制로 生絲 및 絹織物工場들이 정비단계를 맞았고 人絹織物 및 綿織物의 쇠퇴와 나일론 직물의 등장은 직물원단시장에 流通變化를 촉진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그 대표적인 流通變化가 大邱商圈이 서울로 이전함에 따라 지역의 섬유류의 도매기능이 약화된 것이다. 대구가 織物工業의 중심지가 된 것은 대구자체의 섬유여건의 유리성에도 기인하지만 섬유산업의 국내의 경제환경변화에도 큰 영향이 있다.

1960년대에는 世界貿易自由化 潮流와 開放時代의 到來 그리고 世界經濟好況에 따른 수출증대의 계기를 맞았고 국내적으로는 수출제일주의에 따른 金融, 租稅, 行政, 産業立地施策 등 각종 지원대책이 주효하여 纖維工業은 산업발전에 선도적 기능을 담당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대구의 서문시장을 중심으로 한 織物都賣商 중 일부는 生産分野에 진출하여 商業資本이 産業資本으로 발전할 수 있었으며, 일부 내수산업체들은 수출산업으로 도약하는 눈부신 발전을 하였다. 1966년부터 1960년대 말까지 홀치기는 61.7배, 나일론직물은 19.7배, 견직물은 13.6배, 경편직물을 13.1배나 신장하였다.

따라서 서문시장을 중심으로 한 織物都賣商 중 일부는 생산분야에 진출하여 상업자본이 산업자본으로 전환하는 기회를 잡았다. 당시 상업자본에서 출발하여 산업자본으로 발전한 기업으로는 東國織物, 甲乙絹織, 汎三共物産, 南鮮織物, 新羅纖維, 등이 있었으며 중간에 도산되었지만 普國織物, 李哥織物, 三成織物 등이 1960년대의 대구 직물도매시장을 움직인 10대 巨商들이었다.

이러한 대구지역 섬유제품의 流通機能도 1960년대 말을 정점으로 차츰 서울로 이동하기 시작한다. 纖維 및 衣類都賣業體는 1968년에 전국의 24.4%인 256개업체가 서문시장을 중심으로 활발한 상거래를 하여 전국 섬유매출액의 21.2%를 점유하였었다. 그리고 경제개발 2차 계획기간 중의 섬유공업의 발전을 계기로 1971년에는 458개의 섬유도매업체가 위치하고 그 판매액도 전국의 52.6%를 기록할 정도로 대구의 纖維流通機能은 대단하였으나 1960년대 말 이후 점차

서울로 그 상권이 이전하게 되었다.

## 5. 1970年代

### 1) 合纖織物

#### (1) 現 況

대구섬유의 합섬직물시대가 본격화 것은 1963년 한국나일론 대구공장이 「나일론 필라멘트」사를 생산하기 시작한 이후이다. 그 이후 洪載善씨를 비롯한 지역섬유업자들은 「나일론 타프타」생산 쪽으로 눈을 돌려, 대구섬유의 「나일론 타프타」시대를 선도해 나갔다.

1970년대 초반 지역의 「나일론 타프타」제직업체를 주도한 鮮絹化纖, 東國實業, 三慶化纖, 凡三共, 東洋 등의 5개 업체들은 각기 20여개의 하청공장을 두고 임직을 하는 실정이었으므로 당시 지역에는 하청기업만도 100여개 이상이 있는 셈이었다. 그리고 1970년대 초 역내「나일론」직물업계의 이러한 호황을 바탕으로 1972년 8월 「나일론 타프타」생산중심의 大邱 三慶織物協業團地의 기공식이 있었다. 코오롱계열의 三慶物産이 조성한 이 단지에는 10개의 공장이 입주해 월 6백만yds의 생산실적을 보였다. 이처럼 합섬직물시대를 주도한 「나일론 타프타」제직업체들은 1970년대 후반까지 그 규모가 계속 증가하다가 「폴리에스터」직물에 밀려 위축의 길을 걷게 된다.

1970년 일본에서 열린 「EXPO '70」참관한 많은 지역섬유인들이 強撚絲 직물의 기술을 도입한 이후 대구지역에는 「폴리에스터」직물시대가 열리게 되었고, 1973년과 1974년에는 「폴리에스테르」를 중심으로 하는 대대적인 증설이 추진되었다. 또한 정부의 수출진흥정책이 강도 높게 전개되는 가운데, 대구의 섬유공업은 수출 붐에 편승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게 된다.

이후 1978년을 전후하여 일기 시작한 「조제트 붐」은 「폴리에스터」직물시대가 정착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가져다 주게 된다. 즉 1977년도에 60여개에 불과하던 지역내 「조제트」제직업체는 1978년 이례적인 해외수요의 급증으로 인하여 상당수 제직업체가 「조제트」제직용으로 직기를 대체함에 따라 1979년 상반기에는 93개의 업체로 증가하게 된다.

1970년대의 나일론직물과 폴리에스터직물의 수출비율을 보면 1971년 57% : 43%이던 것이 1978년에는 16% : 84%로 역전하였으며 당시 「폴리에스터」 44%가 「조제트」였다. 1970년대 화섬공업이 급성장한 요인으로는 섬유소비의 패턴변화가 기본요인이라 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입지조건이 천연섬유를 생산하는데 부적합하여 그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고, 化纖이

가격면에서도 유리하였다는 것이 가장 큰 성장요인이 되었다.

## 2) 刺繡織物工業

1970년대 지역직물업계에서 새로운 특산물로 발돋움한 제품중의 하나가 刺繡織物이다. 1960년 동신섬유에서 10야드짜리 이태리산 刺繡機 6대를 도입하면서 機械刺繡 시대를 개막한 地域刺繡織物工業은 70년대에 들어서면서 급속한 성장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1980년 地域刺繡織物工業을 영위하는 총 36개 업체에서 286台的 자수직기를 보유함으로써 全國保有臺數의 59.6%를 차지하였다.

한편 자수직물의 수출상황을 살펴보면, 자수업계는 석유파동의 혹독한 불황속에서도 유독 호황을 누렸으며 1975년 1/4분기중 平均可動率은 纖維業가운데 가장높은 수준인 87.6%에 달했다.

〈表 3-75〉 刺繡織物業體 및 刺繡織機 分布(1980.1.17現在)

地域 區分	大邱地域	서울 京畿地域	釜山地域	全國
業體數	36	24	1	61
保織機臺數(臺)	286	184	10	480
臺數比重(%)	59.6	38.3	2.1	100.0

資料：慶北刺繡實務業者協力會議

이러한 호황을 누리던 地域刺繡業界는 주요 수출시장인 中東地域의 在庫累積과 싱가포르 시장의 輸入規制 등으로 인하여 1976년에 들어 海外需要가 급격히 줄어들어 그해 하반기부터는 刺繡業界의 평균가동률이 84%선으로 떨어졌다. 이처럼 해외수요가 크게 감퇴됨에 따라 자연히 업체간의 경쟁이 치열해져, 일부업체에서는 가격 「덤핑」마저 행하여져 刺繡織物의 수출가격이 하락하는 현상을 보였다.

또한 1975년까지만 해도 刺繡織物의 공급이 수요에 못미침에 따라 업체들은 刺繡機를 너도나도 다투어 增設 또는 新設하기에 이르러 1976년 말에는 대구지역의 刺繡機 보유대수가 240여대에 달하여 과당경쟁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리하여 1976년 말에 大邱刺繡織物業界는 輸出需要 감퇴에 따른 과당경쟁, 기능공 스카웃 등으로 출혈이 심해짐에 따라 업계의 채산성 또한 크게 악화되었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37개업체가 모여 「그룹」화의 시도를 통해 刺繡業界 전체의 채산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기로 하였다.

한편 1976년 하반기이후 刺繡織物의 輸出需要 감퇴로 어려움을 겪은 地域刺繡業界는 1977년

하반기부터는 다소 경기가 회복세를 보여 다시금 평균가동률이 약 87%선으로 상승하였다.

刺繡織物에 대한 해외주문량도 증가하기 시작했으며, 이에 따라 輸出價格도 약간 상승하였다.

이처럼 刺繡織物의 海外需要增加에 힘입어 製品價格이 상승하였으나, 需要增加에 따른 物量增大로 資金難 壓迫, 原資材價 昂騰 및 人件費, 一般經營費 등이 계속 오름세를 보여 실질적으로 업계의 재산성은 오히려 저하된 편이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刺繡業界는 出荷額 중 輸出占有比가 95%이상이기 때문에 海外景氣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데, 刺繡物의 수출실적이 전체섬유류 수출실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65년도에 1.2%에 불과했으나 1978년도에는 10.9%에 이르러 주요 輸出品目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刺繡織物의 輸出實績은 <表 3-76>에서와 같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表 3-76> 全纖維類 輸出實績중 刺繡織物의 比重 및 增加率 (단위: 千달러)

區 分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纖維類合計	63,435	85,694	184,781	210,288	322,464	469,773	596,613	876,760
刺繡織物	4,307	8,065	20,081	25,245	35,281	48,403	57,637	95,396
比重(%)	6.8	9.4	10.9	12.0	10.9	10.3	9.7	10.9
增加率(%)	28.4	87.3	149.0	25.7	39.8	37.2	19.1	65.5

資料: 商工部

또한 原綴別 刺繡織物의 輸出實績을 보면 1960년~1965년에는 「나일론」자수지가, 그 이후 1967년까지는 綿자수지, 1968년 중에는 「T/C」자수지, 그 다음 70년까지는 다시 「나일론」자수지가 대중을 이루다가 1970년 중반부터는 「폴리에스터」자수지가 절대우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렇게 「폴리에스터」자수지의 수출이 全刺繡織物 輸出實績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74년 79.2%로 늘어났으며, 1979년도에는 88.6%로 더욱 증가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70년대 대구지역 刺繡業界의 동향은 다음과 같은 장단점을 가지고 있었다. 우선 刺繡工業은 織機를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데다 직기가격도 비싸(1979년 당시 대당 8만달러~12만달러) 직물공업내에서는 비교적 자본집약적공업에 속했다. 따라서 소규모자본으로는 생산에 참여하기가 어려운 편이었으나, 호황시에 刺繡織物의 수익성에 호감을 가진 업체에서 과감히 직기를 도입함으로써 이 업계의 타인자본의존도가 타 직물업계에 비해 극히 높은 편이었다. 이러한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간편한 조직으로 화려한 제품을 다채롭게 생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디자인과 색상을 쉽게 바꿀 수 있고, 어떠한 종류의 原綴에도 刺繡가 가능하며, 동일부분에 대한 重複刺繡(Back motion)가 가능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기호변화에 대한 적응이 용이하다는 잇점이 있었다.

그러나 유행성이 강해 需要의 所得彈力性이 높은 刺繡織物은 織機의 部分改造나 간단한 附帶設備로는 刺繡織物의 다른 직물을 생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수요가 공급에 따르지 못할 경우에는 업체간의 가격경쟁을 가속화 시킬 여지가 컸다. 이러한 장단점에도 불구하고 대구지역은 刺繡機와 刺繡織物의 생산량, 수출고면에서 전국대비 약 60%를 차지하였으며, 輸出戰略業種의 육성이란 점에서 地域刺繡業界는 70년대 대구지역 섬유산업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 6. 1980年代

### 1) 現 況

1980년대 地域合纖織物業界의 주요 생산물은 「조젯트」, 「파레스」, 「나일론타프타」, 「개버린」, 「벨벳」 등이었으며, 특히 나일론 합섬직물의 경우에는 수출의존도가 매우 높아서 해외의 경기 및 수요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러한 특징을 지닌 지역합섬업체는 1985년 3/4분기까지 미국의 輸入規制 강화, 中東·東南亞 지역의 정세불안 등으로 인해 수출이 부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후발개도국의 해외시장 잠식과 域内業體간의 과당경쟁으로 수출단가가 하락하면서 채산성이 악화되는 등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하지만 동년 9월 22일 G-5회담 이후 円貨強勢, 국제금리하락 등으로 인하여 수출여건이 개선되자 「파레스」를 비롯한 일부 품목의 경우 수출이 호조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특히 폴리에스테르직물의 경우를 살펴보면, 1987년에 주요 경쟁국인 일본의 円貨切上和 대만의 元貨切上으로 우리 제품이 가격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수출호조를 나타냈으며, 내수마저 높은 신장세를 보여 전반적으로 경기가 호황을 나타냈다.

그러나 1988년에 접어들면서 主要輸出市場인 홍콩에서의 주문량이 감소하면서 지역 폴리에스테르직물의 수출경기가 급속히 냉각되었다. 또한 이를 타개하기 위해 국내업체들간의 과당경쟁으로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輸出價格도 저하되었다. 이러한 수출물량의 감소, 수출가격의 하락 뿐만 아니라 原絲價格 및 賃金の 상승, 원화의 절상 등으로 인하여 기업의 채산성도 급격히 악화되었다.

### 2) 生産施設 및 生産現況

地域合纖業界는 섬유업종의 合理化業種 지정에 따라 1986년 이후 역내 197개의 합섬직물업체가 총 1만 7,593臺의 노후시설을 폐기하였고 9,313臺를 개제했으며, 1988년에 들어서도

4월 말까지 45개 업체가 2,752臺의 직기를 폐기하였고 1,636臺를 개체하였다.

〈表 3-77〉 合纖織機의 廢棄 및 改替 現況

年 度	區 分	業體	廢棄	改 替			
				복직기	WJL	레피어	기타
1986년(8월 이후)		61	6,443	2,713	684	219	263
1987년		136	11,150	3,223	1,607	390	214
1988년(4월 말)		45	2,752	930	510	196	—
							계
							2,879
							5,434
							1,636

資料：大邱·慶北織物工業協同組合

한편 大邱·慶北絹織物協同組合 산하 「폴리에스터」직물 업계의 가동률은 1987년 상반기까지 85%를 웃돌았으나, 1988년 이후 계속적인 하락세를 보여 1988년 3~4월에는 80%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또한 「나일론」직물 제직업계의 가동률 역시 1986년 2/4분기 이후 상승하기 시작하였으나 1987년 하반기 원화질상 이후 하락하기 시작하여 1988년 4월 현재 80.5%의 가동률을 나타내었다.

한편 1980년대 합섬직물업계의 생산실적은 1987년 7억 7천만야드의 실적을 보였으나, 1988년 4월에 들어서는 전년대비 9.9%가 감소한 2억 4천만야드의 실적을 나타내는데 그쳤다.

〈表 3-78〉 大邱地域 폴리에스터織物 業界의 生産實績(中小企業) (단위：야드, 백만원)

區 分	1986	1987	增加率(%)	1987년 (1-4월)	1988년 (1-4월)	增減率 (%)
生産量	553,633	772,713	39.6	268,320	241,676	△9.9
生産額	324,878	453,685	39.6	163,671	137,671	△9.9

資料：纖維技術振興院, 《大邱纖維産業史》.

## IV. 染色工業

### 1. 解放以前

염색가공업은 섬유제품의 部品工程 내지는 마무리工程으로 대구지역에서는 이미 신라시대부터 식물성 염료를 이용한 염색기술이 일반화되고 있었다. 대구지역에 염색공장이 처음 세워진 것은 1907년 일본인 자본에 의한 石井染織工場으로 알려져 있으며, 한국인 자본에 의한 설립은 1915년 秋仁鎬씨에 의해 설립된 東洋염직공장이 최초로 기록되고 있다.

당시 대구에서의 근대적 염색공업은 가내공업형태였지만 足踏機를 사용한다든가 부터라고 할 수 있다. 당시 秋仁鎬 씨는 손으로 「지거(Jigger)」를 사용하여 염색하는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대구「지거」염색의 원조가 되었다. 이 시기 대구의 동양염직은 평양의 織染工場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며 그 기반을 닦았다.

## 2. 解放以後～1950年

大邱染色工業은 해방과 더불어 귀환동포 기술자들에 의하여 달성동 및 침산동 일대에서 가내공업형 형태로 原反漂白 및 捺染을 시작하였다. 기록상에는 1947년 1개 전문염색공장이 연간 358,963야드의 직물염색물을 생산하였던 실적이 있지만 한국전쟁 전까지 專門染色工場으로 금성방직 대구공장, 大邱染色工業, 慶北織物工業 등 비교적 규모가 큰 공장과 德山染色, 大陸染織 등 몇개의 영세공장들이 가동을 하고 있었다. 綿織物染色을 주로하던 이들 공장들은 가공기술의 부족으로 중소직물업계의 조합원 제품을 가공하던 大邱染色工業(株)를 제외하고는 조업도가 극히 낮은 실정이었다.



〈사진 3-11〉 染色光景(1950年代初)

이 시기에는 주요 생산물이 絹·人絹織物이었던 관계로 염색 역시 絲染이 주를 이루었다.

그리고 絲染色施設은 독립가공시설이 아니라 건직물공장내에 부속시설로 설치된 것이 대부분이었으므로 染色工業이 兼業化하는 특징을 보였다. 건직물공장내 부대시설로써 설치된 絲染 중심의 겸업공장으로서 비교적 규모가 큰 공장으로서 七星紡織, 達城染織工場, 達城染色所 등이 있었으며 특히 慶北紋織工場은 染色物을 많이 보급한 공장이었다.

그러나 大邱染色工業이 1949년 同業組合을 결성하면서 전문공장이 늘어나게 되었고, 染色施設을 분리하는 경향도 나타내게 되었다.

大邱染色工業이 직물업에서 독립경영체제로의 전환은 6.25사변 이후에서 1953년 사이에 급격히 증가하였다.



### 3. 1950年代

한국전쟁 이후 섬유공업육성시책으로 인한 染色物量の 증가에 힘입어 염색공업은 새로운 산업으로 각광을 받게 되었으며, 이들 염색업체의 대부분은 전쟁중 피해를 입지 않은 대구지역의 紡織業을 배경으로 생산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하지만 50년대 후반까지 우리나라 염색업계의 대부분은 규모면에서 영세할 뿐만 아니라 고용과 부가가치의 창출면에서도 매우 미약한 실상을 보이고 있었다.

〈表 3-79〉 全國染色工業의 現況(1958년)

區 分	企業體數(개)	從業員數(명)	附加價值額 (백만원)
紡 織 業(A)	2,801	86,615	43,136
漂白·加工業(B)	125	3,234	2,439
B/A(%)	4.5	3.7	5.7

資料：韓國產業銀行, 《鑛業 및 製造業 事業體調査 綜合報告書》, 1958.

한편 전쟁중 전국 생산량의 80~90%를 공급하기도 했던 지역염색공업은 1954년 경에는 전국 염색공업의 52.2%인 24개 공장이 가동을 하고 있었으며, 이들 공장의 대부분은 1953년 이후 製織兼業에서 染色專門으로 전환한 업체들이었다.

〈表 3-80〉 染色工業의 地域別·規模別 現況(1954년 기준)

規模 地域		10-29명	30-49명	50-99	계(업체수)
서 울		6	3	—	9
경 기		1	—	—	1
충 남		3	—	—	3
경 북		17	4	3	24
경 남		1	84	4	9
계		28	11	7	46

資料：大韓商工會議所, 《全國製造業要覽》, 1955.

전쟁이후 1956년까지 전성기를 구가하던 지역염색공업은 1956년이후 부산·경인지역의 급격한 발전과 수질 불량, 시설의 노후 등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 시기에도 지역염색산업은 전국 대비 업체수면에서 28.8%, 종업원수면에서 44.1%(1958년 기준)의 점유를 보임으로써 여전히 1950년대 국내염색업계를 주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기간동안 지역염색업체 규모를 살펴보면 지역염색업이 전성기를 구가하던 1956년의 경우 課稅對象 염색업체수는 164개 업체였으나 직원 5명이상인 업체는 66개 업체에 불과하여, 100여개의 지역염색업체가 家内工業型 染色工場을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50년대에 활동한 織物染色業體로는 金星紡織 大邱工場, 内外紡績, 大建化學工業, 新進染工 등이 있었으며, 絲染專門業體로는 達城染織, 美化染織, 三一染工, 七星紡織, 大鳳染工 등이 있었다.

## 4. 1960年代

1950년대 말까지 綿, 人絹絲, 絹 등이 주를 이루던 國民 衣生活은 1950년대 말 나일론의 등장으로 크게 변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國內染色業界에서도 새로이 도입된 소재에 적응하기 위한 시도를 전개하게 된다. 즉, 새로운 소재인 나일론의 염색방법이 기존의 綿織物染色方法과는 크게 다르고 특히 필라멘트사의 염색은 이제까지의 염색방법을 전혀 사용할 수가 없게 된 것이었다.

한편 1960년대 초 地域 染色業界가 보유한 染色施設은 지거(Jigger)와 토우염색기정도였으며, 이들 染色機로 주로 先染을 해왔지만 새로운 소재인 나일론사의 染色은 거의 불가능하여 초기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1960년대 초반의 수난기를 지나, 1960년대 중반 이후 나일론 타프타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나일론Batch염색 및 동직물에 대한 코팅, 樹脂加工이 地域染色의 주를 이루게 된다. 또한 1968년 이후 폴리에스테르 조오제트직물의 생산이 늘어 나면서 이에 대한 염색방법이 발달되었고 의생활의 혁신에 따른 특수직물의 염색방법도 개발되었다.

## 5. 1970年代

### 1) 現 況

1980년 7월 지역염색업체는 129개업체가 운영을 하고 있었으며, 이중 75%인 78개 업체가 대구시내에 산재해 있었다. 그리고 나머지 업체들도 대구근교인 달성군, 칠곡군, 경산군 등에 위치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입지지역도 공업지역이 52.6%, 준공업지역이 22.5%의 분포를 보이고 있었으며, 나머지 24.9%는 주거지역, 상가지역, 녹지지역 등에 분포하고 있어 환경문제로 인한 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이었다. 1980년까지 地域 染色業體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表 3-81〉 地域別 染色加工業體 分布

地域 業體	大 邱 市							달성군	경산시	칠곡군	구미시	안동시	계
	북구	서구	남구	동구	중구	수성구	소계						
業體數(개)	67	17	3	4	1	6	98	10	9	9	2	1	129
構成比(%)	51.9	13.2	2.3	3.1	0.8	4.7	76.0	7.8	7.0	7.9	1.4	0.8	100

資料：慶北大學校 産業開發研究所, 《中小企業 基本實態調査 報告書》, 1980.

첫째, 기업의 형태가 대부분 개인기업의 형태로 규모가 영세성을 보이고 있었다. 즉 1980년 7월 말 地域染色業體를 형태별로 살펴보면 개인기업이 95개로 전체의 73.6%이며, 주식회사 형태는 26.4%에 불과하여 전체적으로 기업규모가 영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한 업체의 규모면에서도 종업원 50~90명인 업체가 29.5%로 가장 많고, 300명 이상인 업체는 7.0%에 불과하였다.

〈表 3-82〉 染色加工業의 從業員 規模別 業體分佈

規模 (명)	業體數 (개)	構成比 (%)	規模 (명)	業體數 (개)	構成比 (%)
9인이하	3	2.3	100-199	27	20.9
10~19	12	9.3	200-299	6	4.7
20~49	34	26.3	300이상	9	7.0
50~99	38	29.5	계	129	100.0

資料：慶北大學校 産業開發研究所, 《中小企業 基本實態調查報告書》, 1980.

셋째, 자본규모의 영세성을 들 수 있다. 1970년대 후반의 지역염색업체의 자기자본비율을 살펴보면 1977년도 20.1%에서 1978년도에는 경기호황으로 인한 시설확충으로 외부자본을 도입한 결과 자기자본은 18.6%로 낮아졌으며, 1979년에는 다시 26.2%로 높아졌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이익잉여금의 社內留保로 인한 것이 아니라, 경기침체로 인하여 기업의 경영전망이 흐려짐에 따라 일부기업체가 유동자금으로 부채를 상환함으로써 영업활동을 축소시킨 데 주원인이 있었다. 이처럼 地域 染色業界의 재무구조가 크게 악화된 것은 과거 染色業體의 경기호황시의 비합리적인 자본배분에서 잠재되어 왔던 요인이 경기침체로 인하여 표면화되었기 때문이었다.

〈表 3-83〉 染色工業의 主要財務構成比率 (단위: %)

區 分 年 度	資本構成	支給能力	
	自己資本	流動比率	當座比率
1977	20.1	122.5	77.5
1978	18.6	106.3	72.6
1979	26.2	95.5	54.5
標準比率	50이상	200이상	100이상

資料：大邱銀行

## 2) 生産動向 및 販賣

1970년대 地域染色業體의 등록시설상황을 살펴보면 1978년 말 1,896臺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 1980년 말에는 2,133臺로 증가하여 전국대비 31.2%를 차지하였다. 이를 다시 용도별로

살펴보면, 染色機가 1,891臺였으며, 가공기는 242臺를 차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 시설의 老朽度가 높아, 1980년 7월 현재 전생산시설의 16.3%가 개체가 시급한 것들이었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역업체의 규모가 대부분 영세하고 외국산기계의 도입시 관세율이 높아 시설개체의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表 3-84〉 染色加工施設の 登録 現況

區分 種類	1978	1979	1980		
			대구지역	전국	비중(%)
染色機(대)	1,761	1,827	1,891	6,120	30.0
加工機(대)	225	237	242	726	33.3
계(대)	1,986	2,064	2,133	6,846	31.1

資料：慶尙北道 및 染色加工協同組合聯合會

한편 동 시기의 地域 染色業體의 생산활동을 살펴보면, 염색업은 그 특성상 직물, 메리야스 등 섬유제품업체의 경기동향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들 산업의 호·불황에 따라 浮沈이 매우 심한 형편이었다. 따라서 1979년 이후 섬유업체가 심한 경기침체현상을 보이기 시작하자 염색업체도 1979년 하반기 이후 유례없는 불황을 겪게 된다. 즉 1979년 1월까지 71.8%의 정상가동률을 보이던 것이 이후 지속적인 조업단축과 휴·폐업이 증가하면서 1980년 8월 중에는 가동률이 53.0%에 불과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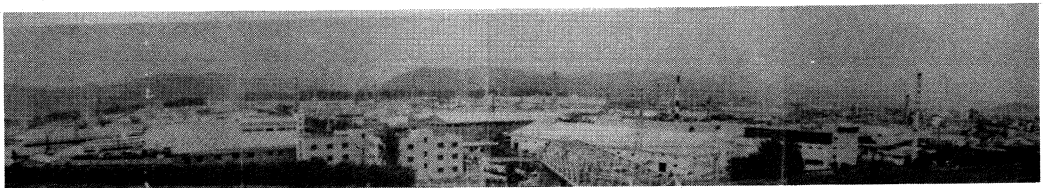
이 시기의 조업단축 현황을 살펴보면 1980년 2월 중 조업단축을 하고 있는 업체들은 모두 44개 업체였으며 휴업중인 업체는 9개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원인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금난이 19개 업체이며, 수출부진이 17개 업체, 내수부진이 13개 업체, 기타 3개 업체로 나타나 결국 자본금의 영세성과 판매부진이 가동률을 저하시키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地域 染色業體의 판매 및 원부자재수급동향을 살펴보면 내수의 경우 1970년도에 129억 3, 200백만원 이었으나 10년이 지난 1980년에는 110억 3,800백만원으로 오히려 14.6%가 감소하였으며, 수출의 경우도 1979년의 7천 8백만달러에서 1980년도에는 6천 9백만 달러로 11.5%가 감소하였다.

한편 수출과 내수의 비중을 살펴보면 1979년의 경우 수출과 내수가 65.8%와 34.2%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출형태도 L/C수취 수출액이 25.2%, L/C수취대행수출이 4.6%, Local L/C수출이 53.2%, 단순하청수출이 17.0%로 나타나 단순 수출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내수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 1979년의 경우 내수의 형태별 구성비를 보면 시장판매와 주문생산에 의한 판매, 단순하청의 경우가 23.1%, 32.2%, 44.7%의 구성을 보임으로써 이러한 현상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 기간 중에 염색가공용으로 공급된 染料調達상황을 보면 총 5,744%이 공급되었는데, 이 중 국내에서 공급된 국내생산분은 3,224%로 56.1%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입분이 43.9%인 2,520%를 차지하고 있다.



〈사진 3-12〉

염색공단전경

이렇게 수입원료의 조달비중이 높은 것은 그 동안 국내생산기술의 발달로 특수염료 등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국내생산이 가능하게 되었으나, 질적인 면에서는 선진국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들 염료는 구매경로가 수입품의 경우 중간상을 거치고 있고, 국내조달품의 경우도 대부분이 한두 단계의 중간과정을 거침으로써 실수요자의 구매가격은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어 가격경쟁력을 약화시키는 한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 3) 飛山染色工團의 造成과 地域染色工業의 問題點

1970년대 地域染色業界의 가장 큰 특징은 飛山染色工團의 조성으로 인한 염색업체들의 집단화라 할 수 있다. 비산염색공단은 그 동안 무질서하게 흩어져 있는 지역염색업체들을 집단화 시킴으로써 다음과 같은 효과를 거두게끔 하였다.

첫째, 染色加工業을 근대화하여 품질제고를 통한 국제경쟁력을 향상시켰고, 둘째 공해의 효과적 방지로 생활환경을 개선하였으며, 셋째 수출 및 고용의 증대를 통해 국가경제에 기여한다는 목표아래 조성된 국내 최초의 染色專門團地였다는 점이다.

1970년대 지역염색업체는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첫째 규모의 영세성, 둘째 기술의 낙후, 셋째 원부자재 구입의 곤란, 넷째 수익성의 악화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染色加工業의 경우,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이 선진국과 비교해 기술수준의 격차가 매우 큰 데다가 地

域染色業體의 경우 평균기술수준이 전국평균수준과 비교해도 낙후되어 있는 실정이었기 때문에  
染色製品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전문연구소의 설립이 이 시기에 요청되고 있었던 것이다.

## 6. 1980年 以後

### 1) 現 況

地域染色加工業體는 1990년 12월 현재 등록시설기준으로 330개 업체로서 전국염색가공업체  
765개사에 대해 45.8%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1986년 말에는 전국염색업체 691개(가동  
업체기준) 중 40.5%인 280개 업체에 비해 5.3%가 증가한 것이다.

〈表 3-85〉 全國 染色加工業體의 地域別 比重(1990년 말 기준) (단위: 개, 천야드)

業種別	區 分	大邱·慶北		全 國	
		業 體 數	生産能力	業 體 數	生産能力
織 物 染		269 (55.7)	5,852 (64.0)	483 (100.0)	9,139 (100.0)
捺 染		54 (49.1)	721 (51.9)	110 (100.0)	7474 (100.0)
絲 染		27 (15.7)	83 (17.5)	172 (100.0)	474 (100.0)
計		350 (45.8)	6,573 (64.2)	765 (100.0)	10,529 (100.0)

資料: 大邱銀行.

한편 섬유기술진흥원에서 조사한 1988년 7월 말 현재 지역염색가공업체는 총 291개사가 생  
산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 가공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보유시설의 현황을  
살펴보면 1988년 기준으로 10대 이하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전체의 63.9%인 186개사 이며,  
10~20대를 보유한 업체가 19.6%인 57개사, 그리고 20~30대를 보유한 업체는 11.3%인 33개사,  
30대 이상을 보유한 업체가 전체의 5.1%인 15개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들 업체의 자산과 종업원규모를 살펴보면, 자산기준으로는 총 자산 20억원 미만의  
업체가 전체의 72.8%를 차지하고 있으며, 종업원기준으로는 종업원 50~99명의 업체가 전체의  
40.5%, 100~199명 이하의 업체가 21.4%로 주류를 이루고 있어 지역염색업체가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表 3-86〉 大邱·慶北 染色工業協同組合 會員業體 資産規模別 分布(1986년 기준)

總資産 規模別 (억원)	10 미만	10이상 -20미만	20이상 -30미만	30이상 -40미만	40이상 -80미만	80이상	합계
構成比(%)	42.8	30.0	10.5	5.3	6.9	4.5	100.0

資料：大邱·慶北染色工業協同組合

〈表 3-87〉 大邱·慶北 染色工業協同組合 會員業體 從業員 規模別 分布(1986년 기준)

從業員規模 (명)	19이하	20-49	50-99	100-149	150-199	299-249	300 이상	합계
構成比(%)	1.5	13.0	40.5	21.4	7.6	5.3	3.8	100.0

資料：大邱·慶北染色工業協同組合

1985년부터 개선되기 시작하였던 地域染色業界의 재무구조는 1987년 말 기준으로 자기자본구성비율이 21.8%에 이르러 역내 전제조업의 평균치인 18.3%보다는 3.5%가 높은 수준이지만 이를 이론상 표준비율(50.0% 이상)과 비교하면, 아직도 크게 낮은 형편이었다. 그리고 유동비율 역시 80.4%로 제조업 평균치인 93.4%와 비교하면 낮은 편이었지만, 염색가공업의 경우 대부분 주문생산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어 재고자산이 거의 없으므로 당좌비율은 58.5%로 전체 제조업 평균치인 46.7%에 비해서는 양호한 편이다.

〈表 3-88〉 大邱地域 染色加工業의 主要財務比率 (단위：%)

年度 區分	資 本 構 成		支 給 能 力			
	自己資本比率		流動比率		當座比率	
	染色業	全製造業	染色業	全製造業	染色業	全製造業
1981	11.9	11.4	75.6	96.0	43.1	46.7
1982	9.8	12.0	58.9	88.3	30.9	41.8
1983	13.9	11.6	85.1	86.4	17.7	39.4
1984	13.1	12.7	65.5	82.5	36.9	36.2
1985	16.6	13.8	70.1	80.0	48.3	35.4
1986	18.4	14.9	78.4	83.3	56.5	40.4
1987	21.8	18.3	80.4	93.4	58.5	46.7

資料：大邱銀行, 〈12月末 決算製造法人 財務分析〉, 《大邱地域 經濟分析》, 1980~1988년 各號

## 2) 生産動向 및 販賣

1980년대 地域染色業體의 가동추이를 살펴보면, 1983년 70.3%의 가동률을 보이던 것을 시작으로 地域染色業體는 매년 상승세를 유지하여 1985년 하반기 이후 円貨強勢에 따른 섬유업계의 경기회복에 편승하여 1986년 3월에는 가동률이 78.2%로 높아졌다. 또한 1988년 5월까지의 생산실적누계를 살펴보면 1,660억원선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0.3%가 신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990년 이후 수출제품의 줄속한 염색가공에 따른 바이어의 이탈, 폐수방류사건 등으로 인하여 가동률이 낮아지기 시작하여 1991년 말 현재 전년대비 4.0%가 감소한 66.9%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다.

〈表 3-89〉 大邱地域 染色加工業界의 操業狀況 및 生産實績 推移

	1983	1984	1985	1990	1991
稼 動 率 (%)	70.3	72.5	74.8	70.8	66.9
生産實績 (백만원)	144,663	199,3415	216,837	548,600	612,700

資料：大邱·慶北染色加工協同組合 및 大邱銀行

〈表 3-90〉 大邱地域 染色加工業界의 製造原價 構成比率 (단위: %)

原價要素 年度	材料費	勞務費	經費	合計
1981	48.1	13.2	38.7	100.0
1982	54.3	11.8	33.9	100.0
1983	6.2	9.9	43.9	100.0
1984	53.0	10.2	36.7	100.0
1985	41.6	15.0	43.4	100.0
1986	38.0	14.7	47.3	100.0
1987	41.7	17.2	41.0	100.0
1991	45.0	22.2	32.8	100.0

資料：大邱銀行, 〈12月 決算製造法人 財務分析〉《大邱地域 經濟分析》, 各號

한편 地域染色業界의 제조원가구성비를 살펴보면, 1991년 기준 재료비가 전체의 4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경비와 노무비가 각각 22.2%와 32.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染色加工業에서 경비와 노무비의 구성비율이 높은 것은 染色加工業이 燃料過多消費業種이고, 많은 기능인력을 필요로 하는 업종이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동시기의 원료 수급동향을 살펴보면, 地域染色業體는 주종생산품인 「폴리에스테르」 염색에 필요한 高壓分散染料의 약 70%정도를 독일, 이탈리아 등지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같은 원인은 비록 국내 6개 생산업체가 생산을 하고 있었지만 공급물량이 부족하고 품질수준이 뒤떨어져 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들 染料의 가격이 전년 동기에 비해 대부분 10%이상씩 상승했고, 특히 조제부문에 사용되는 빙초산은 65%나 가격이



상승하는 등 원료가격의 상승으로 기업의 채산성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마지막으로 1980년대 이후 지역염색업체의 판매실적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판매실적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를 내수와 수출로 나누어 살펴보면 1991년 기준 내수는 전년대비 8.1%가 증가 하였으나 수출은 오히려 전년대비 3.1%가 감소하였다.

〈表 3-91〉 地域染色業體의 販賣實績

	1989 (A)	1990 (B)	1991 (C)	增減率(%)	
				B/A	C/B
內需(백만원)	73,197	77,194	83,432	5.5	8.1
輸出(천달러)	473,747	465,330	449,949	6.3	△3.1

## V. 衣類·縫製 工業

메리야스와 봉제는 가공공정상의 특성으로 보아 분리되어 다루어져야 하지만, 양 업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미약하여 논의의 편의상 함께 다루기로 한다.

### 1. 解放以前

본격적인 메리야스공업이 우리나라에 정착되기 시작한 1930년을 전후해, 대구는 평양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대표적 메리야스 생산지로 부상하게 되었다. 지역메리야스공업은 양말에서 먼저 시작되어 1920년대 중반 평양양말공업의 전성기 시절 西門市場에서 활동하던 평양 양말도매상들의 영향을 받아 양말機 2~3대를 보유한 家內工業形態의 영세한 양말공장들이 생산을 시작했다. 그 후 鐵元양말공장(1927년), 王吉양말공장(1928)이 설립되면서 본격적으로 지역 양말공업이 발전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지역양말공업은 자동양말기계시설을 갖춘 崔奉因씨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崔씨는 평양에서 경영하던 인천양말공장의 시설을 1933년 대구로 이전, 생산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지역양말공업은 급속한 手織양말기를 自動양말기로 바꾸는 契機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지역양말공업은 1930년대 중반 이후 40년대까지 전국양말공업의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한편 메리야스 內衣類工業은 朝鮮紡織 大邱幕大小工場(구 内外紡織의 前身)이 1943년 12월 가동을 보게 되면서 시작되어 해방 이전 국내메리야스 공업의

중심지가 된다.

## 2. 解放以後～1950年 메리야스工業

### 1) 現 況

해방 전 국내메리야스공업은 평양을 중심으로 한 북한지역에 편중되어 있었으며, 남한의 경우는 內衣類를 중심으로 京畿, 嶺南地域으로 편중되어 있었는데, 해방이 되고 북한주민들이 越南하면서 시설의 일부를 남한으로 반입,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한 시설의 증가가 있었다.

해방 직후에는 在庫原料를 바탕으로 內衣류 2,200千枚, 양말 8,085足, 掌匣 2,757千雙의 생산실적을 보였으나, 1947년에와서는 재고원료가 부족함에 따라 內衣류는 76%가 감소된 528千枚, 양말류는 77.4%가 감소된 1,825千足, 장갑은 759千雙의 생산실적을 나타냈다.

하지만 정부수립과 더불어 援助物資形態의 원료공급의 증가로 생산활동이 활발해져 1945년에 200%선까지 증가하였으며, 생산시설도 1949년에 와서는 內衣編機 1,900臺, 양말기 3,020余臺가 설치됨으로써 해방전 보유시설을 능가하였다.

〈表 3-92〉 메리야스工業施設 現況

種 類	南北韓(1944)	南韓(1949)
自動內衣編機	138	700
手動內衣編機	1,300	1,200
自動양말기	2,176	1,500
手動양말기	2,348	1,500

資料 : 《메리야스공업연보》, 1968.

〈表 3-93〉 南韓 메리야스工業施設 現況 (단위 : 臺)

種 類	解放直後	1947
丸 編 機	73	167
手 廻 機	1,624	1,160
自 動 機	767	1,041
掌 匣 機	1,112	1,112
橫 編 機	584	1,332
巾 機	209	212

資料 : 《조선경제연보》, 1948.

大邱메리야스工業은 朝紡 大邱莫大小工場(內外紡織의 前身)의 기술자들이 해방과 더불어 家

內工業으로 자영하는 경향이 늘어나게 되었고, 월남동포들이 역내에서 양말공장을 경영하는 등 지역내 메리야스공업은 착실한 발전을 해왔다. 이러한 성장을 바탕으로 대구메리야스공업의 생산실적은 1947년 기준 내의류 13.3%, 양말류 10.1%, 장갑류 7.8% 수준을 보이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지역 메리야스공업의 생산실적은 원료와 자금부족으로 인해 월간생산능력의 40%수준에 머물러 있던 상태였다. 1947년 기준 대구지역 메리야스공장수는 111개 정도였으며, 이 중에는 내의류공장 24개 업체, 양말공장 44개 업체, 장갑공장 37개 업체, 수건제조공장 1개 업체가 있었으나 이들중 99개 공장만이 가동되고 있었다.

1948년 정부수립 후 원조물자형태의 원료반입 증가로 지역 메리야스업체는 어느 정도 생산량이 증가되기 시작하였다.

해방 이후 전쟁 전까지 지역 메리야스공업을 주도한 기업들로는 大邱메리야스公司, 共和工業, 三護工業, 三和메리야스, 白羊메리야스, 大邱纖維 등이 있었다.

〈表 3-94〉 大邱메리야스工業 實狀(1947年 基準)

區分 品類	工場數	從業 員數	年間生産量			年間實績 還 産 (大邱：B)	生産實績 (全國：A)	B/A (%)
			能 力	實 績	能 率			
內衣類	28	330	15,210착	5,815착	37.6%	70千枚	528千枚	13.3
양말류	44	300	34,790족	15,375족	44.2	185千足	1,825千足	10.1
장갑류	37	110	12,130	5,210	33.3	63千雙	803千雙	7.8
타올류	1	125	3,000	1,000	33.3	—	—	—
計	110	865	—	—	—	—	—	—

資料：《조선경제연보》，1948.

〈表 3-95〉 大邱地域 纖維工業의 生産實績(1947.4.1~1948.3.31)

業 種 別	工場數	生 産 品 目	生 産 量	生産額(원)
被服工場	45	學生服	145,552벌	58,222,800
		學生內衣	23,887장	4,777,400
		作業服	8,234벌	3,293,600
		內衣類	198,138장	13,869,660
		洋服바지(장)	1,243장	372,900
		雨裝	9,912장	4,956,000
		문장	300장	510,000
타올공장	1	타올	22,199타	7,725,252

業 種 別	工場數	生 産 品 目	生 産 量	生産額(원)
메리야스工業	98	메리야스內衣 양말	23,261타 21,047타	6,978,200 566,664
紡織工業	1	綿麻織物	200,247yds	12,014,820
染色工業	1	織物染色	358,963yds	7,179,260
合計	146			120,464,556

資料：嶺南日報史，《慶北年監》，1949. 3.

### 3. 1950年代

#### 1) 地域 메리야스工業의 現況

1957년까지 계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던 메리야스생산은 1958년 이후 급격한 감소 추세를 보이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현상은 FOA자금에 의한 原料(綿絲)輸入禁止조치, 換率引上에 따른 국내면사의 조달애로, 화섬을 원료로 하는 신제품의 등장과 함께 기술적인 전환기를 맞이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지역 메리야스업체도 1951년 이후 1953년까지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1957년 이후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구메리야스공업이 1953~1957년 사이에 증감의 큰 변동이 있었던 것은 1953년 이후 軍納中止에 따른 施設過剩과 纖維原料 價格統制解除에 따른 의류가 인상, 綿絲導入에 따른 政府保有資金 統制, 농촌경제 꺾임으로 인한 購買難 등이 생겨나 기업의 과당경쟁이 빈번하였기 때문에 수적으로나 양적으로 신장이 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1958~1960년에는 환율인상에 따른 원료난과 신제품인 化纖製織技術의 국내 유입, 수해 등이 겹쳐 기업의 경영을 악화, 수많은 업체가 도산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기간 중 대구 메리야스공업의 전국비중은 업체수 면에서 1951년 39.4%에서 1960년 30.3%로, 종업원 고용면에서도 1960년 30.3%에서 1951년 33.6%로 감소되었지만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또한 1950년대 초반 지역메리야스업체는 업체를 선도할 수 있는 큰 기업이 없었고, 대부분이 중소기업들이었으며, 1950년대 중반의 石山纖維, 중반의 大邱洋行 등이 두각을 나타냈을 뿐이다.

〈表 3-96〉 메리야스工業의 變貌

年 度	工 場 數(개)			從 業 員 數(명)		
	全 國	大 邱	%	全 國	大 邱	%
1951	353	139	39.4	8,553	2,874	33.6
1953	1,124	470	37.4	18,943	5,153	27.2
1954	1,121	409	36.5	16,273	5,240	32.2
1955	1,121	409	36.5	16,454	5,264	32.0
1956	1,121	409	36.5	16,925	5,349	31.6
1957	1,108	340	30.7	19,399	5,341	27.5
1958	726	261	35.0	18,254	5,407	29.6
1959	875	262	30.0	17,560	4,378	24.9
1960	866	262	30.3	15,872	3,939	24.8

註：1951년분은 戰禍地區인 서울, 京畿, 江原을 제외한 전국치임.  
資料：《메리야스공업연보》, 1968.

## 2) 生産 現況

전쟁 이전까지 전국생산실적의 10~13%수준에 있던 대구메리야스공업은 전쟁발발후 주요 생산업체가 군납을 실시하게 됨으로써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1952년 말 전국대비 내의류는 52.8%, 양말류는 66.7%에 육박하였으나 이후 1956년까지 전국생산량의 40%에, 1957~1959년에는 30%선으로 낮아졌고, 양말류는 1956년까지 전국대비 10%에 머물렀으나 나일론양말의 등장이 있는 후에는 거의 30% 수준까지 증가하였다.

당시 慶南·北일대의 96개 중견 메리야스업체가 군수품생산지정업체로 선정되었는데 1950~1952년 대구메리야스공업의 군납 실적은 綿冬內衣 및 綿양말, 毛양말의 60%, 綿夏內衣의 75%, 毛冬內衣의 72.7%를 점하였다. 1956년 대구메리야스공업조합 산하 412개업체의 생산시설능력은 연간 冬내의 1,020千매, 夏내의 1,440千매, 양말 4,800千족, 장갑 2,160千쌍에 이르렀다.

## 4. 1960年代 메리야스工業

### 1) 現 況

60년대 초까지 內需中心의 완만한 성장을 해오던 국내 메리야스업체는 1960년대 중반이후 의류소비성향의 변화로 인한 내수 및 수출의 증대로 인하여 시설의 확장과, 노후시설의 改替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기술수준도 현저히 향상되었다.

〈表 3-97〉 大邱메리야스工業의 産業推移

品 目	單位	1952	1953	1954	1955	1956	1957	1958	1959
內 衣	千매	(1,958) 958	6,270	9,360	12,840	16,550	11,855	13,756	15,447
綿 양 말	千족	(5,215)	3,310	3,860	4,200	5,120	16,252	10,302	13,340
나일론양말	千족	—	—	—	—	—	—	4,238	5,305
掌 匣	千쌍	—	—	—	—	—	2,653	4,584	6,308
문 장	千매	18	20	38	39	41	68	—	—
全 國 比 重	內衣類	%	52.8	47.9	50.2	40.2	41.1	24.9	31.7
	양말류	%	67.7	17.1	13.6	9.4	10.6	30.4	34.3
	掌匣類	%	—	—	—	—	—	17.0	51.3

註：1) 내의타는 10타로, 양말타는 10족으로 환산함.

2) ( )는 군납실적표시

資料：경상북도산업경제도표 1958년 및 도세일람 1958~1960년

〈表 3-98〉 大邱所在 組合別 메리야스施設 (단위：臺)

機種	組合	慶北메리야스工業組合		慶北編織工業組合		兩組合
		1945	1956	1952	1956	1956
丸 編 機		69	682	13	127	809
吊 機		221	58	—	—	58
模 機		315	371	26	94	465
自 動 양 말 기		653	838	23	86	924
장 갑 기		315	1,134	6	69	1,203
후 렌 치 기		8	14	—	—	14
과 일 편 기		—	5	—	—	5
트 리 코 트 기		—	5	—	—	5
手 動 양 말 기		—	—	432	1,277	1,277

註：1956년의 회원수 경북메리야스조합 421업체, 경북편직조합 158업체임.

資料：《경북대관》，1957.

메리야스製品은 그 상품의 성격상, 그때 그때의 유행에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생산량중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해외수요의 변화에 따라 많은 기복을 보였다.

한편 평양과 함께 우리나라 섬유산업의 중심지였던 대구는 한국전쟁중 평양의 실업인, 기술자들이 수동식 메리야스기계를 한대씩 메고 대구로 피난옴으로서 메리야스공업도시로 변하는 역사를 갖게 되었던 것이다. 이는 당시 메리야스업체의 社主가 대부분 이북출신이라는 사실로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그 대표적인 기업이 종표 메리야스(박동역 사장)로서 피난길에 메리야스기 한대를 메고 達成洞에 정착한 것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당시 지역메리야스업체는 그 규모가 영세하고, 수공업형태를 면하기 어려웠으나, 전국 메리야스제품 생산의 70~80%를 차지하였다.

이렇게 성장을 거듭하던 지역메리야스공업은 신제품개발, 품질개선 등의 구조개선에 대한 노력을 소홀히 하였던 반면, 쌍념섬유공업사(쌍방울의 前身, 1963년 3월 1일)가 전라북도에 설립되어 호남지역의 풍부한 노동력과 기능인력, 정부의 중소기업자금 지원에 힘입어 급속한 성장을 하면서 점차 메리야스공업의 중심지 역할을 상실하게 된다.

## 2) 生産 現況

소비패션의류의 합성화, 장섬유화, 및 니트화로 인하여 内外需要가 신장됨에 따라 메리야스공업은 1960년대에 걸쳐 지속적인 성장을 누려왔으며, 合纖企業의 확대를 계기로 시설면에서도 대형화되고, 기술수준도 현저히 향상되었다. 특히 풍부한 노동력을 보유한 대구지역은 고도의 기술을 요하지 않은 장갑, 양말, 내의류 등의 메리야스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갔다. 이를 배경으로 1956년 말 대구지역 메리야스업체수는 576개로 전체 섬유류업체수 1,291개의 45%를 차지하는 등 대구지역경제의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는 확실한 성장을 해왔다.

이러한 추세는 1960년대 말까지 계속되어 전국적인 판매망을 가지게 되었다. 사업체규모나 생산능력면에서 서울 다음으로 큰 대구메리야스공업체는 보유시설 또한 전국 제2위의 규모인데, 섬유공업시설에 관한 臨時措置法에 의거 등록된 각 기종별 시설보유현황을 보면 다음 <表 3-99>과 같다.

먼저 내의류 편직기인 환편기는 1961년에 910대이던 것이 1970년에는 1,240대로 증가했고, 양말기는 1962년에 624대이던 것이 1970년에는 924대로 48%가 증가했다. 橫編機는 1961년에 98대에 불과하던 것이 1970년에는 611대로 대폭 증가했고, 경편기도 1961년에 23대이던 것이 1970년에는 369대로 늘어났으나 장갑기는 1961년에 450대이던 것이 오히려 1970년에는 369대로 감소했다.

〈表 3-99〉 메리야스施設(大邱) (단위: 臺)

年 度	丸 編 機	양 말 기	橫 編 機	掌 匣 機	輕 編 機
1961	910	1,036	98	450	23
1962	795	624	110	350	27
1963	1,179	688	50	206	823
1964	1,347	814	80	344	25
1965	991	897	54	328	90
1966	743	561	50	247	124
1967	1,015	839	188	454	131
1968	925	779	60	454	122
1969	1,235	883	611	362	189
1970	1,240	924	611	369	195

資料: 《경상북도 통계연보》, 《섬유연보》에 의거 작성

한편 이기간 중의 지역 메리야스제품의 出荷實績을 살펴보면, 메리야스내의가 1966년 3억 3,265만원이던 것이 1969년 6억 1,267만원으로 증가하였으며, 메리야스 外衣는 동기간동안 1억 1,000만원에서 2억 7,174만원으로 증가 하였다.

〈表 3-100〉 大邱 메리야스製品의 出荷額 推移 (단위: 천원)

區 分	1966	1967	1968	1969
메 리 야 스 內衣	332,652	420,114	367,030	612,675
메 리 야 스 外衣	110,118	130,955	284,359	271,736
타 올	115,242	199,244	154,792	367,823
기타메리야스제품	10,670	63,604	40,400	63,343

資料: 經濟企劃院, 《공공업 「센서스」보고서》, 각 연도

그리고 의류제품의 경우 남자용 양복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동제품은 1966년 5억 1, 111만원 그 다음이 남자용 외의로 1966년 1억 8,389만원이던 것이 1969년에는 1억 9,446만원으로 증가하였으며 그밖에는 여자용 양복의 순이었다.



〈表 3-101〉 大邱衣類製品의 出荷額 推移 (단위: 천원)

區 分	1966	1967	1968	1969
男 子 用 洋 服	511,114	620,939	813,909	787,309
男 子 用 內 衣 ( 毛 皮 製 除 外 )	183,886	143,604	137,003	194,581
男 子 學 生 服	50,728	34,892	27,358	35,439
男 子 作 業 服	66,185	75,742	32,071	34,162
잠 바 류 ( 남 녀 용 )	9,742	25,664	5,220	9,561
女 子 用 洋 服	139,107	205,525	113,943	95,783
女 子 用 外 衣 ( 毛 皮 製 除 外 )	40,120	74,850	69,668	48,603
女 子 學 生 服	50,728	34,892	27,358	35,439
女 子 作 業 服	5,270	4,900	1,263	2,108
其 他 女 子 用 洋 服	37,327	113,283	65,990	105,300
치 마	—	5,380	1,046	—
저 고 리	—	—	—	—
기 타 한 복	3,332	1,440	—	—
小 兒 用 洋 服	144,076	20,800	6,975	93,863
小 兒 用 外 衣 ( 男 女 )	32,530	32,032	10,060	9,400
와 이 샤 스	2,150	40,000	43,000	23,010
남 방 샤 스	7,005	25,224	13,192	20,922

資料: 經濟企劃院, 《광공업「센서스」보고서》 및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각 연도

마지막으로 양말류의 出荷額을 살펴보면, 화섬사양말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출하액은 1966년에 4억 9,313만원이던 것이 1969년에는 11억 1,662만원으로 증가해 126.4%의 신장률을 보였다. 면양말도 1966년의 114만원에서 1969년에는 7,537만원으로 늘어났다.

〈表 3-102〉 大邱양말類의 出荷額 推移 (단위: 천원)

區 分	1966	1967	1968	1969
綿 양 말	1,140	20,912	500	75,375
毛 양 말	—	9,446	—	6,114
化 纖 絲 양 말	493,126	634,410	872,492	1,116,619

資料: 經濟企劃院, 《광공업센서스 보고서》, 각 연도

## 5. 1970年代 縫製工業

### 1) 現 況

製織工業을 중심으로 발전하여온 대구지역은 縫製分野에서는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러한 봉제공업의 낙후성은 韓國縫製工業協會의 자료에 잘 나타나 있는데, 동자료에 의하면 1979년 말 기준, 봉제공장수는 2개로써 전국비중의 8.1%에 불과하며, 그 중 수출업체가 29개, 내수업체가 172개로 각각 2.8%, 11.9%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대구지역 봉제업체 중 수출업체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내수업체는 1974년 81.9%에서 1979년에는 85.6%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表 3-103〉 大邱地域 縫製業體의 全國比重 (단위: 개, %)

年 度	合 計			内 需			輸 出		
	全國	大邱地域	전국 비중	全國	大邱地域	전국 비중	全國	大邱地域	전국 비중
1974	2,148	138	6.4	1,494	113	7.6	654	25	3.8
1977	2,378	156	6.6	1,415	128	9.0	963	28	2.9
1978	2,665	229	8.6	1,542	193	12.5	1,123	36	3.2
1979	2,480	201	8.1	1,435	172	11.9	1,045	29	2.8

資料: 韓國縫製工業協會

### 2) 生産 現況

대구지역의 裁縫幾 보유대수를 전국과 비교해 보면, 역내 봉제공업의 취약성과 영세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전국의 설비대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 대구지역은 그 기복이 심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1979년의 시설현황을 보면, 전국의 23만 3,960대 중 대구·경북은 7,580대(3.2%), 대구직할시는 약 6,000여대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업체당 재봉기 보유대수는 약 30대로 나타났다.

대구지역의 시설현황을 연도별로 보면, 1975년~1977년까지는 전국에 대한 비중이 점차 높아졌으나 1978년부터 서서히 낮아졌다.

〈表 3-104〉 年度別 縫製施設 現況 (단위: 臺)

區 分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全 國 (A)	117,826	128,900	149,681	164,690	188,716	233,960
大邱慶北 (B)	4,368	2,958	5,648	7,712	7,916	7,580
B/A(%)	(3.7)	(2.3)	(3.8)	(4.7)	(4.2)	(3.2)

資料: 全國은 한국봉제공업협회 자료, 大邱·慶北은 경상북도 공업과 자료

한편 1972년을 기점으로 1979년까지 13.0배의 성장을 한 의류 출하금액은 대구지역에서는 4.4배의 성장에 지나지 않아 전국수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였으며, 성장률도 전국이 연간 46.7%의 성장을 보인 반면 대구지역의 성장률도 30.7%에 불과하였다. 한편 대구지역 봉제업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낮아지고 있어, 전국의 성장률은 1977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20~80%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나 대구지역은 1977년과 1978년의 경우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1978년에 1,870만 달러를 기록한 지역봉제공업의 수출은 1980년에는 오히려 21.3%가 감소한 1,472만달러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 이는 동기간 중 대구지역의 수출이 41.1%의 성장한 것을 감안하면 지역봉제공업이 얼마나 어려운 지경에 있었는지 알 수 있다. 또한 수출품의 구성비에서도 봉제제품은 1980년 기준 0.6%의 점유도를 보임으로써 지역봉제업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다.

〈表 3-105〉 大邱地域의 衣類製品 出荷額 및 成長率 推移 (단위: 백만원)

區 分	全 國 (A)		大邱·慶北 (B)		B/A(%)
	金 額	成長率(%)	金 額	成長率(%)	
1972	79,406	—	4,000	—	5.0
1973	130,852	64.8	4,031	0.8	3.1
1974	232,830	77.9	8,744	116.9	3.8
1975	288,749	24.0	9,684	10.8	3.4
1976	518,361	79.5	17,706	82.8	3.4
1977	558,330	7.7	17,013	△4.0	3.0
1978	677,998	21.4	13,742	△19.2	2.0
1979	1,026,536	51.4	17,437	26.9	1.7
1979/1972	13 배	46.7	4.4배	30.7	

資料: 經濟企劃院,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각 연도

이처럼 지역봉제공업이 발달하지 못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역의 경우 노동집약적인 직물공업이 크게 발전해 技術 및 機能人力의 確保가 용이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되고 있으며, 봉제산업은 그 특성상 유행과 디자인 등이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으나, 대구지역의 경우 입지상 신속한 市場情報의 입수와 이를 이용한 新商品開發이 어렵다는 것도 원인의 하나가 되고 있다.

그밖에도 서문시장의 織物都賣機能이 서울지역으로 옮겨짐에 따라 유통의 중심지가 서울로 일원화됨으로서, 대구지역에 봉제공업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요인이 감퇴되었다는 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表 3-106〉 大邱·慶北 縫製品 輸出實績 (단위: 천달러, %)

區 分	1978	1979	1980
總輸出 (A)	1,520,717	1,787,167	2,146,383
纖 維 (B)	948,694	1,035,100	1,176,128
縫 製 (C)	18,704	18,465	14,720
B/A	62.4	57.9	54.7
C/A	1.2	1.0	0.6
C/B	1.9	1.7	1.2

資料: 慶尙北道 輸出振興課, 大邱直轄市 商政課

## 6. 1980年代 以後의 메리야스工業

### 1) 現 況

풍부하고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하여 일찍부터 발달되어온 지역메리야스공업은 1970년대 초반부터 서울 및 호남지역에 대기업이 설립·가동되면서 점차 성장세가 둔화되어 갔다. 1980년 이후의 지역메리야스업계의 현황을 살펴보면, 1980년 313개 업체로써 전국의 26.1%를 차지하던 지역메리야스업체는 1987년에는 297개로 오히려 감소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양말과 경편부문은 오히려 성장을 하여, 전국비중이 각각 56.3%와 58.8%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表 3-107〉 메리야스業體 組合員 現況 (단위: 명)

年 度		1980	1985	1987	増減率(%) 87/80
區 分					
計	全 國	1,197	1,043	1,308	9.3
	大邱·慶北	313	276	297	△5.1
	%	26.1	26.5	22.7	—
内 衣	全 國	464	360	373	△19.6
	大邱·慶北	127	101	110	△13.4
	%	27.4	28.1	29.5	—
양 말	全 國	142	115	142	0
	大邱·慶北	46	53	80	73.9
	%	32.4	46.1	56.3	—
輕 便	全 國	64	47	68	6.3
	大邱·慶北	27	22	40	48.1
	%	42.4	46.8	58.8	—
掌 匣	全 國	347	387	535	54.2
	大邱·慶北	109	98	65	△40.4
	%	31.4	25.3	12.1	—
스 웨 터	全 國	180	134	172	5.6
	大邱·慶北	4	2	2	△50
	%	2.2	1.5	1.2	—

資料: 大邱·慶北 메리야스工業協同組合

한편 規模面에서도 지역업체는 영세성을 면치못하여 1988년 4월 말 현재 대구·경북 메리야스협동조합과 대구·경북 장갑공업협동조합에 가입한 내의류 110개, 양말업 80개, 장갑업 187개, 경편업 40개, 스웨터 2개로 419개업체이며, 기타 비조합가입 업체수는 가내수공업업 포함하여 200여개 업체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 업체를 企業形態別로 보면, 419개의 전체조합업체 중 주식회사가 8개 업체로 1.95%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개인기업으로 규모의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지역내 메리야스 生産施設은 1987년 말 현재 8,272개로 전국의 23.8%로 점유하고 있으며, 특히 양말기, 장갑기, 경편기의 전국 비중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表 3-108〉 메리야스 生産施設保有 現況(1987年末 現在) (단위: 대, %)

區 分	丸 編 機	横 編 機	양 말 機	掌 匣 機	經 編 機	其 他	合 計
全 國	13,046	7,253	9,935	5,574	763	154	36,725
大邱·慶北	3,623 (27.8)	146 (2.0)	2,903 (29.2)	1,720 (30.9)	365 (47.8)	0 (0.0)	8,727 (23.8)

主: ( )안의 점유비중임.

資料: 大邱·慶北 메리야스工業協同組合, 大邱·慶北 장갑工業協同組合

## 2)稼動, 雇傭, 生産, 販賣動向

1980년 평균 53.6%의 가동률을 보인 지역 메리야스공업은 1987년에는 74.1%로 상당히 호전되었다. 전업종이 1980년보다 가동률이 높아진 가운데 경편, 장갑의 경우 80%를 상회하는 가동률을 보이고 있다.

雇傭現況을 살펴보면, 1987년 말 현재 「메리야스」업계의 고용현황을 보면 대구·경북지역의 전체 종업원수는 8,317명으로 전국종업원수 7만 9,263명의 10.5%를 점하고 있는데, 이는 1980년의 8.1%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한 것이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양말업, 경편업, 장갑업의 비중이 각각 전국비중의 31.8%, 23.7%, 22.7%를 차지하여 매우 높게 나타났다(〈表 3-109〉참조)

한편 1988년 4월 말 현재 메리야스공업 협동조합원의 月生産能力은 109억 2,100만원이며, 업체당 월평균 생산능력은 3,677만원으로 규모가 매우 영세하여 1988년 1~4월까지의 생산실적은 前年同期比 12.5% 증가하였으나, 월별로는 점차 둔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이와 같은 현상은 가동률이 4월 들어 떨어지고 있는 것과도 일맥 상통하나, 주된 이유는 内需不振과 輸出鈍化 때문이다. 그리고 1988년 1~4월까지의 賣出額構成을 보면, 내수판매가 55%, 수출이 45% 정도이다. 수출은 니트웨어, 양말 등의 수출호조로 1987년에는 62.2%의 높은 성장을 나타냈고, 1988년에 들어서는 전년동기에 비해 28.5%의 수출증가율을 보였다.

그리고 輸出單價는 1987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최근의 임금인상과 3교대 근무제 실시, 그리고 원화절상에 따른 換差損이 커지고 있어 여타 섬유업종과 마찬가지로 채산성 악화가 예상되고 있다.

〈表 3-109〉 메리아스産業 雇傭現況 (단위: 명)

		1980	1985	1987
計	全 國	59,886	70,681	79,263
	大邱·慶北	4,833	5,128	8,317
	전국비중(%)	8.1	7.3	10.5
내의	全 國	23,885	37,562	50,040
	大邱·慶北	1,829	1,953	3,176
	전국비중(%)	7.7	5.2	6.4
양말	全 國	5,437	7,103	9,201
	大邱·慶北	1,204	1,552	2,927
	전국비중(%)	22.1	21.8	31.8
경편	全 國	8,955	5,318	6,245
	大邱·慶北	1,297	1,186	1,483
	전국비중(%)	14.5	22.3	23.7
장갑	全 國	2,021	2,582	3,066
	大邱·慶北	388	409	696
	전국비중(%)	19.2	15.8	22.7
스웨터	全 國	17,588	18,116	10,580
	大邱·慶北	115	27	35
	전국비중(%)	0.7	0.1	0.3

主: 기타 업체(전국)의 131명이計에는 포함되었으나 업종별에는 포함되지 않았음.

資料: 大邱·慶北 메리아스工業協同組合, 大邱·慶北 장갑工業協同組合

## VI. 課題와 展望

대구·경북지역의 섬유산업은 지역 特化産業으로서 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을 뿐만 아니라, 지역의 經濟力을 유지·발전시키는데 큰 공헌을 해왔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지역 섬유산업은 경부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인한 商圈의 서울이전, 구조고도화의 실패 등으로 인하여 많은 구조적 문제점이 누적되어 왔으며, 이에 따른 어려움도 매우 큰 것이 사실이다.

이하에서는 지역 섬유산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 및 과제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섬유산업이 나아갈 발전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 1. 地域纖維產業의 問題點과 課題

## 1) 生産構造上的 問題點

## (1) 規模의 零細性

대구지역은 합섬·장섬유직물로는 일본의 北陸지방과 함께 세계적으로 유명한 산지이면서도, 그 기업규모면에서는 原絲메이커 계열의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면 대부분 親族이나 소수의 인원으로 操業하고 있는 개인경영적 영세기업이 대단히 많은 편이다. 실제로 지역 섬유업체는 1989년 말 현재 종업원 5인이상 300인 미만인 중소기업체가 전체 업체수의 97.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기업규모의 영세성은 그 특질상 과당경쟁을 유발할 소지를 안고 있으며, 특히 경기 하강시에는 생산유통 단계에서 공정한 附加價値의 배분과 工賃의 확보를 곤란케 함으로써 企業收益의 저하를 초래할 수도 있다. 더구나 기업규모가 영세할수록 소비자 수요의 질적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新商品 및 技術 개발이 충분치 못하고 後繼者의 확보도 곤란할 뿐만 아니라, 혁신직기의 급격한 도입 등에 대한 대응도 어렵다는 사실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表 3-110〉 地域纖維業體의 從業員 規模別 比重(1989年末) (단위: 개, %)

區 分	全 國		大 邱		慶 北		大邱·慶北	
	事業體數	比重	事業體數	比重	事業體數	比重	事業體數	比重
合計	16,349	100	2,054	100	717	100	2,771	100
5~9人	4,222	25.8	408	19.9	127	17.7	535	19.3
10~19	4,397	26.9	531	25.9	150	20.9	681	24.6
20~49	4,766	29.2	691	33.6	227	31.7	918	33.1
50~99	1,696	10.4	224	10.9	109	15.2	333	12.0
100~199	782	4.8	133	6.5	55	7.6	188	6.8
200~299	221	1.1	35	1.7	17	2.4	52	1.9
300~499	127	0.8	20	1.0	19	2.7	39	1.4
500인 이상	138	0.8	12	0.6	13	1.8	25	0.9

資料: 經濟企劃院, 《鎭工業統計調查報告書》, 1991.

## (2) 下請 賃織型 生産構造

지역 섬유업체는 합섬메이커나 수출상사와의 수직적 기업계열 생산체제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대부분의 중소기업체들은 下請 내지 賃織生産을 하고 있다. 또 계열생산체제라고 하더라도



그 결합관계가 東國, 甲乙, 코오롱계열과의 협력업체처럼 고정적인 것이 있는가 하면, 수출상사의 단순하청계열처럼 경기변동에 따라 發注量이 달라지는 유동적인 것도 있다.

지역 섬유업체의 주종을 이루는 직물업체의 경우는, 대부분이 후자에 속하는데 전체의 80% 이상을 단순하청·임직업체가 차지하고 있으며, 직기의 70%가 임직형태에 사용되고 있다. 이처럼 지역 섬유산업은 단순하청 임가공형태가 일반적인 데다가, 대형 섬유수출업체마저 모두 서울에 몰려 있기 때문에, 기업경영의 비자주성과 불안정성이라는 기업내적인 문제점과 함께, 수출에 따른 果實의 역외유출효과까지 초래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하나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더구나 대구지역 섬유산업은 소재에서 최종 소비재 생산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간에 수직적인 聯關係가 미약하고, 製織業界도 단순하청생산 위주여서 기술개발면에서 취약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조직면에서의 특성은 商社를 중심으로 수직계열관계가 확고한 일본의 福井產地와는 달리, 상호간의 정보교류나 신상품의 개발에 있어 상호 기술력의 보완 내지 공동연구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 (3) 少品種 大量生産體制

대구지역 섬유산업의 특성 내지 문제점 중의 하나로 少品種 大量生産體制를 지적할 수 있다. 즉 대구의 섬유공업은 「쥬제트」, 「나일론타프타」, 「폴리에스터」 등의 화섬직물을 대량으로 생산하고 있는데, 이러한 대량생산체제는 規模의 利益 추구하고 더불어 연구개발 코스트의 절감도 가능케 함으로써, 지금까지 국제경쟁력을 강화시켜온 원동력이 되어 왔다. 그러나 바로 이점이 品質向上의 곤란과 製品差別化 및 고급화의 진전을 지연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진국 수준으로의 도약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으며, 나아가 후발개도국의 추격 등 갖가지 문제점을 불러온 것도 사실이다.

### (4) 施設老朽化와 設備過剩

지역섬유업체는 아직도 시설의 노후화가 높은 편인데, 이는 제품의 고급화와 원가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저해하는 근본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같은 노후시설 과다와 설비 근대화의 부진은 1980년 이후 지역섬유경기의 불투명으로 투자의욕이 저하된 데다가, 영세중소기업의 過密集에 따른 기업신용도 및 담보력의 취약과 기업의 판매부진 및 채산성 악화 등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워 노후시설의 개체가 저조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노후시설의 과다 문제는 이에 그치지 않고, 산업합리화기간(1989.7~1992.6) 중 활발히 추진된 제직업체의 설

비개체로 다시 設備過剩이라는 문제로까지 발전하게 되었다. 물론 이것은 수요가 생산능력만큼 늘어난다는 보장만 있다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정확한 수요예측도 없이 직기증설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졌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특히 지역섬유업계의 경우는 호황 때마다 급격한 직기증설이 고질화되어, 1973년 7월 말까지 3만 4,419대에 불과하던 것이 1990년 말 현재는 10만 3,097대로 17년간 약 3배나 늘어났다. 여기에다 WJL의 생산능력까지 포함한다면 생산능력은 약 5배 이상 증가한 셈이 되어, 항상 호황시의 무분별한 증설이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지역섬유산업은 시설노후화 뿐만 아니라, 設備過剩이라는 난제까지도 안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역업체는 지금까지 대부분의 설비투자를 他人資本으로 충당해 옴에 따라, 財務構造를 더욱 악화시켜 운전자금의 경색을 초래했으며, 외부경제 여건을 무시하고 무리한 施設投資를 함으로써, 기업의 수익성을 저하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적으로도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했다.

이러한 현상은 ‘스스로 제살을 깎는’ 결과를 초래하여 결국은 도산으로 이르게 되는데, 최근 들어 도산한 업체 중 약 30%가 무리한 시설확장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지역섬유업계의 설비투자는 투자수익률을 항상 염두에 두고 노후시설을 단계적으로 개체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테면 각 기업의 시설투자는 기업자체의 능력에 맞게 신중히 추진되어야 하며, 일시적인 수출경기나 異常過熱景氣를 기대하는 단견적인 설비투자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실제로 過剩設備가 존재함으로써 과잉공급현상이 일어나 제품가격과 과당경쟁을 불러 일으킨다. 또한 이것이 企業收益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產業의 競爭力을 약화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

〈表 3-111〉 韓·日間 財務構造 比較

自己資本比率(%)		名目金利水準(%) (1990.5)		金融費用/總費用(%)	
韓國(1989)	日本(1988)	韓國	日本	韓國(1988)	日本(1988)
28.2	29.1	年11.5	年7.1	4.6	1.6

資料：産業研究院

## 2) 需給構造上の 問題點

### (1) 中間素材 및 衣類素材에의 偏重

대구지역 섬유산업은 대개 未加工原段에서 染色까지에 이르는 中間素材에의 특화를 하나의 구조적 특성으로 하고 있다. 물론 化纖이나 綿紡 등의 「Up-stream」과 염색, 의류, 봉제 등의 「Down-stream」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지역의 대부분 섬유업체가 직물과 메리야스 등의 「Middle-stream」부문에 속해 있다. 특히 폴리에스터와 나일론絲를 원료로 하는 合纖織物이 전국시설의 80%, 지역 전체시설의 약 70%에 이르는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지역 섬유산업이 中間素材에 특화하게 된 것은, 織物이 수출상품으로서 국제경쟁력이 높고 수량적으로 많을 뿐만 아니라, 위험부담 또한 적은 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중간소재 중심의 생산구조는 최종 소비자와의 거리가 멀어 소비자의 기호변화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정보입수가 곤란하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중간소재에의 특화는 결국 지역 섬유업계의 高附加價值 창출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지역섬유가 너무 衣類素材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도 지역섬유산업이 안고 있는 하나의 문제점이자 특성으로 지적되고 있다. 즉 지역 섬유업계에서 생산하고 있는 합섬직물의 용도는 衣類用이 대부분인 반면, 인테리어, 자동차의 내장재, 토목자재 등과 같은 非衣類 분야의 생산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아, 불황때마다 품종전환이나 비의류 및 비섬유지향의 목소리가 높아져 왔다. 특히 合纖이 불황의 늪에 빠질 때마다 항상 거론되는 것은 연구개발을 통한 經營의 多角化였다. 즉 合纖은 천연섬유와는 달리 첨단화학산업이기 때문에 고분자화학 등의 연구를 통해 제품을 다각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참고로 日本 合纖業體들의 변신에서 보여준 실례는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즉 1980년대 중반이후 日本의 화섬업계동향 가운데 가장 주목해야할 점은, 「도오레이」 등 일본 대표적인 화섬업체들이 의류·섬유산업에 비해 비교적 성장가능성이 높은 고기능수지, 필름, 의료신소재 등 비의류·비섬유분야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구지역 섬유업체도 미래의 발전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는, 아직도 개발의 여지가 많은 비의류·비섬유분야로의 진출을 도모하고 生産構造의 多角化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 (2) 지나친 輸出依存型 및 輸出市場의 偏重性

지역섬유산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직물의 최근 판매형태를 보면, 대체적으로

내수 및 수출의 비중이 20:80으로 수출의존도가 대단히 높은 편이다. 따라서 최근 지역섬유업계가 겪고 있는 경기침체도 바로 섬유수출의 87.3%를 차지하는 직물의 수출부진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특히 대구지역 직물의 주시장인 미국과 동남아 및 중동 등의 섬유시장 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더욱이 지역섬유업계의 輸出市場構造를 보면, 일본과 동남아지역에 크게 편중되고 있으며, 輸出品目도 직물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지역섬유업계의 수출이 이처럼 對日地域과 직물수출에 편중되어 있는 것은, 일본의 직물시장 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취약성을 안게 마련이기 때문에 수출구조상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 와서는 중국, 태국, 인도네시아 등 後發開途國의 맹렬한 추격과 선진제국의 수입규제조치 등 수출환경이 날로 악화되어 가고 있어, 지역섬유업계의 海外市場 개척에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섬유수출의존도가 높은 대구지역으로서는, 앞으로 수출면에서는 제품차별화와 고부가가치제품의 개발에 주력하는 한편, 내수면에서는 대구섬유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國內市場의 再開發에도 눈을 돌려야 할 것이다.

〈表 3-112〉 地域纖維製品의 輸出實績 推移 (단위: 백만달러)

區 分	地域纖維(A)	地域總輸出(B)	全國纖維(C)	A/B(%)	A/C(%)
1971	40.7	49.3	519.5	82.6	7.8
1973	142.7	211.6	1,242.3	67.4	11.5
1976	327.2	593.8	2,740.1	55.1	11.9
1978	549.8	1,103.4	3,981.4	49.8	13.8
1980	799.3	2,235.5	5,104.3	35.8	15.9
1983	1,066.9	2,760.1	6,050.9	38.7	17.6
1986	1,465.9	4,198.0	8,744.9	34.9	16.8
1988	2,270.1	7,313.5	14,143.4	31.0	16.1
1991	3,717.3	9,009.8	15,495.7	35.7	20.8
91/71(倍)	79.0	182.8	29.8		

資料: 大邱銀行, 《大邱地域 經濟分析》, 各號

### 3) 經營의 保守性과 自助努力의 不足

#### (1) 非合理的 企業經營

지역섬유업계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中小企業形態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조직면에서도 개인기업(지역 섬유업체의 약 63.8%가 가족기업)이

압도적으로 많은 편이다. 이러한 가족중심기업은 그 성질상 합리적 내부통제가 불가능하며, 경영에 있어서도 전근대성을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결국 장기적·거시적인 안목의 결여로 단견적인 경영을 함으로써 성장잠재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기업이 일정수준 이상 성장하면 專門經營人 체제를 도입, 체계적인 기업경영을 해 나가야 하는데, 지역섬유업체들은 줄곧 親族經營으로 일관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과거와 같은 소유주의 自意的 경영체제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專門經營人에 의한 경영합리화를 추구해 나가는 것이 역내 섬유인들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 하겠다.

### (2) 製品專門化 및 研究開發努力의 缺如

지역섬유업체들 가운데는 경기변동에 따라 제품을 쉽게 변경하여 생산하는 기업들이 많아, 업체별로 특색있는 製品開發이 어렵고 유사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간에는 過當競爭도 빈번한 실정이다.

즉 한 업체가 인기품목을 생산하여 이득을 보았다면, 많은 업체가 너도 나도 그 인기품목으로 쏠린 나머지, 과당경쟁이 빚어지고 수출가격 또한 급락하여 결국은 모두가 곤경에 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것은 各業體가 업체별로 특성을 지닌 製品開發 노력을 게을리한 때문인데, 이러한 실태는 이미 구조적인 성격을 띤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매출액 대비 研究開發費의 투자도 매우 저조하여 기술개발이 부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섬유산업이 경쟁력을 상실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

### (3) 協同組合經營上の 問題

지역섬유업계의 關聯組合들은 지금까지 그들의 업체발전을 위한 어떤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적극적 의미의 機構로서가 아니라, 단순히 외부로부터 오는 공동의 不利益에 대한 방어 또는 원료배정상의 중개역할 등 주로 수동적인 機能을 수행해 왔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따라서 이들이 지닌 문제점은, 대략 ① 각 조합의 재정적인 영세성, ② 공동구매사업의 부진, ③ 전문경영인의 부족, ④ 조합기능의 비세분화 등으로 구체화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組合의 機能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재정적 지원이 보강되어야 하고, 조합직원의 신분을 보장, 유능한 人材를 유입하여 소신있게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조합을 세분화하여 전문업종별로 조직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지방정부에도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등 조합지위를 격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편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업계 및 학계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地域纖維產業의 특징과 문제점들을 크게 구조적 측면과 경영적 측면, 그리고 행정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체제화하면 <表 3-113>과 같다.

<表 3-113> 地域纖維產業의 構造的 特性과 問題點

區 分	具體的 特性과 問題點
構造的 側面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原料의 지나친 海外依存 및 불안정한 供給</li> <li>2. 生産의 非專門化 및 非多角化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iddle-stream 중심의 生産과 화섬직물에 의존하는 小品種 大量生産</li> <li>- 規模의 零細性(89년말 현재 중소섬유기업이 전체의 98.4% 차지)</li> <li>- 衣類用 製品生産에 의존</li> </ul> </li> <li>3. 製品販賣의 偏重 및 前近代化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나친 下請貨纖型의 판매</li> <li>- 과도한 輸出에의 의존</li> <li>- 소극적, 전통적 마케팅전략</li> </ul> </li> <li>4. 技術의 後進性 및 老朽性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후시설의 과다</li> <li>- 낮은 設備自動化</li> <li>- 낮은 研究開發費의 지출</li> <li>- 새롭고 다양한 素材開發의 미흡</li> </ul> </li> <li>5. 通商部門의 침체와 聯關産業의 낙후</li> </ol>
經營的 側面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수동적이고 보수적인 管理姿勢 및 태도</li> <li>2. 단기적이고, 微視眼의인 경영전략의 수립과 人的 資源의 관리</li> <li>3. 前近代의인 管理組織, 통제제도 및 관리과정</li> <li>4. 전근대적인 정보시스템의 구비</li> <li>5. 비협동적이고 폐쇄적인 環境管理 및 협조체제</li> </ol>
行政的 側面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官主導의인 支援</li> <li>2. 依存 誘導型의 지원</li> <li>3. 임시방편적인 지원</li> <li>4. 非貯蓄의인 연구개발 用役의 발주</li> <li>5. 組合등 有關機關의 협동체제 미약</li> </ol>

資料：大邱銀行, 《大邱地域 經濟分析》, 1988.11~12, p.18

## 2. 向後展望

섬유산업은 전통적으로 전형적인 노동집약적 산업으로서의 특징을 지니고 있어 개도국의 공업화초기에 있어서 中樞産業 내지 유치산업으로 육성되기 적합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선진국에서는 斜陽産業으로 분류되어 산업조정을 받기 쉬운 특성이 있다. 지역의 섬유산업 역시

경제개발초기 단계에서는 고용증대, 수출증대, 외화획득, 경제성장의 주요한 밑거름이 된 성장 산업으로서의 역할을 하였지만, 1980년대 초반 이후 섬유산업을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산업의 경쟁력이 급속히 저하되고 산업의 성장도 정체됨에 따라 일찍이 纖維産業 斜陽論이 하나의 지배적인 정설이 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섬유사양론은 그동안 지역섬유산업의 가격경쟁력을 지지하고 있던 임금의 급격한 상승이라는 입장에서는 일견 타당성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지역경제의 발전단계에 비추어 아직도 成長潜在力이 있는 섬유산업이 사양산업으로 인식되게 된 것은 산업환경의 급격한 변화에도 그 원인이 있지만, 사양산업이라는 인식으로 인한 모험적인 투자나 自救努力의 부족, 정부의 支援政策의 缺如 등에서 오히려 그 원인을 찾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지역섬유 산업이 현재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지만 노력여하에 따라서는 전망이 어둡기만 한 것은 아니며, 새로이 再跳躍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얼마든지 지니고 있다.

첫째, 제조업내에서의 섬유산업에 대한 상대적 비중의 계속적인 저하에도 불구하고 섬유에 대한 절대적인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소득의 증대로 인한 수요의 고급화·개성화·다양화를 통한 高附加價值化가 계속되고 있어 섬유산업은 인류가 존재하는 한 계속 유지될 수 있는 산업이다.

둘째, 섬유산업에 대한 비교우위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음은 일본이나 이태리의 合纖維物의 예에서 증명되고 있으며, 이들 나라들은 제품의 고급화를 통해 여전히 세계적인 비교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섬유산업은 構造高度化를 통하여 여전히 비교우위의 산업으로 존재할 수 있다.

셋째, 우리나라 섬유산업의 경우 ① 섬유산업에 관한한 균형된 生産基盤을 갖추고 있으며, 수질 기후조건 등 섬유산업에 적합한 조건을 보유하고 있어 구조조정을 적절히 이루고 나면 경쟁력의 확보가 가능하고, ② 후발개도국과는 아직은 기술의 격차가 있으며, ③ 우리의 最大競爭國인 대만, 홍콩 등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최근에 이르러 우리와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④ 선진국이 섬유산업을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할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선진국과의 경쟁에 있어 타 산업보다 유리하다.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보았을 때, 지역섬유산업은 이미 확보하고 있는 국제적인 比較優位를 계속 유지하면서 산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산업구조를 고도화 해 나갈 경우 그 전망이 어둡지만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섬유산업은 여전히 比較優位産業으로 존립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 3. 地域纖維產業의 發展方向

#### 1) 產業政策的 側面

##### (1) 中央 및 地方政府의 支援方向 轉換

지금까지 지역의 경제발전은 官主導型이었고, 그때 그때의 문제해결을 위한 임시방편적 성격이 강하였다. 관의 지원 또한 조합이나 단체 등과 관련된 협동사업 보다는 개별기업의 단독사업 위주로 행해졌다. 따라서 개별기업들은 中央이나 地方政府에 너무 수동적으로 의존하는 관습을 지니게 되었다. 그러나 앞으로 經濟民主化의 심화, 地方自治制의 실시 및 國際環境의 변화 등에 효과적으로 부응하기 위해서는, 개별기업들이 체질을 개선하고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중앙 및 지방정부가 개별 독립사업 위주의 지원에서 團體·協同事業 위주로 지원방향을 전환해 나가야 할 것이다.

##### (2) 高附加價值產業으로의 構造調整

섬유산업발전의 핵심이 외형의 성장과 더불어 내실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할 때, 내실이란 곧 고부가가치 창출을 의미하는 바, 이를 위한 전문화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전문생산체제의 확립은 품질의 고급화와 더불어 급속히 변모하는 기술혁신에 대처할 수 있는 自生力을 배양해 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基盤技術은 단기간에 확립될 수 없고 오랜 기간의 숙련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업체의 전문화와 더불어 기술·기능인력의 확보 및 전문가를 위한 여건조성이 요망된다.

따라서 지역섬유업체가 국제섬유시장의 수요패턴 변화에 따라 공급을 확대해 가기 위해서는, 생산 유통의 각 단계에 있어서 생산·취급품목수의 증가와 품목당수량의 축소 및 생산·판매사이클의 단축이 진전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섬유산업이 선진국형 산업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상품기획 개발의 강화에 의해 개발된 제품을 효율적으로 생산판매할 수 있는 多品種少量 短사이클화에 대응한 공급체제의 확립이 급선무이다. 이를 위해 지역섬유산업내에서 수직연대 강화를 계속 도모하고, 流通의 합리화, 생산판매로트(lot)의 집약화, 전자기술 등을 활용한 다 품종소량생산, 短사이클화 대응기술의 개발·도입 등을 진보시키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할 것이다.

##### (3) 만성적인 人力難의 해소

최근 3D현상의 심화로 나타나기 시작한 섬유업체 人力離脫의 가속화는 섬유업의 원가상승 및 대외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설문조사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섬유업을 평생 직장으로 알고 근무하는 근로자의 비중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 섬유산업 생산현장의 근무환경이 과거보다 개선되고, 설비현대화, 컴퓨터설비 등으로 생산환경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취업인력이 섬유업종 생산기능직보다는, 근무조건이나 환경, 사회인식이 더좋은 서비스업종을 선호하고 있는 등 현재의 人力需給에 있어서 求人難이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업체 자체의 문제점보다는 산업구조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우선 産業構造的인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수준과 열악한 근무환경(노동시간/근무시간/복지시설) 및 기능인력의 절대적 부족 등을 들 수 있고, 社會的인 측면에서는 생산직 기피현상과 생산직에 대한 인식부족 및 힘든 일을 기피하는 풍조에 기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와 같은 근로자들의 사기저하는 사회에서의 낮은 인식과 低報酬 등과 맞물려 있어 섬유인력의 이탈현상을 재촉하고 있는 바, 이에 따른 복지후생시설의 확충 및 섬유산업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 등 근로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따라서 부족한 인력의 충원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제조업 근로자에 대한 免稅點을 상향 조정하는 등 섬유업 종사자에 대한 優待政策의 실시와 인력양성 및 교육기관의 확충을 통한 技能人力의 공급원을 확대함과 동시에, 주부인력과 노령인력 등 遊休人力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와 병행하여 부당한 인력스카웃에 대한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적정수준의 해외인력 유입 및 인력정보센터의 건립 또는 병역특혜제도를 실시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海外人力의 유입은 저임금과 이로 인한 제조원가상의 이점에도 불구하고, 불법취업과 국내 실업문제 등 여러 문제점들을 노출시키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즉 궁극적으로 볼 때 국내, 여건의 개선으로 국내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국내산업의 여건개선과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 (4) 産業基盤 및 社會下部構造的의 확충

지역섬유산업의 건실한 육성을 위해서는 산업정책적 측면에서 산업기반의 구축과 더불어 사회간접시설을 확충하여야 한다. 먼저 지역의 산업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력의 축적과 기술수준의 제고, 공업입지의 정비 등이 요구된다.

또한 지역의 도로 및 상하수도 건설, 통신 및 문화시설의 개선 등을 통하여 지역의 사회간

접자본과 주민의 생활편익을 확충함으로써, 기업의 생산비를 낮추는 방향으로 지역개발 및 공업화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산업기반의 구축과 사회하부구조의 뒷받침이 있을 때, 비로소 지역 섬유산업은 대외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 2) 通商政策的 側面

### (1) 大邱의 纖維貿易基地化

대구지역은 우리나라 제일의 섬유생산지일 뿐만 아니라, 섬유수출에서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정책적 차원에서 대구를 섬유무역기지로 육성시켜 나가야 한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세계 제5위의 섬유수출국으로 등장하게 된 것도 모두 대구지역 섬유업계의 노력이 뒷받침된 결과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1991년도 우리나라 총섬유수출 155억달러 중 11.8%에 해당하는 18억 3천만달러를 대구지역이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직물류의 수출도 대구의 直輸出보다는 서울에 있는 대형섬유수출상사의 하청을 받아 생산·수출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대구가 직물중심의 단순한 下請生產基地에 지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대구지역에 떨어지는 과실은 임금 등 일부 가공료에 불과한 실정이며, 오히려 경영의 비자주성·불안정성이라는 심각한 문제만 남게 된다. 따라서 제1차 성장거점 도시로서 대구의 산업구조를 고도화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國際貿易機能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纖維貿易都市化 전략이 요구된다 하겠다.

이와 더불어 섬유수출상사 및 纖維貿易 有關機關을 대구에 유치하는 노력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특히 이를 위해서는 지방 대도시에서도 모든 무역업무가 완결될 수 있는 수출지원체제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지방에 母工場과 계열공장을 두고 있는 수출업체들이 많은 경비를 들여가면서까지, 서울에서의 영업을 선호하는 까닭은 지방에서는 무역업무 자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많은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인데, 이를 위해 貿易行政業務 및 貿易有關業務를 지방자치단체에 과감히 이양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 (2) 能動的 輸出마케팅體制의 確立

지역의 섬유수출은 대부분 바이어의 주문에 의존한 注文輸出로서 지역업계의 수출마케팅은 매우 미약한 형편이다. 이에 따라 自社製品을 선전하는 광고 및 홍보활동의 부족과 수출시장 조사에 의한 情報蓄積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경우 특히 수출마케팅 활동이 더욱 미약하고, 해외시장정보의 수집처인 해외전시회나 전람회의 참여도도 낮다. 아울러

바이어 의존으로 인해 流通經路를 다원화한다거나, 자체 브랜드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마케팅을 등한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輸出마케팅을 강화하기 위해서 주요 교역대상국의 대도시에 대규모 소매점을 설치하거나, 유명 백화점내에 상설 직매장을 확충하고, 소비단체에의 기부, 문화행사에서의 스폰서로서의 참가 등을 통해 해외광고 및 홍보를 적극 추진토록해야 할 것이다. 먼저 北美市場의 경우, 카리브해 연안이나 중남미지역에, 또 EC시장은 서남아지역 등에 수출생산기지의 이전을 확대하여 수출을 촉진시키는 한편, 美國이나 멕시코, EC에 직접 일관생산 공정을 갖는 섬유공장을 現地法人으로 설립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海外投資를 적극 확대시키기 위해서 허가 및 사후관리제도, 금융지원, 보험제도 등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對日輸出 확대를 위해서는 일본 소비자의 수요에 맞는 패션, 디자인을 개발하고 업체별로 전용 생산라인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특히 마케팅활동의 강화를 위해 의류 상설전시장을 확대 운영하고, 日本의 기준마크 획득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後發開途國 특히 동남아시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섬유산업의 분야별 비교우위와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國際分業體制를 구축하고, 중국 및 동구권과는 직접교역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 (3) 건전한 輸出秩序의 정착

해외진출의 강화를 위해 능동적인 수출마케팅 체제의 확립과 아울러, 海外輸出 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베트남 등 동남아에 진출한 우리업체끼리 서로 스카웃경쟁을 통한 경쟁적인 賃金上昇으로 현지 인건비가 국내수준과 비슷할 정도로 상승, 가격면의 매력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데다, 규격품 및 인기품목에 대한 우리기업간의 過當競爭은 품목의 이미지를 떨어뜨림과 동시에 採算性을 악화시키고 있다.

이와 더불어 쿼터확보를 위한 실적위주의 수출 역시 과당경쟁을 유발하고 있으며, 여전히 신규참여기업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고, 섬유수출의 고가·고부가가치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발전적 보완과 함께 건전한 수출질서의 확립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 3) 海外進出 側面

### (1) 産業構造改編과 연계한 海外直接投資

지역 섬유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이미 「하느냐 마느냐」하는 단계를 넘어, 이제는 단지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인가의 문제로 논의의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앞으로 지역 섬유업체는 전문경영인력과 정보수집능력의 부족 등을 내세워 각종 정책적 지원의 확충만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환경변화에 따른 전략적 대응이라는 차원에서 스스로 체계적인 해외직접투자전략을 모색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이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앞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산업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역내 산업구조개편방향과 연계·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우선 현단계에서는 비교열위산업이나 노동집약적 부품산업 또는 단순가공 공정부문을 중심으로 추진하되, 지니친 해외투자로 산업공동화현상이나 대량실업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자율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후진국의 추격이나 고임금추세 등으로 수출경쟁력이 약해지고 있는 지역의 섬유산업은, 무조건 해외진출을 서둘 것이지 아니라 우선은 지금까지 다져온 집적의 이익을 최대한 살려, 고부가가치의 지식집약적산업으로 전환시켜 나가도록 해야한다.

지역경제 및 산업여건을 감안할 때, 섬유업의 해외직접투자는 앞으로도 더욱 확대되어야 하나, 이 경우는 비교열위업종의 기술습득목적이나 국제공정분업 측면에서 추진되어야 하며, 비교우위업종의 해외진출은 가급적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2) 企業內 國際分業體制의 유지

섬유산업도 버논의 製品週期理論에서와 같이 ‘수출개시→ 수출확장→ 성숙→ 재수입’ 등의 단계로 발전한다면, 대구의 섬유는 이제 성숙단계를 지나 재수입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중저가품의 생산공정의 해외이전은 불가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기업이 무조건 생산설비를 해외로 이전하여 해외생산만을 확대하게 되면, 역내공장은 자동적으로 경쟁력을 잃게 되고, 이처럼 역내공장이 空洞化된 기업은 해외생산과 수출을 양립시키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생산기반은 가능한 한 역내에 두고, 사장되어 가는 기계설비나 공정기술 등을 해외로 옮겨, 기업내 國際分業體制를 확립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예컨대 역내의 본사에서는 높은 부가가치를 가진 고품질의 「하이패션」제품 생산에 주력하는 한편, 해외 현지공장에서는 중간수준의 표준화된 생산기술이 요구되는 노동집약상품을 생산함으로써, 동일기업내에서 국제적인 공정분업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 경우 해외생산은 노후화된 기계설비나 상품제조·공정기술, 또는 숙련인력 등을 이용하여, 상대적으로 노동력이 풍부하고 생산비가 저렴한 국가에서 부가가치를 재창출함으로써 생산품의 주기를 좀더 연장시킬 수가 있는 것이다.

### (3) 環境分析에 대한 認識轉換

지역 섬유업체가 해외투자에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를 본격 추진하기에 앞서 우선 투자대상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기술 등 제반 투자환경과 고객 및 산업의 특성, 그리고 경쟁기업의 강약점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 철저히 분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환경분석은 기업을 둘러싼 경영환경의 변화가 기업의 미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또 그에 따른 의사결정에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인가를 고려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따라서 환경분석은 단지 현황분석 및 예측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타당성조사를 비롯한 해외투자 의사결정의 제단계에 그 결과를 철저히 반영시켜야 할 것이다.

지역 섬유업체들은 국내의 경쟁기업에 비해 취약하기 짝이없는 정보수집 및 분석기능을 강화시켜 나가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해외투자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집중 관리함으로써, 구체적인 해외투자전략의 수립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개발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개별기업의 입장에서 어려운 과제라고 판단된다면, 동종산업별로 또는 같은 지역에 진출한 기업들끼리 공동의 전산망을 구축하는 방안도 한가지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지역 기업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정확하고 신빙성 있는 투자정보 수집이 곤란한 지역에 대한 해외투자는, 이러한 정보시스템이 원활히 운영될 경우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4) 競爭戰略과 新國際化戰略의 채택

지역 섬유업체가 해외직접투자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전략적 과제로는 競爭戰略과 新國際化戰略의 채택을 들 수 있다. 특히 지역의 섬유업체들과 같이 뚜렷한 차별적 경쟁적 우위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이 두가지 요소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지역의 섬유업체들은 각 기업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국내시장과 해외시장을 별도로 구분할 수 없게 되었으며, 국제시장을 하나의 통합된 시장으로 보고 경쟁전략을 추진해 나가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 지역 섬유업체의 해외투자시 감안되어야 할 경쟁전략은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시장의 선택이고, 다른 하나는 경쟁우위의 원천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우선 시장의 선택과 관련하여 지역기업들은 얼마나 많은 시장, 그리고 어떠한 시장을 무대로 경쟁에 임할 것인가를 결정지어야 한다. 이때 근본적으로 해외투자에 소요되는 막대한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미흡한 역내 섬유업체들이 취해야 할 전략은 무엇인지 분명해 진다.

즉, 지역 섬유업체는 치밀한 환경분석을 바탕으로 그때까지 충족되지 못한 시장을 찾아내어

그곳에 제한된 자원을 집중시키는 니치전략(Market niche strategy : 시장틈새전략)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경우, 일정한 한도내에서는 향후 중요한 경쟁우위의 원천이 될 수 있는 규모의 경제를 기대할 수도 있다.

지역 섬유업체가 위험분산을 목적으로 여러지역에서 동시에 투자활동을 수행하기란 여간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또 다른 경쟁기업이 특정지역에서 성공을 거두었다고 해서 무작정 그 뒤를 따르는 것도 올바른 전략적 선택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지역 섬유산업의 해외진출은 市場의 世界化(Globalization)와 生産의 現地化(Localization)가 잘 조화된 新國際化戰略(Glocalization)을 근간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테면 미국과 EC시장은 각기 시장통합조치로 시장규모는 확대되고 있으나 진입 장벽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이들 양대 시장에 대해서는 수출마케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현지화전략이 필요하며, 동북아지역 등에 대해서는 요소활용형 생산기지를 구축함으로써, 구미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특히 동북아지역은 사회주의 제국의 구매력 제한으로 인해 시장통합형 투자의 의미는 약한 반면, 저임노동력·풍부한 자원 등 생산요소 결합형 경제권으로서의 의의가 높은 만큼, 지역 섬유업체는 동북아지역 특히 경제특구에 대한 생산조직의 현지화 전략과 이를 기초로 한 범세계적 수출마케팅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지역기업들은 경쟁우위의 원천이라는 측면에서 원가상의 우위를 바탕으로 경쟁에 대응할 수도 있고, 또 자신들이 취급하고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경쟁기업의 그것과 차별화 시킴으로써,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도 있다.

이러한 면에서 별다른 차별적 우위를 지니지 못한 지역 섬유업체들로서는 가격경쟁만이 유일한 전략적 대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물론 품질 고급화나 기술 혁신을 통한 차별적 전략은 대기업들도 힘겨워하고 있는 만큼, 지역 업체로서는 더욱 어려운 과제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여기에도 전혀 해결책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바로 國際提携戰略(International coalition strategy)을 추진하는 것이다. 즉 자본·기술·마케팅능력 면에서 열세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특정분야에 한해 국제 우수기업과 상호협력관계를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국제 제휴전략은 경영활동의 불필요한 중복방지, 일부 기업이 선점하고 있는 기술 시장 등에 대한 접근 가능성, 위험의 분산 등 다양한 전략적 이점을 제공해 줄 수 있어 필수불가결한 전략적 과제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 (5) 對北韓進出의 적극 고려

지역 섬유산업은 최근에 임금상승 등으로 가격 경쟁면에서 열세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후발개도국의 추격으로 대외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에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지역의 섬유업체가 중국 등 값싼 저임의 개도국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북한을 우리의 새로운 파트너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남북한 경제협력이 본격화되었을 때 가능한 일이긴 하지만, 북한은 중국이나 동남아 보다 더 매력적인 투자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해외 투자지역과 비교해 볼 때, 북한은 보다 우수한 노동력 확보가 가능한 데다 저임금 활용에 따른 생산원가의 절감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지역 섬유업체가 만약 북한과 파트너가 될 수 있다면 후발국과의 가격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지역 섬유업체의 우수한 기술과 양질의 중간재가 북한의 우수한 노동력과 접목될 경우, 단시일내에 중국, 동남아국가들의 섬유제품보다 품질면에서 우위를 확보, 수출경쟁력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된 연구결과를 보면, 북한의 섬유관련 시설과 기술은 우리의 1970년대 수준이므로 우리의 유희설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과의 합작 투자에 의해서 생산된 제품의 가격도 품목별로 최하 14%에서 최고 30% 수준까지 낮출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를 반영하여 최근에 대구은행이 지역섬유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기회가 주어질 경우 북한에 진출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응답업체(270개)의 77.4%가 진출의사를 피력함으로써, 북한이 잠재투자지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진출이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많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체제의 불안정과 투자자금의 회수 및 송금위험 등 직접투자에 대한 우려요인도 적지않아, 대북한 투자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정치적 합의점 도출이 시급한 과제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6) 海外直接投資의 선별지원

지역 섬유산업의 경우, 수출경쟁력을 상실한 중저가품의 생산은 해외로 이전하고, 역내생산은 비교우위를 지닌 고부가가치제품으로 특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에 따른 지역산업의 공동화나 투자지역 경제환경의 급변 등 대폭적이고 편중된 해외투자시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진출업체에 대한 합리적인 선별과 투자지역에 대한 다변화가 요구된다.

그러나 문제는 지역 섬유업체의 해외직접투자는 그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으나, 투자여건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는 점이다. 즉 정보수집력·자금력·전문경영 인력의 부족 등이 대표적인 제약요인이 되고 있으며, 해외투자를 위한 정부의 지원 또한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지역 섬유업체가 해외직접투자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고 기업내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해외투자에 신중을 기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해외투자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생산기반은 가능한 한 역내에 두어 경쟁력을 유지토록 하는 한편, 현지파트너 및 국내의 다른 기업과도 투자리스크를 분담할 수 있는 방안을 미리 강구해 둘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부는 정부대로 해외직접투자의 활성화와 함께 이를 선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기업의 해외투자에 따른 문제해결과 투자효과를 극대화해 기여토록 해야 할 것이다.

#### 4) 自救努力 側面

##### (1) 業界의 認識轉換 및 自助的 努力的 경주

지금까지의 섬유산업은 정부의존적이었으며, 개별 섬유업체들을 볼 때도 기술 및 인력개발보다는 금융지원 중심의 정책에 익숙해 왔다. 그러나 이제 섬유산업은 생존을 담보로 지식집약적 산업 및 생활문화형 산업으로 이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와 동시에 획일적인 대량생산보다는 기업인의 창의성을 바탕으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 따라서 지금까지 시장 및 고객, 경쟁국과 경쟁사 등 환경변화에 대한 수동적인 대응자세에서 탈피, 스스로 품질향상과 신제품개발, 생산원가절감과 더불어, 설비자동화와 다품종 소량생산체제로의 이행 등과 같은 자조노력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이와 아울러 지역주민들도 지역섬유산업에 대한 애착과 성원, 그리고 끊임없는 관심을 가지고, 지역기업이 건전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측면에서 지원하는 상호 협조의 애향심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 (2) 生産構造改善을 통한 原價節減

지역섬유산업은 그동안 풍부한 저임금 노동력을 바탕으로 경쟁국에 비해 상대적인 가격우위를 유지해 왔으나, 1987년 이후부터는 급속한 임금상승으로 가격경쟁면에서 비교우위를 상실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사실은 주요 섬유산업국 노동자의 연평균 임금을 비교해 보면 더욱 잘 나타나는데, 1990년을 기준으로 한국의 시간당 임금이 3.22달러인데 비해, 중국 태국 등의 시간당 임금은 각각 0.37달러, 0.92달러에 그침으로써, 가격경쟁면에서 열세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지역섬유업체는 구조개선을 통한 원가절감 노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선 임금상승에 따른 단순기능인력의 부족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自動設備를 적극 도입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혁신직기의 효율적 도입을 위해서는 최신설비에 대한 관세의 차등적용을 추진하는 한편, 개방쿼터 배정시 시설합리화의 기준에 대한 개방비율을



현재의 20%에서 30% 이상으로 높여 나가야 한다.

또한 纖維工場의 無人化를 위해서는 직물과 편물공장의 무인화 및 봉제공장의 로봇화 추진에 공업발전기금, 특정연구개발사업비 등의 자금을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40% 수준에 머물고 있는 국산섬유기계의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섬유업체와 섬유기계업체가 공동으로 개발체제를 갖추어, 최신 자동기계의 개발과 수요창출을 위한 리스제도, 팩터링제도 또는 섬유기계업체의 신용에 의한 자금대출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表 3-114〉 世界 主要 纖維産業國 勞動者의 平均賃金 比較 (단위: 달러/시간)

國 名	1987	1988	1989	1990	國 名	1987	1988	1989	1990
獨 逸	12.98	14.67	13.17	16.46	아르헨티나	1.60	1.24	1.42	1.42
이태리	12.67	13.81	13.03	16.13	泰 國	0.58	0.66	0.68	0.92
日 本	11.99	14.93	13.98	13.96	印 度	0.65	0.77	0.65	0.72
프랑스	9.99	10.88	9.82	12.74	필 리 핀	0.57	0.64	0.64	0.67
美 國	9.24	9.42	9.71	10.02	파 키 스 탄	0.37	0.40	0.37	0.39
臺 灣	2.09	2.94	3.56	4.56	中 國	0.23	0.27	0.40	0.37
韓 國	1.77	2.29	2.87	3.22	인도네시아	0.20	0.22	0.23	0.25
홍 콩	1.93	2.19	2.44	3.05	스 리 랑 카	0.31	0.30	0.26	0.24
멕시코	0.83	1.84	2.11	2.21					

資料: 〈纖維經濟新聞〉, 1991. 7. 17

한편 생산코스트의 절감은 가격결정에 있어서 경쟁력을 지니게 하며, 특히 제품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주된 방안이 될 수 있다. 生産費 절감을 위하여 생산기술의 향상과 더불어, 궁극적으로 인적 자본과 근로조건에 대한 투자와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아울러 新設備의 구입을 촉진하고, 노동생산성의 향상을 위한 근로자의 사기진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복지시설 및 작업환경의 개선 등은 장기적으로 볼 때 生産費를 절감시키는 방안이 될 것이다. 또한 R&D나 마케팅조사 분야에서 각 업체들이 공동노력을 취함으로써, 코스트 절감효과를 얻도록 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3) 技術水準 提高와 人材 養成

지역섬유산업은 그동안 양적 성장에 치중하여 규모면에서는 섬유대국으로 진입하였으나, 기술면에서는 技術開發 投資를 소홀히하여 선진국과의 격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러한 기술개발·투자의 저조는 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더디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소재 및 생산기술의 개발도 어렵게 함으로써, 수출상품의 고급화를 방해하는 요인이 되었다.

특히 새로운 소재의 개발이나 가공 및 생산기술의 개발촉진에 의한 수출상품의 고급화 및 고부가가치화가 섬유 선진국이 되기 위한 제1차적 조건이라고 할 때, 技術開發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과제일 것이다. 따라서 지역 섬유업계는 무엇보다도 기술개발체제의 취약성, 첨단기술도입의 지연, 독창적 기초적인 기술개발의 부족, 기술접근성의 부족 등의 과제를 조속히 해결해 나가야 한다.

특히 小企業일수록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나 공장자동화 및 사무자동화의 추진이 미흡하여 고급화는 물론 생산성 향상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소규모기업의 경우, 그룹별로 기술개발 투자를 의뢰하거나 공정관리 및 납기관리를 과학화하는 등 기술개발 노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下請企業에 대한 모기업의 기술이전이나 시설이전, 경영지도 등의 지원체제도 갖추어야 할 것이며, 기술력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과 고급 연구인력의 양성, 기업부설연구소와 기존 연구기관과의 상호협력을 통한 연구 등 技術支援을 계속 활성화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섬유기술진흥원과 섬유기술연구소, 한국견직연구원 및 봉제과학연구소 등 기존 민간기술연구소의 기능을 강화하고, 産·學·研 협동연구체제를 확립할 뿐만 아니라, 섬유원료 및 섬유제품에 대한 생산기술의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밖에 섬유상설전시장의 설치와 섬유소재편람의 발간·보급, 한일기술협력 확대 등을 추진하고, 해외 과학기술자를 유치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기술개발의 촉진을 위해서는 의류부문은 물론이고, 소재에서 최종제품에 걸친 모든 단계에서 창조적인 人材의 주도적인 역할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특히 기술력의 향상을 꾀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지도인력의 부족과 품목별 소재별 전문인력의 부족은 창조적인 人材養成의 필요성을 크게 높이고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인재양성에 주력할 뿐만 아니라, 기능인력이 우대받는 사회가 조성될 수 있도록 업계 및 지역민들의 따뜻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 (4) 製品差別化의 지속적 추진과 一貫生産體制의 확립

지역섬유업계는 앞으로 汎用製品 위주의 소품종 대량수출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므로, 수요의 다양화에 부응한 제품고급화와 신제품개발을 통해 고부가가치중심의 다품종 소량생산체제를 확립하여 製品의 差別化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

그러므로 이를 위해서는 소규모 영세업체의 합병을 통해 신제품의 개발에 지장을 초래하는

노후시설 개체와 시설자동화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研究開發投資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 신소재개발과 기술혁신활동을 강화시켜야 할것이다.

또한 설비의 근대화와 자동화 등 하드부문의 강화로 생산코스트의 감소를 추진함과 동시에, 정보수집력과 상품기획력, 기술력 및 판매력 등 기업의 소프트부문을 강화해서 종합적인 知識集約化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러한 지식집약화를 위해서는 系列化와 協業化 및 專門化가 필수적인 만큼, 현재 생산공정의 횡적인 연대에서, 異業種과 異工程간의 기업, 혹은 기업군과의 교류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금까지의 기술개발은 자동화 합리화에 두고 있지만, 앞으로는 多品種 少量 生産 및 短사이클화에 대응한 기술과 제품의 고부가가치기술, 산업 뉴프론티어를 개척하는 혁신적 기술의 개발·도입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특히 다품종 소량생산은 공정간 공장간 분업체제가 형성될 수 있도록 산업구조의 조정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병행하여 소재개발에서부터 방직과 제직, 염색 및 봉제에 이르기까지 전 공정을 합리화하고, 일관생산체제를 확립, 협력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表 3-115〉 老朽施設改替計劃 (단위: 억원, %)

區 分	單 位	老朽施設現況			1989~1995		(1995)	1995~2000		(2000)
		總 施設	老朽 施設	老朽 度	改替 施設	資金 需要		改替 施設	資金 需要	
化纖	屯/日	3,519	1,935	55.0	527.0	3,530	40	353.3	2,360	30
綿精 紡機	千錘	3,868	3,126	80.0	418.4	5,050	70	870.0	9,000	50

資料: 權相璋, 《대구지역 경제 활성화와 쾌적한 미래도시 창조》, 대구상공회의소, 1991. p. 116

## 第3節 機械·金屬工業

### I. 概 觀

大邱의 機械工業은 日帝末期에 전쟁수행을 위한 군수품 하청공장의 성격을 띠면서 어느 정도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해방 후 지방관할의 귀속사업체 명단에 들어 있는 機械·金屬工場은 30개에 이른다. 이들 공장은 해방 후 農器具나 家庭用具 등의 鑄物工業으로 전환하였다.

鑄物의 원료인 銑鐵은 해방 전에는 주로 만주와 북한에서 반입되었으나, 남북한분단 이후에는 반입이 전면 중단됨으로써 원료난이 극심하였다.

1947년말 현재 大邱府內 鐵工業관계 공장으로는 농기구 등 기계공장이 58개, 製車(牛馬車 및 짐수레) 공장이 7개, 鑄器工場이 12개가 있었다. 그런데 이들의 생산실적을 보면 지금은 거의 찾아 볼 수 없게 된 식기류나 양화, 세면기, 화로 등 각종 가정용기구의 생산비중이 높아 유기공장의 모체가 되었다.

기계업계에서는 대구의 배후지역인 농촌을 대상으로 한 조선술, 정미기, 발동기, 가마니기계, 탈곡기, 분무기, 새끼기계 등 농기계류를 원시상태로 공급하고 있었으며, 섬유공업을 뒷받침하는 메리야스기계, 織機, 台丸機 등도 소량 생산되고 있었을 정도이다. 따라서 이 때에는 鐵工所의 이름을 가진 영세공장이 많았으며, 기계기기의 생산보다는 기계를 수리 또는 보수하는 수리공장의 성격이 오히려 더 강했다고 볼 수 있다.

6.25 동란으로 한국의 공업지대였던 京仁地區의 주요 기계시설이 거의 파괴되었으므로 전쟁피해가 거의 없었던 대구가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나, 시설미비, 농촌경제의 빈곤이 초래한 구매력 감퇴, 원료부족, 자금난 등이 겹쳐져 그 호기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대구지역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당시의 한국 경제의 상황이 기계공업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미약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1953년에는 해방 이후 8년만에 인쇄기 생산이 궤도에 올라 연간 200여대에 달한 것과 발동기 생산이 월생산 20여대에 이른 것은 발전적 현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1953년말 현재, 대구지역에는 85개 기계공장에 1,333명의 종업원이 일하고 있었으며, 경금속 업계에는 26개 업체에 451명의 종업원이 월간 40만점의 각종 알루미늄 제품을 생산하였다.

## II. 機械・金屬工業의 發展過程

大邱地域의 機械・金屬工業은 1960년대 초까지만 해도 주물및 농기계 중심의 생산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나, 1970년대 이후 정부의 중화학공업화정책의 추진과 더불어 생산 및 부가가치면에서 확대는 물론, 생산품목도 自動車部品, 纖維機械, 工作機械 등으로 다양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규모의 현대식공장을 역내에 유치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구미전자공단과 포항철강단지 등 주변지역에 입지한 대규모 공업단지와의 계열화 등 산업협력체제의 구축마저

실현하지 못함으로써 地域 機械·金屬工業의 전국비중은 지속적으로 저하되어 왔다. 그리하여 일부 업종의 소수 기업만이 기술개발과 품질개선을 보였을 뿐이며, 전반적으로는 창의와 혁신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함으로써 지역산업의 구조개선이나 활성화에 제대로 기여하지 못했다.

다음은 지역 기계·금속공업의 발전과정을 해방 이전에서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를 일별해 본 것이다.

## 1. 解放以前

대구지역에 기계·금속공업이 생성된 것은 일제의 한반도진출이 본격화되고 조선회사령이 공포된 이듬해인 1913년 일본자본에 의해 설립된 千代田洋行鐵工場이 그 시초라 할 수 있다. 그 후 일제가 한국을 일본상품시장화 또는 식량원료공급기지화하려는 의도하에 공장 설립을 늘리게 되었으나, 일본의 공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업종이나 加工産業에만 한국자본의 참여를 허용함에 따라, 기계·금속업의 경우에는 토착자본이 진출할 여지가 없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으로 출발한 초기의 대구지역 機械·金屬工業은 製絲, 綵綿, 煙草, 製材, 食品(精米) 등의 製造業에서 보유한 設備의 修理, 部品加工 정도에 그친 철공소 형태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1920년대에 들어 식민지 산업정책에 의해 纖維, 製材, 食品 등 소비재 생산설비가 일본으로부터 도입·설치되자 이들 기계의 수리업으로 기계공업이 활기를 띠게 되었으며 일부분의 전통기계제품은 일본인에 의하여 지역내에서 제작이 시도되기도 했다.

그리하여 1913~1927년 중 대구 시내 9개, 시외지역 9개 등 모두 14개의 기계·금속공업이 일본자본에 의해 설립되고 일본인에 의해 경영되었다. 그러나 1920년대 말부터 제철업권장법(1927년)이 제정, 일본자본이 중화학부문에 본격적으로 진출함과 더불어 제한된 부문의 기계수리업에 대해서는 허가를 통한 한국자본의 설립이 가능하도록 다소 완화됨에 따라 기계·금속공업은 태동기를 맞게 되었다.

전국적으로는 興南製鍊所(1933), 方魚津鐵工所(1929), 長津江水力發電所(1935), 長項製鍊所(1936) 등의 건설로 基幹産業이 구축되기 시작했으며 大韓重機工業(1933), 朝鮮機械製作所(1937: 大宇重工業 前身), 朝鮮重工業(1937: 大韓造船公社 前身) 등 대규모 기계·금속공장도 설립되었다. 이와 같은 추세에 발맞추어 대구지역의 기계·금속공업 업체수도 1941년에는 68개 업체로 증가했다. 그러나 1941년 태평양전쟁의 발발과 함께 일제는 기계·금속공업이 정상궤도에 오르기도 전에 군수산업체제로 재편성하였으며, 기업정비령(1939)에 의해 종래 민족자본으로 설립된 기계수리업의 제반 설비를 징발, 군수병기공장에 흡수시켰다.

〈表 3-116〉 1939~1941年中 大邱鐵工業 現況

區 分		鐵 工 業	自 動 車 業	其 他 工 業	計
工 場 數 (個)	1939	43	1	110	154
	1940	41	—	114	155
	1941	68	—	859	927
從業員數 (人)	1939	1,222	27	5,869	7,118
	1940	1,290	—	6,792	8,082
	1941	1,307	—	8,891	10,194
生 產 額 (圓)	1939	1,911,669	52,000	22,972,834	24,936,503
	1940	2,123,816	—	23,324,061	25,447,877
	1941	2,770,797	—	34,948,399	37,719,196

資料：大邱府,《大邱府史》, 1943.

즉 발동기 및 농기구전문업체인 八谷製作所와 建國製作所와 全國製作所를 비행기 부품 생산업체로 전환시키는 한편, 국내 자본에 의해 설립된 기계부품생산 및 기계수리업체의 설비를 이들 2개 공장으로 흡수했으며 그밖의 주물공장도 병기주물

공장화했다.

이처럼 대구지역의 기계·금속공업은 새로운 성장의 계기를 마련하기도 전에 전쟁의 와중에 휩쓸리게 되어 장기적 발전을 위한 성장기반을 제대로 다지지 못했다.<sup>9)</sup>

## 2. 解放以後~1950年代

해방과 함께 일본인에 의해 경영되던 공장을 귀속재산으로 불하받거나 매수 또는 인수하여 한국인이 직접 경영하게 되었다.

해방 당시 대구지역의 기계·금속업체는 한국자본기업 21개, 귀속재산 불하업체 30개, 귀속재산으로 처리되지 않고 일본인으로부터 매입 또는 인수한 업체 17개로 모두 68개의 공장이 있었다. 그런데 귀속재산으로 처분한 기계·금속업체수를 보면 법인기업의 경우 서울이 107개, 부산 28개, 경기 28개인 반면, 대구는 11개 업체에 불과했으므로 그 기반이 여전히 취약했다.

한편 우리의 기술과 경영에 의한 자주적인 성장의 기틀을 다지기도 전에 남북이 분단됨으로써 철광석과 유연탄 등 원료 및 연료의 공급은 물론 1948년 6월에는 북한의 송전단절로 동력원마저 끊기게 되자, 전국적인 기계·금속공업의 가동부진현상이 초래되었는데 지역 또한 예외는 아니었다. 그리하여 한동안 원료조달은 해방직전의 재고금속 및 주물의 배급, 배당으로 공급받게 되었으며 1947년에 들어서는 이것마저도 소진되자 지역의 기계·금속공업은 도산이

9) 大邱市,《大邱機械・金屬工業의 實態分析과 開發方向 調査報告書》, pp. 49~59.

속출하는 사태를 빚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1947년 행정법령 제9호에 의해 非常時電力委員會가 설치된 후 기계·금속공업의 전력사용 우선순위가 3위로 책정됨으로써 1948년 중 월평균 소요전력량이 2만Kw에 달했음에도 配電量은 고작 2천Kw에 불과했다. 따라서, 지역제조업체는 동력원을 거의 石油發動機에 의존하게 되었다. 이러한 원재료 및 전력공급의 애로에 기능인력난이 겹쳐 지역의 중소기계·금속업체는 일부 농기구제작이나 기타 기계수리에 종사했을 뿐, 거의 대부분의 업체가 가동을 중단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비철금속 부분에서는 朝光産業, 鮮鶴알루미늄공업, 南鮮輕金屬 등의 생산이 활발하여 이들 3개업체가 전국시장을 거의 석권하다시피 하였다. 알루미늄제품의 생산실적을 보면, 1953년에 21만 3천개에서 1955년 57만 8천개, 1957년 126만개, 1960년 506만개로 급증하였다.

이처럼 대구의 비철금속업은 당시 전국 원자재 생산량의 1/3과 제품생산량의 2/3를 차지하여 대구를 전국 제 1의 비철금속 도시로 만들었다. 이에 비하여 금속공업은 원료사정이 악화되어 오히려 폐업한 업체가 늘어 기간 중 10개업체가 줄어들었다. 기계공업에 있어서는 1953년에는 산업용 기계업체가 많았으나, 1953년에 이들 기업이 농업용기계생산으로 전환하고 이 부문에 신규 진입업체도 늘어나 4년동안에 105개 업체가 더 늘어났다. 이러한 농업용 기계생산 부문으로의 과잉집중이 1959년 이후에는 기업도산을 초래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이 시기에 가동되던 농기구공장 중 建國鐵工所(朴來鳳, 歸屬業體), 三南工業社(柳炳琯, 1938년 설립), 亞細亞産業(金秋虎, 1946년 7월 설립) 등이 큰 기업에 속했는데, 이 중 아세아산업은 지금도 국내굴지의 농기계 「메이커」로 활약하고 있다.

한편 섬유기계부문에서는 삼성제침, 명성금속공업 등 제침업이 일찍부터 발달하였고, 승리기계(1951년 3월)가 담직포기를 생산하고 있는 정도였다. 그리고 지금도 대구 기계업체의 주력업종의 하나인 수송용부품업체는 이미 1950년대에 상당한 기반을 가지고 있었다.

즉 1951년에 홍아자전거공업사가 설립되어 국내시장의 60%이상을 석권함에 따라 자전거부속품 생산업체가 크게 늘어났으며, 자전거부품메이커인 三立産業도 1954년 4월 1일에 설립되었다. 또한 大邱鐵工所(1936년 10월 설립), 大邱製作所(1932년 4월 설립), 平和産業社(1950년 10월 설립) 등이 가동되고 있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대구의 기계공업은 규모의 영세성, 기술의 낙후성, 시설의 노후화, 최신 도입시설 및 정밀기계의 부족, 자본부족 등으로 京仁地域의 그것에 비하여 크게 낙후되었다. 그리고 당시 대구 기계금속공업의 입지상의 특징은 수창동, 대신동, 인교동, 동인동 등 중

구지역에 접근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제다가 6.25 동란으로 기간산업시설이 크게 파괴되고 전국 기계·금속공업의 피해가 총자산의 38%(建物被害 46%, 機械被害 23%)에 달함으로써 1950년대 전반까지 전국적인 생산부진현상을 보였으며, 전후복구사업으로 1958년에 이르러서야 戰前水準을 능가하게 되었다. 대구지역의 기계·금속공업은 타지역에 비해 戰禍를 적게 받은 편이나 철강소재공업지역인 京仁地區의 戰禍로 인한 원료공급중단으로 가동실적은 부진했다. 그러나 1950년대 말에는 CIA, CRIK, UNKRA 등 국제기구의 원조로 생산복구사업이 활발히 전개되고 생산체제가 점차 구축됨에 따라 지역의 기계·금속공업도 제품이나 생산양식에서 차츰 변화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즉 금속업계에서는 주물이나 기타 금속제품제조업체가 감소한 반면, 전시의 알루미늄제품의 수요확대와 알루미늄 고철증대로 알루미늄 기물공업이 번창했다.

또한 기계공업은 1950년대 초까지만 해도 自轉車部品이나 메리야스機, 建材用機械, 핀 등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1950년대 후반에 들어서는 농업용기계·기구의 생산이 급증하는 현상을 보였다.

〈表 3-117〉 機械・金屬業體 細部業種別 現況 (단위: 個)

區 分		1953 年			1957 年		
		大邱	其他市郡	計	大邱	其他市郡	計
金 屬	鑄 物	8	3	11	—	—	—
	金 屬	36	—	36	26	—	26
	輕 金 屬	30	—	30	51	2	53
一 般 機 械	農 機 械	9	—	9	114	10	124
	纖 維 機 械	5	—	5	14	—	14
	產 業 用 機 械	23	5	28	—	—	—
輸 送 機 器 電 氣 機 器		17	7	24	8	8	16
		—	—	—	8	—	8
計		128	15	143	221	20	241

資料: 嶺南日報, 《慶北年鑑》 및 慶尙北道, 《道勢一覽》.

### 3. 1960年代

경제개발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1960년대는 한국경제의 일대약진기였는데 특히 기계·금속공업계에 성장의 기운이 왕성하게 일어난 기간이었다. 이 시기에 대구시내 기계·



금속공업의 업체수를 보면, 1962년의 216개에서 1971년에는 428개 업체로 늘어나 지역공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7.9%에서 22.1%로 크게 높아졌다.

그러나, 신설업체의 시설이나 규모, 생산품목을 보면 타지역에 비해 상당한 낙후성을 보이고 있다.

〈表 3-118〉 大邱市 機械·金屬工業業體數 推移 (1962~1971)

業 種 別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一 次 金 屬	—	38	38	54	26	28	24	31	35	26
機 械 金 屬	216	170	180	233	260	293	379	456	415	402
小 計 (B)	216	208	218	287	286	321	403	487	450	428
全製造業(A)	1,206	1,218	1,255	1,462	1,288	1,398	1,914	2,254	2,187	1,933
B/A (%)	17.9	17.1	17.8	19.7	22.2	22.9	21.1	21.6	20.6	22.1

資料：大邱市, 《大邱統計年報》, 1968, 1973.

그리고 1969년 487개 업체를 「피크」로 하여 1970년과 1971년에 업체수가 계속 줄어든 것은 지역 주종산업인 섬유업계의 불황과 섬유공업 임시조치법의 제정으로 인한 섬유기계업계의 타격, 그리고 농기계의 동력화에 따른 手製人力 농기계공업의 도산으로 인한 것이다.

이 기간 중 외자도입상황을 보면, 1971년말 현재 금속공업 4개사(동일철강, 신생공업, 협립제작, 조선기업)가 7건으로 54만 4,680달러, 수송기계공업이 1건에 7만 844달러, 기계공업이 1건에 78만 8,467달러이었다. 이는 전국 기계금속업계의 차관금액 1억 6,960만달러(60건)의 불과 0.6%에 지나지 않는 아주 미미한 것이었다. 이것은 대구업체가 그만큼 구조적으로 취약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1, 2次 經濟開發計劃이 실시된 1960년대는 한국경제의 跳躍期인 동시에 기계·금속업계에도 성장의 기운이 움트기 시작한 때라 할 수 있다. 즉 우리의 기술과 경영으로 기술집약적 특성을 지닌 기계·금속공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해야겠다는 의지가 싹트고 기계·금속공업의 성장기반도 다져지게 되었다. 그 결과 1960년 중 기계·금속업체가 전국 제조업의 14.7%인 2,139개 업체였으나, 1970년에는 17.6%인 4,243개업체로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생산제품도 크게 다양화되었다. 대구권 기계·금속공업 또한 1960년 중 지역제조업의 11.7%인 309개 업체에 지나지 않았으나, 1970년에는 621개 업체로 늘어나 지역제조업에서의 비중도 15.6%로 높아졌으며, 일부 업체는 해외시장에의 진출을 꾀하기도 했으나 수출실적은 극히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이러한 업체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기계·금속공업은 생산구조나 경영형태면에서는 별다른 진전을 이룩하지 못했다. 즉 농기계·기구를 비롯한 식품가공기, 섬

유기계 등을 중심으로 한 생산구조가 그대로 유지된 가운데, 技術開發이나 省力化를 통한 생산기법의 개선노력도 부족했으며 새로운 성장유망업종을 유치하지도 못했다. 그 결과 1960년대 중 업체수는 늘어났으나 생산성의 저하로 附加價値의 전국비중은 오히려 떨어졌다.

이처럼 1960년대 중 지역의 기계·금속공업이 생산구조면에서 탈바꿈을 하지 못한 데에는 지역기업의 소극적 경영자세와 기업규모의 영세성에도 기인하지만 설비투자의 수입의존과 대기업 위주의 기계공업 육성시책의 소산이기도 하다. 즉 대기업 위주의 組立加工生産을 위한 일관도입방식(full turn-key base)의 생산공장건설로 국산기계수요가 위축된 때문이다. 특히 電子, 造船, 精密機械, 運送機械 등에 대한 집중투자로 이들 기계공업분야의 성장이 두드러진 반면, 지역기계공업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섬유기계, 농기계, 공작기계 등 일반기계분야의 발전이 뒤진 데도 그 원인이 있는 것이다.

〈表 3-119〉 機械·金屬製品 輸出實績推移 (단위: 천달러)

區 分		輸出實績	1964	1966	1967	1969	1970	1971
大邱	全 製 造 業 (A)	業體數(個) 輸出實績	34 4,361	119 15,440	120 26,394	168 56,017	191 70,454	195 87,625
	機 械 · 金 屬 (B)	業體數(個) 輸出實績	6 491	15 416	13 380	9 2,951	9 1,966	13 1,726
全國機械·金屬(C)		輸出實績	7,521	21,849	23,162	67,853	85,477	101,745
B/C(%)		—	6.6	1.8	1.6	4.5	2.3	1.7

資料: 韓國貿易協會, 《貿易統計年報》 및 《大邱統計年報》

#### 4. 1970년대

우리나라 기계·금속공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게 된 계기는 70년대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즉 1970년대에 들어 정부는 1, 2차경제개발계획기간 중 닦아 놓은 공업화의 기반위에서 보다 적극적인 기계공업 육성시책을 펴왔다. 이를테면 1973년의 重化學工業化의 宣言과 長期機械工業育成計劃의 수립, 1974년의 昌原機械工團의 건설 등이 바로 그것이다.

여기에 기계류의 自給度提高와 기계공업의 수출산업화를 골자로 한 기계공업 국산화계획 등의 조치가 뒤따랐으며 기계류의 국산화와 기계공업의 시설근대화를 위한 금융·세제면의 지원도 확대되어 왔다. 그 결과 1970년대 중 제조업이 연평균 20%정도 성장한데 비해 기계공업은 31.0%, 특히 일반기계는 36.5%의 성장을 이룩했으며 그에 따라 기계·금속공업의 전산업에 대한 비중도 크게 확대되었다.

한편 1970년대에 들어 지역의 기계·금속공업도 섬유기계와 공작기계 등을 중심으로 품질향상 및 해외시장개척이 이루어지고, 국내자동차공업의 발달과 함께 자동차부품업의 급속한 신장 등 제품생산면에서 다양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전반적인 업종구성은 여전히 종래의 패턴을 벗어나지 못한 가운데 성장업종의 유치나 성장주도적 대기업의 설립 등 지역 기계·금속공업의 획기적 성장을 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지는 못했다.

더구나 1970년대 들어 포항의 철강산업기지화 구미의 전자공단 등 대규모 공업단지가 건설됨에 따라 경북의 공업구조는 크게 변모되었으나 대구지역은 기계·금속공업의 일부 업종이 오히려 위축되는 현상마저 보였다. 물론 포항제철의 설립과 더불어 철강재의 국내자급도가 높아짐에 따라 대구지역 기계·금속공업의 원료확보가 보다 용이해지는 등 외부효과를 증대시키는 계기가 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 배후공업지대와의 연계성을 살려 계열화 및 협력체제의 구축을 통한 지역 기계·금속업의 활성화를 기한다는 당초의 기대와 구상은 무산되었다.

이처럼 구태의연한 생산구조, 낮은 설비, 기업인의 보수적 기질은 지역 기계·금속공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커다란 요인이 되었다. 그리하여 규모의 이익을 추구한다거나 새로운 기술의 도입이나 개발에 소홀한 채 영세규모하에서 단순저급품 위주의 소량생산체제를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기술집약적 특성을 지닌 기계·금속공업의 성장과 발전은 기할 수 없었다.

따라서 오늘날 지역 기계·금속공업의 낙후는 지난 1960~1970년대의 중화학공업정책에 부응하는 지역 산업구조의 개편을 위한 의지와 노력이 안팎으로 결여된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5. 1980年代

1960~1970년대의 기계·금속공업의 육성시책은 생산확대를 위한 대기업 중심의 육성에 주안을 둬으로써 기계·금속공업의 기초산업이라 할 수 있는 소재부품공업의 발전이 뒤떨어지는 결과를 빚었다. 이에 따라 소재부품의 국산화가 늦어져 이의 수입의존도가 높아지는 등 기계·금속공업의 발전과정이 역진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 이러한 점을 인식하여 80년대 들어 정부는 一般汎用機械 및 産業設備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부품공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중소전문기계공업의 육성과 중소부품업체의 전문화·계열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 왔다.

1981~1982년 중에는 계열화시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계열화율이 크게 높아졌으며, 1983년부터는 유망중소기업의 발굴, 지원 등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폭을 확대하고 있다. 1970년대말부터 밀어닥친 석유파동으로 전반적인 경기가 계속 부진함에 따라 지역의 기계·금속공업도 1980년 중에는 생산액이 전년도 수준을 밑도는 등 극심한 불황국면을 맞이했으나, 1982년

이후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1980년대에 들어서도 사업체수나 고용면에서의 비중이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계·금속공업의 구조개선이나 질적 고도화 면에서는 뚜렷한 진전이 없어 지역경제력의 성장에 制約要因이 되고 있다.<sup>10)</sup>

### III. 業種別 發展推移

#### 1. 鑄物工業

##### 1) 概 況

주물공업은 섬유기계, 공작기계, 자동차, 선박 등을 비롯하여 미싱이나 주방용기, 피아노의 골격에 이르기까지 각종 기계의 소재를 공급해 주는 산업으로 기계·금속업계를 발전시키려면 가장 최우선적으로 육성되어야 할 분야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1차 경제개발계획이 시작된 1962년 이래 공업화의 본격적 추진과 더불어 주물공업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으나, 이 업종이 타업종에 비해 공해문제가 심각할 뿐만 아니라 제품이나 원자재의 중량이 커서 원거리로 수송하려면 운임이 문제시되어 업체분포도 서울 편중현상을 떠나 대구, 부산, 경기 등 해당지역 지방에 소재하는 비중이 크다고 할 수 있다.

1984년 12월말 현재 대구지역에는 48개의 주물업체에서 3,754명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데 이 수치는 업체수로 따져 전국의 12.9%, 고용인원으로 14.3%의 점유비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들 업체의 생산능력은 17만 2,800톤이며, 1983년도 생산실적은 9만 2,124톤으로 평균 가동률 53.3%라는 저조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낮은 가동률은 대구지역의 경우 섬유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주물업계의 경기는 섬유업계의 경기변동에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는 데 주요한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2) 發展過程

대구지역에 최초로 설립된 근대적 철공소는 1923년 1월 대구 수창동에 설립된 前田철공장이 처음이라 할 수 있다.

1910년 3월에 이미 일본인 下條榮太郎에 의해 철공소가 세워지기는 했으나 건평이 18평에

10) 대구시, 앞의 책, pp. 70~115.

불과한 데 비해 前田철공장은 건평이 100평에 달했다. 초창기의 철공장은 주로 일본인에 의해 세워졌으며, 1928년말 도내 철공장 32개소 가운데 20개소는 일본인 소유이고 조선인 소유는 9개소뿐이었다. 이외 3개소는 중국인 소유였으며 일본인 공장의 평균자본금은 1만 8,190원이었는데 반해 조선인공장은 2,733원으로 영세성을 면치 못하였다.

조선인에 의한 철공장이 본격적으로 세워진 것은 1925~1930년경이었으며 당시의 주물은 일일이 주형으로 제작되었으며 송풍기가 들어오기 전이라 대형풀무를 사용하여 불기운을 높여 쇠를 녹였다 한다. 그러나 1941년 태평양전쟁의 발발과 함께 민족자본으로 설립된 대구지역 기계수리업의 제반설비를 징발, 군수병기공장에 흡수시켰으며 그밖의 주물공장도 兵器鑄物工場化했다. 이처럼 대구지역의 주물공장은 성장의 계기를 마련하기도 전에 전쟁의 와중에서 무너져 버렸다.

우리나라의 주물공업이 본격적으로 발전한 것은 해방을 맞은 이후이며 특히 대구의 주물공업은 1960년대 전후였다. 1, 2次經濟開發計劃이 실시된 1960년대는 한국경제의 도약기인 동시에 경공업육성 및 섬유류수출의 증가, 1968년 제정된 機械工業振興法の 실시 등으로 대구경제도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그러나 1970년대 접어들면서부터 경인, 부산등지에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기계공업 육성정책에 힘입어 현대시설을 갖춘 주물공장을 설립되었고, 이들 공장에서 생산된 양질의 제품은 대구주물공장들의 제품과는 비교할 수 없었다.

대구에는 1945. 10월 창립된 大鐵工業社를 시작으로 1949. 4월 부국제철소가 설립되었으며, 1970년대 들어 30여개의 주물업체가 지역에 위치하게 되었다. 이중 기계제작을 겸하고 있는 승리기계, 대구중공업, 조선철공 등 몇몇 업체와 주물생산을 위주로 하는 영남주물, 동양주물 등 소수업체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영세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영세 주물기업들은 대부분 오랜 작업경험을 통해 익힌 기술을 바탕으로 기업을 설립, 10여년 전 주물공업의 호경기를 타고 다소 자본축적을 이루었으나, 보수적인 경영방법이 아직도 근대적인 기업체제를 갖추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좁은 시장에서 난립한 영세기업들이 심한 과당경쟁을 벌이고 있는 틈바구니에서 외부의 대기업제품 침투는 이들 기업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으며, 기존시장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영세업자들의 안간힘은 마침내 값싼 저질제품을 생산 덩핑으로 맞서게 되었고, 이같은 치열한 경쟁이 수년 계속되는 동안 대구주물공장은 성장이라기보다 오히려 퇴보의 경향마저 보이고 있다. 즉, 타지방 제품을 밀어내고 자체시장을 굳히기 위해서는 시설의 근대화와 기술개발을 통해 제품의 질을 높이는 것이 선결문제인데, 이와는 반대로 저질의 값싼 제품을 생산하여 마치 惡貨가 良貨를 구축하는

식의 경쟁을 벌였다. 이같은 요인은 高價의 良質製品을 기피하고자 값이 싼 주물제품을 選好하는 경향때문에 빚어지는 현상이기도 했다.

### 3) 業體現況

#### (1) 地域別 業體分析

전국의 鑄鍛業體數는 주물업체 396개, 단조업체 34개로서 모두 430개업체이며 이중 대구지역엔 63개의 업체가(14.7%)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韓國鑄鍛工業協同組合 會員業體數는 대구지역에 48개 업체가 가입되어 있었다(1984. 12월 말 현재).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경인지역, 부산 및 대구에 전주물업체의 75.1%가 밀집되어 있어 대도시 집중현상이 뚜렷이

〈表 3-120〉                      地域別 業體現況                      (단위: 개, %)

地 域 別	業 體 數	占 有 率
서울	67	18.0
대邱	48	12.9
慶北	26	7.0
京畿	41	11.0
仁川	33	8.9
江原	4	1.1
忠北	9	2.4
忠南	22	5.9
全北	9	2.4
全南	15	4.0
慶南	26	7.8
釜山	69	18.6
濟州	0	0
合 計	372	100.0

資料: 한국 주단조공업협동조합

규모공장 형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 (3) 建物規模

주물공장의 건물규모는 3,000평 이상이 1개업체, 1,000평 이상이 5개업체이며, 그 외는 전부 1,000평이 안되는 규모로 보아서 영세한 중소기업형이라고 볼 수 있다.

나타나고 있었다. 대구지역은 85년도에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협동화, 공동화, 집단화 등의 공장형태로 기존공단 및 신설 전문공단을 조성하여 도시중심으로 부터 이전, 주물전문단지 로 확산할 계획이었다.

#### (2) 垆地 現況

주물공장의 대지규모는 500 평 이상 ~ 1,000평 미만이 전체의 25.7%를 차지하고 있으며, 1,000평 이상 ~ 2,000평 미만이 22.9%로 대구지역 주물공장은 절반가량이 1,000평 미만의 소

〈表 3-121〉 工場垡地 規模 (1984) (단위: 개, %)

規 模 別	業 體 數	構 成 比
10,000 坪 以 上	0	0
5,000 坪 〃	1	2.9
3,000 坪 〃	4	11.4
2,000 坪 〃	5	14.3
1,000 坪 〃	8	22.9
500 坪 〃	9	25.7
300 坪 〃	6	17.1
200 坪 〃	2	5.7
100 坪 〃	0	0
合 計	35	100.0

資料: 한국 주단조공업협동조합.

〈表 3-122〉 工場建物 規模 (단위: 개, %)

規 模 別	業 體 數	構 成 比
5,000 坪 以 上	0	0
3,000 坪 〃	1	2.9
2,000 坪 〃	1	2.9
1,000 坪 〃	5	14.3
500 坪 〃	10	28.6
300 坪 〃	6	17.1
200 坪 〃	7	20.0
100 坪 〃	5	14.3
100 坪 以 下	0	0
合 計	35	100.0

資料: 한국 주단조공업협동조합

#### 4) 雇傭現況

1983년 말 현재 대구지역의 종업원수는 남자 3,350명, 여자 404명으로 3,754명의 인력이 주물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1979년부터 점차 감소 현상을 보이다가 1983년도는 전년도보다 증가된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전반적으로 남자종업원은 감소추세인데 반해, 여자종업원은 증가추세를 나타내 주물공업의 발전에 종업원 확보가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 5) 生産活動

1983년말 현재 우리나라의 연간 주물 생산능력은 109만 9,910톤이며, 실제 생산실적은 63만 9,755톤으로 평균 가동률 58.2%를 나타냈다.

이 중에서 대구지역은 생산능력 17만 2,800t(15.7%), 생산실적 9만 2,124t(14.4%)을 1983년도에 달성하여 평균가동률 53.3%라는 전국평균치에 못미치는 저조한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表 3-123〉 年度別 雇傭趨勢 (단위: 명)

性 別 \ 年度別	1979	1980	1981	1982	1983
男 子	3,345	3,181	3,175	3,102	3,350
女 子	321	334	339	351	404
合 計	3,666	3,515	3,514	3,453	3,754

資料: 〈表 3-122〉와 같음.

〈表 3-124〉 生産能力 및 生産実績 (1983) (단위: 개, 톤, %)

地域別	項目	工場數	生産能力	生産実績	稼動率
서울	울	67	167,500	95,323	56.9
京畿	畿	41	102,500	81,888	79.9
仁川	川	33	85,800	65,895	76.8
江原	原	4	14,520	3,838	26.4
忠北	北	9	13,360	5,763	43.1
忠南	南	22	56,920	30,708	53.9
全北	北	9	34,900	9,596	27.5
全南	南	15	38,210	11,515	30.1
慶北	北	26	78,000	49,900	63.9
大邱	邱	48	172,800	92,124	53.3
慶南	南	29	87,000	53,099	61.0
釜山	山	69	248,400	140,106	56.4
濟州	州	0			
合計		372	1,099,910	639,755	58.2

資料: 〈表 3-122〉와 같음.

〈表 3-125〉 材質別 鑄物生産実績 (단위: 톤, %)

材質別	年度別	1974		1978		1983	
		實績	構成比	實績	構成比	實績	構成比
合計		256,113	100.0	657,540	100.0	659,930	100.0
灰鑄鐵		175,938	68.7	457,636	69.6	415,540	63.0
可하鑄鐵		11,840	4.6	33,694	5.1	28,350	4.3
球狀黑鉛鑄鐵		3,187	1.3	17,037	2.6	32,255	4.9
鑄鋼		30,564	11.9	77,722	11.8	89,740	13.6
鑄鐵管		2,907	1.1	15,736	2.4	173,870	26.3
非鐵鑄物		31,677	12.4	55,715	8.5	20,175	3.1

資料: 〈表 3-122〉와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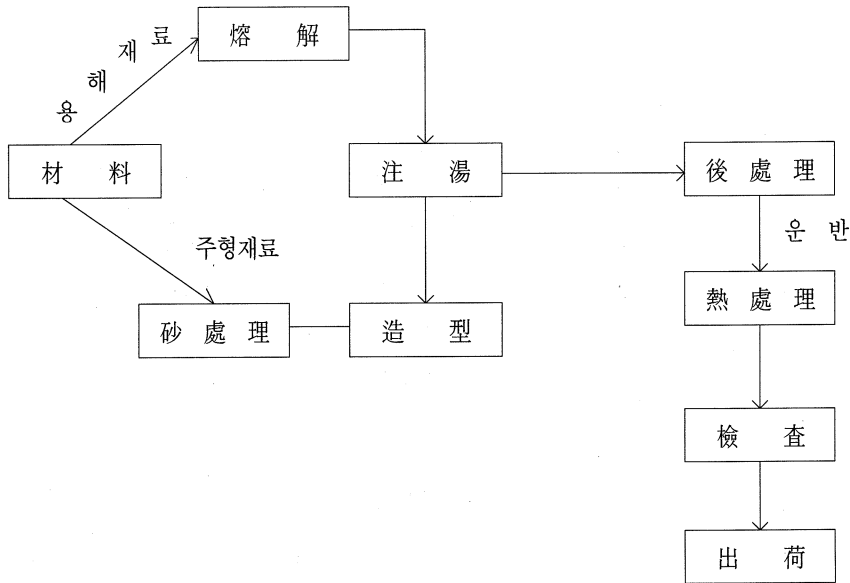
## 6) 設備現況

주물은 여러 공정을 거쳐 가공·제조되므로 이에 필요한 생산시설도 다종다양하다. 우선 가장 필수적인 용해설비를 비롯하여 공정순서를 따라 砂處理, 造(鑄)型, 後處理, 運搬, 熱處理,



試驗檢査 및 公害防止設備의 순으로서 주물공정의 개괄적인 흐름은 〈圖 3-4〉와 같다.

주물공업은 원래 쇠를 용해하여 기계의 골격 및 그 부품을 만드는 것이므로 용선로에서 부터 시험기구에 이르기까지 완전한 시설을 갖추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주물공업에 사용되는 용선로는 주로 Cupola, 반사로, 전기로, 도가니로 등 여러가지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쓰이는 것은 Cupola이다.



〈圖 3-4〉

鑄造工程의 흐름도

대구지역 주물업계는 대부분 쿠파를 사용하고 있을 뿐, 전기로 시설을 갖추고 있는 업체는 전무하며 이러한 시설을 갖추기는 사실 어렵다. 그러나 시설의 근대화 없이 제품의 질적향상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하루속히 施設改替를 서둘러야 마땅하다.

뿐만 아니라 造型材料인 주물사처리시설을 갖추고 있는 주물공장은 극소수이며 대부분의 주물공장은 옛부터 사용해오던 天然砂에 약간의 수분을 더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러한 설비도 하루속히 갖춰야 할 것이다. 열처리시설은 공작기계나 기타 정밀부문에 쓰이는 주물제품이 주조시의 내응력이 남아 있으며 조립한 후에 변형되어 틀리기 쉬우므로 이같은 경우가 없도록 내응력을 제거하는 시설인데, 이 시설은 주물을 전업으로 하는 공장에서는 거의 설비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계제작과 주물을 겸하는 일부 정밀제품공장만이 이러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주물제품의 시험검사 기구로서는 생산공정에 있어서 鑄物沙나 溶湯의 관리상 필요한 것과 제품의 품질검사를 위한 것 등이 있다. 이는 제품의 검사를 위해 당연히 갖추어야 할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시험검사설비는 일부공장만이 갖추고 있을 뿐 대부분이 순전히 경험에 의해 제품을 만들고 있으며, 제품검사 또한 肉眼이나 경험에 의한 원시적 방법을 이용하였다.

〈表 3-126〉 熔解設備保有 現況

施 設 \ 容 量	1톤미만	1~1.5톤	2톤	2.5~3톤	3~5톤	5톤이상	合 計
Cupola	13	14	13	18	7	2	67
低周波誘導爐	—	1	—	6	1	2	10
Arc電氣爐	—	5	2	—	1	3	11
中周波誘導爐	—	—	—	1	—	—	1
保溫電氣爐	—	—	—	—	—	—	—

資料：〈表 3-122〉와 같음.

위 도표에서와 같이 熔鉄爐(Cupola)설비가 대구지역에 67기가 있다는 것은 전국의 용선로시설 346기의 19.4%란 수치를 이 지역이 점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들 시설의 국산화 사용률은 誘導爐의 경우 약 20%, Arc爐는 약 59%에 달하고 있다. 이중 용선로의 경우는 국산사용비율이 약 97%에 달하고 있다.

## 7) 原資材 需給

주물용 원부자재는 용해재료, 주물재료 및 내화재료 등 셋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용해재료란 용해대상이 되는 금속재료 및 이를 용해시키기 위해서 투입되는 재료들로서 열원인 코크스와 같은 연료와 Slag형성을 위하여 투입되는 석회석같은 용제가 이에 속한다.

주형재료에는 모래주형을 만드는 데 소비하는 주물사 및 주형표면에 주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포하는 도형재 등이 있으며, 내화재료로는 몰타르처럼 무정형의 소재로 소비되는 것과 내화벽돌이 있다. 한마디로 주물의 주원료로는 선철, 시중기계철, 일반고철 등이 있으며, 부원료로서는 연료인 「코크스」, 무연탄괴, 그리고 기타 화학약품 등이다.

현재 이 지역에서는 주원료로서 선철보다는 가격이 저렴한 일반고철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값도 저렴할 뿐 아니라 국내에서 생산되는 선철의 절대량이 부족한 데 기인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1972년의 자급률 1.7%에서 포항제철의 5기설비확장으로 99.0%의 자급율을

기록하고 있다.

〈表 3-127〉 銑鐵의 需給推移 (단위: 톤)

年 度 別	1972	1977	1978	1979	1982	1983
생 산	1,412	2,425,512	2,741,143	5,062,551	8,442,291	8,024,441
내 수	78,258	2,430,120	2,792,467	5,078,893	8,201,009	8,201,810
수 출	5,694	15,072	17,175	32,461	39,500	9,610
자급률(%)	1.7	99.2	97.6	99.0	99.0	99.0

資料: 〈表 3-122〉와 같음.

최근에 이르러서는 선철 및 고철의 수요가 증가되고 있으나 국내에서 수집되던 고철마저 고갈상태며, 또한 높은 수입관세율에 묶여 수입량이 제한됨으로써 주물업체가 필요로 하는 수요량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表 3-128〉 古鐵의 需給推移 (단위: 톤)

年 度 別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수 요	847.4	1,114.4	1,371.7	1,287.5	1,897.9	2,490.9	3,174.7	3,659.8
국내 공급	327.3	306.6	252.1	321.2	677.4	855.2	1,314.6	1,672.9
수 입	520.1	807.6	1,119.1	966.2	1,220.6	1,635.7	1,932.2	1,944.4
수 입 의존도(%)	61.4	72.5	81.6	75.1	64.3	65.7	60.9	53.1

資料: 〈表 3-122〉와 같음.

고철은 1972년 수입의존도가 61.4%에서 1979년에는 53.1%로 줄어들고 있으나 아직도 수입 물량이 국내공급량을 초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원자재의 가격변동을 살펴보면, 1980년 7월경 선철가격이 톤당 10만 8,000여원으로 1977년말 가격에 비해 65.2%나 상승했으나 1984년말 현재 기본단가가(浦鐵產) 톤당 12만 1,000원으로 1983년에 비해 약간 낮아진 실정이다.

〈表 3-129〉 銑鐵의 價格推移 (단위: 원/톤)

年 度 別	1977	1978	1979	1980	1982	1984
價 格	65,554	66,700	85,790	108,270	126,132	121,000
增加率(%)	—	1.7	28.6	26.2	16.5	△4.1

資料: 〈表 3-122〉와 같음.

無煙塊炭의 가격은 1980년에 6만 2,000~6만 3,000원 내외로 1977년에 비해 37.5% 상승한 후, 1984년말 현재 시중 일반탄이 톤당 7만 5,000원정도, 봉명제품이 9만 3,000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表 3-130〉 코크스 및 無煙塊炭의 價格推移 (단위: 원/톤)

年度別 種類別		1977	1978	1979	1980	1982	1984
코크스 (국 산)	價 格	53,090	77,272	95,000	125,000	165,000	165,000
	增加率(%)	—	45.5	22.9	31.6	32.0	0
無 煙 塊 炭	價 格	28,800	37,388	45,508	62,568	70,000	75,000
	增加率(%)	—	29.8	21.7	37.5	11.9	7.1

資料: 〈表 3-122〉와 같음.

## 8) 販賣動向

1973년 하반기의 오일쇼크 이후 불황을 맞은 주물업은 1974년의 수출주도에 의한 섬유 경기의 호전에도 침체의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다가 1974년말과 1975년초에 걸친 섬유업계의 대대적인 시설증설봄에 힘입어 그 수요가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하여, 1976년 상반기중 생산이 지난해 동기보다 25%이상 늘어났고, 판매도 30%이상 증가하는 호조를 보였다. 그러나 주요 수출국의 수입규제 및 제고누적에 따른 몇몇 주요 수출품의 수출 둔화와 원자재 가격상등으로 인한 수출채산 악화 등으로 1979년 2/4분기부터 다시 불황이 시작되었다.

게다가 제2유류파동의 영향이 역내주중산업인 섬유업계에 본격적으로 미침으로써 이와 관련된 기계공업이 연쇄타격을 받는 등으로 지역 전산업에 몰아닥친 심각한 자금난은 1983년도까지 계속되어 왔다.

1984년 들어 일부 회복의 기미를 보인 섬유경기와 노후직기의 증가, 자동차부품업의 호경기 등에 힘입어 주물업계도 서서히 판매고가 늘어나고 가동률이 향상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판매단가가 1982년 수준에 머물고 있어 채산성면에선 별로 좋아지지 않고 있는 형편이며 영남주물에서 1984년말, 130만달러 정도를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지역수출실적이 300만달러를 상회하였으며 매년 늘어날 전망을 보였다.

## 9) 課題 및 展望

### (1) 人力問題

생산직 종업원의 주물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3년미만의 경우는 47.7%, 5년미만의 경우는 72.7%로 비교적 단기간이어서 기술축적의 여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단순 기능공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놓여있어 양질의 기능공 확보가 당면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주물공업은 작업량이 많고 노동 자체가 힘겹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은 주물기술을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기업의 수익성이 낮아 이들에 대한 대우도 좋지 않은 등의 요인이 가세해 인력난을 가중시키고 있으므로 공정을 자동화시켜 근대적인 설비로 改替,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한편 주물기술자를 양성, 양질의 노동력에 의한 제품의 질적향상을 도모해 나가야 할 것이다.

### (2) 生産設備

현재 주물설비의 자동화가 미흡하며(자동제어장비가 부착된 자동생산라인 보유업체는 전체기업의 9.7%), 기존시설이 노후되어 양질의 제품생산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설비자금지원을 통하여 아직 저수준에 머물고 있는 사처리, 조형, 운반, 열처리 설비의 기계화, 자동화를 적극 유도할 것이 또한 요망된다.

### (3) 原資材 使用 및 品質管理

양질의 제품생산을 위해서는 코크스를 연료로 사용해야 되는데 외국산은 적기에 물량확보도 어렵고 고가이므로 국산 코크스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국산 코크스는 열량이 외산에 비해 떨어져 고급품 생산이 곤란한 점이 있으며, 수익성 제고를 위해 코크스보다 반값 정도밖에 안되는 塊炭을 일부사용하여 주물제품의 저질화를 가져오고 있다.

또한 주물사의 재질이 좋지 못하며 제품의 질도 정상적으로 나오지 않는데, 산사나 인공사 대신 강사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문제이며 주물제품의 생명인 引張強度를 알맞게 맞추어 생산하는 제반조건을 갖추지 못한 업체도 다수 있는 실정이다. 특히 최신품질시험설비 보유업체의 비율은 전체의 6%에 불과한 실정이다.

### (4) 其 他

공해업종인 주물공장을 현재의 주거지역에서 주물전문단지로 이전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으며, 국산이 불가한 주물재료에 대한 수입제한을 완화하고 주물업체에 유용한 최신정보를 적기에 제공할 것이 요청된다.

또한 주물경기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 2~3월부터 상승하기 시작하며, 6~7월을 기점으로 다시 하강하였다가 9월 이후 다시 오름세를 나타내므로 조합에서 적기에 원자재를 공동으로 구입하여 원가절감을 피하게 만드는 동시에 회원업체에 대한 실태를 항상 조사하여 관계당국에 적절히 문제점을 건의하는 한편, 업체에는 필요한 기초자료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해 줄 것이 요청된다.<sup>11)</sup>

## 2. 纖維機械 및 部品工業

### 1) 概 況

섬유기계공업은 섬유산업의 비약적인 성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었다. 수출면에서 섬유류는 수출액의 30%내외를 점하고 있으며, 세계시장에서 주요 섬유수출국으로 섬유기계공업을 육성시킬 수 있는 충분한 내수시장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후발개도국들이 공업화를 추구하는 첫단계로 섬유공업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당분간 섬유기계 분야의 활동 영역은 상당히 넓은 편이다. 특히 아프리카제국과 동남아 등에 경제협력 외교를 적극 활성화시키는 현시점에서 볼 때, 섬유기계공업의 육성은 시급하다고 할 수 있으며 정부의 국산가공기계류의 수입억제 시책과 함께 국산화율 제고로 이 업종의 발전이 기대되고 있다.

대구지역은 섬유공업의 발달과 더불어 섬유기계 및 동부품업이 일찍부터 그 기반을 다져옴으로써 사업체수나 생산액면에서 지역 기계, 금속공업의 주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 섬유기계업은 주문생산형태를 띄며 있어 섬유산업의 호·불황에 따른 섬유류 수요의 변동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1984. 12말 현재 대구·경북 기계공업 협동조합 회원업체중 섬유기계 및 동부품업체는 대구지방에 30개업체가 가입하여 대구지역 조합회원업체의 22.4%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이 업종의 경기동향은 1979년 하반기 이후 부진함을 면치 못했으나 1984년 섬유업계의 경기회복과 직기 신·증설봄으로 호황을 누리다가 1984년 3/4분기 이후 가동률의 저하, 주문의 감소추세를 보였으며, 내수위주보다 수출위주로 경영전략을 전환하고 있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 2) 發展過程

대구지역에는 섬유공장이 많았으므로 여기에 필요한 기계류 생산은 일찍부터 발달하였다. 즉 1948년 1월 노원동에 홍아기계제작소가 설립된 것을 시작으로 1951년 3월 승리기계가 직기생산을

11) 大邱市, 《大邱鑄物工業의 實態 및 開發育成方向 調查研究報告書》, 1974, pp. 174~200.

본격화한 것으로 그 당시 기계류 제조업은 섬유공업용 기계와 농기계 생산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 수도권과 부산권이 중화학공업개발의 혜택을 입고 있을 때 대구 지역은 섬유기계를 중심으로 소규모 공장만 난립했으며, 이는 대구·경북지역 제조업 부가가치의 비중이 1960년 전국의 14.1%에서 1971년에는 5.8%로 떨어지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1975년 1월 11일 상공부에서 노후직기 2만 4,000대의 대상계획을 발표하고 대구·경북지역 대상직기를 5,857대로 고시하였으나 1월말까지 6%만 신청하는데 그쳤고 2월말로 연장해도 10%에 그쳐 5월말까지로 재연장한 결과 노후직기가 쏟아져 나오는 바람에 고철가격은 급락한 반면, 새로운 직기값은 급등하는 현상을 보였다. 1975년 7월에는 승리기계에서 국내 최초로 자동면직기를 생산하기 시작했으며,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에 많은 섬유기계 관련 업체가 대구지역에 설립되었고, 섬유수출의 증가와 함께 호경기를 구가하였다.

그러나 1978년을 고비로 섬유기계제조업의 경기는 섬유업계의 불황에 따른 수요격감과 外産織機의 수입증가로 下降局面으로 치닫고 있었으며 이들 업체는 내수시장 위축에 따라 해외로 눈을 돌려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등지의 후발개도국으로 수출활동을 전개하여 상당한 실적을 쌓아 올리는 한편 신제품 개발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였다.

### 3) 業體現況

대구·경북기계공업협동조합에 가입된 33개의 회원업체 중 구미에 1개업체를 제외하고 대구지역에 32개의 섬유기계관련제조업체가 소재하고 있었다.

이중 전국적인 기업 및 대기업이라 할 수 있는 것이 승리기계, 대왕산업사, 대원기계, 대진기계 등이며 환편기기제조업체인 금용기계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 중 종업원수 300인이상은 1개 기업체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50인 이하의 소규모업체들로 구성되고 있었다.

〈表 3-131〉 從業員 規模別 業體現況

50人以下	51人~100人	101人~200人	201人~300人	301人以上	合 計
18	8	4	2	1	33

資料：大邱·慶北機械工業協同組合

또한 기업 형태별로 보면 법인이 6개업체이고, 개인이 27개업체로 되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4) 從業員 現況

섬유기계 및 동부품업에 종사하는 대구지역 종업원은 조합회원업체를 기준으로 할 때, 2,514명으로 전체 조합회원업체수의 종업원 1만 719명의 23.5%를 차지하였다. 이 수치는 대구지역 기계공업 중 가장 많은 종업원을 포용하고 있는 업종으로서, 이 지역에서 차지하는 이 업종의 비중을 짐작케 한다.

이 업종에 종사하는 종업원은 일부 사무직 여직원을 제외하고 모두 남자들로서 기능공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졸이상의 고급인력은 전체인력의 5% 정도이다. 특히 고급직기를 개발할 수 있는 고급기술인력은 1%정도밖에 안돼 경쟁국과의 치열한 판매경쟁에서 살아 남으려면 우수한 고급기술인력을 더 많이 채용해야 되는데 근무조건의 불량과 기술개발여건 미비 등이 현안으로 남아있다.

#### 5) 生産活動

1978년을 고비로 섬유경기가 하강국면을 향해 치닫자, 섬유기계제조업도 1979년 하반기부터 조업을 단축하기 시작하였고 섬유업체에서 섬유시설의 설비를 거의 중단한 1980년 들어서는 受注量이 크게 떨어져 대구지역 섬유기계업의 가동률은 50~55%를 나타내었다.

한편 1980년 3월 1일부터 섬유류제품의 고급화를 위한 「섬유공업근대화 촉진법 시행령」에 따라 출고 전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까다로움 때문에 생산성이 향상되지 못함으로써 동시행령 실시전보다 30~40%정도의 생산량 감소를 가져왔다. 그리하여 1982년도엔 사상 최악으로까지 가동률 및 생산실적이 떨어졌으나 1983년 7월 14일을 기해 상공부는 그동안 억제해 왔던 각종 직기의 신·증설을 대폭 완화해 주는 조치를 발표하여 각 섬유업체에서는 앞다투어 직기신·증설 및 개체신청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섬유직기계제조업체에서는 1984년중 유례없는 호황을 맞이하여 가동률 85%내외를 기록하였으나 곧이어 불어닥친 섬유경기의 침체는 이 업종에 파급효과를 가져와 또다시 조업단축, 폐업을 강요하게됨으로써 1984년 12월말 현재 가동률 65%수준을 유지하는 실정이었다.

아래 도표는 1980년=100으로 한 것인데, 그 이전에 비해 그 이후 경기가 계속 침체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6) 原資材 需給

섬유기계제조에 사용되는 원자재는 주로 주철 등 철강재이며 일부 특수강이 사용되기도 하였다. 機械本體用 철강제로는 주철이 사용되며 부분품에는 주철, 형강, 봉강 등이 소요되는데



〈表 3-132〉 纖維機械 景氣動向指標 推移 (1980=100)

年 度 別	生 産	出 荷	受 注
1978	237.9	182.4	181.8
1979	192.0	168.3	159.3
1980	100.0	100.0	100.0
1981	152.9	193.0	154.2
1982	141.3	140.4	116.3
前年對比増減率(%)	△7.6	△27.3	△24.6

資料：KOSAMI, 《内外機械工業 動向》

機種別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소요 원자재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크고 중요한 것은 주철로 꼽힌다. 주철은 거의 국내에서 조달할 수 있으며, 기타 철강재는 1970년대초까지는 주로 수입에 의존하였으나 당시 국내 철강공업의 급속한 발전으로 거의 국내조달이 가능해졌다.

한편 원자재의 구입경로는 가장 비중이 큰 주철의 경우 주물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는 자가주조하고 있으며, 주물시설이 없는 업체는 주물공장에 발주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가동중인 대구지역 섬유기계업체는 거의 주물공장이 있어 자재수급에는 애로가 없다고 한다.

구입단가는 1979년 말 kg당 400원 하던 것이 1980년 상반기엔 450원으로 올랐고, 1984년 12월 에는 kg당 500원 내외에 거래되었다.

## 7) 販賣動向

섬유기계의 판매는 섬유공업의 수요에 전적으로 달려있으며, 주로 주문생산형태를 취하였으며 다품종소량생산형태를 취하는 기술 노동집약형 상품이다. 따라서 1979년 섬유업체의 불황에 따른 섬유시설의 증설부진으로 1979년 하반기부터 판매활동이 부진함을 면치 못하였다.

그러다가 1984년도의 직기 신증설분 및 개채수요의 증가로 면직기를 제외한 전 업종이 활발한 판매활동을 전개하여 약 10~20%의 신장률을 보였다. 그러나 실수요업체인 섬유 업체에서 외산직기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성능이나 품질면에 비교우위를 확보하지 못한 지역업체에서는 가격으로 경쟁을 하다 보니 제품판매단가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형편이다.

원자재 구입 및 제품판매는 4~5개월짜리 어음이 유통되고 있어 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수출에 주력한 결과, 1984년중 조합원업체의 수출실적은 274만 8,000달러에 이르게 되었다.

수출지역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태국, 대만 등이며, 섬유기계부품은 유럽지역으로 製針이 일부 수출되고 있었다. 경쟁대상국은 일본, 대만, 이태리 등인데, 가격과 성능이 비슷한

자유중국에서 과거엔 레피어(Rapier)형 샤틀리스직기를 생산했으나, 80년부터 그리퍼(Gripper)형 직기를 생산하여 국내수요를 충족하고 수출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가격면에서 유럽의 샤틀리스직기의 약 40%밖에 안돼 우리나라에 상당한 위협을 주고 있다.

1980년대는 직기산업의 국제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형편이므로 일본과 같이 섬유기계 제조업은 워터·제트룸 같은 자동직기를 개발하여 고속화된 고성능직기를 판매하지 않으면 어려운 형편에 봉착하였다. 그러나 승리기계, 대원기계 등 지역내 중견섬유기계생산업체에서 자동직기의 품질향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업계전체에 활력소가 되고 있었다.<sup>12)</sup>

### 8) 課題 및 展望

대구지역 중소섬유기계 제조업체는 대체로 종래의 영세규모공장을 추가시설로 확장하였기 때문에 생산공정과 관련된 시설의 배역이 비합리적이며 노후화 경향이 높은 편이다. 따라서 국제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특수전용기계의 도입과 노후시설 개체에 의한 시설의 근대화 및 생산체제의 합리화를 도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동업종은 多機種 少量生産體制이므로 제품단위당 생산코스트가 높고 중소영세업체가 존립하여 과당경쟁을 유발하고 있어 기술향상이 늦다. 따라서 제품의 품질향상과 업계의 수익성 제고를 위하여 이 업종 역시 전문화, 계열화 체계를 확립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지역업체가 기술개발체제도 갖추고 있지 못하며 기술자와 훈련된 기능공도 부족한 실정이므로, 협소한 국내시장을 벗어나 적극적으로 해외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하여는 선진국기계의 모방으로는 외국제품과 경쟁이 불가능할 것이므로 기술수준향상과 기술인력양성에 많은 노력을 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되었다.

## 3. 金屬加工 및 工作機械工業

### 1) 概 況

금속가공 공작기계는 기계를 제작하는 기계로서 기계공업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그 품질 및 성능은 생산성향상과 품질고급화에 지대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대구지역 공작기계공업은 생성초기부터 중소기업형태로 존립하여 온 데다가 기술축적도가 낮으며 자본의 회전이 느린 관계로 부가가치가 낮아 대외경쟁력이 취약한 실정이다. 대구 지역에는 대구중공업(주)과 대중사우스벤드(주) 등 5개업체가 있었으며 대중사우스벤드는

12) 大邱商工會議所, 《大邱經濟總鑑》, pp. 90~94.

미국과 합작회사로서 전량 미국에 수출하였다.

1979년에 노후기계보유분의 대체수요와 에너지파동에 따른 새로운 에너지절약형의 설비 교체투자가 비교적 활발했던 데 힘입어 19.8%의 신장을 기록한 이후 1980년을 고비로 계속 침체국면에 빠져오다가 1984년도에 미국시장의 수요증대와 섬유경기 회복, 국내경기 상승세에 힘입어 서서히 회복의 기미를 보이고 있는 상태이었다.

## 2) 發展過程

대구지역 공작기계산업은 1944년 10월 대구중공업이 설립된 것을 시작으로 1963년 研一鐵工業, 1969년 東協製作所, 1972년 永光工作所, 1981년 大衆사우스밴드(주) 등이 차례로 설립되었다.

2차경제개발 5개년계획(1967~1971년) 기간동안 정부는 기계공업을 육성하기 위해 1967년 3월 「機械工業振興法」을 제정하면서 관계법령을 제정, 정비하여 현저한 발전을 이룩하기 시작했으며 1973년에는 창원기계공업기지 건설을 골자로 하는 「長期 機械工業育成計劃」을 수립, 발표하면서 공작기계업종이 육성되기에 이르렀다. 특히 1974년 2월에는 국민투자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機械工業資金 融資取扱規程」을 제정하여 기계업체의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지원에 나서자, 만성적인 자금난에 허덕이던 지역기계공업체는 본격적인 시설확충에 나섰으며 1975년 8월, 기계류의 국산화계획을 발표하자 내수기반의 확대를 통한 가동률 향상, 수출증대 등을 이룩하기 시작하였다.

1971년~1981년 사이에 이 업종의 증가율은 연평균 40%를 상회하였으며, 종래의 선반 위주에서 1970년대말부터 밀링머신, 호빙머신, NC기종 등 고급품이 생산되기 시작하였다.

## 3) 業體現況

이 지역 공작기계 제조업체는 5개업체로서 이중 법인형태가 2개업체, 개인기업이 3개업체이다. 설립년도별로는 20년이상이 2개업체, 10년~20년미만이 2개업체, 5년미만이 1개업체로 구성되어 있다.

고용규모의 구성비를 보면 50人以下가 2개업체, 51人~100人以下가 2개업체, 101人~200人 이하가 1개업체로 대부분이 중소기업이며 대구지역에는 대규모 자본을 투입한 대기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4) 從業員 現況

이 업종에 종사하는 종업원은 모두 255명이었으며, 지역 기계공업에 종사하는 인력의 1%에

불과하다. 공작기계제품은 고도의 정밀성과 기술축적을 요구하고 있으나 서울, 부산, 창원 등지의 대기업으로 기능공의 이직이 심해 기술축적이 되지 않는 실정에 놓여 있으며 만성적인 기능공 부족현상을 나타내고 있었다.

1984년 12월말 현재 월평균 고용률은 78.0%로서 1981년의 70%, 1982년의 73.5% 및 1983년의 76.5%보다 상당히 늘어난 수치를 보이고 있다.

## 5) 生産活動

공작기계산업은 1960년대 후반까지 자본의 영세성과 기술의 후진성을 탈피하지 못하다가 1970년대에 들어서부터 정부차원의 육성시책에 힘입어 가동률 향상과 생산량 증대를 이룩했다.

연 도 별	1980	1981	1982	1983	1984
생 산 능 력	4,500	4,500	4,780	4,800	4,850
생 산 실 적	3,560	3,016	3,360	3,429	3,513
생 산 률 (%)	69.8	67.5	69.0	70.1	7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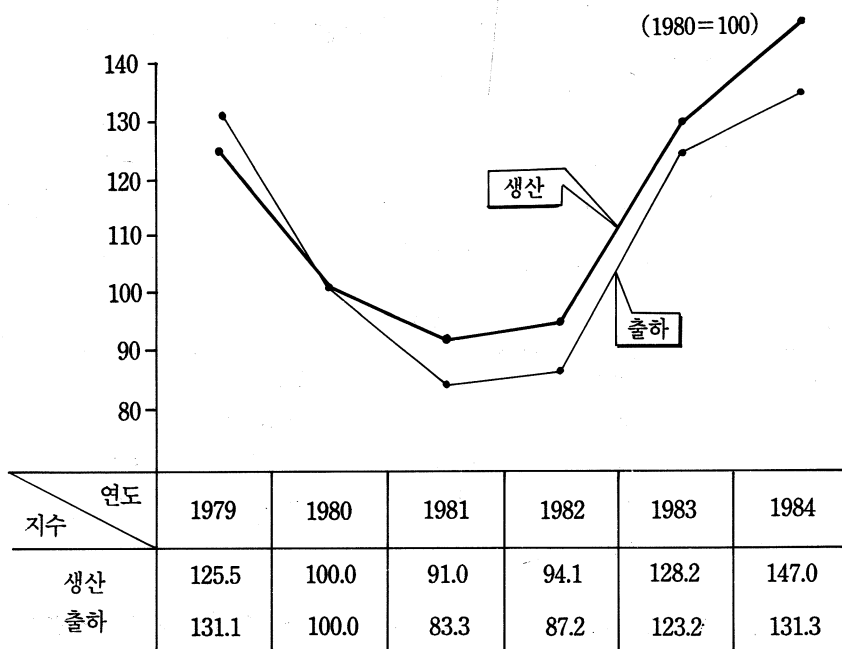
註: 수치는 월간생산능력이며, 생산실적은 월평균임.

대구지역의 공작기계제조업체는 중소기업으로서 자본의 영세성과 관계기관의 무관심 속에 1979년도부터 불황에 허덕이다가 1984년 1/4분기에 접어들면서부터 가동률향상과 생산량 증대를 보이고 있다. 1984년도 평균가동률은 74.5%로서 가장 활발했던 1978년도의 가동률 79.5%보다는 떨어지지만 1981년 71.3%, 1982년 69.2% 및 1983년 71.8%로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내었다.

1984년도의 생산활동을 살펴보면, 지역 섬유업계의 노후시설 개체와 산업합리화 투자의 확대, 자동차부품업계의 활발한 시설투자, 미주지역에 대한 선박의 수출증가 등으로 생산실적이 증가했으며, 연도별 지수도 상승추세를 나타냈다.

## 6) 施設現況

1970년대 중반에 정부의 기계공업육성시책에 힘입어 대기업들이 이 업종에 참여함으로써 대구지역 중소기업들도 품질의 고급화내지 생산체제확립을 위한 시설투자를 활발히 하였는데, 사용년수별 현황을 보면 5년 이하가 56.7%, 6년~10년이 32.4%로 전체 공작기계시설 사용 연수의 89.1%가 10년이하로 나타나 다른 기계공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었다.



〈圖 3-5〉

年度別 生産・出荷指數

〈表 3-134〉

使用年數別 施設構成比

(단위: %)

施設別	年數別	5年以下	6~10	11~15	合 計
鑄 造 裝 置		48.5	43.9	7.6	100.0
金 屬 工 作 機 械		56.7	32.4	10.9	100.0
金 屬 加 工 機 械		71.4	21.4	7.2	100.0
接 合 機 械		54.5	45.5	—	100.0
加 熱  및 熱處理施設		37.5	50.0	12.5	100.0
計 測 機 器		33.3	66.6	—	100.0

資料: 大邱·慶北 機械工業協同組合.

## 7) 販賣動向

공작기계업종은 1983년까지 한국의 대기업 즉, 한라양행, 대한중기, 화천 등의 업체가 문을 닫고 은행관리로 넘어가는 등 최악의 불황에 허덕였으므로, 지역의 납품업체인 중소기업의 판매부진은 말할 것도 없는 실정이었다고 그나마 대기업의 공세에 밀려 타격을 받아 역대 최대의 공작기계업체인 대구중공업이 법정관리로 넘어가는 등의 시련을 겪었다. 그러다가 1984년들어 미주지역 경기회복세와 국내업체의 시설투자로 판매가 증가되어 내수보다 수출 증가로 인한 경기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 업종은 다른 경기가 완전히 회복되어야 판매시작단계이고 경기가 수그러지는 기미가 보이면 이 업종의 경기는 금방 퇴조하는 호경기의 기간이 상당히 짧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

내수판매는 대구지역보다 구미, 울산, 포항, 창원, 부산 등지로 판매되고 있으며, 1983년에 비해 약 10~15% 증가되는 실적을 나타내었다. 이에 따라 재고량도 계속 줄어들어 1984년 12월말 현재 前年同期對比 9% 감소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工作機械分野의 원자재 및 각종 부품의 국산화는 대기업의 활발한 자본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원자재부문은 특수한 공작기계나 개발단계의 기계를 제외한 97.3%의 국산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부품면에서는 70.6%의 국산화율을 나타내었다.

〈表 3-135〉 業體別 輸出現況 (단위: 달러)

업 체 별	생 산 품 목	수출실적	판매대수	수 출 지 역
대 구 중 공 업(주)	선반, 세파, 밀링	1,830,000	235대	미국, 호주, 말레이시아
대중사우스랜드(주)	선 반	1,610,000	620대	미 국

資料: 〈表 3-134〉와 같음.

〈表 3-136〉 主要 工作機械의 輸出入 動向 (全國) (단위: 千달러)

年度別 種類別	1978		1979		1980	
	輸 出	輸 入	輸 出	輸 入	輸 出	輸 入
旋 盤	2,217	33,440	9,440	45,611	16,502	16,533
드릴링盤	33.0	30,382	1,428	35,897	1,250	20,689
밀 링 盤	85	10,605	685	43,868	2,080	8,959
鍊 削	155	35,483	221	46,032	448	30,869

年度別 種類別	1981		1982		前年對比增減率(%)	
	輸 出	輸 入	輸 出	輸 入	輸 出	輸 入
旋 盤	21,030	20,512	21,880	6,925	4.0	△67.0
드릴링盤	1,493	20,184	736	1,779	△51.0	△92.0
밀 링 盤	4,011	7,089	2,809	13,262	△30.0	87.1
鍊 削	886	17,367	1,732	11,927	95.5	△31.4

資料：關稅廳,《貿易統計年報》

〈表 3-137〉 競爭國과의 品質 및 價格水準 比較

區 分	內 容	韓 國	臺 灣	日 本	備 考
品 質	精 密 度	中	下	上	組 立
	熱 處 理	中	下	上	Bed
	外 觀	中	下	上	鍍金, 塗裝
	電 裝 品	上	中	上	S.W.Valve
價 格	旋 盤	5,350달러/臺	4,900달러/臺	6,150달러/臺	인도네시아輸出(F.O.B)

註：上記表는 對 인도네시아 輸出價格을 比較한 것임.

資料：〈表 3-136〉과 같음.

지역의 공작기계수출은 아직 汎用旋盤機種의 수출이 대부분인데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NC工作機械의 비중이 점점 늘어 1980년 0.7%에 1981년 8.0%, 1982년 22.6%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대구지역업체에서도 이 새로운 기종생산에 박차를 가하였다.

또한 외국 수입업자도 점점 고도정밀성을 요하는 최신기종으로 선호도가 바뀌고 있으며 범용선반 등 재래식 기종은 대만, 동독 등과의 경쟁이 치열한 상태인데, 가격경쟁력은 10~20%정도 열세인 반면 기술수준의 차이가 별로 없다.

## 8) 課題 및 展望

공작기계는 特殊示方의 부품이 많으며 고도의 정밀도와 강한 내구성을 요하고 양질의 소재가 전체가 되는 제품인데, 열처리기술, 고급특수강 제작기술 등의 부족과 소재부품업의 시설부족으로 양질의 원자재를 공급받지 못하는 형편이다.

현재 이 업종의 경기는 회복상태를 보면 물량증가를 나타내고 있지만, 판매단가가 상승하지 않고 있어 업계 재무구조개선에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으며, 국산기계구입자금의 융자조건이

외국산에 비해 불리하게 되어 있어 이의 제도적 개선이 시급한 형편이다.

특히 대구·경북지역의 기계발주를 창원, 울산, 부산 쪽으로 하여 대량생산을 하기 위한 수주활동이 안되고 있으므로 구미, 포항지역과 연결시켜 지역업체는 지역업체에서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表 3-138〉 金融條件의 比較

기계구분 금융조건	국산기계구입시	외산기계구입시
금 리	연10%~11.5%	지불+1.5~2.5%
용 자 기 간	8년(10년)	10~15년
소 요 자 금	80%까지 융자	100%까지 융자(80%융자)
담 보 조 건	시가의 60%까지 인정	시가의 100% 인정

註: ( )는 1985. 3. 3일 시정조치한 사항임.

다음으로는 기술축적의 미흡을 지적할 수 있다. 숙련된 기능인력의 부족은 품질고급화와 신제품개발에 절대적 장애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으로 공작기계업종은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그 발전과정이 타 기계공업보다 비교적 늦으며, 공작기계의 품질수준, 가격, 시장확보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따라서 대책방향으로서, 첫째, 관련소재 및 부품개발과 계열화 촉진으로 소재 부품업체를 중점적으로 육성시켜야 하겠다. 둘째, 부품의 공동이용 및 연구제도를 확립하여 원가절감과 기술향상을 도모해야 하겠다. 셋째, 해외시장, 기술 등에 대한 정보의 입수가 신속하여 국제정세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강화해 나가야겠다. 넷째, 공작기계공업의 생산성 향상, 신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재무구조의 개선 등을 위한 정부의 조세·금융·무역절차상의 지원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 4. 自動車 部品工業

##### 1) 概 況

자동차공업은 철강, 금속, 전자, 화학, 기계공업 등 공업전반에 걸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중화학공업의 선도산업일 뿐만 아니라, 수많은 중소기업의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종합기계공업으로 산업효과와 고용효과가 매우 큰 업종이다.

대구지역의 자동차공업은 1975년 정부의 장기자동차공업진흥정책의 실시 이후 급성장을



이룩하였으나 국내외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3년간 계속 매출부진, 재고류 증가 및 가동률 저하의 진통을 겪다가 1982년 하반기부터 마이카붐과 자가운전제의 실시, 경기회복세가 가미되어 1984년에는 생산, 판매면에서 전년대비 20~30%의 증가를 보였다. 특히 1986년에는 완전차 생산능력 18만 6,000대에서 64만 6,000대로 비약적인 증가를 보일 것이 예상되어 자동차부품공업의 큰 성장이 기대되었다.

현재 자동차공업은 기계공업에서 비중이 1982년말 기준으로 업체수 6.1%, 종업원수 9.0%, 부가가치 14.0%, 생산액 14.7%의 점유비를 나타내고 전국적으로 531개의 사업체에서 5만 813명의 종업원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1984년). 대구지역의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는 55개 업체에 달하고 있는데, 한국 자동차공업 협동조합 가입업체수로 보면 전국 388개 업체중 40개 업체로서 10.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5,000여명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2) 發展過程

우리나라의 자동차공업은 1930년대 일본인이 경영하던 楠本商會인 포드자동차 대리점에서 보디공장과 정비공장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경성모-터스가 시보레자동차 대리점으로 역시 보디공장과 정비공장을 소유하고 있던 것이 첫 시발점으로 한국인이 경영하던 京城보디 등 군소 정비업체가 수십개 정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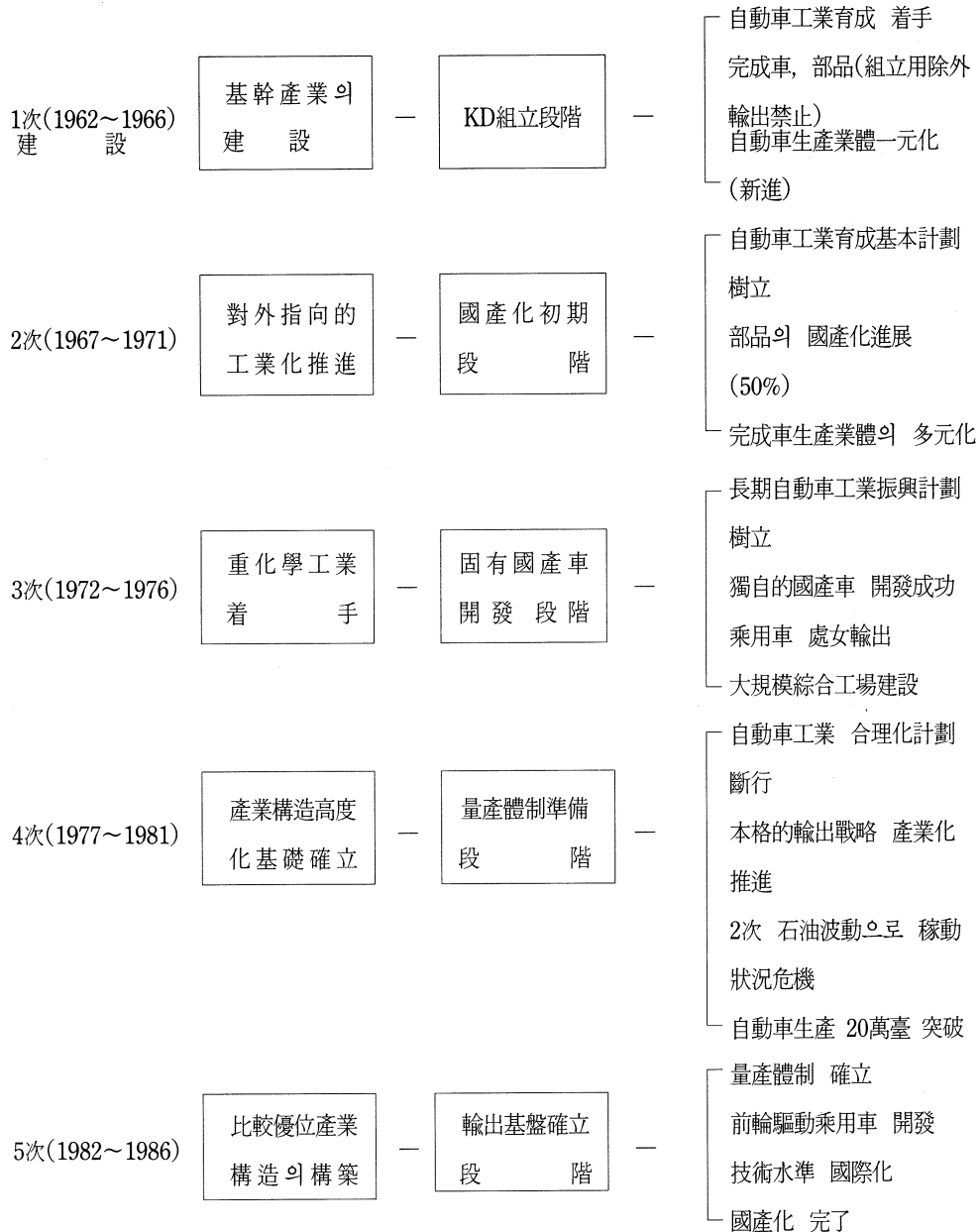
그후 8.15광복과 6.25전쟁을 겪으면서 1955년 3월 한국자동차공업사상 최초의 국산 조립 승용차인 ‘시발자동차’를 생산한 이후, 1961년 제 1차 경제개발계획의 착수와 더불어 「自動車工業保護法(1962.5월)」이 제정·공포되고, 「새나라 자동차공업(주)」이 설립되면서 중간분야 부품(SKD)을 도입하여 단순조립을 중심으로 생산하는, 소위 1962년을 기점으로 1965년 1월 20일 대구지역에서는 三立産業社(現 三立産業(株)), 平和 고무工業社(現 平和産業), 大邱鐵工所(現 大鐵工業社) 등 9개업체의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자동차조합 설립을 위한 발기인대회(전국 39개업체 참가)가 열리고, 동년 2월 24일 韓國自動車 工業協同組合이 결성되면서부터 이 지역에 본격적인 자동차 부품공업이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다음 1966년부터 1972년까지의 2단계는 외국의 유명자동차메이커와 활발한 자본 및 기술 제휴를 통하여 완전분해부품(CKD)수입을 통한 대규모적인 조립생산기반이 시작된 시기였으며, 1973년 1차 오일쇼크이후 1970년대말까지 3단계는 정부의 장기자동차공업육성계획하에 국산 고유모델의 소형승용차 차체개발과 함께 일관생산자체를 갖추게 된 시기였다.

다음 제 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1977~1981년) 기간중 자동차공업의 量産化體制를 확립한

후부터 이 지역 자동차부품업체는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즉, 자동차부품생산은 1977년에

〔經濟開發計劃〕 〔工業政策의 基調〕 〔自動車工業發展〕



〈圖 3-6〉

韓國 自動車工業의 發展過程

비해 1981년도에 1.5배가량 증가했으며 수출도 약 5배가 증가하는 성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1980년 이후 계속된 불황으로 판매부진에 이어 가동을 평균 40%선 수준과 함께 심각한 자금압박, 경영난 등의 위기를 겪고 있다가 1983년부터 서서히 경기를 회복, 1984년중에는 전년대비 30% 이상의 생산실적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기업의 설비확장, 수출증대 등으로 앞으로도 계속 성장이 기대되고 있는 유망업종으로 부각되고 있다.

### 3) 業體現況

자동차 부품업체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전국 792개 업체중 6.9%인 55개 업체가 대구지역에 소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 중 39개 업체는 계열화 승인업체, 16개 업체는 유망 중소기업으로 설정되었으며, 10개 업체는 KS허가 업체로, 9개 업체는 근대화 승인업체로 지정되었다. 또한 외국과의 기술제휴 및 합작투자업체가 7개 업체로 나타났으며, 수출업체는 15개 업체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기업형태는 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40개 업체중 주식회사가 18개 업체로 전체의 45%, 개인 및 기타 회사가 22개 업체로 55%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의 부품업체들은 완성차 제조업체가 단시일내에 성장한 대기업인데 반해 오랜 시일을 통해 중소기업으로 난립하여 치열한 경쟁속에서 성장해 왔다는 점이 완성차 업체와는 대조적이다. 300인이상의 대기업은 4개업체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중소기업형태를 벗어나지 못하여 자본의 영세성, 시설의 취약성, 기술의 상대적 열위를 면치 못하는 어려운 실정이었다.

### 4) 從業員 現況

대구지역 자동차조합 회원업체의 종업원수는 4,140명이며, 이 수치는 한국의 자동차제조업 부문에 종사하는 종업원 총 7만 9,176명의 5.2%에 달하는 수치다.

부품업체의 업체당 평균 종업원수는 171명으로 나타났으며, 대구지역의 종업원 규모별 업체수는 다음과 같다.

〈表 3-139〉 部品業體의 從業員規模別 業體數

종업원수별	50名以下	51~100	101~200	201~299	300名以上
업 체 수	15	10	10	1	4

이 업종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비중은 대구지역 전 제조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3.1%, 조립 금속제조업의 19.5%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최근 이 지역 기능공은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은 울산, 부산쪽의 조선공업으로 인력을 빼앗겨 용접공, 프레스공, 도장공, 금형공 등의 기능인력이 만성적으로 부족상태를 나타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정이 라인화되어 있으므로 전문인이 요구되는 현실에서 기능공의 잦은 이직으로 말미암아 품질 및 생산문제에 차질을 빚고 있다.

### 5) 生産活動

지역 자동차부품업계는 70년대말 중화학투자조정과 세계적인 불황으로 완성차생산업계의 불황이 계속되자 가동률의 하락과 생산부진을 면치 못했으나, 1980년대에 들어 국내 자동차산업의 호황과 함께 다시 활기를 찾아 가동률 상승추세를 보였다.

地域 部品業界の稼働率 推移							(단위: %)
연 도 별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가 동 률	76	57	40	72.5	76.1	60	75

1978년을 피크로 계속 내리막길을 걸던 부품업계는 1981년부터 점차 가동률이 떨어지는 불황으로 고전을 면치 못했으나, 1981년부터 서서히 가동률 상승을 나타내 1984년도에는 1978년의 수준까지 육박하게 되었다. 이중 1983년도의 60%는 생산증가로 인한 시설투자로 공장규모가 확장되었던 것에 연유하고 있다.

생산실적을 살펴보면 1983년도에 우리나라의 자동차생산은 34만대 생산능력에 22만 1,000대를 생산했으며, 이 수치는 1982년도 생산실적 16만 2,590대에 비해 35.9%가 증가한 것이다. 따라서, 지역의 생산 실적도 상당히 늘어나 생산액만으로 보면 1982년도에 비해 무려 132% 증가를 기록하였다. 1984년도에도 현대의 신차종개발, 수출증대에 힘입어 전년대비 15~20% 정도의 생산증가를 기록, 활발한 생산활동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우리나라 전체의 자동차 생산실적을 살펴보면 1982년말 현재 승용차가 전체의 58.1%를 차지하여 그 비중이 가장 높고, 트럭이 26.9%, 버스가 12.9%, 特裝車가 2.1%를 각각 차지하였다.

### 6) 専門 系列化 現況

자동차는 5,000여종 1만여점의 부품으로 구성되는 조립제품이므로 단일업체가 이 많은 부품을 생산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조립업체와 부품업체간에 계열화를 통한 하청구매방법으로 생산활동이 이루어진 것이 타업종과 다른 특이한 점이며, 다른 산업부문보다

〈表 3-141〉 우리나라의 年度別 自動車生産 實績 (단위: 대)

年 度 別	乘 用 車	버 스	트 릭	特 裝 車	合 計
1962	1,710	—	67	—	1,777
1966	3,117	—	313	—	3,430
1967	4,983	236	1,385	—	6,604
1969	19,494	1,882	9,618	—	30,994
1972	9,525	2,581	6,542	—	18,648
1974	9,230	3,947	19,179	—	32,356
1976	26,701	3,468	19,219	157	49,545
1977	43,981	5,453	35,263	513	85,210
1978	86,823	7,279	63,446	1,410	158,958
1979	113,564	12,307	76,661	1,915	204,447
1980	57,225	12,053	51,660	2,180	123,118
1981	68,760	13,352	46,718	4,248	133,084
1982	94,460	20,931	43,705	3,365	162,461

資料: 韓國自動車工業協同組合

전문화와 계열화가 절실히 요구되었고 일찍부터 대두된 문제였다.

국산자동차 조립을 위한 外注比率은 포니승용차의 경우 1978년도에 수입비율이 7.7%, 모기업 자체생산이 12.7%, 국내 외주비율이 79.6%였으나 1981년도에는 수입비율 4.5%, 모기업 자체생산 18.5%, 국내 외주비율 77.0%로 자체생산비율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다른 차종에서도 거의 같은 추세인데 부품업체의 생산구조를 살펴보면 완성차조립용이 45%이며, 나머지는 수출용, 보수용, 비자동차용으로 생산되고 있었다.

공업화과정에서 전문 계열화 조성은 생산성을 높이고, 아울러 양산체제로서 대량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 새로운 협동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하며, 정부는 1974년에 「長期 自動車業振興計劃」을 발표했는데, 이 내용은 ① 조립공업과 부품공업의 분리 육성, ② 부품공업의 수평계열체제 구축이었다. 이러한 전문·계열화 정책에 따라 조합을 중심으로 계열화 추진작업이 진행되었고, 1975년 12월에는 중소기업 계열화 촉진법이 제정·공포되면서 자동차공업의 계열화 추진은 활발한 양상을 보였다.

1978년에는 1974년의 수평계열화방안을 수정, 수직계열화체도를 첨가하여 제품면이나 기술면, 가격면에서 효과를 높이도록 하는 동시에 부품 전문공장을 지정,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조치했다.

1978년도 대구지역 계열화업체수는 43개 업체로, 전국 380개 업체의 11.0%를 차지하고 있

〈表 3-142〉 系列化 業體現況

업체별 종류별	모 기 업 체 명	전국계열업체수	대구계열업체수
4 륜 차	기 아 산 업 (주)	87	8
	대 우 자 동 차 (주)	107	14
	현 대 자 동 차 (주)	92	15
	아 세 아 자 동 차 (주)	47	4
	동 아 자 동 차 (주)	37	5
	(주) 거 화	48	5
	대 우 중 공 업	39	3
	기 아 씨 비 스 (주)	56	5
	현대 자동차 씨비스 (주)	71	15
소 계		292	33
2 륜 차	기 아 기 연 공 업 (주)	39	3
	효 성 기 계 공 업 (주)	36	4
	대 립 공 업 (주)	24	2
	동 양 정 기 공 업 (주)	12	4
	한국제너럴모페드공업 (주)	14	3
	마 신 공 업 (주)	12	2
소 계		88	10
총 계		380	43

註：대구계열기업 8개업체는 4륜, 2륜 중복임.

다. 그러나 일부 모기업에서 부품전문공장의 製品受注를 기피하고 미지정업체에서 구매하는가 하면 모기업인 중소기업분야인 부품분야에 침투하는 등 전전한 계열화 풍토조성을 저해하고 있다.

### 7) 販賣動向

자동차의 수요는 1975년 이후부터 1979년까지는 내수 및 수출수요에 힘입어 매년 증가추세를 나타내 1979년에 그 절정에 도달했으나, 그 후 제2차 오일쇼크로 인한 경기침체로 지역 부품업체의 판

매량도 크게 감소하였다.

1982년 말 완성차의 판매실적은 내수 13만 7,903대, 수출 2만 97대로서 총 15만 8,000대에 달했는데, 이는 1979년의 19만 2,000대와 비교하면 18%정도가 감소된 것이다. 한편 1984년의 자동차 판매대수는 내수 20만 8,000대, 수출 5만 1,000대로 전년동기비 내수 6.8%증가, 수출 108%증가를 기록하여 1983년도보다 판매대수에 있어 18.2%증가라는 실적을 보였다. 이에 따라 역내 40개 자동차부품업의 판매실적도 업체당 분기별로 44억원어치를 기록, 1983년의 36억원보다 30%이상의 증가추세를 보였다.

또한 생산품목은 2백여종에 달하여 전체업체의 45%인 15개 업체가 수출에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의 완성차 수출은 1980년의 1억 400만달러에서 1983년에는 1억 800만달러, 부품수출은 1980년 3,000만달러에서 1983년엔 5,500만달러로 신장되었으며, 이 중 지역의 수

출실적은 목표 720만달러에서 752만 5,000달러를 수출, 목표대비 4.5%초과 달성했다. 1984년도 지역 수출목표는 891만달러이며 11월말 현재 893만 3,000달러를 수출, 이미 목표를 초과달성했다.

〈表 3-143〉 自動車部品の 輸出実績 (단위: 천달러)

1971	1974	1975	1976	1977	1978
1,159	8,506	9,688	13,957	23,349	29,806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36,654	53,913	110,997	67,511	73,729	100,000

註: 1984年度는 수출목표임.

자동차부품업의 수요구조는 수출 7.5%이고, 모기업 납품 84%, 시장판매 8.5% 등 내수가 92.5%인데, 이는 지역 자동차부품업체가 완성차 조립업체가 아니고 계열모기업에 대한 납품업체가 대부분인데 기인한다. 특히 자동차부품은 내수보다 수출이 급신장하여 정부에서 수출 전략산업으로 선정, 중점 지원·육성하고 있는데, 동 부품의 수출은 1971년에 11만 9,000달러였으나, 1974년에는 850만 6,000달러로 7배가 증가했으며, 1977년에 전년대비 67.3%, 1978년에 27.7%, 1979년 23.0%가 각각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1981년에는 전년대비 2배 이상 증가하는 호조의 기록을 보였다.

완성차의 차종별 수출현황을 살펴보면, 1982년을 기준으로 승용차가 전체 수출의 71.2%를 차지하고, 트럭은 27.7%, 버스는 불과 1.1%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참고로 국내 완성차의 연도별 판매실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으며, 업체별 시장점유율은 1983년에 현대가 45.3%, 기아가 32.3%, 대우가 17.9%로서 상위 3개사의 점유율이 95.5%에 달하였다.

승용차부품에서는 현대 (72.6%) 및 대우 (26.0%)로 양분화되었으며, 버스는 기아가 69.7%의 점유율을 나타내었다.

## 8) 課題 및 展望

1969년에 자동차공업 육성기본계획이 발표되었으나, 당초의 계획대로 국산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1974년에는 새로운 차종생산에 국산화를 의무적으로 부여함으로써 급격한 국산화를 단행하려 한 장기 자동차공업진흥계획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상업자본의 성격을 띤 조립메이커가 신흥재벌급 기업의 참여와 외자도입 등으로 대규모의 자본형성과 시설투자로서 규모를 확대하는 데 반해, 1960년대 성장에 소외되었던 부

〈表 3-144〉 우리나라 完成車의 車種別 販賣實績 (단위: 대)

年度別		1970	1975	1979	1981	1982	1983
車種別							
乗用車	國內販賣	13,221	17,434	86,646	51,562	79,479	104,788
	輸 出	—	—	18,702	17,221	14,133	16,405
	小 計	13,221	17,434	105,348	68,783	93,612	121,193
버 스	國內販賣	4,456	3,865	12,016	13,036	20,786	—
	輸 出	—	—	75	395	215	192
	小 計	4,456	3,865	12,091	13,421	21,001	—
트 렉	國內販賣	12,500	14,148	62,063	40,776	37,638	—
	輸 出	—	31	12,633	8,492	5,511	7,852
	小 計	12,500	14,179	74,696	49,268	43,149	—
合 計	國內販賣	30,177	35,447	160,725	105,374	137,903	—
	輸 出	—	31	31,410	26,108	19,859	24,531
	總 計	30,177	35,478	192,135	131,462	157,762	—

資料: 韓國自動車工業協同組合

품공업이 갑자기 이에 대처하려는 데서 불균형의 균열이 여기저기서 일어났다. 즉 자본 및 시설의 영세성과 기술의 낙후성, 저생산성 등도 문제였지만 모기업과 하청기업 간의 전문·계열화 등 체제상의 문제, 가격상의 문제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켰고 짧은 기간동안에 국산화율 90%이상을 달성했다지만 납품과정에서 쓰라린 시련과 진통을 겪어야 했다. 납품 가격에서부터 검사, 대금지급 등의 문제점에 대한 지역 부품업체의 고충은 그 후 계속되어 왔다.

특히 자동차공업은 내수회복에 따른 기반확충이 전제조건으로 대두되나 내수회복은 가격면에서 과도한 제세공과금으로 수요가 억제되어있고, 에너지절약, 차량 및 교통환경 등의 제한으로 수요확대의 길은 한정된 상태였다. 따라서 수출증대를 기반으로 한 생산능력확대로 국제적인 경제규모실현이 당면과제로 부상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인식한 후에 지역 자동차부품업체의 문제점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원자재 수급곤란이다. 자동차가 수천점의 부품이 모인 종합조립제품인 것처럼



이에 소요되는 원자재도 철강재를 비롯하여 금속, 비철금속, 플라스틱, 고무 등으로 다양한 데 비하여 기초 소재공업의 기반이 빈약하고, 수요가 적은 특수 규격품의 생산이 불가능하여 아직도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소재가 많은 실정이다.

게다가 소요되는 원자재를 저렴한 가격으로 적시에 공급한다는 것이 매우 어렵고, 정밀도를 요하는 부품이 대부분인 상태에서 품질이 고르지 않거나 규격품이 아닌 경우는 치명적인 손실을 입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둘째, 기술 및 기능인력부족을 들 수 있다. 자동차부품공업은 장치산업이 아니고 고도의 숙련된 기술을 요구하는 기술집약적·기능집약적 산업이다. 부품의 품질향상과 생산성향상을 위해 경험이 많은 숙련된 기능공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나, 기술의 임금수준이 낮아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높은 울산, 부산의 조선공업이나 자동차조립공장 쪽으로 우수한 기능인력이 빠져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만성적인 기능공 부족은 생산공정이 라인화되어 있는 부품공장의 생산에 차질을 초래함은 물론 품질저하까지 가져오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대기업의 부품공업 침투를 들 수 있다. 조립업체가 아무리 자본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각기 특수성이 있고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수천가지의 부품을 모두 제작한다는 것은 불가능 하며, 만드다 해도 기업적 성과는 거둘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기업에서 부품공업에 진출하여 부품업체의 생산·판매활동을 위축시키고 있음은 물론 건전한 기업풍토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중소기업이 장기계획을 세워 시설을 하고 제품을 개발하는 것을 좌절시키고 생산의욕을 저하시키고 있다.

넷째, 납품대금지급 장기화현상이다. 중소기업 계열화촉진법 9조(납품대금의 지급기일) 및 중소기업 계열화 조성기준에 의하면 모기업은 수급기업으로부터 물품을 수령한 때에는 검사여부에 불구하고 3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모기업들은 3개월 어음으로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부품업체의 자금난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으니만큼 정부의 강력한 규제조치가 또한 요망된다.<sup>13)</sup>

## 5. 非鐵金屬工業

### 1) 概 況

非鐵金屬이란 원래 철 이외의 모든금속을 지칭하는 것으로, 금, 은, 동, 알루미늄, 아연 등

13) 大邱商工會議所, 《大邱經濟總鑑》, pp. 322~334.

그 종류는 100여종에 달하나 여기서는 특히 대구지역에 소재하는 알루미늄공업만을 다루고자 한다.

알루미늄공업은 자동차, 전기, 금속 등 중화학공업을 비롯한 여러 산업에 기초소재를 공급하는 기간산업으로서 전후방 관련효과가 큰 산업이다. 그 용도 또한 건축재, 통신, 군수, 정밀 등으로 다양하여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진행됨에 따라 국민경제상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알루미늄은 전해과정에서 불화물이 발생하므로 환경보호를 위해 공해방지시설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특성을 또한 가지고 있다. 알루미늄제품은 원료인 알루미늄과를 壓延, 押出 및 주조처리한 후 주발, 대접, 주전자, 냄비 등의 器物, 샷시(Sash), 板, 자동차 부품 등을 가공, 제조하는 제품과, 순도가 낮은 (95~97%) 알루미늄으로 솔, 대야 등을 제조·가공하는 알루미늄 철물제품으로 크게 나누어진다.

대구 알루미늄공업은 器物類의 경우는 국내 수요량의 거의 70%를 공급하고 있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편이나 알루미늄 제품의 비중은 생산, 능력면에서 점하는 비중이 매우 낮다. 현재 대구·경북 비철금속 협동조합에 가입된 업체수는 69개업체로, 전국 알루미늄생산량의 약 35%를 차지하는 것으로 推計되고 있다(1984. 12. 31. 기준). 알루미늄은 비철금속의 중심적 존재로서 매년 수요추이는 상당한 비율로 성장하였으나, 소비구조가 가정용 기물류 등 소비재생산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여 보다 높은 신장률을 보이지 않았다. 더우기 알루미늄 大宗消費部門인 기물류의 경우는 근래에 와서 플라스틱 및 스테레스 제품 등 대체제품의 출현으로 시장을 크게 잠식당하게 되어 가동률 저하, 제품의 채고 증가 등으로 경영에 압박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업계는 과거와 같은 소비재 제품생산에서 다소 벗어나 최근에는 알루미늄 샷시, 板, 자동차부품 등 산업용재로 생산패턴을 약간 다양화하였지만 선진국에 비해서도 아직도 그 생산구조는 유치한 정도에 머물고 있다.

미국, 일본, 독일 등 알루미늄을 대량 소비하는 선진국에서도 합금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金屬工業, 機械, 輸送用器機 및 電氣器機 등에 알루미늄을 주원료로서 그 용도를 다양하게 개발, 건축물에 알루미늄 자재를 대량으로 이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알루미늄공업, 특히 대구의 알루미늄공업은 짧은 연륜에 비하면 결코 성장의 템포가 느린 편은 아니지만, 알루미늄공업이 크게 발전한 외국에 비교하면 아직도 기술개발 등 넓혀야 할 영역이 상당히 많다고 하겠다.

## 2) 發展過程

알루미늄은 1855년 파리에에서 열렸던 만국박람회에서 처음으로 소개되었으나, 이를 생산

하려면 상당량의 전기에너지가 소요되기 때문에 공장생산이 안되지 않고 있다가 1866년 발전기가 발명되면서부터 알루미늄의 경제적이고 공업적인 제도가 기대되었다.

19세기 후반부터 선진제국에서는 알루미늄공업이 크게 발전하였으나 우리나라 알루미늄 공업의 역사는 불과 20여년밖에 되지 않는다. 즉 6.25사변을 치르면서 전쟁터에서 쏟아져 나오는 비행기폐품을 수집하여 알루미늄 솥, 식기, 주전자 등의 주물제품을 제조하면서부터 대구의 알루미늄공업이 시작되었으며 당시 이 지역 업자들은 알루미늄 원료를 구하기 위해 김포, 수원 등지를 다니면서 비행기폐품 알루미늄을 수집하였다. 그때만 해도 제품을 만들 기만 하면 팔렸으므로 원료조달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었으며, 많은 원료를 어떻게 확보 하느냐에 따라 기업운영이 좌우되었다. 이렇게 하여 수집된 원료는 운반에 편리하도록 제품을 녹여 알루미늄괴의 형태를 만들었으므로 현재의 제품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저질제품이었지만, 당시 대구의 20여개 주물업자들이 밤이 깊도록 야간작업을 해도 수요량을 충족시킬 만큼의 제품을 생산할 수가 없었다고 한다.

더우기 당시 육군본부가 대구에 주둔하였으므로 대량 소비되는 군용식기류를 납품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어 알루미늄의 수요는 계속 늘어났다. 이러한 폭발적인 수요증가에 힘입어 알루미늄업계는 대량생산이 불가피해졌고 수년간 호황을 누리는 동안 업자들은 자본축적을 통한 재투자가 가능했고 다투어 기술개발에 힘을 쏟았다. 대구의 알루미늄공업은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성장하여, 오늘날의 근대식 시설을 갖춘 선학알루미늄, 조일알루미늄 등의 기업을 탄생시켰다.

### 3) 業體現況

대구시내 알루미늄공업은 대부분이 기물류인 2차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나, 몇몇 업체는 건

지 역 별	업 체 수	점 유 도
서 울 지 역	43	17.7
인천·경기지역	58	23.8
대구·경북지역	69	28.4
부 산 지 역	57	23.5
호 남 지 역	16	6.6
전 국	243	100.0

資料: 한국 비철금속공업협동조합

축자재인 알루미늄샷시, 알루미늄판, 자동차부품 등을 병행하고 있었다.

한국 비철금속공업협동조합에 등록되고 있는 알루미늄공업 업체수로 보면, 전국의 243개업체중 대구지역은 69개업체로서 전국의 28.4%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의 알루미늄

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종업원은 3,500여명에 달한다.

#### 4) 雇傭現況

1984년도에 알루미늄업체는 평균고용률 67.7%를 보임으로써 1982년부터 계속 하락추세를 나타내고 있고, 고용인원은 정상가동시 5,300명이 필요하나 3,500명내외를 항시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업원이 300인 이상인 업체는 2개 업체뿐이며, 나머지는 소규모 영세업체들로 규모의 영세성을 나타내고 있다.

〈表 3-146〉 雇傭率

연도별 고 용	1982	1983	1984. 1/4	1984. 2/4	1984. 3/4	1984. 4/4
정상가동시고용인원	5,465	5,365	5,300	4,690	5,094	5,100
월 평균 고용인원	3,940	3,739	3,588	3,440	3,581	3,340
고 용 률 (%)	72.0	69.7	67.7	73.3	70.2	66.5

資料：한국 비철금속공업협동조합.

#### 5) 生産活動

지역 알루미늄업체의 월평균 가동률은 1983년도에 67.2%, 1984년도 68.7% 수준이나 전반적으로 볼 때 1979년이후 계속 하락추세를 나타내 이 업종의 경기상태를 말해주고 있다.

계속되는 가동률의 하락원인은 알루미늄제품 중 기물부문은 다단계 공정이다 노동집약적 업종으로 후진국이나 또한 중소기업형 업종으로 적당한 데다가 인조고무, 플라스틱 등 대체품의 개발로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기 때문이다.

〈表 3-147〉 稼動率 推移 (단위：%)

연 도 별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稼動率	79.0	70.2	71.4	69.4	67.2	68.7

특히 1977~1978년중 크게 호황을 누렸던 알루미늄제품업체는 석유파동으로 인한 세계적인 불황과 국내경기침체로 전례없는 어려움을 겪어 1979년 하반기 이후 수요가 격감하여 1980년 중 가동률은 70.2%에 머물렀다. 1983년도의 광명부도사건으로 인한 건축경기의 냉각은 알루미늄샷시업체를 심각한 경영난으로 몰고 갔으며 계속되는 지역의 건축 및 건설경기 부진으로

정상가동한 업체는 13개뿐이며 조업단축업체 51개, 휴업업체는 3개로 나타났다.

생산실적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1969년까지는 알루미늄 전량을 수입에 의존해 왔으나 같은 해에 설립된 대한 알루미늄공업(주)에서 1차 제련된 알루미늄을 수입하여 알루미늄을 생산하고 있으며, 생산능력은 1만 7,500M/T/년에 이르고 있었다.

알루미늄 수요는 4차 경제개발계획 중 연평균 20.7%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대한알루미늄의 생산량만으로는 내수증가를 따르지 못함으로써 자급률이 계속 저하되어 13%수준에 머물렀다. 알루미늄업체들의 연간생산능력을 보면 전국의 12만 1,670톤 중 대구지역은 3만 1,280톤으로 25.7%를 차지하고 있는 데, 이 중 대구지역의 주종기물류를 보면, 전국의 2만 7,310톤 중 대구지역은 1만 7,800톤으로 65.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역 알루미늄업체의 연도별 생산실적을 살펴보면 1982년부터 계속 감소추세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1984년도중 1/4분기 생산실적은 월평균 1,770톤이나 2/4분기 1,781톤, 3/4분기 1,768톤, 4/4분기 1,764톤으로 이 업종이 새로운 품목을 개발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것을 느끼게 해준다.

〈表 3-148〉 地域別 生産能力 現況

지 역 별	연간생산능력(톤)	점 유 도 (%)
서 울 지 역	36,730	30.2
인천·경기지역	38,450	31.6
대구·경북지역	31,280	25.7
부 산 지 역	11,600	9.5
호 남 지 역	3,610	3.0
전 국	121,670	100.0

## 6) 施設現況

알루미늄공업은 그동안 생산 시설을 확장하고 기술을 개발하는 등 경영합리화를 위한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 왔으나, 생산시설이 노후하고 기술수준 또한 선진국에 비해 저위로 줄곧 생산이 수요를 따르지 못하는 수급

불균형 상태를 나타내었다.

대한알루미늄은 1만 7,500M/T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데, 완전한 제련시설이 아니고 보조사이트를 1차 제련하여 얻은 반제품인 알루미늄을 수입하여 Soderberg식 電解瀘에서 정련하여 알루미늄을 생산하는 데 불과하다.

또한 설비자재가 이미 15년이 지나 노후하였고 제련방식도 선진국에서 이용되고 있는 Perbake식이 아닌 Soderberg식이므로 작업의 기술화, 전력의 소비절감, 공해방지, 불화물의 회수와 재사용 등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알루미늄과의 공급부족에 반해 알루미늄 기물업체는 시설과잉으로 인하여 기물생산이 국내수요에 비하여 공급과잉상태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역내 최대회사인 선학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 제품외에 전기기술, 커피포트, 가스렌지 등 가전제품생산에 박차를 가해 업종전환을 모색할 뿐만 아니라 이들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투자를 단행했다.

대구지역 알루미늄업체들의 시설상황을 살펴보면, 알루미늄 판재기물 생산시설이 17개 업체, 알루미늄주물시설 4개 업체, 판 및 압연시설 4개 업체, 알루미늄샷시 및 파이프 생산시설 10개 업체 등으로 조사 되었다.

### 7) 原資材 需給

알루미늄의 경우는 보오크사이트 原鑛이 국내에 전무할 뿐 아니라 보오크사이트부터 알루미늄을 제련하는 시설이 없어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대구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원자재는 Ingot(주괴)로, 이는 원광석인 보오크사이트를 1차 제련, 불순물이 제거된 알루미늄을 얻고 다시 제련과정을 거친 순도 99.5%이상의 알루미늄 덩어리를 말한다.

지역업체는 1980년도까지만 해도 원자재소요량의 2/3를 값비싼 수입에 의존하여 원가 부담을 가중시켰으나, 최근에는 조합을 통해 공동구매, 수입물량이 24.9%, 대한 알루미늄에서 75.1%를 공급받고 있으며, 1984년도 원자재가격의 하락현상은 외국제련 생산업체에서의 과잉생산으로 국제원자재가격이 하락한 데 연유한다.

〈表 3-149〉 原資材 (ingot) 價格推移 (단위: 만원)

연도별 구 분	1980	1981	1982	1983	1984 1/4	2/4	3/4	4/4
국산(대한알루미늄)	84	90	98	140	154	144.6	126	126
수입(조달청공급가격)	150	—	—	160	165	154.5	—	154.5

資料: 대구·경북 비철금속협동조합

〈表 3-150〉 알루미늄原料 共同購買實績 (단위: 톤)

연도별 실 적	1982	1983	1984 1/4	2/4	3/4	4/4
공 동 구 매 실 적	3,200	3,265	600	963	651	690

資料: 대구·경북 비철금속협동조합

## 8) 販賣動向

지역의 알루미늄 제품 생산은 90%가 내수이며, 수출물량은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근래에는 알루미늄 제품이 플라스틱 및 스테레스등의 代替品の 출현으로 시장을 잠식당하게 되어 가정용품에 의존해왔던 알루미늄업체에는 상당히 고전을 겪고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1972년에는 1월 1일 부로 원료인 인고트에 부과해 왔던 10%의 물품세를 반제품인 알루미늄板으로 課稅對象을 바꾸면서 세율을 29%로 인상, 1972년엔 88만 7,000달러, 1980년도에 접어들어 1983년 1,396만 3,000달러, 1984년엔 1,247만 4,000달러를 수출하여 비약적인 발전을 보였다. 그러나 1982년 이후 수출실적은 계속 감소추세를 나타내는 바, 중동경기퇴조, 대만등 경쟁국과의 치열한 경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도달하고 있다.

특히 알루미늄제품 중 器物은 소득탄력성이 작아서 혁신적인 신제품의 개발 없이는 장기적 수요전망은 어려운 실정이며, 일본등과 같은 선진제국은 生必品 生産으로서 中小企業 専門業種으로 지정,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형편이다.

특히 대만은 인고트 수요를 전량 자국내에서 채련, 수급하고 있어 원자재 조달면에서도 유리한 입장이고 물가, 임금이 안정돼 우리나라는 가격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

내수시장은 유리제품, 크리스탈 등의 신제품과 시중경기침체로 판매실적이 좋지 않은 편이며 샷시업체는 대구지역의 남선경금속이 전국물량의 약 40%를 차지했으나 현재는 효성, 동양, 현대, 경남등 많은 업체들이 참가하여 시장을 많이 상실하고 있는 실정이다.

器物業界의 경우는 전국 알루미늄 기물류의 약 70% 정도를 생산하던 대구지역이, 소비자의 알루미늄 대체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짐으로써 1983년에 7개업체가 부도 내지 파산을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대구 알미늄업체의 제품판매 지역별 점유비를 살펴보면, 도내 28.0%, 서울권 25.2%, 부산권 14.6%, 호남권 19.7%, 기타지역이 8.4%를 차지하였다.

## 9) 課題 및 展望

알루미늄 공업부문은 선진공업국에 비해 크게 낙후되어 있으며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製鍊施設의 확충과 신설이 가장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부존자원이全无하고 또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업종이므로 해외 合作投資의 추진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며 알루미늄산업은 器物, 샷시등 生必品생산으로서 뿐만 아니라, 重化學工業, 防衛産業등 장기적 성장육성산업으로의 개편을 위한 기반구축 또는 재편성이라는 국가정책적 차원에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선진제국에서는 合金技術의 발전과 더불어 그 용도는 끊임없이 개발되어 수송용 기기, 기계, 금속공업, 전기기기, 건축자재 등 각 산업분야에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일용소비재인 器物類에 치중해 왔다는 것은 부가가치 창출이나 새로운 시장개척의 차원에서 문제가 많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 건축자재, 자동차부품, 箔(의약품, 과자류포장)등의 용도개발이 확대되고 신제품을 개발하여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또한 인고트의 유통을 원활히 하고 安定的 物量確保 및 適期供給이 가능하도록 특별배려가 요청되고 있으며(대한알루미늄의 경영난 및 조업단축), 大邱 알루미늄공업은 장기간 전국 알루미늄업체를 지배해 왔지만 가공기술은 취약한 실정이므로 제품의 폭넓은 용도개발을 위해 合金技術分野의 연구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또한 이 지역 건축 및 섬유업체의 불황으로 재고가 늘어나며 해가 갈수록 경영난을 겪는 업체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유리 및 플라스틱 제품과의 경쟁에 밀려 시장을 상실하고 있는만큼 제품가격의 인하를 위해 인고트 製鍊用 電力料金 引下, 稅額引下 조치등의 대책이 요망되고 있다.<sup>14)</sup>

#### IV. 課題와 展望

機械・金屬工業은 대규모의 設備投資를 요하고 資本의 孳賃期間이 긴 産業임에도 불구하고, 地域의 機械・金屬工業은 대부분 零細한 中小企業으로 구성되어 있어 生産設備, 技術水準, 經營組織形態 등 여러가지 면에서 낙후되어 있다.

그러나 他地域이나 他産業에 비해 상대적인 落後相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1970~1980년대를 통하여 제품수준이 어느 정도 高度化의 추세를 보여 왔으며, 일부 品目에서는 集積利益을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 또한 龜尾의 電子工團, 浦項의 鐵鋼工團, 昌原의 機械工團, 達城의 論工工團 등 背後工業地와의 連續性을 살려 나간다면 部品工業을 중심으로 한 地域 機械・金屬工業의 성장전망은 밝다고 하겠다. 특히 大邱는 東南經濟圈의 성장의 중추도시로서 纖維工業 등 기존의 내륙형 경공업과 더불어 기계·금속공업의 성장, 발전이 기대되고 있다.

최근 들어 지난 날 대기업 중심의 지원정책을 지양하고 素材部品産業의 지원이 대폭

14) 大邱商工會議所, 《大邱經濟總鑑》, pp. 334~345.



이루어 짐으로써 기계·금속공업의 내실있는 성장은 물론 零細部品業體가 主流를 이루고 있는 地域業界의 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부의 정책전환에 발맞추어 地方商工當局과 地域業界는 地域與件에 맞는 적성 업종을 중심으로 集積의 利益이나 규모의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적극적인 구조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기계·금속공업의 성장이 일정한 궤도에 오를 때까지는 關稅, 金融面에서의 뒷받침은 물론, 기업의 투자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社會間接資本의 확충도 뒤따라야 한다.

그러나 지역 기계·금속공업의 성장, 발전을 위해 무엇보다 요구되는 것은, 지역 기업인이 급속한 기술 및 경영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영세하고 낙후된 지역 기계·금속공업의 활성화를 위한 업계의 단합된 의지와 자조적 노력이다.

특히 大企業과 中小企業, 機械組立業體와 部品業體間的 협조체제 구축은 지역 기계·금속공업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當面課題라고 할 수 있다.

## 第4節 鑛業 및 其他 工業

大邱는 섬유산업에 偏重된 산업구조를 지니고 있어, 일부 기계금속공업을 제외하면 여타산업은 그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편이다. 그러나 1960년대 초반 하더라도 대구에는 도시형 공업인 화학 및 화학제품과 식·음료품 공업이 지역전체공업에서 공장수면에서 4~5%, 종업원수에서는 2~3%를 차지하여 비교적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으며 여타공업 또한 대부분 소규모로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는 있었으나, 안경(테), 양(우)산 공업을 중심으로 하는 노동집약적 산업이 발달하여 지역의 특화산업으로서의 기반을 構築, 그 命脈을 유지하여 왔다. 그러던 중 1970년대 후반부터 섬유산업 일변도의 성장이 촉진되어 식·음료 및 화학공업은 그 발전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었고, 여타산업도 영세성을 면치 못해 발전이 지연됨으로써 지역산업의 균형성장을 둔화시키는 큰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鑛業의 경우는, 大邱의 도시 특성상 산업으로서의 기반을 상실하여 현재는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이다. 따라서 장차 지역산업의 구조개선과 지역경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우산(양산), 안경(테), 공예산업 등과 같은 기존의 特化産業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하여 高附加價值化 함으로써 대외경쟁력을 提高함과 동시에 산업부문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 節에서는 광업, 석화산업, 식품공업, 화학공업의 발전과정과 현재의 위치, 그에 따른 문제점과 그 대책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I. 鑛 業

우리 나라에서는 3세기경부터 鐵이 생산되었고, 북방제국과 일본등지에 수출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三國時代부터 朝鮮時代に 이르는 동안 金, 銀, 銅, 鐵, 기타 지하광물이 계속 採掘되어 일상 생활품을 충족시켜 왔으며 인근 국가들과의 무역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우리 나라의 지하광물 채굴은 원시적인 수단에 의존하여 그 개발상태가 부진하다가, 개항기에 접어들면서 日本, 美國, 러시아 등 列強諸國들이 우리 나라가 광물의 寶庫임을 인식하고 광산채굴권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인 결과 1910년 한일합방과 더불어 日本이 독점하게 되었다.

1910년 韓日合邦後 日帝下에서는 金·銀·銅의 收奪採鑛이 주를 이루고 있었으며, 1945년 해방과 정부수립 후에도 지하자원의 70%이상이 북한에 편재되어, 南韓은 지하자원의 빈곤과 자본의 부족으로 광산개발이 부진했다. 그러나 그 후 정부는 광업제도의 확립을 위하여 1951년부터 1956년까지 5개년간 광업질서를 정비함으로써 1957년에 無煙炭을 비롯한 각종 금속 및 비금속광물에 대한 생산을 장려하고 광산물 수출진흥책을 추진했다.

1962년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추진과 더불어 실시된 강력한 工業化 政策의 실시에 힘입어 鑛山資源의 수요가 급증하자 국내 부족 자원의 탐사와 개발을 위한 시설을 근대화하고 자원사용의 효율을 높이는 한편 자원보유국들과의 경제기술 협력을 통하여 자원 공급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한편 우리 나라 광산물의 수요면에서는 1980년대 이후 광물자원 관련산업이 계속 발전함에 따라 광산물 소비는 연평균 14.2%가 증가되어 동 기간의 경제성장률을 크게 上廻하게 되었고, GNP대비 資源所費強度도 1978년의 0.89에서 1989년 1.60으로 크게 높아졌다. 특히 광산물 소비액에서 금속자원이 17.4%로서 비금속자원 9.0%보다 증가폭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金, 銀, 銅, 鉛, 亞鉛, 鐵 등의 공업용원료 수요의 증가에 따른 製鍊施設 증설과 올림픽 鑄貨製造用 특수 수요발생 등에 따른 소비가 증대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광물수요증가율은 경제성장에 따라 높는데 비해 국내광업성장률은 賦存資源의 빈약, 높은 임금상승률, 국제광물가격의 하락으로 타산업에 비해 매우 저조한 편이다. 이로 인해

광업이 GNP에 차지하는 비중도 1970년대의 1.3%에서 1989년에는 0.35%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반면, 국내수요에 대한 해외의존도는 1985년에 60.6%에서 1988년에는 70.1%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한편 大邱地域의 광업은 대부분 土砂採取業으로 겨우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으나 금속광업은 전무한 실정이다. 1990년 현재 종업원 5인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大邱의 광업체는 1개소가 있을 뿐이며, 이 업체가 고용하고 있는 종업원은 18인이고, 연간 부가가치는 282백만원에 불과하다.

한편 1991년 총사업체 수는 17개소이며, 종업원수는 222명에 불과하고 기타 광업 중 토사석 채취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II. 特化産業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경제사회의 특성있는 발전을 촉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역의 내재적 자원과 잠재력을 활용하는 특화산업의 발굴, 육성이 절실히 요청된다. 이러한 특화산업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은 1980년대 들어 국토의 均衡開發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더불어 강조되어 왔는데, 협소한 국토면적과 지역별 자연적 여건의 유사성을 근거로 特化産業 無用論도 간혹 제기되기는 했으나, 국토의 균형개발과 희소한 자원의 최적배분이라는 관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특히 大邱는 외형상으로 볼 때, 서울, 釜山 다음가는 광역대도시의 모습을 띠고 있지만, 경제력을 중심으로 한 主要指標들을 살펴보면 그 내용이 부실할 뿐만 아니라, 비교가능한 여타 대도시에 비해서도 경제력이 크게 뒤떨어지고 있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轉機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서도 지역 特化産業의 육성은 지역경제의 당면과제가 되고 있다.

현대의 우리 나라 特化産業에 비추어, 특화란 상대적으로 경쟁우위에 있는 산업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문화하여 賣出額 또는 附加價値의 증가를 기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다.<sup>15)</sup> 그러나 特化産業의 선정 육성에 있어서는 반드시 비교우위만이 필요충분조건은 아니므로 단순히 경쟁우위에 있다고 전문화할 것이 아니라, 그 산업의 發展潛在力과 국민경제에의 寄與度 및 국민복지향상에 보탬이 되는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특화산업의 범위는 기존의 특화산업 뿐만 아니라 발전잠재력이 있고, 국민경제에 기여할

15) 사전적 의미에서의 특화란, 한 나라의 어떤 산업 또는 수출상품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태 또는 그 부문에서 전문화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다.

수 있는 산업까지를 고려해야 한다. 왜냐하면 기존의 特化産業만을 고집할 때, 국토의 균형적 발전이라는 거시적인 시각과 산업구조 전반의 高度化 추세를 놓칠 수 있고, 발전과 성장가 등성만을 강조할 때 土着 大宗産業의 중요성이 간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뭇튼 특화산업을 육성한다는 것은 국토의 균형발전과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소득향상과 고용증대 및 域内人口의 정착에도 일익을 담당하게 되어, 지역의 발전과 건실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하므로, 중국적으로 지역에 대한 재인식과 더불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대구지역의 특화산업으로는 기존의 토착산업인 안경(테)제조업과 양산(우산)제조업, 공예품제조업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이들 산업은 전국대비 점유율 및 생산, 수출실적면에서도 타 지역에 비해 높은 우위를 보이고 있다<sup>16)</sup>

따라서 大邱地域의 특화산업은 기존 토착산업인 안경(테)제조업, 양산(우산)제조업, 공예품제조업과 특화 유망산업인 패션산업과 첨단산업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나 첨단산업은 다른 편에서 다루고 있는 관계로 제외하고 공예, 우(양)산, 안경(테)제조업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1. 工藝産業

국민의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생활의 質的 向上을 추구하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생활주변의 장식과 여행의 기념을 위한 공예품의 수요가 현저히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工藝品의 질적 수준을 높여 우리의 전통문화를 繼承, 發展시키는 한편, 이 상품의 수출을 확대시켜 나가기 위하여 공예품전문생산업체에 대한 자금지원과 공예품경진대회의 개최 등 다각적인 지원시책을 펴오고 있다.

그러나 아직 우리 나라의 공예품은 예술성과 전통성 및 개성 등의 표현이 緻密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塗裝 및 鍍金技術의 수준이 떨어져 해외시장에서 저급품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공예산업은 다른 업종과 달리 수작업에 의존하는 노동집약적인 산업으로서 고용증대 효과가 클 뿐 아니라 지방자원 의존형 산업으로서, 부가가치와 外貨稼得率도 매우 높은 편이다. 또한 생산지가 전국의 소비지에 분포되어 있고, 수요가 細分化되어 있어 多品種 少量生産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특히 공예제품생산은 제작공정이 까다롭고 소요인력이 많이 드는 한편,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實用性和 裝飾性이 동시에 요구되기도 한다.

16) 이들 산업은 市에서 일반적으로 특화산업이라고는 하지만, 이들을 명확히 특화산업으로 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님.

〈表 3-151〉 地域別 製造業 附加價值 構成比와 特化係數 및 立地商係數(1989) (單位: %)

區 分	全 國	서 울	釜 山	大 邱	光 州	仁 川
全 製 造 業	100.00 (1.00)	100.00 (1.00)	100.00 (1.00)	100.00 (1.00)	100.00 (1.00)	100.00 (1.00)
食 · 飲 料 業	11.43 (1.00)	9.23 (0.82)	6.43 (0.56)	13.41 (1.17)	36.82 (3.22)	8.47 (0.74)
纖 維 業	14.03 (1.00)	27.61 (1.97)	18.57 (1.32)	46.11 (3.29)	8.88 (0.63)	5.96 (0.42)
製 材 · 家 具 業	1.69 (1.00)	0.70 (0.42)	1.85 (1.09)	0.64 (0.38)	1.00 (0.59)	8.77 (5.19)
紙 類 · 印 刷 業	4.65 (1.00)	16.39 (3.53)	2.77 (0.59)	3.02 (0.65)	1.30 (0.28)	1.76 (0.16)
化 學 業	17.34 (1.00)	8.00 (0.46)	34.26 (1.98)	4.10 (0.24)	11.93 (0.69)	12.84 (0.74)
非 金 屬 鑛 物 業	4.63 (1.00)	2.03 (0.44)	2.04 (0.44)	1.98 (0.43)	1.83 (0.39)	3.20 (0.69)
第 1 次 金 屬 業	7.36 (1.00)	2.40 (0.33)	8.12 (1.10)	4.53 (0.61)	0.61 (0.08)	8.80 (1.25)
機 械 · 金 屬 · 裝 備 製 造 業	36.79 (1.00)	29.05 (0.79)	23.70 (0.64)	23.90 (0.65)	37.44 (1.02)	46.09 (1.25)
其 他 製 造 業	2.08 (1.00)	4.48 (2.15)	2.27 (1.09)	2.32 (1.11)	0.18 (0.09)	5.11 (2.46)
製 造 業 附 加 價 值 特 化 係 數 (S)	0.00	27.72	22.57	34.30	26.05	20.84

註: ① j지역의 특화계수  $S_j = \sum |X_{ij} - X_i| \div 2$ .

② ( ) 내는 立地商係數(LQ)임.

$LQ = X_{ij} \div X_i$  (단  $X_{ij}$ 는 j지역의 전제조업에서 차지하는 i산업의 부가가치 구성비  $X_i$ 는 전국의 전제조업에서 차지하는 i산업의 부가가치 구성비)

資料: 統計廳, 《鑛工業統計調查報告書》, 1991.

그러므로 수요자의 趣向이나 선호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디자인이나 품질에 있어서 제품개발이 다양하게 요구됨은 물론, 품질과 가격면에서도 그 층이 천차만별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한편 우리 나라의 工藝製造業은 타산업에 비해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으나, 시장규모가 작아 대체로 원자재 조달이 용이한 지역에서 지방토산물 제조업으로 그 명맥을 유지하여 왔다.

따라서 생산조직도 가격과 완전히 분리된 기업을 형성하기보다는 기능보유자나 그들의 후계자들이 가족의 생계수단으로써 소규모의 가내수공업형태로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와 공예품에 대해서도 수출상품화가 추진됨에 따라 지방적 특색이 점차 사라지고, 기능인력의 확보와 원자재 조달, 제품판매와 시장정보수집 등이 용이한 서울·京畿地方 및 기타 대도시를 중심으로 하여, 專門生産施設을 갖춘 업체들이 출현하게 되었다.

〈表 3-152〉 工藝製造業의 産業比重 (單位：個, 千名, 億원 %)

區 分	事業體數	從業員數	生産額	附加價值
全産業(A)	7,386	1,219,458	1,614,575	455,260
鑛工業(B)	3,051	153,411	342,983	343,192
中小企業(C)	1,884	152,187	364,501	137,587
工藝産業(D)	31	3,920	3,386	2,539
(D/A)	(0.4)	(0.3)	(0.2)	(0.5)
(D/B)	(1.0)	(2.5)	(1.0)	(0.7)
(D/C)	(1.6)	(2.6)	(0.9)	(1.8)

資料：中小企業關聯統計中央會, 1988, 12.

大邱地域은 지리적으로 우리 나라 제1의 관광도시인 慶州를 비롯하여 많은 관광지를 끼고 있으며, 또한 新羅의 찬란한 전통문화를 간직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大邱의 공예산업은 타지역에 비해 뒤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즉 1988년 현재 대구지역 공예산업의 전산업비율을 살펴 보면, 사업체를 기준으로 볼 때 전산업 중 0.3%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그 중 중소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6%에 이르고 있다. 한편 공예산업의 부가가치는 전산업에서 0.5%나 차지, 업체당 부가가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sup>17)</sup>

### 1) 産業體現況

통계자료의 제약 때문에 지역 공예품 생산업체의 비중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1991년 3월 말 현재 한국 공예협동조합의 품목별, 지역별 업체현황(조합원기준)을 보면, 大邱·慶北地域은 전국 647개 업체중 12.8%에 해당하는 83개업체가 가동되고 있어, 서울의 33.8%에 다음가는 主產地 임을 보여주고 있다.<sup>18)</sup>

17) 中小企業關聯統計中央會 자료, 1988, 12.

18) 전국치를 대략 추산하면, 3,920개 등록업체 중 조합업체가 647개로 16.5%를 차지하고 있고, 그 중 대구경북은 전국사업체수 대비 2.1%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단 비조합 업체가 누락된 상태라는 점을 감안할 때, 대구 경북 공예업체의 비중은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大邱·慶北의 경우는, 목공예가 차지하는 비중(1991년 현재 전국 목공예업체의 37.7%)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는데, 향나무 목공예의 경우, 大邱가 전국시장 공급의 80%를 담당하고 있으며, 면경업체도 전국시장의 60%를 점유하고 있다.

1970년대초 가내수공업 형태로 시작된 지역 목공예산업은 당초에는 제조업체가 몇개 안되었으나 동 업계에 종사하던 근로자들이 自營業으로 하나씩 독립하면서 1991년 현재 57개 업체로 크게 불어났다. 이들 업체들은 불교용품, 농악기, 장식용품 등을 만들어 전국 각지의 선물용품코너 등에 공급, 한때 12~13명의 근로자를 거느린 업체도 많을 정도로 번창하기도 했다. 지역 목공예 제조업체들은 대구시 동구 불로, 봉무, 도동 등 3개동에 밀집돼 가동하고 있는데 주로 향나무, 활엽수, 소나무 등으로 각종 불교용품, 농악기, 장식품 등을 만들고 있다.

大邱 공예업의 현황을 大邱·慶北工藝協同組合의 자료를 토대로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산규모별로는 1991년 6월말 현재 전체 93개 업체 중 1억원 이하가 68.8%를 차지해 전반적으로 영세한 기업경영을 하고 있으며, 종업원 규모별로 볼 때도 종업원 10인 이하가 전체의 78.2%를 차지하여 동업계의 규모의 영세성과 인력난을 나타내 주고 있다.

또한 同業界는 찬란한 신라문화의 업적에도 불구하고 慶州의 民俗 工藝製를 제외하고는 크게 뒤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며, 大邱를 상징하거나 대표할 공예품 하나 변변히 개발하지 못하고 있고, 악세사리 등의 신변용품과 휘장 광고매체물을 제작하는 산업공예업계를 중심으로 매우 낙후된 경영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공예품의 생산에 소요되는 原副資材는 국내에서 조달되는 원자재와 수입으로 충당하는 원자재로 나눌 수 있는데, 국내원자재는 생산업체가 蒐集商 또는 대리점을 통해 직접 조달하고 있으나, 수입원자재의 경우에는 수입업자로부터 仲介商 또는 가공업자를 통해 다시 도매상이나 소매상을 거치는 복잡한 유통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유통경로를 통해 조달되는 공예산업의 원자재는, 최근 공예품의 다양화와 공예품에 대한 국내의 수요증가로, 국내조달분의 부족현상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 즉, 竹細·草莖工藝品の 원료로서 현재 全量을 국내에서 충당하고 있는 대나무와 왕골 등은 농촌의 노동력 부족과 同作物의 저수익성 등으로 그 재배면적이 크게 줄어들고 있어, 앞으로의 공급부족이 우려되고 있다.

〈表 3-153〉 工藝産業의 品目別, 地域別 業體現況 (組合員 基準)(1991年 3月末 現在) (單位: 個)

지역별 품목별	서울	釜山	大邱 慶北	光州 全南	慶南	全北	忠北	大田 忠南	江原	濟州	其他	계
纖維工藝	3	2	—	—	—	1	1	3	—	2	—	12
木工藝	12	11	57	7	8	9	3	12	25	7	—	151
漆器工藝	4	1	—	1	45	—	—	—	1	2	—	54
陶磁器工藝	7	4	—	6	6	2	—	5	2	3	—	35
石工藝	—	1	—	3	—	3	—	5	8	9	—	29
寶石工藝	5	1	—	—	1	—	—	1	1	—	—	9
金屬工藝	68	4	5	—	3	—	—	1	3	—	6	90
陶器工藝	1	—	12	—	—	—	—	1	—	—	—	14
竹細工藝	—	1	—	5	1	15	—	—	—	—	—	22
草莖工藝	—	—	—	—	1	3	—	—	—	1	—	5
皮革工藝	3	1	—	—	1	—	—	1	—	—	—	6
종이工藝	1	—	—	1	1	2	8	—	—	—	—	13
其他工藝	115	32	9	11	—	6	4	17	5	8	—	207
計	219	58	83	34	67	41	16	46	45	32	6	647

資料: 韓國工藝協同組合, 1991.

〈表 3-154〉 工藝産業의 資産規模別 業體現況 (1991年 6月末 現在) (單位: 個, %)

계	3천만원이하	3천~5천만원	5천~1억원	1억~3억원	3억원이상
93(100)	24 (25.8)	24 (25.8)	16 (17.2)	18 (19.4)	11 (11.8)

資料: 大邱 慶北工藝協同組合.

〈表 3-155〉 工藝産業의 從業員規模別 業體現況(91年 6月末 現在) (單位: 個, %)

계	5인 이하	6~10인	11~20인	21~59인	50인 이상
96(100.0)	47 (49.0)	28 (29.2)	11 (11.5)	9 (9.4)	1 (1.0)

資料: 大邱 慶北工藝協同組合.

또한 전승공예품 중 螺鈿漆器의 자개원료인 原貝는, 제주도와 경남의 남해안 연안에서 품질이 우수한 國內産이 소량 採取되고 있을 뿐, 나머지 국내 소요량의 약 80%정도는 필리핀이나



그밖의 열대지방에서 생산되는 夜光貝 및 眞珠貝 등을 수입하여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高級塗料인 옷의 경우에도, 국내에 옷나무는 많이 산재해 있지만, 가격이 비싸고 취급에 상당한 기술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옷대신 「카슈」(Cashew)를 수입해 사용하고 있다. 「카슈」는 화학적 구성이 옷과 비슷하고, 현재 소매가격이 옷의 3/100정도에 불과하지만, 그 질에 있어서는 접착력이 약하고 심한 악취가 날 뿐만 아니라 인체에 해로운 성분을 지니고 있어, 이를 사용한 공예품은 저급품으로 취급되고 있다. 그밖에 장식용 家具類인 등나무 공예품의 원료는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한편 공예품의 생산방식은 종래의 경우 手作業 중심이던 것이 오늘날에는 수요물량의 증대와 기계공업의 발달로 기계화율이 점차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여타산업 보다는 수작업의 의존도가 크게 높은데, 이는 제품의 工程이 섬세한 수작업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고 또한 시장수요물량에 대한 기초조사 자료의 미비 등으로 기계화의 경제성을 측정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1984년 현재 대구지역 공예산업의 생산실적은 보면 <表 3-156>과 같다.

品 目	生 産 實 績	構 成 比
보 석 · 귀 금 속 공 예 품	17,043	7.4
패 곡 및 동 제 품	5,892	2.6
나 전 칠 기 제 품	1,313	0.5
목 공 예 품	8,849	3.8
죽 세 · 초 경 제 품	2,327	1.0
귀 금 속 및 유 리 세 공 품	17,783	7.7
예 술 및 수 집 품	14,379	6.2
모 조 장 신 구	77,420	33.5
기 타 신 변 용 품	36,035	15.6
기 타 공 예 품	50,122	21.7
계	231,163	100.0

資料: 大邱 慶北工業協同組合

한편 공예품의 국내 유통구조는 생산에서부터 직접 백화점이나 기념품점 또는 면세점 등을 거쳐 주로 외국인에게 판매되고 있으며, 국내소비자들에게는 도소매상이나 행상을 통해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복잡한 유통경로를 통해서 판매되고 있는 공예품은, 中間商이나 백화점의 이윤폭이 커서 최종소비자 가격이 제품의 외양이나 외국의 동일 제품에 비해 지나치게

높을 뿐만 아니라, 더우기 일부 국내시장에서는 수출업체에서 만든 잉여제품이나 「클레임」에 의한 반품 등 불량품들도 유통되고 있는 실정에 있다.

그리고 전국 각지의 공예품 매장에서 취급하는 상품들은 慶州의 모형 금관이 전국 어디서나 판매되고 있고 제주도의 하루방 또한 전국 각처의 관광지나 시내 백화점 등에서 판매되고 있듯이, 지역적 특성이 완전히 무시된 유통구조를 갖고 있어, 여행자들의 구매의욕을 떨어뜨리는 要因이 되기도 한다.

## 2) 發展課題

이에서 보면, 대구지역 공예산업은 산업기반이 취약하고 일부 신변용품 생산업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기업규모가 영세하여, 각 업체는 자체적인 시장정보의 수집과 「마케팅」 기능이 극히 미약한 상태에 있다. 더우기 대구지역공예업체의 경우, 慶尙北道와 달리 신변용품을 주로 생산하는 금속공예업체와 미장, 간판 등 광고매체물, 목공예 등을 제작하는 기타 공예업체가 중심이 되고 있어서 전통공예의 성장기반이 매우 미약하다.

그 결과 각 업체는 창의적인 디자인이나 신제품개발보다는 같은 업체의 제품을 모방하기에 급급한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예품의 유통경로도 ① 생산업체 → 백화점, 기념품점, 면세점 → 고객의 경로와, ② 생산업체 → 도매상, 중간상 → 소매상·행상 → 고객이라는 유통경로를 거침으로써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 외에도 지역의 공예협동조합의 영세성과 직원의 부족 등으로 조합활동이 크게 제약을 받아, 원자재의 공동구매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보제공 및 기술지도의 기능도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여건에서, 목공예산업의 경우, 최근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수입개방 등으로 근로자수가 80년대 후반의 30%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효자손을 비롯, 오리, 복주머니, 장구, 염주, 액자틀, 소반 등 소품위주의 값싼 중국산 목공예 제품이 무더기로 수입되면서 판매시장조차 뺏겨, 지역목공예 산업은 생존권마저 크게 위협 받고 있는 실정에 있는데, 이러한 중국제품의 국내시장 잠식은 더욱 빨라지고 있다.

이러한 현안문제들을 해결하여 域內 공예산업의 飛躍的인 발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공예품 생산업체들을 產地別로 단지화하여, 영세한 개별업체들의 제약된 경영기능을 보완 강화하고, 이를 통한 해외시장정보의 수집 및 분석의 활성화와 특색 있는 제품개발로 수출물량을 획기적으로 늘려나가야 할 것인 바, 지역업체들로서는 해외시장의 情報蒐集活動의 강화

와 창의적인 「디자인」의 개발, 생산자동화율의 提高, 유통구조 개선과 판촉활동의 강화등이 선결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 2. 雨傘·洋傘産業

우산을 사용한 것은 역사적으로 뚜렷한 기록은 없으나 각종 자료에 의하면 기원전 1,000년경에 고대문화의 발상지인 이집트와 앗시리아에서 사용되었다고 한다. 당시에는 비를 피하는 것보다는 왕족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차일(遮日)용으로 이용되었으며 용도는 한정되어 있었다. 동양에서도 그와 같은 연대에 중국에서 나들이용으로 사용되었다. 그 후 우리나라에 전래된 것은 삼국시대이며 왕의 권위의 상징으로 사용되었다. 이때는 접는 식으로는 개량되지 않았고 재질은 나무와 비단으로 채일 끝은 장식용 수를 놓았다.

이집트와 앗시리아에서 유럽으로 전래된 양산은 많이 개량되어 펴지고 접혀질 수 있게 만들어졌다. 비를 막기 위한 우산이 본격적으로 나온 것은 약 300여년 전이었으며 이때에 사용된 골조는 등나무, 배나무, 고래뼈등이었다고 한다. 산업혁명 이후 철재산업의 고도화가 이룩된 후로는 우산 재질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고 이로 말미암아 대중적 보급이 가능해졌고,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우산과 양산의 보급시기가 도래했으니 그 시기는 약 120여년 전이다. 이때의 우산은 철제보다도 목재(등나무, 대나무)의 골조우산이었다. 그 후 국산 우산·양산은 비단 면 합섬섬유(폴리에스터, 나이론)등 섬유산업의 발달로 천도 다양화 되는 한편 크기와 모양, 색상도 큰 발전을 가져오게 됐고, 방수가공방법도 수지코팅에 의해 한층 발전되었다. 골조소재로는 철재, 나무, 강화프라스틱, 화이버그라스, 알루미늄 등으로 변화가 다양하고 구조면에서는 접어지는 것, 자동으로 펴지는것, 아주작게 접히는 것(미니), 자동으로 길게 펴지는 것 등이 있다.

### 1) 産業現況

우산·양산제조업은 전형적인 도시형 중소기업업종으로서 일부 업체를 제외하면 대다수 업체가 도심지내에서 종업원 50명 미만의 영세한 가내공업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생산형태도 주문생산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중소기업 고유업종으로 지정되어 있다.

또한 우산·양산 제조업은 노동집약적 산업으로서 생산액 1억원에 소요되는 종업원수는 3.48명으로 전체 제조업의 평균 수준인 1.70명을 크게 상회하고 있고 勞動/資本 比率도 전체 제조업평균(3.96)보다 훨씬 높은 8.79에 이르고 있다.

〈表 3-157〉 雨傘(陽傘)製造業의 勞動集約度 (單位: 억원, 名, 倍)

구 분	생산액(A)	유형고정자산액 (B)	종업원 수(C)	(C/A)	(C/B)
全 製 造 業	1,773,088	762,159	3,019,816	1.70	3.96
雨傘(陽傘)製造業	376	149	1,310	3.48	8.79

資料: 統計廳, 《鑛工業統計調查報告書》, 1990.

한편 상품으로서의 우산·양산은 수요의 약 70%가 봄철 우기(4~5월)와 여름 장마철(7~8월)에 집중되는 계절상품이라는 점이다. 그 결과 월별 생산량의 기복이 심하여 연평균 가동률과 자본회전률 등이 타제조업보다 낮은 편에 속한다.

또한 우산·양산산업이 최근에는 원단색상, 모양, 디자인 및 손잡이 형태 등을 중심으로 패션화 경향을 보이면서 악세사리 또는 신변 장식용품으로 변화하는 추세에 있으며, 특히 우산과 양산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혼용추세를 보임에 따라 그 구분이 퇴조하고 있다.

그러나 同산업이, 지역경제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수출 유망업종이라는 것이다. 즉 우리 나라의 우산(양산)은 가격면에서는 대만, 홍콩 등에 뒤지고 있으나 품질면에서는 아직까지 우위를 점하고 있어 수출전략 산업으로의 육성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에 따라 1992년 大邱直轄市는 同 업종을 수출전략산업으로 지정, 지역의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양산 및 우산제조업은 1991년 6월말 현재 전국의 120개(등록업체) 중 93개 업체가 大邱市에 소재함으로써 약 77.5%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생산액도 전국대비 약 75%를 점하고 있어, 대구지역의 특화산업으로 육성되고 있다. 이처럼 양산 및 우산제조업이 일찍부터 지역특화산업으로서 높은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것은 大邱가 전통적인 섬유도시로 섬유관련 기술 외에 봉제 및 금속 합성수지 성형기술등이 발달하여 우산재료의 가공, 처리와 원·부자재 및 원단구입이 용이하고 기능공도 풍부하였던 데 기인하였다. 한편 동업계의 자산규모별 업체현황을 보면, 전국의 120개 등록업체 중 자산규모 5천만원 이하인 업체가 전체의 64.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노동집약적이고, 수공업적인 동업계의 특성을 간접적으로 나타내 준다. 특히 大邱의 경우를 보면, 자산규모가 1억원 이상인 업체 12개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87%가 1억원 미만의 소규모로 구성되어 있으며, 종업원 규모도 30명 미만인 업체가 약 75%(대구상공회의소 집계)를 점하여 대부분의 업체가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表 3-158〉 陽傘製造業의 地域別 業體分布 現況 (單位: 個, 名)

區 分	事 業 體 數	組 合 員	非 組 合 員
서 울	15	5	10
釜 山	6	2	4
大 邱	93	60	33
其 他	6	1	5
總 計	120(100.0)	68(56.7)	52(43.3)

註: 사업체수는 일반사업등록업체를 기준으로 파악한 수치로서, 조합원, 비조합원을 모두 포함하고 있음.

資料: 韓國陽傘工業協同組合

〈表 3-159〉 陽傘製造業의 資産規模別 業體現況(91年 6月末 現在) (單位: 個)

區分 地域別	계	1천만원 미 만	1천만원이상 3천만원미만	3천만원이상 5천만원미만	5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1억원 이상
서 울	15	3	2	3	3	4
釜 山	6	1	1	1	2	1
大 邱	93	15	42	6	18	12
其 他	6	1	1	1	2	1
總 計	120(100)	20(16.7)	46(38.3)	11(9.2)	25(20.8)	18(15.0)

資料: 韓國陽傘工業協同組合

## 2) 發展課題

이러한 여건에서 대구지역 우산(양산)제조업의 당면 문제점을 살펴보면, 企業規模의 零細性과, 生産體制의 專門化·系列化의 未治 그에 따른 전문기술인력의 확보난 및 海外市場 開拓能力의 脆弱 그리고 지역경제계의 일반적 문제점이라 할 수 있는 만성적인 資金難, 流通秩序의 교란 등을 들 수 있겠다.

따라서 지역의 우산(양산)업계가 특화산업으로서의 제구실을 다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合併獎勵業種 지정을 통한 적정한 經營規模의 유도를 촉진하여 생산체제의 專門化·系列化를 확립하고 지방정부차원에서의 技能人力難 緩和對策의 樹立 및 해외시장 개척 노력의 활성화, 유통질서의 확립, 기술개발 지원의 강화, 유효한 資金支援 方案의 講究 등이 요구된다.

### 3. 眼鏡·眼鏡테 産業

안경제조업은 대표적인 중소기업 업종으로서 다공정 조립형태의 생산체제를 이루고 있다. 동조립부분은 완전기계화가 곤란한 작업으로서 인력의 소요가 크며, 이를 계기로 인건비가 저렴한 동남아 개발도상국들이 값이 싼 하급의 안경을 製造, 수출하여 왔다. 1970년대 세계경기의 상승으로 레저산업의 발달과 더불어 수요가 급격히 증대되어 왔으며 국내판매 보다는 수출에 의존하는 수출형 상품으로서 해외시장 개척의 여지가 많은 업종이다.

현재 지역 안경제조업은 전반적으로 기업이 영세하고 시설 및 기술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미약하지만 전술한 인력의 수급도가 높아 고용인원이 기업규모에 비해 많으며, 제조공정의 대부분이 연소자, 부녀자 등 遊休勞動力을 활용할 수 있어 고용증대의 효과가 높다.

세계시장에서의 국내제품이 차지하는 지위는 중하에 머물고 있으며 인건비의 증가,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고급제품의 개발 및 연구가 시급하며 이에 따른 제작기술의 낙후, 자체개발능력의 결여, 부품생산업체의 계열화 미비 등의 취약성을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에 안경이 나타난 것은 1910년 한·일 합병 직후였다. 당시 서울 종로에는 많은 안경상인들이 직접 안경을 만들고 있었다고 하는 데, 그들은 재료를 모두 中國으로부터 수입하여 왔다고 한다. 그러나 산업으로서의 우리 나라의 안경테 산업은 1945년 大邱에서 국제셀룰로이드 공업사의 창업을 효시로 들고 있다. 이후 1955년 동양셀룰로이드 공장이, 1960년 후반 이후에는 三成工業, 코드광학, 공화광학 등이 설립되어 대구지역이 안경공업의 중심지로 발전해 왔다. 특히 1960년대 들어 정부의 外資導入에 의한 설비투자와 함께 값싼 노동력을 활용하고자 하는 정부의 경공업 지원정책에 힘입어 높은 성장을 이루었으며 1965년에는 최초의 수출을 시작했다.

이후 정부의 강력한 수출주도 정책은 노동집약적인 산업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그에 따라 전형적인 노동집약산업인 안경테 제조업도 매년 큰폭의 성장을 시현했으며, 1970년대 들어 안경테 제조업은 두차례에 걸친 석유파동과 이로 인한 세계경기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성장하였는데, 이는 선진공업국에서 노동집약산업인 안경테산업이 사양화된 데 기인한다.

1980년대 들어서는 정부의 輸入自由化 政策과 더불어 초기에는 안경테 수입이 급증하여 국내 안경테산업의 생산을 위축시켰으나, 개별기업체의 품질고급화 등 自救努力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통해 이를 극복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안경테생산품에 대한 해외의 이미지는 아직도 미흡한 수준으로서 최근 들어서는 선진국의 고가품과 후진국의 저임을 바탕으로 한 저가품 공세에서 시련을 겪고 있다.

특히 지난 1987년 이후 급격한 임금상승, 현장 근로자부족 등으로 채산성이 크게 악화된 데다 臺灣, 中國, 홍콩 등 경쟁국 제품과 가격경쟁면에서 뒤지고 있기 때문에 해외시장을 속속 잠식 당하고 있다. 노동 집약산업의 대표적인 제조업으로 150여 작업공정이 모두 손 작업으로 이루어지는 안경제조업은 1991년 지역업체의 가동률이 67%에 머물렀으며, 採算性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sup>19)</sup>

그러나 안경테산업은 세련된 가공을 통한 품질고급화와 다양한 디자인개발을 한다면 아직도 충분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바, 업계의 적극적인 노력과 정부의 지원시책이 조화를 이루면 수출 유망산업으로서 지속적인 성장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1) 産業現況

대구지역 안경(테)제조업체 가운데 상당수는 사업자 등록도 하지 않은 영세업체로서 1990년 현재 전국 550개업체의 88.2%인 485개업체에 1,000여명이 취업하고 있는것으로 파악되고 있다(表 3-161).

통계집계의 제약상, 大邱光學工業協同組合에 가입된 조합원만을 기준으로 大邱 안경(테) 제조업의 현황을 살펴 보면, 1991년 6월말 현재 전국 69개 조합원 중 47개가 大邱에 소재, 68.1%의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자산 및 종업원 규모별 현황을 보면, 자산규모 1억원 이상으로서 종업원 70인 이상인 11개 업체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약 77%가 1억원 미만의 소규모 영세업체로 구성되어 있어(表 3-162), 「티타늄」등의 신소재를 사용한 도금 또는 용접기술을 도입, 개발할 자본력이 부족하고 해외시장 정보도 제때에 수집할 수 없어, 지역 업체끼리 過當競爭을 일삼고 있다.

〈表 3-160〉 眼鏡製造業의 品目別 事業體數 現況 (單位: 個)

區	分	大邱 (A)	全國 (B)	A / B (%)
眼鏡	테	445	500	89
眼鏡	鏡	25	30	83
其他眼鏡 및 部品		15	20	75
合	計	485	550	80

註: 사업체수는 종업원 5인 이상의 조합원, 비조합원을 포함한 등록업체 기준임(1990년).  
資料: 韓國光學工業協同組合.

19) 〈嶺南日報〉, 1992. 11. 25.

〈表 3-161〉 眼鏡製造業의 資産規模別 從業員 規模別 業體現況(1991年 6月末 現在) (單位: 個)

區 分	계	1억원 이하 50인 이하	1억원 이하 50인 이상	1억원 이상 70인 이상	10억원 이상 100인 이상
全 國	69(100.0)	32(46.4)	23(33.3)	8(11.6)	6(8.7)
大 邱	47(100.0)	18(38.3)	18(38.3)	5(10.6)	6(12.8)

資料: 韓國光學工業協同組合

안경 제조업은 안경테 제작에서부터 비롯되고 있다. 이는 간단한 설비로 연마하여 완제품 생산이 가능한 렌즈와는 달리, 안경테는 단순한 제품이지만 많은 제조공정을 거치는 노동집약적 생산구조를 가지고 있는 데 기인하고 있다. 그 결과 초기의 내수공급 위주의 시기에는 렌즈와 안경테 생산량의 규모가 비슷했으나, 1965년에 최초로 안경테 수출이 시작된 이후 안경테의 생산이 훨씬 빨리 증가하여, 1980년대에는 안경산업은 안경테 중심의 생산체제로 전환하였다.

즉 1989년중 안경(테) 제조업의 생산실적을 보면 안경테가 생산이 547억원, 出荷가 542억원인데 반해 선글라스는 각각 151억원, 153억원에 그치고 있다<sup>20)</sup>

이중 대구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出荷額基準으로 1989년중 81.3%를 차지, 우리나라 안경테 제조업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대구지역 16개 업체가 추진해 온 성서공단 협동화 사업장의 완공(1991년 8월 입주)으로 안경부품업체, 도금업체 등 완제품 생산을 위한 일련공정이 갖추어져, 생산성 향상과 품질개선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인력부족 현상도 어느 정도 해소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업체간의 정보수집이 용이하고 공동 디자인 개발의 잇점과 동일모델의 과잉생산으로 인한 가격폭락 예방등이 기대되며, 부품구매 등에 따르는 경비와 시간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한편 동업계의 대외거래는 안경(테)산업이 勞動集約的 산업이라는 특성으로 1970년대 이후 선진국에서 사양화되어 수출이 비약적으로 증가되었으며, 특히 1986, 1987년에는 경쟁대상국인 日本, 臺灣 통화의 절상으로 지역 상품이 상대적인 價格競爭力 우위를 갖게 되어 수출이 각각 65%, 100%의 획기적인 신장세를 시현하였다.<sup>21)</sup>

그러나 1988년 이후는 급속한 원貨切上, 원자재의 가격상승과 勞使紛糾 및 賃金上昇 등의 영향으로 국내업체는 큰 타격을 받아 수출이 부진하였다. 더구나 최근의 소위 '3D기피' 현상

20)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1989.

21) 韓國銀行大邱支店, 《大邱地域 眼鏡테 製造業體 實態調査結果》, 1992.



이라는 사회풍조까지 가세하여 인력부족에 따른 조업률 저하와 기술수준의 정체속에 임금상승과 이로 인한 原價上昇으로 가격경쟁력 열세 등 공급측 隘路要因에 직면하면서 해외시장에서 고전하고 있다.

〈表 3-162〉 眼鏡테 地域別 出荷實績 (單位: 百萬원)

구 분		1 9 8 5	1 9 8 6	1 9 8 7	1 9 8 8	1 9 8 9
全國	안 경 테	30,719	43,141	67,162	58,801	54,224
	선글라스	4,199	5,199	12,381	18,271	15,302
	계	34,918	48,340	79,543	77,072	69,526
大邱	안 경 테	28,961	38,222	54,771	50,316	42,509
	선글라스	3,223	4,512	10,114	15,850	14,034
	계	32,184	42,734	64,885	66,166	56,543
서울 京畿	안 경 테	1,099	2,995	7,953	3,618	4,381
	선글라스	976	687	2,267	2,421	1,268
	계	2,075	3,682	10,220	6,039	5,649

資料: 統計廳, 《鑛工業統計調查報告書》, 各 年度

同 업계의 연도별 수출실적(통관기준 전국치)을 보면, 1988년 1억 1,849만달러이던 것이 1989년에는 1억 1,991만달러로 1.2% 증가세를 나타냈으나, 1990년에 이르러서는 전년대비 4.5% 감소한 1억 1,452만달러에 그쳐, 수출신장세가 둔화됨으로써 同업계가 전반적으로 침체경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主輸出市場은 美國, EC, 홍콩 등으로 이들 시장이 전체 수출물량의 70%이상을 점하고 있다.

〈表 3-163〉 眼鏡(테)製造業의 年度別 輸出實績 (單位: 千달러)

區 分	1 9 8 8	1 9 8 9	1 9 9 0
안 경	35,442	35,903	36,207
안 경 테	83,052	84,004	78,314
합 계	118,494	119,907	114,521

註: 통관기준 전국치임. 대구는 전국대비 약 80%정도의 점유율을 유지하는 것으로 추산됨.

資料: 韓國光學工業協同組合

〈表 3-164〉 地域別 眼鏡테 輸出實績 (單位：千달리, %)

	美國	EC	日本	香港	其他	計
1988	19,397 (23.4)	17,424 (21.0)	7,554 (9.1)	29,052 (35.0)	9,625 (11.6)	83,052 (100.0)
1990	27,165 (34.7)	17,639 (22.5)	6,938 (8.9)	11,254 (14.4)	15,328 (19.6)	78,324 (100.0)

資料：韓國光學工業協同組合

한편 수입개방으로 수입은 연간 270억원 규모의 국내 안경테시장 중 약 30%가 외국제품에 의존하고 있다. 이같은 수입증가는 日本과 臺灣제품이 주도하고 있는데 일본제품은 「이브생 로랑」, 「니나리치」 등 이탈리아나 프랑스의 유명브랜드를 부착한 것으로, 동일 브랜드의 유럽 제품의 절반가격 수준에 수입되어 국내의 중가품 시장을 잠식하고 있고, 臺灣제품은 저가품의 플라스틱테 및 금속테를 중심으로 수입되어 국내 중저가품 시장을 급속히 잠식하고 있다.

〈表 3-165〉 眼鏡테 需給狀況 (單位：百萬원)

區 分		1 9 8 8	1 9 8 9	1 9 9 0
需 要	內 需	21,650	25,610	27,381
	輸 出	60,620	56,281	55,373
	計	82,270	81,891	82,754
供 給	生 產	77,000	75,000	73,831
	輸 入	5,270	6,891	8,923
	計	82,270	81,891	82,754

資料：韓國光學工業協同組合, KOTRA 무역통계 및 업체실적보고

## 2) 發展課題

안경(테)는 표준분류(KSG 3306)에 따라 1종, 2종으로 나누어지며, 이 중 1종이 고급품에 속하는 제품인데, 소재에 따라 금속제 안경테와 합성수지제 안경테로 나뉘어진다.

금속제 안경테는 양백선(Nickel-Silver Wire), 황동선(Brass Wire), Hi-Nickel Wire, Stainless Steel Wire, 티타늄재 등을 소재로 하여 제조되는 안경테로서 소비자의 기호에 따라 Gold Plate, Chrome Plate, Silver Plate, Black Chrome Plate, 금장 및 도장(Coating) 등의 표면처리를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저가품은 황동선을 소재로 하여 제조되며, 중고가품은 대부분

양백선을 소재로 하여 제조하는데 최근에는 안경의 경량화 및 소비자의 고급품 선호추세에 따라 Hi-Nickel재, 티타늄재 등의 소재를 수입하여 제작한 고급품 생산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반해 합성수지계 안경테는 플라스틱 사출안경테와 CAS안경테, OPTYL안경테(EPOXY 테)로 구분할 수 있는데, 플라스틱 사출 안경테는 주로 Cellulose Acetate계의 Propionate로 사출 성형한 제품으로 원료에 안료를 배합하여 사출하거나, 사출한 후 제품을 염색하여 다양한 색상을 내기 때문에 선글라스용으로 많이 사용된다. 금속계 안경테에 비해 설비비가 많이 들고 원료의 수입의존도가 높아 일정규모 이상의 자본이 필요하고, CAS 안경테는 Cellulose Acetate Sheet를 안경테 형태로 절삭 가공하여 만든 제품으로 Sheet의 색상에 따라 안경테의 색상이 결정되며 플라스틱 사출안경테에 비하여 고급품이다. 또한 OPTYL 안경테(EPOXY)는 EPOXY 수지를 Silicon Rubber Mold에 주입·경화시켜 만든 제품으로 가볍고 투명하며 색상도 다양하게 낼 수 있어 패션적인 고급품에 속하나, 강도가 타 종류의 안경테에 비하여 약한 결점이 있으며 Silicon Rubber Mold의 비용이 큰 비중을 차지하여 생산원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안경테 제조업의 특성은 무엇보다, 노동집약적 산업이라는 점이다. 즉, 안경테는 수작업에 의한 32단계의 공정을 거치는 노동집약적 산업으로서 自動化가 곤란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설비자동화율이 총공정의 20%미만인데, 이는 우리의 경쟁국도 비슷한 사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결과 동업체는 중소기업형 제품이 주종을 이루고 있어 전국의 약 400여개의 제조공장 중 종업원 50인 이상의 업체는 30여개(8%)에 불과하고, 종업원 10인 이하인 가내공업형태의 영세업체의 비중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안경테는 패션화 경향이 강하여 소품종 대량생산이 불가능하며 다양한 디자인과 소재를 바탕으로 한 소량다품종 생산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그리고 안경테 제조업은 勞動集約的 産業으로서 선진국에는 점차 사양화되어 가고 있는 바, 소재의 고급화 및 도금 등 가공기술의 개발과 세계적인 유행흐름에 맞는 다양한 「디자인」 개발 등을 통해 품질고급화를 추구하고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만 한다면 世界一流化 상품으로 육성이 가능하여, 앞으로 수출유망산업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域内の 안경(테)업체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살펴보면, 원자재 가격의 상승과 인건비 부담으로 輸出採算性이 악화되고 있는 데다가, 品質高級化의 미흡, 신소재 개발과 경영합리화의 부진 및 부품업자의 횡포 등으로 대외경쟁력이 크게 감퇴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자동화가 어려운 勞動集約業種의 특성상, 심한 인력난으로 인해 조업지장을 초래하고 있

는 것도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다. 게다가 品質高級化의 지연과 최근의 수입 안경테의 급증으로, 내수판매도 차츰 둔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금융세계면의 지원도 매우 미약한 실정이며, 안경(테) 제조업은 앞으로도 당분간은 고전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동업계가 지역의 持化産業으로서 성장·발전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첫째, 지역의 영세한 기업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同業種間 合併을 촉진함으로써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세제 등의 정책지원을 검토함이 바람직하며, 이와는 별도로 나사, 장식 등 부품업체를 최신 설비와 기술인력을 갖춘 일정규모 이상의 업체로 전문화함과 동시에 부품의 표준화를 통한 互換性を 부여함으로써 조립업체와의 유기적 연관을 갖도록 계열화하여야 한다.

둘째, 고급소재의 국산개발 촉진을 위하여 工業技術開發資金, 産業技術向上資金 등 기술개발자금의 적극 지원이 요망되고, 국내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수입이 불가피한 수출용 원자재의 경우, 선통관 후절차 수속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안경테 업체가 저가품 위주의 美國市場에서 채산성을 맞추기 어려워지자 고가품 수요가 많은 EC지역으로의 수출증대를 꾀한 결과, 최근들어 EC지역 수출이 급증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이와 같은 수동적인 것보다는 능동적인 輸出市場 多邊化가 앞으로는 요청되며 이를 위해서는 전문 「마케팅」요원의 양성이 필요하다.

넷째, 유통업계의 무분별한 안경테 수입은 안경테 제조업만이 아닌 유통업체마저 장기적으로 고사시킨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자제해야 할 것이며 수입대상을 尖端 素材의 제품이나 새로운 「디자인」의 제품등에 국한하는 선별적 수입이 필요하다.

다섯째, 기본적으로는 안경테 제조업체의 적극적인 R&D 투자가 필요하나 영세한 個人企業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지역 안경테업체로서는 이러한 능력이 부족하므로 정부보조와 業體出捐基金 등으로 기술개발을 위한 전문연구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섯째, 해외시장 정보를 신속히 입수할 수 있는 情報시스템 구축이 요망되나, 일부 업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체는 정보수집 능력을 거의 기대할 수 없으므로 광학공업협동조합, 안경사협회 및 전문연구기관 등이 이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 III. 食品工業

#### 1. 發展推移

1950년대 이전의 식품공업은 곡물도정, 수산물 통조림, 제분, 제당, 양조가 주를 이루었으며

기술수준도 유치하여 원료농산물을 단순처리 가공하는 정도였다. 소비계층도 일부에 한정되어 국민식생활과 크게 유리되었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 나라 식품공업의 태동기라고 보기는 어렵다. 해방 직후에도 심한 식량부족으로 인하여 식품공업이 발전적 전환을 맞을 제제는 아니었고 일제시대의 잔재로 남은 식품가공 공장이 영세한 가내수공업의 형태로 운영될 따름이었다.

그러나 6.25이후 UN단체의 원조로 人的, 物的 교류가 확대되면서 西歐食品이 우리 전통 식생활에 유입되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1956년 이후 美國의 잉여농산물의 도입을 계기로 제분, 제빵, 제면, 청량음료 제조업 등이 활발히 성장함으로써 국내 식품산업은 근대적 산업으로서의 면모를 서서히 갖추기 시작하였다.

1960년대는 경제개발계획의 순조로운 진행과 월남파병, 중동건설 등 特殊景氣에 힘입어 경제성장과 産業化가 빠르게 진행되었다. 또한 국민소득수준의 향상과 서구식 음식문화의 유입으로 전통 식생활이 점진적으로 와해되고 서구식의 식품소비「패턴」의 확대가 이루어져 加工食品의 내수시장 규모가 증대하였다. 이 시기에는 1950년대 후반에 성장기반을 조성한 산업들이 식품산업의 발전을 주도하였으며, 특히 주곡의 부족에 따른 정부의 적극적인 분식장려정책으로 제과, 제빵, 제면산업과 이들 산업의 素材産業인 製粉, 製糖, 澱粉産業이 함께 급성장하였다. 이어 1970년대에는 고도성장에 따른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라 공급측면에서는 경제성장에 따른 대규모 자본력의 형성, 운수, 통신, 도로 등 社會間接資本의 확대, 도시화의 진전, 산업기술인력의 확충 등이 이루어져 식품공업이 근대적 대규모 생산체제를 갖추 수 있는 여건이 성숙하였다.

이와 같은 시장확대와 생산여건의 개선에 힘입어 우리나라 食品工業은 비약적인 도약을 거듭하여 총생산액이 1966년 646억원에서 1975년 1조원, 1990년 13조원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외형적인 성장과 더불어 산업구조도 1960년대의 제빵, 제과, 제면, 제당, 조미료, 장유 중심에서 유가공, 육가공, 식용유지, 과채가공 등의 비중이 증대되었고, 대자본의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식품산업에서도 독과점의 대기업이 형성되었다(表 3-166).

그러나 1970년대 후반에 들어 자본시장의 개방확대와 함께 外國人 投資와 기술도입이 증가하게 되어, 과점적 시장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식품산업에서도 질적인 변화를 맞게 되었고, 이러한 현상은 1980년대에 들어 더욱 현저하게 나타났다.

〈表 3-166〉 食品加工産業의 部門別 生産額 推移 (單位: 億원, %)

年 度 別	1 9 6 6		1 9 7 5		1 9 8 5		1 9 9 0	
製 造 業	4,174	—	81,700	—	770,329	—	11,779,088	—
飲・食 料 品	646	—	10,407	—	65,940	—	131,043	—
食 料 品	381	100.0	7,293	100.0	52,259	100.0	103,522	100.0
肉 加 工	7	1.8	119	1.6	2,580	4.9	8,715	8.4
油 加 工	0	0.0	516	7.1	8,291	15.9	15,188	14.7
水 産 加 工	32	8.4	599	8.2	6,077	11.6	14,203	13.7
果 菜 加 工	3	0.8	170	2.3	1,319	2.5	3,422	3.3
穀 物 加 工	119	31.3	1,763	24.2	4,691	9.0	8,101	7.8
食 用 油	0	0.0	348	4.8	5,068	9.7	6,456	6.2
빵, 과자, 국수	45	11.7	1,798	24.7	12,519	24.0	24,113	23.3
食 品 添 加 物	43	11.3	445	6.1	3,689	7.1	6,870	6.6
其 他 食 料 品	132	35.0	1,535	21.0	8,024	15.0	16,453	15.9
飲 料 品	266	100.0	3,114	100.0	13,680	100.0	27,521	100.0
알 코 올 성	255	96.0	2,698	86.6	9,375	68.5	14,498	52.7
비 알 코 올 성	11	4.0	416	13.4	4,306	31.5	13,022	47.3

資料: 統計廳, 《鑛工業統計調查報告書》, 1992.

즉, 1980년대의 식음료업은, 국민소득수준의 향상과 산업화, 도시화의 급진전에 따라 가공 식품의 내수시장이 급속히 팽창 확대되었으며, 고급화, 다양화, 편의성,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욕구가 더욱 강렬해짐으로써 高附加價值 가공식품의 시장확대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식품산업은 두가지 어려운 여건에 봉착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정치사회적 해빙기를 맞은 1987년부터 노사분규가 확대되고 임금투쟁이 고질화되어 임금상승이 해마다 되풀이 되었고 이와 함께 기능직 및 단순노무자의 인력난이 겹치게 되었다. 또 국제수지 개선에 따라 외국과의 통상마찰이 발생하였고 수입규제가 심하였던 농산물과 가공식품에 대한 수입 개방이 전개되어 가공식품의 수입이 확대되기 시작한 것이다.

한편 대구지역 식품공업은 우리나라 食品産業이 發興期에 있던 1970년대 초반 하더라도 산업적 위치가 상당하여 1970년 중 사업체수가 238개, 종업원수 6,084명, 연간 부가가치가 94억1천9백만원에 이르러, 전체 광공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업체수 10.9%, 종업원수는 9.1%에 이르렀고, 특히 전체 광공업에서 차지하는 附加價值 비중은 27.2%에 이르러 지역의 주요 산업으로서 위치를 굳히고 있었다. 그러나 그 후 지역산업이 纖維, 자동차 부품 등을 비롯한 機械金屬 등을 중심으로 偏重 發展해 오며 따라 지역 식음료산업은 상대적으로 위축을 면치 못해 1985년에

이르러서는 업체수가 114개로 전체 광공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2%로 떨어졌고 종업원수도 6,057명으로 同比重이 4.0%에 그쳤으며, 그 해 연간 생산액은 2,926억 8백만원으로 지역의 전체 광공업대비 10.8%에 그쳤다.

## 2. 産業現況

이러한 지역 식품공업의 萎縮現狀은 1980년대 후반부터 지속되어 1990년 현재 대구지역 식품공업의 종업원 5인이상 총사업체수는 90개 사업체에 불과하며, 대구지역 9,546개 사업체의 1.9%를 점하는데 그치고 있다. 이 가운데 종업원 20인 이하의 소규모 업체가 전체의 63.3%를 차지하고 있어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지역의 식품공업에 종사하고 총 종업원수 5,144명 가운데 100인 이상 고용한 업체의 종업원수가 67.5%를 점하고 있어 몇개의 대규모 업체가 지역 식품공업을 주도하고 있다.

〈表 3-167〉 大邱 食品工業의 推移 (單位: 個, 名, 百萬圓, %)

	業 體 數	從 業 員 數	附 加 價 值	生 產 額
1 9 7 0	238(10.9)	6,084(9.1)	9,419(27.2)	—
1 9 7 5	164(6.9)	5,407(6.5)	22,575(16.0)	—
1 9 8 1	153(4.9)	5,744(4.0)	147,667(20.0)	275,584(14.9)
1 9 8 5	114(3.2)	6,057(4.0)	157,778(13.8)	292,608(10.8)
1 9 9 0	90(1.9)	5,144(3.1)	259,567(10.2)	454,371(7.9)

註: 종업원 5인 이상 기준

( )안의 비율은 대구지역 전체광공업에 대한 것임.

資料: 大邱市 市政專門 研究班, 《大邱都市行政基礎資料集》, 1989.

統計廳, 《鑛工業統計 調查報告書》, 1992.

또한 1990년 현재 유형고정자산 규모별 사업체수를 살펴보면, 3억원 이상을 보유한 업체수가 41개 업체로 지역전체의 45.5%를 차지해, 전국의 동비율 27.6%보다 높은 수준에 있어 지역 식품공업은 전국에 비해 대규모 업체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제품종류별 식음료업계의 총 사업체수에 있어서는 증류 및 합성주, 식품임가공, 빵, 과자 및 국수제조업 등은 종업원수에 있어서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 지역의 特化業種으로 분류될 수 있다.

〈表 3-168〉 大邱 食品工業의 規模別 業體現況 (單位: 名, 百萬元, %)

從業員 規模別			有形固定資產規模別		
區 分	全 國	大 邱	區 分	全 國	大 邱
計	4,674	90(1.9)	計	4,674	90(1.9)
5 ~ 19	2,837	57(2.0)	50 未滿	795	14(1.8)
20 ~ 199	1,640	28(1.7)	50 ~ 299	2,587	35(1.4)
200 ~ 499	142	3(2.1)	300 ~ 999	1,063	34(3.2)
500 以上	55	2(3.6)	1000 以上	229	7(3.1)

註: 종업원 5인 이상 기준. ( )內는 對全國比重임.

資料: 統計廳, 《鑛工業統計調查報告書》, 1992.

〈表 3-169〉 業種別 食料品製造業事業體數 및 從業員數 現況(1991) (單位: 個所, 名, %)

구 분	전 국 (A)		대 구 (B)		B / A	
	사 업 체	종 업 원	사 업 체	종 업 원	사 업 체	종 업 원
合 計	44,737	333,955	1,563	7,927	3.4	2.2
食 料 品 製 造 業	43,308	296,593	1,548	6,516	3.6	2.2
육 가 공	416	14,074	13	261	3.1	1.9
유 가 공	130	18,691	3	155	2.3	0.8
과 채 가 공	708	13,266	21	455	3.0	3.4
수 산 가 공	3,248	63,668	19	181	0.6	0.3
식 용 유	2,954	8,783	208	343	7.0	3.9
곡 물 가 공	14,081	33,512	163	542	1.2	1.6
빵, 과 자 및 국 수	5,712	63,491	274	2,268	4.8	3.6
설 탕 제 조	26	2,737	—	—	—	—
식 품 임 가 공	13,877	31,605	787	1,544	5.7	4.9
식 품 첨 가 물	592	17,463	20	186	3.4	1.1
기 타 식 료 품	1,336	18,409	36	303	2.7	1.6
배 합 사 료	228	10,894	4	278	1.8	2.6
飲 料 品 製 造 業	1,429	37,362	15	1,411	1.0	3.8
증 류 및 합 성 주	62	7,294	6	625	9.7	8.6
발 효 주	1,269	8,017	6	265	0.5	3.2
맥 주	8	4,824	—	—	—	—
비 알 코 올 성	90	17,227	3	530	3.3	3.1

註: 종업원 5인 이상 기준임.

資料: 韓國統計協會, 《總事業體 統計調查報告書》, 1992. 12.

한편 1990년 현재 대구지역 식음료업의 종업원규모별 附加價值 및 生産額을 살펴보면 종업원 규모 500인 이상인 업체에서 전체 부가가치치의 48.5%, 生産額의 38.8%를 창출한 반면 종업원



100인 이하의 소규모 업체에서는 부가가치의 9.7%, 생산액의 17.3%만을 점하고 있어 전체 사업체수 가운데 종업원 100인 이하가 차지하는 업체비율 86.7%와 비교해 보면 대구지역 식품공업의 부가가치 및 생산액은 소수의 중 대규모 업체 중심으로 창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事業體 規模別 附加價值 및 生産額 現況(1990)  
〈表 3-170〉 (單位: 名, 百萬元)

	附加價值	生産額
계	59,567(100.0)	454,371(100.0)
5 ~ 9	1,448( 0.6)	2,628( 0.6)
10 ~ 19	3,895( 1.5)	10,816( 2.4)
20 ~ 29	6,440( 2.5)	18,311( 4.0)
50 ~ 59	13,267( 5.1)	46,925( 10.3)
100 ~ 199	75,056( 28.9)	136,199( 30.0)
200 ~ 299	9,113( 3.5)	25,388( 5.6)
300 ~ 499	24,563( 9.5)	37,838( 8.3)
500 이 상	125,785( 48.5)	176,266( 38.8)

資料: 統計廳, 《鑛工業統計調查報告書》, 1992.

### 3. 發展課題

이제까지 식품공업에 대해 정부는 단순히 식량증산책의 일환에서 특히 소비재 생산업으로 인식하여 기술 및 재정지원, 설비금융, 세제 지원을 소홀히 해왔다.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해 지역업체 또한 대부분의 업체가 영세하여 기술개발의욕이 미흡하였고, 그에 따라 동업계는 勞動裝備度가 특히 낮아 제조비용 중에서 차지하는 材料比率이 높은데 반해 附加價值率

은 저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리고 유통면에서는 同 産業이 도매상을 통한 위탁판매 등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아 이에 따른 대금결제 지연 등으로 인한 경영압박, 품질저하의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

이러한 여건에서 볼 때 지역의 食飲料業이 2천년대 도시형산업으로서 成長基盤을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역경제계의 식품산업에 대한 인식제고와 더불어 동산업에 대한 産業支援과 생산기술개발체계를 획기적으로 확충하여 독자적인 발전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식품산업의 流通構造를 개선하여 내수시장 및 수출구조를 확충해 나가되, 특히 中央 및 地方政府 차원에서의 지원정책의 강화로 식품류의 수출을 촉진해 나감으로써, 輸出有望産業으로 육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 Ⅳ. 化學工業

### 1. 發展推移

대구지역의 화학 및 화학제품 제조업은 1963년 초만 하더라도 섬유 및 기계공업과 함께

지역의 주종산업으로서의 위치를 굳히고 있었으나, 기업규모의 영세화, 시설의 전근대성, 大邱에 대한 중화학 공업정책으로 부터의 정책지원 소외 등으로 인해 지역의 화학공업은 전국에서 차지하는 점유비중이 점차 감소되어 1991년 현재 사업체수는 전국의 6.3%, 종업원수는 1.9%에 불과하다. 그 결과 同業界는 사업체규모도 더욱 축소지향적이 되어 1991년 현재 대구전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사업체수 4.3%, 종업원수는 4.1%를 점하고 있으나, 종업원 20인 미만의 영세업체가 약 80%를 차지함으로써 사업체당 종업원수가 9.3명에 불과해 전국의 33.4명의 1/3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1960년대의 大邱의 화학 및 화학제품 공업이 주로 생산했던 제품은 동물성 유지, 비누, 도료, 성냥 등의 생산에 국한되어 있었고, 공업용 기본화학 제품으로는 「카바이트」, 산소, 가스소다, 산화제2철, 유산동 화학 등이 약간 생산되었다. 동물성 유지로는 비누 및 식물성유지, 도료로서는 광명단, 「니스」, 기타화학 제품으로 인쇄잉크, 양초가 생산되었다. 그리고 당시 이들의 생산형태는 수입원료를 가공하여 소비재를 생산하는 것에 불과했다. 이와 같이 지역의 화학공업 중 여타산업에 파급효과가 큰 공업용 기본 화학제품 공업의 기반이 약한 것은 大邱의 産業立地가 수입원재료 조달면에서 불리한 內陸都市일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생산되는 원료의 주산지와의 원거리에 있어 원료확보면에서 불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大邱는 전국의 약 1/3을 점하는 섬유공장이 집적되어 있어서 염색가공공업의 큰 시장을 제공하고 있으며, 대도시 및 인근 농촌지역의 일용 화학제품의 수요와, 공업도시로서의 화공약품의 수요면에서 유리한 시장조건을 구비하고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조건은, 용수나 원료조건에 비해 입지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할 뿐더러, 大邱의 시장규모 그 자체도 그 대부분이 지방적인 것에 불과하여 化學工業의 適地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大邱의 화학공업은 지리적 위치의 특색을 살려 주로 농촌시장을 상대로 하는 화학공업을 발전시켜야 할 입장에 있다. 더욱기 大邱는 비료공업이나 공업용 기초화학제품 공업에는 적당한 곳이 못되므로 지방 중심도시로서의 일반적 이점도 화학공업부문에 있어서는 제기능을 못하고 있다. 다만 소자본과 낮은 기술수준으로도 가능한 농약업, 성냥공장, 화장품공업, 비누공업, 기타 일용화학 제품공업은 지방적이긴 하나 비교적 안정된 시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1991년 현재 大邱의 化學 및 化學製品 工業이 전국에서 점하는 평균 비중을 상회하는 업종은 사업체수에 있어서 염료, 안료 및 유연제제조업, 화학섬유제조업, 타이어 및 튜브제조업, 기타 플라스틱제조업 등이고 종업원수에 있어서는 화학섬유, 농약, 기타 플라스틱제품으로 나타나

나타나 一般消費財 化學製品製造業 위주로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1990년 현재 화학공업이 지역 전체공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70년대에 비해 사업체수는 6.1%로 다소 높아졌으나 종업원수, 부가가치는 각각 3.2%, 3.5%에 그쳐 1970년대에 비해 그 비중이 크게 낮아졌다.

〈表 3-171〉 大邱 化學工業의 推移 (單位: 個, 名, 百萬元)

區 分	業 體 數	從 業 員 數	附 加 價 值	生 產 額
1 9 7 0	118(5.4)	4,013(6.0)	3,893(11.2)	—
1 9 7 5	125(5.3)	3,406(4.1)	3,422(2.4)	—
1 9 8 1	191(6.1)	4,436(3.1)	29,401(4.0)	108,546(5.9)
1 9 8 5	211(5.9)	4,015(2.6)	39,387(3.5)	155,392(5.8)
1 9 9 0	292(6.1)	5,328(3.2)	88,836(3.5)	268,914(4.6)

註: 종업원 5인 이상 基準

( )안의 比率은 全體鑛工業에 대한 것임.

資料: 大邱市 市政專門研究會, 《大邱都市 行政基礎資料集》, 1989.

統計廳, 《鑛工業統計調查報告書》, 1992.

## 2. 産業現況

大邱地域 화학공업의 종업원 5인 이상 사업체수는 1990년 말 현재 292개로 전국의 7,824개 사업체수의 3.7%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종업원 19인 이하의 소규모 업체가 전체의 79.1%를 차지하고 있어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990년 현재 유형고정자산 규모별 사업체수를 살펴보면, 500백만원 미만이 전체의 80.5%를 차지해 전국의 73.2%보다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유형고정자산을 중심으로 살펴본

〈表 3-172〉 大邱化學工業의 規模別 事業體數現況(1990) (單位: 名, 百만원, 個, %)

從 業 員 規 模 別			有 形 固 定 資 產 規 模 別		
區 分	全 國	大 邱	區 分	全 國	大 邱
計	7,824	292(3.7)	計	7,824	292(3.7)
5 ~ 19	4,338	231(5.3)	100 미만	2,952	75(2.5)
20 ~ 199	3,170	59(1.9)	100 ~ 499	2,775	160(5.8)
200 ~ 299	110	2(1.8)	500 ~ 4,999	1,818	56(3.1)
300 以上	206	— (—)	5,000 以上	279	1(0.4)

註: 종업원 5인 이상으로 ( )內는 對全國占有比임.

資料: 統計廳, 《鑛工業統計調查報告書》, 1992.

대구지역의 화학공업은 全國對比 소규모 업체가 중심이 되고 있으며 특히 종업원 100~499인 사업체 수가 전체의 54.8%를 점하여 主軸을 이루고 있다.

한편 大韓統計協會가 발표한 1991년 현재 대구지역 화학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 총사업체수는 927개로 전국 1만 3,843개의 6.7%, 종업원수는 8,620명으로 전국 46만 2,184명의 1.9%를 점해, 사업체당 종업원수가 9.3명으로 전국 33.4명의 1/3에도 미치지 못하는 영세업체가 대부분이다.

대구지역 화학 및 화학제품 제조업 중 화학섬유, 타이어 및 튜브, 염료 안료 및 유연제 제조업 등이 사업체수에 있어서, 화학섬유, 농약, 기타 플라스틱제조업 등은 종업원수에 있어서 전국에서 점하는 비중이 비교적 높은 업종으로 나타나 特化業種으로 분류할 수 있다.

〈表 3-173〉 業種別 化學 및 化學製品 事業體 및 從業員數 現況(1991) (單位: 個所, 名, %)

구 분	전 국(A)		대 구(B)		B / A	
	사업체	종업원	사업체	종업원	사업체	종업원
총 계	13,843	462,184	927	8,620	6.7	1.9
產 業 用 化 學 物	3,193	90,599	237	2,555	7.4	2.8
유 기 화 학	1,564	37,715	67	396	4.3	1.1
무 기 화 학	317	13,311	20	218	6.3	1.6
염 료, 안 료 및 유 연 제	221	6,160	19	180	8.6	2.9
화 학 섬 유	906	23,669	126	1,579	13.9	6.7
화 학 비 료	142	5,751	3	22	2.1	0.4
농 약	43	3,993	2	160	4.7	4.0
其 他 化 學 製 品	2,518	121,048	112	823	4.4	0.7
도 료	332	11,465	14	79	4.2	0.7
의 약 품	911	59,718	48	289	5.3	0.5
비 누, 세 정 제, 계 면 활 성 제	379	26,292	14	188	3.7	0.7
기 타 화 학 제 품	896	23,573	36	267	4.0	1.1
석 유 정 제 업	60	18,608	2	8	3.3	0.04
기 타 석 유 및 석 탄 제 품	438	15,156	11	442	2.5	2.9
고 무 제 품	1,737	101,772	133	980	7.7	1.0
타 이 어 및 튜 브	169	25,048	16	102	9.5	0.4
기 타 고 무 제 품	1,568	76,724	117	878	7.5	1.1
기 타 프 라 스 틱 제 품	5,897	115,001	432	3,812	7.3	3.3

註: 종업원 5인 이상 기준.

資料: 大韓統計協會, 《總事業體 統計調查報告書》, 1992. 12.

한편 1990년 현재 대구지역 事業體 規模別 附加價值 및 生産額을 살펴보면 종업원 100인 미만인 업체에서 전체 부가가치의 67.9%, 생산액의 66.9%를 점하고 있으나 전체 사업체 가운데 종업원 100인 이하가 차지하는 업체비율이 98.3%와 비교해 보면 매우 낮은 수준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대구지역의 화학공업은 종업원 100인 이상 업체 5개가 전체 부가가치의 32.2%를 創出하고 있어 소수의 몇개 중규모 업체가 지역화학 공업을 주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表 3-174〉 大邱 化學工業의 從業員 規模別 附加價值 및 生産額 現況(1990) (單位: 名, 百萬元)

구 분	부 가 가 치	생 산 액
計	88,836(100.0)	268,914(100.0)
5 ~ 19	28,840(32.5)	73,884(27.5)
20 ~ 99	31,459(35.4)	105,901(39.4)
100 ~ 199	7,774(8.8)	24,370(9.1)
200 ~ 299	20,763(23.4)	64,759(24.1)

註: 종업원 5인 이상 기준

資料: 統計廳, 《鑛工業 統計調查報告書》, 1992.

### 3. 發展課題

화학공업은 기술혁신이 어떤 공업보다 빠르게 진척되기 때문에 技術條件이 매우 중요한 立地因子가 되고 있다. 그러나 大邱의 화학공업은 기업규모의 영세성으로 인해 현대적 실험실이나 부설연구소를 갖춘 기업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기술자와 숙련노동자의 부족으로 해외기술 습득률이 매우 낮고, 근대적 경영을 할 만한 대자본을 획득하기가 어려워, 관련 화학공업간의 連繫도 불충분하며 계열화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심각한 원료구독난에 따른 어려움, 낮은 부가가치, 자본의 영세성 등으로 인해 일관성 있는 기업경영이 곤란하다. 여기에 더하여 대구지역의 화학공업은 제품포장 비용이 높고, 수요가 한정된 내수시장구조로 유통부문도 낙후되어 있다.

이러한 여건에서 지역 化學産業이 지속적 발전을 추구해 나가기 위해서는 경영전반에 대한 합리화의욕의 고취와 관리제도 및 기술도입에 힘써 나가는 한편, 생산시설의 현대화와 노후 시설의 교체, 고급제품의 생산과 품질관리의 실시, 실험 및 시험시설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제도적으로는 화학제품 생산기술 교육을 강화하고 產學連繫를 통한 기술개발과 해외기술정보를 최대한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체제를 강화하고 특히 유통구조의 개선을 추구해

나가되, 정부당국은 신제품 개발, 업종전환, 시설고도화 등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 V. 課題와 展望

이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大邱의 工業構造는, 纖維業과 일부 기계부품제조업을 중심으로 偏重, 發展해 왔다. 그에 따라 이를 제외한 여타산업은 산업여건의 미비와, 1970년대 서울 大企業의 지역 시장 浸透등으로 産業發展이 상대적으로 위축되어 왔다. 특히 광업의 경우, 大邱大都市의 특성상 이제 산업으로서의 기반을 거의 상실하였으며, 기타공업은 공통적으로 소규모의 영세기업들로 구성되어 있으면서도 몇개의 소수 대기업이 대부분의 附加價値를 創出하고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에서 大邱産業의 未來像을 내다 볼 때,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역에서 主流를 이룰 산업은, 현재의 지역 主宗産業인 섬유업과, 이미 상당한 정도로 지역적 産業基盤을 갖고 앞으로 城西工團의 첨단산업과 三星自動車의 立地, 達成 龜旨에의 雙龍自動車의 立地 稼動등을 감안할때, 이들 산업이 大邱의 산업발전을 主導해 나갈 것으로 전망되고는 있다. 그러나 앞으로도 大邱의 大都市化는 더욱 빠른 속도로 進展될 것이고, 그에 따라 都市産業이라 할 수 있는 食·飲料製造業, 都市型雜貨工業, 그리고 大邱의 특화산업의 하나라 할 수 있는 우(양)산제조업, 안경(테)제조업 등은 大邱의 人口와 都市規模의 확대 등과 더불어, 정책당국의 支援如何에 따라서는 量과 質의 양면에서 더욱 高度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하겠다.

이러한 여건에서 其他工業의 앞으로의 과제와 전망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예산업을 육성·강화하기 위한 제도로는 먼저 大邱市가 大邱를 상징할 수 있는 공예품의 지정과 육성이 시급하다는 점이다. 아울러 大邱에도 공예품 전문생산업체가 성장할 수 있도록 금융 세제면에서의 지원과 工藝協業團地를 조성하고, 협동화사업장을 마련하는 등 제반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공예업의 육성을 위하여 수출지향적인 제품 및 디자인의 개발, 유통구조의 개선, 판촉활동의 강화 및 적극적인 수출「마케팅」등을 촉진하여야 한다.

둘째, 양산(우산)업의 경우를 보면, 역시 계속되는 임금 및 원자재 가격의 상승과 技能人力의 求得難 등으로 채산성 악화가 지속될 전망이다 바, 품질개선 및 자사상표 개발, 신시장개척을 위한 노력 등과 함께 급변하는 유행감각에 편승한 새로운 素材와 新製品 및 高價商品 개발로 수출 시장의 확대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그외에도 기술개발을 위한 지속적 노력과 아울러 당국의 정책적·금융적·세제적 지원도 병행되어야 한다.

셋째, 안경(테)제조업의 경우 지속적인 原·副資材 가격의 상승과 심화되는 인력난으로, 채산성의 악화와 조업지장이 더욱 현저해질 전망이어서, 「패션」貨·個性化에 따른 多品種 少量生産體制의 확립과 제품고급화 및 新素材 개발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인력난 해소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당국도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sup>22)</sup> 한편 해외시장에서의 홍보강화와 더불어 新市場의 개척노력을 활발히 하고, 저가 덤핑수입품에 대한 규제책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城西에 조성된 협동화사업장은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生産性 및 품질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수출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

넷째, 식품공업의 경우, 사회구조변화에 따른 식품 소비「패턴」의 가속화는 식품산업의 발전과 구조적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油加工, 肉加工, 비알코올성 음료, 식용유지 등이 높은 성장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대구지역 특화업종인 과자류제조업, 식육제품제조업, 면류제조업, 도시락제조업 등도 제품고급화로 대외경쟁력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또한 地方政府로서는 稅制, 技術, 財政支援 등을 확대하고 유통구조를 개선하여야 한다.

다섯째, 화학공업은 대부분이 原料輸入港 및 大消費市場을 끼고, 대도시 중심으로 최종 소비재형태로 발전되어 왔으나, 기업규모의 영세화, 시설의 전근대성, 중화학공업정책으로 부터의 소외 등으로 인해 地域占有度가 감소해 왔기 때문에, 대구지역에서도 비교적 취약한 위치에 있다. 따라서 蔚山 석유화학공업단지와의 연관성을 제고하고, 석유화학 2차생성물가공업, 플라스틱제조업, 농약제조업 등을 유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수입원료의 구득난과 화학공업 기술자 및 숙련노동자의 부족이 앞으로 동업계가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이다.

## 第5節 工業團地

### I. 工業團地の 造成過程

#### 1. 工業團地 造成背景

대구는 지리적으로 영남의 내륙에 위치하고 있어 임해지역의 도시처럼 대단위의 중화학공업이

22) 특히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실질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은행의 과감한 신용대출 확대와 더불어 각 업체들의 계속적인 자구노력도 요망되는 바이다.

입지하기는 여건상 불리하다. 그러나 이와같은 불리한 여건을 오래 전부터 최대한 활용하여 도시계획상 공업지역을 인정하고 공업단지를 조성하여 지역경제 발전의 전인차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현재의 대구·경북지역의 공업기반은 대구의 공업단지를 중심으로 하여 칠곡~구미~김천을 연결하는 전자·섬유중심의 공업「벨트」와 임해공단과 내륙공업을 연결하는 포항~대구의 공업「벨트」를 형성하여 발전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공업의 단지화가 효율적인 것은 공업단지 구성에 따른 기업의 집중화가 원료, 제품의 공동구입이나 공동판매 등을 통해 개별기업의 수익성을 제고시킬 뿐만 아니라 공업단지 내의 기업 간에 제품이나 서비스 등의 상호교환으로 보완관계를 증진시켜 기업상호 간의 계열화를 촉진할 수 있다. 또한 기술, 금융, 경영, 판매 등 각 분야에 걸쳐 정보와 지식, 시설 등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해 원가절감과 외부경제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어 공업의 단지화가 공업기반의 질적 충실화를 이룩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특히 대구지역에서의 공업단지의 조성은 日帝下인 1936년 7월 22일, 朝鮮總督府 告示 第765號로 칠성동, 태평로 3가, 원대동, 침산동, 비산동, 평리동, 조야동, 노곡동 일대의 총면적 638만 2,085㎡규모가 일단의 공업입지 조성지구로 지정된 데서 비롯된다.

그 후 2차대전 말엽인 1941년에 일본이 軍需物資生産에 박차를 가하기 위하여 1936년에 조성한 공업지대 가운데 시가지에 인접해 있었던 칠성동, 태평로3가, 침산동, 원대동에 걸쳐 있는 농지 18만평을 공업단지로 조성하여 대한방적을 비롯한 17개의 섬유공장과 기계제작공장 2개, 고무공장, 타면공장, 염색공장 등 모두 26개 공장을 입주시켰다. 이것이 대구지역에서의 공업단지 성장의 출발로서 오늘날 제1공업단지인 것이다.

우리나라에서의 공업단지개발계획이 본격화된 것은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에 의해 공업화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1962년부터이다. 이 당시 정부는 석유화학공업의 건설을 위해 울산지역에 석유정제 콤비나트의 건설을 착수하였으며, 1964년에는 輸出産業工業團地 開發造成法을 위시하여 1970년의 地方工業開發法을 제정하는 등 우리나라 공업단지 조성의 제도적 체제를 확정하였다.

이에 따라 중화학공업단지로서 포항, 여수, 진해 등에 임해공업단지가 조성되었고, 경공업단지로서 서울 구로동에 수출공업단지가 조성되고, 마산에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輸出自由地域이 건설되었으며, 각 지방에 따라 지방단지로서 내륙공업단지가 개발, 조성되기에 이르렀다.<sup>23)</sup>

23) 대구상공회의소, 大邱經濟總鑑, 1985, pp. 683~685.



## 2. 經濟開發計劃과 工業團地의 造成

우리나라에서 공업단지계획이 본격화된 것은 지난 1962년 경제개발계획이 추진된 이후이지만 대구는 이보다 훨씬전인 1936년 이미 도시계획상 工業地區의 概念이 도입되어 제조업체를 工業團地에 集團化시킴으로써 企業集積의 효과를 누려 왔다. 1985년 현재 대구지역에는 4개의 공업단지와 5개의 공업지역이 조성되어 총 1만 168만 7천㎡의 공업용지를 확보하고 있다. 이들 공업단지지역 내에는 대구지역 전제조업체의 30.2%에 해당하는 1,091개 업체가 입주하여 지역경제의 발전은 물론 우리나라 경제의 고도성장을 이룩하는 데 획기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

특히 대구는 內陸工業都市로서의 工業構造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1차 성장거점도시로서의 중추관리기능의 역할이 주어져 있으므로, 무엇보다도 공업기반의 질적 충실화를 통한 경제효과를 최대한 높일 수 있는 공업의 단지화가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절실하며 그 효과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고도성장과정에서 전진기지로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다해 온 공업단지는 현재 대구지역을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70여개에 이르고 있으며, 앞으로의 정부정책방향이 대도시 인구 및 산업입지의 억제와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대도시 공장의 지방분산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공업단지의 조성·발전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일련의 정부시책으로 인해 대도시이지만 경제력이 가장 허약한 대구지역에는 새로운 공업입지가 사실상 어려운 형편이며 공업의 재배치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대구지역에는 공업입지가 전지역에 산재하고 있어 도로교통이나 공해문제 등 도시환경과 상충되는 점과 공업용지의 한계성 등 어려운 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나, 산업도시로서의 대구도시발전의 모색과 점증되고 있는 공업용지수요에 대응하여 새로운 발전의 핵으로서 공업단지조성과 공업용지확보가 보다 절실한 실정이다.

또한 정부에서는 1975년 12월 31일 「工業團地管理法」를 제정, 공포하여 전국 공업단지의 관리를 일원화함으로써 법정관리공단을 상공부가 직접 관장하고 있다. 현재 공업단지관리법 적용대상공단으로 상공부가 관리하고 있는 법정관리공단은 마산, 이리 등 2개의 輸出自由地域을 비롯해서 구미, 창원, 여천 등 7개의 「직할공단」 및 인천, 대구, 포항 등 14개의 「지방공업단지」, 그리고 2개의 「민간공업단지」로 되어 있다.

그리고 기타 일반 민간 공업단지로서 우리나라 최초의 울산 석유화학 공업단지를 비롯해서 군산임해공단, 진주상평공단, 부산의 사상공단, 소촌공단, 순천공단, 인천의 금호실업(주)주안공단 등 16개의 일반공단이 조성 내지 건설중에 있다.

### 3. 輸出主導成長期の 工業團地

1970년대 이후 대구의 공업화는 종전까지의 자유입지에서 벗어나 의도적으로 공업단지를 조성하여 추진한 데에 그 특징이 있다. 1960년대에 조성된 제3공업단지는 1970~1973년 사이에 본격적으로 가동되었고, 1970년대에는 西大邱工團, 檢丹工團, 飛山染色工團이 조성되었으며, 1980년대에는 城西·月背工團이 조성되고 있다.

흔히 梨峴工團으로 불리는 서대구공업단지는 용도지역 위반공장을 집단화하여 공해방지 및 기업의 계열화를 유도할 목적으로 조성되었다. 이 단지는 1,2차로 나누어 조성되었는데, 총 면적이 73만평으로 대구시의 공업단지 중 市有地로는 그 규모가 가장 큰 都市型 內陸工業團地이다. 1차지구의 경우, 1975년 7월 건설부고시 제126호로 시설결정이 승인되었고, 다음 해인 1976년 3월 경북도고시 제25호로 조성계획이 인가됨으로써 본격적인 단지조성에 착수, 1977년 12월 말에 조성되었다. 그리고 2차지구는 1978년 9월에 착공되어 1980년에 완공되었다.

다음으로 1975년 12월에 완공된 검단공업단지는 섬유공업전문화 단지라 볼 수 있다. 이 단지는 섬유공업도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고용증대 및 소득향상을 목적으로 조성되었으나 단 지이전이 고려되고 있다.

국내 최초의 염색전용 전문화단지인 飛山染色工團은 1978년 5월부터 조성에 들어가 1981년에 거의 입주가 완결되었다. 이 단지는 대구시내에 산재해 있는 염색업체들을 집단화하여 공해요인의 효율적 처리와 시설확장 및 근대화로 제품의 질을 높여 국제경쟁력을 제고할 목적으로 조성되었다.

1960년대 이후 본격적인 공업단지의 조성은 대구의 공업발전과 시설의 근대화에 큰 밑거름이 되었다. 그러나 공단입주업체의 대부분이 섬유공업이고 이들은 대부분 최신시설의 도입과 증설을 도모함으로써 섬유일변도의 공업구조를 더욱 심화시켰다고 생각된다. 투자주체의 문제, 새로운 업종의 유도곤란 등 여러가지 제약요인이 있었겠으나 공업단지의 조성이 산업구조의 개편에 보다 적극적인 기여가 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대구지역에는 1985년 현재 대구지방공업단지, 서대구공업단지, 비산염색공업단지, 검단공업단지 등 4개의 공업단지와 성서지역, 월배지역, 태전지역, 안심지역, 고산지역 등 5개의 공업지역이 있다. 특히 대구의 공업단지는 지난 1941년의 침산동 일대의 제1공단을 시발로 1967년의 제3공단조성과 더불어 1970년대 후반에 여타 공업단지가 조성되었다. 대구지역의 총 공업입지면적은 대구시 전체면적의 2.6%에 해당하는 1만 1,168천㎡로 이 가운데 공업단지가 5,032천㎡, 공업지역이 6,65만 5천㎡이다.

대구의 각 공업단지와 공업지역의 규모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업단지로는 서구 이현동 일대의 서대구공업단지가 대구지역 공업단지 총면적의 48.0%에 해당하는 241만 7천㎡로 규모 면에서 가장 크다. 그 다음이 북구 노원동 일대의 제3공업단지가 전체면적의 21.8%인 109만 4천㎡이며, 검단공업단지는 79만㎡인 15.7%, 비산염색공업단지가 14.5%에 해당하는 73만 1천㎡의 면적을 확보하고 있다. 이들 공업단지의 공장용지는 전체면적의 79%인 397만 7천㎡이며, 나머지는 공공용지에 사용되고 있다.

공업지역으로는 성서지역이 전체 공업지역 면적의 43.6%인 290만 5천㎡로 15.1%, 태전지역이 95만 9천㎡로 14.4%, 고산지역이 전체면적의 10.5%인 69만 8천㎡의 용지를 확보하고 있다. 이 가운데 공장입지면적의 구성은 공장단지가 43%, 공업지역이 57%로서 공업단지화가 미진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대구지역 공업용지는 공업용지가 공업입지 총면적의 76%인 890만 4천㎡이며, 이 가운데 44.6%가 공업단지로 조성된 공업용지이고, 나머지 55.4%가 공업지역으로 설정된 지역의 공장용지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960년대에 조성된 울산, 포항, 마산 등 임해공업단지와 창원, 여주 등 신공업기지 개발로 동남해안공업지대의 골격을 형성하였으며, 청주, 군산, 광주 등 24개의 지방공업개발 장려지구를 지정 개발하였다.

〈表 3-175〉 工業團地現況 (1984. 12. 31) (단위: 천㎡, 개)

團 地 別		面 積	工 場 用 地	業 體 數				
				計	纖維	機械	化學	其他
工業 團地	計	5,032	3,977	563	327	115	36	85
	3 工 團	1,094	969	154	86	44	6	18
	檢 丹 工 團	790	724	5	4			1
	西 大 邱 工 團	2,417	1,696	316	150	71	30	65
	飛 山 染 色 工 團	731	588	88	87			1
工業 團地	計	6,655	4,927	528	332	33	38	125
	城 西 地 域	2,905	1,928	180	117	11	15	37
	月 背 地 域	1,091	873	160	109	8	5	38
	太 田 地 域	959	767	96	49	2	14	31
	安 心 地 域	1,002	800	21	10	4	2	5
	孤 山 地 域	698	559	71	47	8	2	14

資料: 대구상공회의소, 《大邱·慶北 工業團地 現況》, 1991.

#### 4. 工業團地別 製造業體 分布現況

대구지역내의 공업단지와 공업지역에 입주하고 있는 업체수는 총 1,091개 업체로, 공업 단지에는 전제조업의 15.6%인 563개업체가 있으며, 공업지역에는 14.6%인 528개 업체가 입지하고 있다. 이것을 업종별로 구분해 보면, 공업단지에는 섬유제조업체가 327개, 기계업체가 115개, 화학이 36개, 기타업체가 85개 등이며, 공업지역에는 섬유업체가 332개, 기계업체가 33개, 화학이 38개, 기타업체가 125개업체이다.

특히 기계분야 업체의 경우 제3공업단지에 44개업체, 서대구공단에 71개업체 등 일부 공업 단지에 밀집되어 있어 집적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나, 공업지역에는 여러 지역에 산재하고 있어 기계공업체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내의 주축 공업단지의 조성이 기대되고 있다.

## II. 産業環境과 工團造成 背景

우리나라의 공업화 과정에서 두드러진 현상은 공업입지가 서울, 부산 등 양대 도시와 몇몇 신산업도시에 집중되어 지방도시의 공업화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양상을 띠게 되었다는 점이다. 대구의 공업이 지난 197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경북공업의 중심이었으나 인근의 구미, 포항등에 대규모의 산업공단이 들어서면서 대구의 중심적 위치는 감소되었다. 뿐만 아니라 행정기능상 대도시로서의 역할 때문에 공업입지의 어려움이 내재하게 되고, 도심지의 공장들이 외곽지로 이전하게 되는 산업환경의 변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 1. 工業立地の 混在

대구의 공업입지는 대체적으로 도심지에서 주변지역에 이르기까지 전지역에 분산적 형태를 나타냄에 따라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등 비공업지역과 공업지역과의 합리적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용수조건만을 고려하거나 또는 교통 편익시설만을 부분적으로 감안하여 이루어져 있어 도시종합체제상의 기능배분이 미흡하여 공장과 시설의 무계획적 난립과 심각한 도시환경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앞으로 공업입지 선정에 대한 새로운 정책상의 과제로 나타나고 있다.

〈表 3-176〉 地目別 土地利用現況 (1979) (단위: km<sup>2</sup>)

地目 區域	總計	田	畓	垡地	公園	道路	工場	其他	備 考
大 邱 市	179.72	14.95	12.69	39.34	0.24	14.78	4.09	92.63	임야등을 위시한 鐵道, 水道, 과수 원, 잡종지, 宗教 學校, 河川등 用地 가 包含돼 있음
中 區	4.63	—	—	2.93	0.14	0.94	—	—	
東 區	46.66	1.84	3.10	13.09	0.03	4.99	0.21	—	
西 區	21.36	2.46	1.07	7.67	0.03	3.01	1.21	—	
南 區	19.73	0.24	0.76	7.53	0.02	2.19	—	—	
北 區	38.26	4.46	2.64	6.63	0.01	2.41	2.50	—	
東 村	49.08	5.95	5.8	1.49	—	1.25	0.16	—	
周邊地域	90.46	43.08	13.81	5.17	—	—	—	—	開發對象地域 開發制限區域
	466.92	—	—	—	—	—	—	—	
編入地域	276.96	27.39	40.82	11.34	—	—	—	198.51	

資料: 大邱市 都市計劃課

특히 대구가 직할시로 승격되면서 이웃 편입지역(276.96km<sup>2</sup>)을 포함하여 전체면적이 456.68km<sup>2</sup>로 광역화가 이루어졌으나, 지역별 토지이용을 보면 공업입지 개발을 확대하지 않으면 새로운 산업공단의 설정문제는 어려울 것이고 도시 산업환경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表 3-177〉 可用土地資源 分布 (단위: km<sup>2</sup>)

區 分  區 域		總面積	對 象 地 域			開發除限  區 域	備 考
			計	可 用 土 地	不可用 土 地		
都市計劃區域		735.98	204.96	158.84	46.12	531.02	(편입지역 포함)
大 邱 市		178.60	114.56	85.52	28.98	64.10	
周 邊 地 域		557.38	90.46	73.32	17.14	466.92	
開發豫定區域		209.25	203.82	129.54	74.28	5.43	
調 查 區 域		945.23	408.78	288.38	120.40	536.45	
構成比  (%)	總 面 積	100.00	27.85	21.58	6.27	72.15	
	大 邱	100.00	64.14	47.88	16.26	35.86	
	周邊地域	100.00	16.23	13.15	3.08	83.77	(편입지역 포함)

資料: 大邱市 都市計劃課

## 2. 工業立地와 公害

1985년 현재 대구지역에는 4개의 공업단지와 5개의 공업지역이 조성되어 있으나 모든 공장들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더우기 시내의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등 비공업 지역에 산재한 1,500여 공장을 이전시킬 여지가 없는 상태이다.

이와 같은 공장의 산재는 그 생산과정이 家内手工業에서 출발한 中小企業이 대구공업의 大宗을 이루고 있는데 그 원인이 있겠으나, 제1공업단지나 제3공업단지, 서대구공단, 비산염색공단, 검단공단 등을 제외하고는 효과적인 공업단지 조성이나 공업지역의 조성이 미비한 데 더 큰 원인이 있다고 하겠다.

## 3. 工業立地の 問題點

급속한 도시화와 공업화 과정에서 대구는 서울이나 부산 등 양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전속도가 완만했으며 공업기반시설도 미약한 것이 사실이다. 더우기 대구는 대도시이면서도 경제력이 허약하다는 이중구조의 와중에서 공업입지 설정에는 다음 두가지 문제인식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대구가 대도시로서 과밀화나 공해로부터 도시와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더이상의 공장증설이나 공업단지 자체를 조성해서는 안되고 오히려 중소도시나 농촌지역으로 이전해야 한다. 둘째, 대구는 경제력의 저하로 인해 낙후된 도시로의 전락을 막기 위해서는 보다 큰 공업규모와 경제력을 갖추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공업단지를 개발, 조성하여 성장산업을 유도하는 등 제1차 성장 거점도시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두가지 사항을 선택적으로보다는 상호보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러나 인구 과밀이나 공해의 피해가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없도록 공업단지 조성에는 합리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대구의 공업입지에는 다음과 같은 현존의 당면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 ① 地方工業開發獎勵地區 指定不可

대구시 대도시로 인하여 지방공업개발장려지구의 지정이 어려우며, 이로 인하여 지방공업 개발법에 의한 자금지원이나 조세감면 등 각종혜택을 받지 못하므로, 지방재정의 취약성과 대구지역 경제여건으로 보아 공업입지조성이 어려운 실정이며, 따라서 기업의 집적이 어렵다.

### ② 規模의 適正化 내지 規模擴大效果를 기대하기 곤란

대구시 공업구조상 중소기업의 밀집지역으로서 기업의 기업단지내의 입주가 단순히 장소이전

내지 공장의 집합지에 그치고 있어 입주계획이 합병, 협업화 등 중소기업의 조직화 계획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기업규모의 적정화내지 규모확대효과가 별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또한 공업단지 내의 입주업체들이 수평적, 수직적 조직화를 이룩하지 못하고 있으며, 입주업체간의 공동이용시설의 설치나 경영, 기술지도, 종업원 훈련 등의 기능을 단지 내에서 수행할 수 없다. 이미 조성된 대부분의 공업단지가 조성단계에서 주위의 자연환경과의 조화와 공해문제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

### ③ 便益施設の 未備

대구의 공업단지는 위치상 내륙에 자리잡고 있는데다 편익시설의 미비로 정보입수의 어려움으로 대부분의 업체들이 본사를 서울에 두고 있어 입주업체의 국제 경쟁력 배양과 신시장개척을 위한 체제정비가 부족하다.

## III. 工業基盤擴充의 對策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토지이용 극대화가 필연적이며, 공업기반의 확충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특히 지난 1960년대 이래 국토개발과정에서 파생된 국토이용의 양극화 현상에서 탈피하여 1,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을 통하여 지역개발이 중점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구는 1, 2차 성장거점도시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위한 잠재력 개발을 위해서 공업기반의 확충이 당면과제가 되고 있다.

더우기 대구의 도시화와 공업화과정이 급속히 진전되면 될수록 대구지역의 공업용지 수요는 더욱 증대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공업용지개발도 더욱 촉진될 것이다. 대구지역의 공업단지가 지역공업의 발전과 산업입지에의 기여도가 지대한 반면에, 합리적인 공업기반 구축으로서의 계획미흡과 시설미비로 인하여 여러가지 문제를 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지역공업의 편재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위하여서는 토지이용의 재조정, 공업기반시설의 재정비 및 확충이 요청되고 있다.

### 1. 基本方向

공업기반 확충의 기본방향으로는 우선적으로 다음 3가지 사항을 설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産業生産性 提高를 위해서는 ①생산시설의 적정확보, ②산업계열화 구축, ③ 산업간 연계성의 강화등이 필요하다.

둘째, 工業基盤環境 整備를 위해서는 ① 녹지공간의 확대, ② 교통근접지의 확보, ③ 공해의 근원적 제거, ④ 쾌적한도시환경조서를 위한 제반 정비가 필요하다.

셋째, 利害相衡의 調和를 위해서는 ① 정부의 대도시 억제책과 대구공업입지 목표간의 조화, ② 대구시 도시계획과 산업발전 방향과의 조화, ③ 공업단지건설관련법과 대구산업발전과의 조화등이 요구된다.

## 2. 工業立地開發

도시성장에 따른 개발이 가속화되고 공업지역의 확대가 불가피한 현실성과 장기적인 대책으로 도심에 산재한 공장이나 공업단지의 이전을 고려한다면 미개발지역의 개발과 더불어 장기적인 공업입지개발이 더욱 촉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대구의 외곽지인 安心, 太田, 月背, 城西 등 도시외곽지에 입지한 공업지역의 조성을 더욱 촉진시켜 앞으로 공업입지 확대에 대비하여 개발가능지역에의 공업입지개발이 장기적인 과제이다.

〈表 3-178〉 大邱의 用途地域別 開發現況 (단위: km<sup>2</sup>, %)

用 途 地 域 別		指定面積	既 開 發	未 開 發	備 考
合 計		97.0 (100.0)	76.6 (79.0)	20.4 (21.0)	
住居地域	小 計	70.9 (73.1)	56.5 (58.3)	14.4 (14.8)	
	住居專用	5.8	4.6	1.2	
	住 居	50.2	43.8	6.4	
	準 住 居	14.9	8.1	6.8	
商 業 地 域		8.4 (8.6)	7.4 (7.6)	1.0 (1.0)	
工業地域	小 計	17.7 (18.3)	12.7 (13.1)	5.0 (5.2)	
	工 業	13.4	10.4	3.0	
	準 工 業	4.3	2.3	2.0	

註: ( )안은 構成比임.

資料: 大邱市, 都市計劃課



〈表 3-179〉 大邱의 工業地域 所要 面積(2001年)

製 造 業 種 別	從事者數(명)	面積基準(㎡/名)	所要面積(km <sup>2</sup> )
合 計	493,500	—	42.43
飲 食 料 品 및 담 배	12,340	138.0	1.70
纖 維, 衣 服, 皮 革	192,470	63.8	12.28
木 材, 木 製 品, 家 具	7,400	85.0	0.63
종이, 종이製品, 印刷	9,870	87.0	0.86
化學, 石油, 石炭, 고무	29,610	191.0	5.66
非 金 屬 鑛 物	4,940	166.7	0.82
第 1 次 金 屬	83,890	110.9	9.30
金屬製品, 機械裝備	115,970	82.3	9.54
其 他	37,010	44.4	1.64

資料：大邱市 都市計劃課

## IV. 工業團地 造成의 現況

### 1. 大邱 第3工業團地

#### 1) 管理機關

- 관리기관：대구직할시(大邱第3工業團地協會)
- 소 재 지：대구직할시 북구 노원3가 2동 175

#### 2) 沿 革

- 1965年 2月 2日 公업단지지역으로 지정(建設部告示 제1387호)
- 1966年 8月 8日 제3公업단지 시행지정 인가 (建設部)
- 1967年 3月 3日 제3公업단지 착공
- 1967年 8月 11日 토지구획정리사업 인가
- 1968年 12月 31日 제3公업단지 준공
- 1969年 8月 22日 분양 완료
- 1973年 5月 19日 제3公업단지협회 발족
- 1974年 4月 19日 사단법인 대구지방公업공단 설립
- 1980年 2月 7日 사단법인 대구제3公업단지협회로 개칭

## 3) 團地の概況

대구 제3공업단지는 魯院工團으로 호칭되고 있으며, 대구직할시내에 산재되어 있는 輕工業製造業體를 집단화하여 都市公害防止를 통한 도시환경의 개선을 목적으로 조성한 總敷地面積 1,094,219㎡ 규모의 도시형 내륙단지이다. 본 단지는 1966년 9월 16일 대구직할시에 의해 土地區劃整理事業法에 따른 건특단지령으로 시설결정된 데, 이어 1967년 8월 10일 시설계획의 승인으로 본격적인 건설공사가 진행되어 1968년 12월말 준공한 단지이다. 이렇게 지역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새로운 공업지대로 발전된 본 단지의 명칭이「大邱 第3 工業團地」로 불리워지게 되었다.

1960년대 초 대구직할시가 지역산업의 개발과 광역도시계획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금도 大韓紡織(株), 第一毛織(株), 茂林製紙(株) 등 많은 공장들이 밀집되어 있는 당시의 기성공업지대인 대구시 북구 침산동 일대를 공업지역으로 정한 것이 이른바 第1 工業團地이다. 이와 같이 특별한 편의 시설도 없는 이 지역을 제1공업단지로 지칭하게 된 것은 1936년 7월 22일 朝鮮總督府 고시 제 765 호로 칠성동, 태평로 3가, 비산동, 평리동, 노원동, 원대동(현 노원동) 일대의 6,382,085㎡를 공업지역으로 지정한 데서 비롯된다. 대구직할시(당시 대구시)는 이 지역 중 시가지에 인접해 있는 칠성동, 침산동, 원대동, 태평로 3가 일대의 농지 595,044㎡를 1941년 공업단지로 조성하여 대한방직(주)을 비롯한 16개 섬유공장과 12개 기계공장 그리고 고무공장, 打綿工場, 染色工場 등 모두 26개 공장을 입주시켰던 것이다.

대구 공업의 꾸준한 발전으로 제1공업단지가 포화상태에 이르자 대구시는 도심지에 흩어져 있는 중소기업형 공장들을 이전 집단화할 제2공업단지의 조성계획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제2 공업단지로 교외에 위치한 경상북도 달성군 성서면을 지정하였으나 입지타당성과 당시의 여건이 여의치 못한 관계로 일단 보류되었다. 비록 이 계획이 백지화 되었다고는 하지만 이것이 第2 工業團地이다.

그 후 다시 새로운 공업지역으로 정한 대구직할시의 제3차 단지조성 계획안인 노원동 3가 지역(당시는 원대동 6가)이 건설부로부터 지정됨에 따라 구체화되어 조성된 것이 지금의 大邱 第3 工業團地이다.<sup>24)</sup>

24) 대구상공회의소, 《大邱·慶北 工業團地 現況》, 1991, p. 27.

#### 4) 概 要

조성목적	대구시내 산재한 경공업 제조업체를 집단화하여 도시공해방지를 통한 도시환경개선을 목적으로 조성	
사업주체	대구직할시	
위치	대구직할시 북구 노원3가 2동	
지형	평탄한 지역	
지역지정	지방공업단지 지역으로 지정(1965.2.2 건설부 고시 1387호)	
조성기간	1967~1968	
입지여건	항만	부산항 이용
	교통	서울기점 직선거리 301.3Km, 부산 135Km, 광주 219.2Km
	용수	20,000톤/일
	배수	6대의 배수펌프 시설
	전력	150KV 변전소 2개소
	통신	400회선
	진입도로	4.0Km(30m) 4차선 완료
입주업종	섬유(45%), 기계(44%), 기타(11%)	
입주자격	정관 참조	
입주절차	정관 참조	
분양절차	1969. 8.(제3차 분양 완료)	

資料：대구상공회의소, 《大邱·慶北 工業團地 現況》, 1991, p. 29.

#### 5) 支援施設現況

區 分	單 位	所有施設	現施設	過不足	備 考
공 업 용 수	천톤/일	20	20		
전 력	KW	40,000	40,000		
통 신 시 설	회선	400	400		
진 입 도 로	Km(폭)	4.0(30m)	4.0(30m)		
단지내 도로	Km	9.2	9.2	포장률 : 70%	도로율 : 14%
하수도 시설	Km	9.2	9.2		6대 배수펌프 시설
지 원 기 관	행정기관, 태평전신전화국, 우체국, 소방서, 파출소, 보건소, 상공회의소, 은행				

資料：대구상공회의소, 앞의 책.

## 6) 團地規模

(단위: m<sup>2</sup>)

구 분	조 성 면 적	분 양 면 적	공 공 용 지
면 적	1,094,219 (331,000)	968,599 (293,000)	125,620 (38,000)

註: ( )내는 평수임.

## 7) 入住業體 現況

연도 \ 구분	계	섬유·염색	기계·주물	기 타	비 고
1990년도 (%)	171 (100)	78 (45)	74 (44)	19 (11)	
1989년도 (%)	170 (100)	82 (48)	68 (40)	20 (12)	
증 감	+1	-4	+6	-1	
비 고	◦ 손 실 - 이전: 경상직물, 창신직물, 유화직물, 유정직물, 세화기계, 덕성정밀, 금성정밀 - 부도: 태성유리, 영화직물, 삼삼광학 ◦ 입 주: 영화금속, 신동양기업, 대성열처리, 정은공업사, 세존정밀, 경진기계 정일기계, 대한특수산업사, 광성정밀, 서광공업사, 신일산업, 금산정밀				

資料: 대구상공회의소 앞의 책.

## 8) 生産・輸出・雇傭 現況

구 분	단 위	1989 년도	1990 년도	증 감(%)
고 용	명	17,540	17,312	- 228(1.3%)
생 산	만원	73,882,500	72,990,000	- 889,100(12%)
수 출	달러	32,812,200	32,530,100	- 2,820,100(0.8%)

資料: 대구상공회의소 앞의 책.

## 2. 西大邱工業團地

### 1) 管 理 機 關

- 관리기관 : 대구직할시(西大邱工業團地協會)
- 소재지 : 대구직할시 서구 이현동 산 128번지

### 2) 沿 革

區分	地域別	第 1 次 地 域	第 2 次 地 域
入住 企業體 募集		1974~1975. 5	1977. 10. 6~1920
審 查 決 定		1974~1975. 5	1977. 11 .15
都市計劃實施決定		1975. 7. 29(建設部告示 第126號)	1977. 11. 15(建設部告示 第379號)
實施計劃 認可		1976. 4. 3(慶北道告示 第25號)	
整地 및 基盤工事		1975. 3~76. 8. 31	1978. 6. 21~10. 31
分 讓		1976. 8. 31	1978. 10
工 場 入 住		1976. 9~1978. 12. 3	1978. 11~1979. 12

### 3) 團地의 概況

西大邱工業工團은 梨峴工團으로도 불리며 도심지에 산재되어 있는 용도지역 위반공장의 집단화로 도시공해방지를 통한 도시환경의 개선과 전문·계열화에 따른 생산성 제고를 목적으로 조성한 총부지 면적 2,416,540㎡ 규모의 도시형 내륙공업단지이다. 본 단지는 단계적인 조성으로 第1次 地域, 第2次 地域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경계없이 연결된 단지로 단지의 관리창구도 일원화되어 있다.

第1次 地域은 1975년 7월 29일 건설부 고시 제126호의 시설결정과 계속해서 1976년 3월 7일 경상북도 고시 제25호로 실시계획이 허가됨으로서 동년 3월 1일 착공하여 1977년 12월말에 준공되었다. 第2次 地域은 1977년 11월 15일 경북도 고시 제379호의 시설결정에 이어 1978년 9월 20일 경북도 고시 제276호로 시설계획이 인가됨에 따라 동년 9월 25일 착공하여 다음 해인 1979년 12월말 준공한 단지이다. 특히 제2차 지역은 제1차 입주기업체와 공해방지에 중점을 두고 단지경계를 그린벨트로 조성하여 遮逝樹林帶를 조성함으로써 공해를 없애는 기능을 하도록 조성한 것이 특색이다.

이와 같이 동해안 臨海工業地域과 광활한 농촌지역을 배후도시로 이용한 공업단지 조건으로 인해 생산, 유통거점지로서 앞으로의 발전전망이 밝은 단지이다.

#### 4) 概 要

조 성 목 적		1. 도심지 공해 공장이전으로 시민생활 환경개선 2. 노후시설 이전 현대화로 지역경제력 신장
사 업 주 체		대구직할시
위 치		대구직할시 서구 이현, 중리, 죽전동 일부
지 형		불모야산 구릉지 생산적 개발이용
지 역 지 정		1차지역 : 75. 7. 29 (건설부 고시 제126호) 2차지역 : 77. 11. 15 (건설부 고시 제379호)
조 성 기 간		1차지역 : 75. 3 ~ 76. 8. 31 2차지역 : 78. 6. 21 ~ 10.31
입 지 여 건	항 만	부산항 이용
	교 통	시내중심가에서 5Km거리 경부 및 구마고속도로 연결
	용 수	22,000T/일
	공원·녹지	75천평
	전 력	70,000KW 변전소 1개소
	진입 도로	3개소 1차선 : 1, 3차선 : 2
입 주 업 종		섬유외 다업종
입 주 자 격		용도지역 위반 자영업체 및 신설업체
입 주 절 차		평당 5,000원을 불입 또는 일시불 불입 완료 후 위치 추첨권을 받은 후 위치 지정받음
분양가격(㎡)		분양가격 1차 : 3,000원 2차 : 8,500~9,700원

資料 : 대구상공회의소, 앞의 책.

### 5) 支援施設 現況

區 分	單位	所要施設	現施設	過不足	備 考
공 업 용 수	천톤/일	22T/일	12T/일	10T/일	가압장을 설치 가동하고 있으나 압력부족으로 일부 고지대 용수공급부족
전 력	KW	70,000W	70,000W	—	
통 신 시 설	회 선	650	650	—	
진 입 도 로	Km(폭)	9.6 (20-40m)	9.6	—	완포장 100%
단지내 도로	Km(폭)	24 (6-10m)	24	—	완포장 11,300(65%)
하수도 시설	km	본관8 하수취구16	본관8	하수취구 16	단지내세도로변 하수취구16km
폐 수 중 말 처 리 장	천톤/일				
지 원 기 관	섬유기술진흥센터, 섬유기술진흥원 파출소(2), 소방서, 서구청, 상공회의소				

資料：대구상공회의소, 앞의 책.

### 6) 團地規模

(단위：천평)

구 분 \ 지구별	계	비 율	1차지구	비 율	2차지구	비 율
총 계	731	100	347	47	384	53
공 장 용 지	513	70	271	78	242	63
공 공 용 지	125	17	56	16	69	18
시 설 녹 지	42	6	15	4	27	7
기타 보유지	51	7	5	2	46	12

資料：대구상공회의소, 앞의 책.

## 7) 入住業體 現況

(단위: 개, %)

업 종	계	가 동	비 율
계	355	355	100.0
섬유·피혁	166	166	47
기계·금속	83	83	23
식품	5	5	1
인쇄·제지	5	5	1
목재·가구	9	9	3
석유·화학	19	19	5
비금속·요업	13	13	4
전기·전자	4	4	1
기 타	51	51	15

資料: 대구상공회의소, 앞의 책.

## 8) 雇傭現況

(단위: 개, 명)

구 분	가동업체	종 업 원		
		계	남	여
계	355	23,890	11,710	12,180
섬유·피혁	166	13,432	3,579	9,853
기계·금속	83	5,930	4,775	1,155
식품	5	161	118	43
인쇄·제지	5	95	73	22
목재·가구	9	57	44	13
석유·화학	19	355	265	90
비금속·요업	13	395	270	125
전기·전자	4	155	101	54
기 타	51	3,310	2,485	825

資料: 대구상공회의소, 앞의 책.



### 3. 大邱染色工業團地

#### 1) 管理機關

- 관리기관 : 대구염색공업공단
- 소재지 : 대구직할시 서구 비산염색단지 1B 1L

#### 2) 沿革

- 1976年 9月 염색전용공업단지 조성건의 채택
- 1979年 10月 입지조사 실시(商工部, 慶北道, 學界合同)
- 1977年 5月 염색공단 조성계획 확정(大邱市)
- 1978年 8月 비산염색공단조성에 관한 조례시행(大邱市)
- 1979年 3月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 인가(慶尙北道)
- 1979年 6月 입지매입 완료
- 1979年 10月 기반시설공사 착공
- 1980年 5月 입주지정(제1, 2차 분양)
- 1980年 7月 정지완공(공장건립 개시)
- 1980年 11月 大邱染色工業公團(단지관리기관)설립 인가
- 1980年 12月 공공폐수처리장 시설 준공
- 1981年 5月 지방세 감면조례 공포 시행
- 1981年 7月 단지준공식 거행
- 1983年 3月 전용공업용수시설 준공
- 1985年 1月 열병합발전소 건설공사 기공
- 1987年 12月 열병합발전소 준공
- 1988年 1月 공단확장 기반조성공사 착공
- 1988年 7月 공단확장 기반조성공사 준공(공장건립 개시)
- 1989年 12月 단지확장조성 및 공동폐수처리장(증설) 준공

#### 3) 團地의 概況

大邱染色工業團地는 「飛山染色工團」으로도 세칭되며, 도심지에 산재되어 있는 염색공업체들을 집단화하여 공해요인을 방지함으로써 도시환경 개선 및 시설의 근대화로 품질향상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조성한 총부지면적 789,947m<sup>2</sup> 규모의 染色工業 專門化團地이다.

전통적인 섬유공업도시인 대구직할시에 입지한 본 단지는 1974년 6월 12일 건설부 고시 제 187호로 용도지정된 공업지역으로 1976년 9월 慶北染色工業協同組合이 염색공업 전문단지조성을 건의함으로써 구체화되었다. 이에 따라 1976년 10월 20일부터 10월 29일까지 商工部, 工業振興廳, 慶北道, 學界 등으로 구성된 입지기초 합동조사가 실시되었고, 1978년 2월 적지로 입지선정되었다.

이와 같이 단지조성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1979년 3월 29일 경상북도 고시 제88호로 도시계획사업시설계획이 인가되고, 동년 6월에는 토지 매입도 완료하게 됨으로써 동년 10월에 착공한 본 단지는 같은 해 12월 26일에는 공동폐수처리장을 착공, 1980년 5월과 6월 등 2차례의 분양을 거쳐 7월부터 공장건설에 들어가 1981년 7월 1일에 완공되었다. 또, 1988년부터는 염색공단 확장공사를 착공하여 1989년 12월 확장지공사가 준공, 21개 업체가 추가로 입주하게 되었다.

#### 4) 概 要

조 성 목 적		염색가공근대화, 공해방지효율화, 국제경쟁력강화(수출증대)
사 업 주 체		대구직할시
위 치		대구직할시 서구 비산동
지 형		금호강 후배습지
지 역 기 간		도시계획 공업지역
조 성 기 간		1979 ~ 1980
항 만		부산항 이용
입 지 선 정	교 통	철도 : 대구역 지점 5Km, 고속도로 : 경부·구마·88고속도로 대구서부 인터체인지 3Km
	용 수	90,000톤/일 (전용 공업용수 시설)
	배 수	폐수처리장 70,000톤/일 처리외 하수도 시설
	공원녹지	11,111m <sup>2</sup> (시설녹지)
	전 력	38,000KW
	통 신	전화 600회선
진입도로		0.3Km(4차선)
입 주 업 종		염색가공
입 주 자 격		비산염색 전용공단 조성조례 제3조 참조
입 주 절 차		비산염색 전용공단 조성조례 제4조 참조
분양가격(m <sup>2</sup> )		22,000원
납 부 방 법		3회분할 납부, 계획시 1/3, 1개월마다 2회분할 납부

資料 : 대구상공회의소, 《大邱·慶北 工業團地 現況》, 1991, p.63.

## 5) 團地現況

### (1) 用 地

區 分	規 模	備 考
計	789,947㎡ (239千坪)	
工 場 用 地	621,966 (188)	111 筆 地
公 共 用 地	101,307 ( 31)	道 路 用 地
廢水處理場	55,563 ( 17)	
綠 地	11,111 ( 3)	

資料：위의 표와 같음.

### (2) 基盤施設

區 分	規 模	備 考
도 로 상 수 도 전문 공업 용수	총 연 장 9.8 km 3,000㎡ / 일 90,000㎡ / 일 기존 : 60,000㎡ / 일 30,000㎡ / 일	종업원 식수
오 수 로 전 화 공공폐수처리장	총 연 장 8.3 km 600 회 선 처 리 능 력 ◦ 1 처리장 : 70,000㎡ / 일 기 존 : 30,000㎡ / 일 증 설 : 40,000㎡ / 일 ◦ 2 처리장 : 15,000㎡ / 일	폐 수 처 리  공동이용시설
집 단 에 너 지 공 급 시 설	◦ 시설용량 · 증 기 : 390 TON / H · 전 기 : 38,000 KWH	공동이용시설

資料：위의 표와 같음.

## 6) 入住業體 現況

### (1) 入住現況

(단위 : 개)

區 分	業 體 數	業 種 別		
		직 업	날 업	사 업
계	111	79	13	19
기존단지	90	61	11	18
확장지구	21	18	2	1

資料：위의 표와 같음.

(2) 施設現況(稼動業體)

(단위: 개)

業種別	機種別	施 設 區 分				
		計	染色機	捺染機	幅出機	其 他
계		4,239	1,594	89	159	2,400
직 염		3,313	1,239	58	144	1,872
날 염		212	49	31	12	120
사 염		714	306	0	0	408

(3) 雇傭現況(稼動業體)

(단위: 개, 명)

구 분	계	직 염	날 염	사 염
업 체 수	111	79	13	19
계	14,516	12,131	1,362	1,023
남	9,201	7,477	944	780
여	5,315	4,654	418	243

(4) 生産現況(1990년도)

구분 업종	단 위	능력(연)	계획(연)	실 적	진 도(%) (실적/계획)
	천 야 드	2,783,000	1,981,000	1,926,000	97(69)
계	톤	(38,000)	(27,000)	(23,000)	85(61)
직 염	천 야 드	2,535,000	1,846,000	1,791,000	97(71)
날 염	천 야 드	248,000	135,000	135,000	100(54)
사 염	톤	(38,000)	(27,000)	(23,000)	85(61)

(5) 販賣現況(1990년도)

구분 업종	시 장 별	단 위	계 획	실 적	진 도
총 계	합 계	백 만 원	333,000	318,000	95
	내 수	백 만 원	122,000	117,000	96
	수 출	천 달 러	310,000	284,000	92
직 업	내 수	백 만 원	95,000	90,000	95
	수 출	천 달 러	264,000	245,000	93
날 업	내 수	백 만 원	13,000	15,000	115
	수 출	천 달 러	32,000	28,000	88
사 업	내 수	백 만 원	14,000	12,000	86
	수 출	천 만 원	14,000	11,000	79

7) 共同廢水處理場 施設現況

(1) 第1處理場

- 시 설 개 요
  - 부지면적 : 13,000평
  - 처리공법 : 2단 미생물법
  - 사 업 비 : 120억원 (융자 95억, 자부담 25억)
- 주 요 시 설 물

시 설 명	수 량	용량 (m <sup>3</sup> )	비 고
A - S T E P 폭 기 조	2기	27,442	
A - S T E P 침 강 조	4기	13,536	
B - S T E P 폭 기 조	3열	67,985	
B - S T E P 침 강 조	3기	18,237	
탈 수 처 리 능 력	18대	194m <sup>3</sup> / 시간	농축스러지

(2) 第2處理場

- 시 설 개 요
  - 부지면적 : 3,400평
  - 처리공법 : 2단 미생물법
  - 사 업 비 : 32억원(용자 30억, 자부담 2억)
- 주요 시설물

시 설 명	수 량	용량 (m <sup>3</sup> )	비 고
A - S T E P 폭 기 조	1기	1,288	
A - S T E P 폭 기 조	1기	1,100	
B - S T E P 폭 기 조	11열	21,000	
B - S T E P 폭 기 조	2기	4,240	
탈 수 처 리 능 력	7대	91m <sup>3</sup> / 시간	농축스러지

8) 熱併合 發電所 施設 現況

(1) 施設概要

- 부지면적 : 14,000평
- 연 건 평 : 2,030평
- 사 업 비 : 298억원 (용자 244억원, 자부담 54억원)

(2) 主要 施設物

구 분	세 부 설 비	수 량
증 기 설 비	석 탄 보 일 러 (유동층연소식)	130 T / H × 3기
	보 조 보 일 러 ( B - C 유)	130 T / H × 1기
발 전 설 비	T / G	39,400 KW × 1
수처리 설비	순 수 처 리	200 T × 1
		160 T × 2
	연 수 처 리	50,000 T /일
배 관 설 비	총 정 장	8.6 km

#### 4. 大邱檢丹工業團地

##### 1) 管理機關

- 관리기관 : 대구직할시
- 소 유 지 : 대구직할시 중구 동인 1가 1

##### 2) 沿 革

- 1965年 2月 2日 공업지역지정고시 (건설부고시 제1387호)
- 1974年 2月 23日 공업단지조성시설결정 (건설부고시 제76호)
- 1974年 4月 26日 공업단지조성실시계획인가 (경북도 고시 제92호)
- 1974年 4月 30日 공업단지조성공사착공
- 1975年 12月 31日 공업단지조성공사준공

##### 3) 團地의 概要

경부고속도로 연변에 입지한 검단공업단지는 이 고장의 주종산업인 섬유공업의 집단화로 기술집약을 통한 품질향상과 국제경쟁력강화를 이루어 전통적인 섬유공업도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조성한 총부지면적 790,086㎡ 규모의 섬유공업 전문화 단지이다. 본 단지는 1974년 2월 23일 건설부 고시 제76호의 시설결정과 동년 4월 26일 경상북도 고시 제92호로 시설계획의 인가와 함께 착공하여 1975년 12월 31일 완공하였다.

이와 같이 조성된 본 단지는 영남지역의 섬유공업기지로 대형화한 섬유공장의 집단화로 확실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내실화된 단지로 정평이 나 있다.

##### 4) 概 要

조 성 목 적	지역주종산업인 섬유공업의 집단화로 기술집약을 통한 품질향상 과 국제경쟁력 강화로 전통적인 섬유공업도시의 지속적인 발전 도모
사 업 주 체	대구직할시
위 치	대구직할시 북구 검단동 일원
지 형	일반농경지와 구릉지 복합
지 역 지 정	1965. 2. 2. (건설부고시 제1387호)
조 성 기 간	1974. 4 ~ 1975. 12

지 정	항 만	부산항 이용
	교 통	철도기준 : 서울 327.1Km, 부산 114.4Km, 대전 160.2Km
	용 수	10천톤 / 일
	배 수	10천톤 / 일 처리가능한 배수관시설 완비
	전 력	22,540KW(수요증가에 따른 증설가능)
	통 신	32회선, 전국의 통신망과 자동전화구역
	진입도로	1.5Km(노폭 30m)
입 주 업 종		한국표준 산업분류상 전 제조업
입 주 자 격		섬유공업 및 계열화업체, 수출업체 및 외국인 투자가 업체, 지방특화산업
입 주 절 차		대구직할시 공업과에 소정의 사업계획서 구비신청 → 심의후 입주결정
분양가격 및 납 부 방 법		분양완료 (시가감정에 의함)

資料 : 대구상공회의소 앞의 책.

### 5) 團地規模

(단위 : m<sup>2</sup>)

총 면 적	공 장 용 지	공 공 용 지
790,086	723,970	66,116

### 6) 支援施設現況

구 분	단 위	소 요 시 설	현 시 설
공 업 용 수	천 톤 / 일	10	10
전 력	KW	22,540	22,540
통 신 시 설	회 선	32	32
진 입 도 로	Km (폭)	1.5km(30m)	1.5km(30m)
단 지 내 도 로	Km	3.2(10~20m)	3.2(10~20m)
하 수 도 시 설	Km	2.4	2.4
폐수종말처리장	천 톤 / 일	-	-
지 원 기 관	검 단 동 사 무 소		
	검 단 파 출 소		
	북 현 소 방 파 출 소		



## 5. 城西工業團地

### 1) 管理機關

- 관리기관 : 대구성서공업단지 관리공단
- 소 재 지 : 대구시 달서구 갈산동 123-4번지

### 2) 沿 革

- 1965年 2月 1차단지 공업지역 결정고시
- 1984年 5月 1차단지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
- 1987年 5月 19日 2차단지 (1지구) 공업지역 결정고시
- 1988年 2月 16日 지방관리공단 지정 (1, 2차단지)
- 1988年 3月 용도별 구획고시 (상공부)
- 1988年 8月 7日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사업 실시계획 인가
- 1989年 9月 1日 관리공단 설립준비단 발족 및 임시 관리사무소 설치 운영  
(대구은행 성서지점)
- 1989年 11月 16日 관리공단 설립 발기위원회 구성 (16명)
- 1989年 12月 20日 관리공단 설립 창립총회 개최 (초대이사장 김상영)
- 1990年 2月 28日 대구성서공업단지 관리공단 설립허가 법인설립 등기완료
- 1990年 3月 9日 법인설립 등기완료
- 1990年 4月 30日 관리공단 설립준비단 해체
- 1991年 3月 12日 대구성서공업단지 관리공단 사무실 이전  
(달서구 갈산동 123-4)

### 3) 團地의 概況

대구중심가에서 자동차로 20분 거리에 입지한 城西工業團地는 비공업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용도지역 위반 제종업체를 전문업종별로 집단이주시켜 주거환경 개선과 전문·계열화에 따른 품질개선 및 산업성향 등으로 지역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성한 1차단지 총부지면적 2, 905,532㎡ 규모의 내륙공업단지이다.

본 단지는 1976년 3월 27일 건설부 고시 제37호로 대구시 도시계획에 의하여 이미 고시된 공업지역으로, 1983년 6월 시설결정 및 시설계획의 인가로 1984년 1월부터 정지 및 기반시설 공사가 착수되어 동년 12월에 완성되었다.

따라서, 본 단지는 1983년 6월 입주기업체 공모 및 선정에 이어 1985년 1월부터 분양 및 공장입주가 시작됨으로써 이미 조성된 대구 제3공업단지, 서대구공업단지, 검단공업단지, 대구 비산염색공업단지를 위시하여 주변지역인 구미, 달성공업단지와의 협업체계가 형성될 뿐만 아니라 扉形으로 펼쳐져 있는 포항, 울산, 부산, 마산, 창원 등의 임해공업단지와의 공업기능이 연계, 확대되는 등 유리한 입지조건에 놓여 있다.

특히 본 단지는 구마고속도로의 진입로인 성서입체교차로가 불과 800m 거리에 위치하는 편리한 교통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근로자들의 보건휴양을 증진시키고 생산의욕을 고조시키는 구릉지의 공단, 자연녹지화와 공업지역과의 업무·주거 지역 간에는 차단녹지를 설정하는 등 이상적인 공업단지로 조화되어 있다.

현재 본 단지는 제1차단지 조성완료에 이어 2차단지 1지구 및 2지구가 132만평 규모로 건설중에 있으며, 3차단지 112만평도 조성할 계획으로 있어 명실상부한 대구지역 최대의 공업단지로 변모할 것으로 보이며, 첨단연구단지로서의 기능도 병행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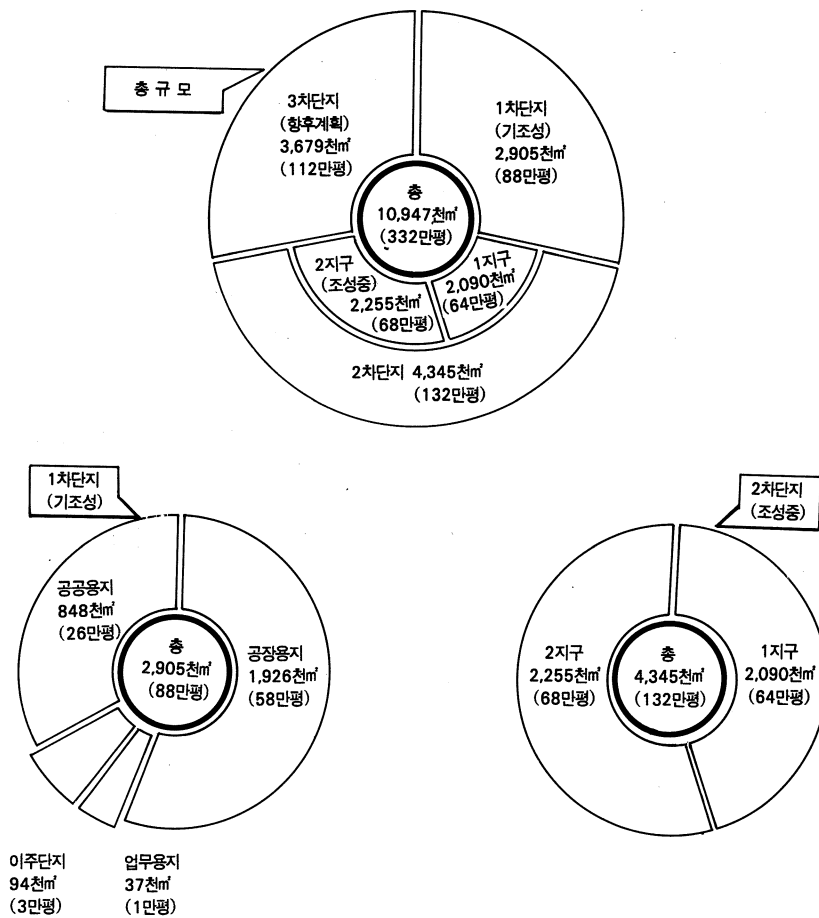
#### 4) 概 要

- 조성목적 : 도심지 용도지역 위반업체 이전으로 도시 환경개선
- 사업주체 : 대구직할시
- 위 치 : 달서구 (이곡, 장기, 갈산, 신당, 장동, 성서일원)
- 지 형 : 북고남저
- 지역지정 : 대구직할시 고시 제40호
- 조성기간 : 1차단지 1984~1988년, 2차단지 1988~1991년, 3차단지 1991~1993년
- 입지여건-항 만 : 부산항 이용
  - 교 통 : 시내 중심가에서 12Km, 경부고속도로 0.8Km
  - 용 수 : 41,000톤 / 일
  - 공원, 녹지 : 3000천㎡
  - 전 력 : 2,580회선
  - 진 입 로 : 800m(8차선 완료)
- 입주업종 : 섬유, 기계, 화학, 기타
- 입주가격 : 이전, 확장, 신설
- 분양가격 :
- 납부방법 : 4회 분할 납부

### 5) 支援施設現況

구 분	단 위	소 요 시 설	현 시 설
공 업 용 수	천톤 / 일	41,000톤 / 일	41,000톤 / 일
전 력	KW	120,263	120,263
통 신 시 설	회 선	25,800	25,800
진 입 도 로	Km (폭)	0.8(50m)	0.8(50m)
단지내 도로	Km	35	35
하수도 시설	Km	114	114
지 원 기 관	소방서, 은행, 파출소, 한전, 전신전화국		

### 6) 團地規模



## 7) 入住業體現況(1차단지)

업종별	입주 기업체수 (개)					고용인원 (명)		
	가동	휴업	건설중	미착공	계	남	여	계
음식료품	11		2		13	413	338	751
섬유, 의복, 가죽	192	1	6	199	690	9,220	9,910	
나무제품(가구)	22				22	196	90	286
화학, 석유, 석탄, 고무	26			1	27	287	68	355
비금속광물제품	7				7	145	35	180
1차금속산업	4		2		6	372	90	462
기계장비제조업	138				138	5,840	880	6,720
기타제조업	67	1	1		69	1,346	290	1,636
계	467	2	11	1	481	9,289	11,011	20,300

## 8) 生産·輸出現況

생산 (백만원)				수출 (천 불)			
88	89	90	증감율	88	89	90	증감율
224,100	(미조사)	601,585	—	180,000	(미조사)	180,998	—

## V. 課題 및 展望

대구지역의 經濟的 特性을 고려하여 産業構造의 高度化 및 知識·技術集約的 工業團地로서의 기능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공업단지의 構造改編을 통한 土地利用의 效率性 및 生産性 提高를 실천해 나가야 하고 또한 金融 및 稅制支援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며, 나아가서 尖端技術 研究團地(Technopolis)의 조성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短期 및 長期課題와 展望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短期 推進方向

#### (1) 工業基本設施의 完備, 擴充

상하수도 시설, 에너지공급시설 등 基本設備에 대한 共同投資를 강화함으로써 工場集團化에 따르는 個別投資費用의 節次效果를 圖謀하며, 공단내 住居設施의 擴充 및 도심과의 連繫交通網

擴充을 위한 工團進入路를 擴張한다.

#### (2) 支援 및 管理體制의 強化

技術開發 및 施設改善 등이 필요한 公단입주업체에 대해 地方稅 및 市公課金의 免稅 등 지방자치단체로서 조치 가능한 지원방안을 강구한다.

또한 地方金融機關의 公단입주업체에 대한 育成資金支援을 확대하며, 協議體의 構成 또는 機能活性化를 통하여 관리기능확대 및 입주업체간의 자발적인 정보교환 등에 의한 相乘效果를 提高한다.

#### (3) 機械工業專門團地의 造成

지역 제2의 주종산업인 機械工業專門團地의 造成을 통하여 이들 업체에 대한 公營용지수요를 충족하며, 조성후 이의 專門的 育成을 위한 제반 지원정책을 추진한다.

#### (4) 工團의 專門化 推進

産業構造上 前後方聯關效果를 살릴 수 있도록 入住業體間 協業化·系列化를 推進하며, 新規造成工團의 경우 입주업종 선정시에는 工團의 專門化를 감안한 업종선정을 기하고 既造成工團의 경우에는 業種을 再整備한다. 또한 公단자체내에 技術開發研究機構, 技能人力 養成機構 등의 設置를 통하여 생산시설과 기술개발의 결합을 도모한다.

### 2) 長期 政策方向

#### (1) 尖端技術研究團地 造成 推進

대도시의 특성상 넓은 부지와 많은 인력이 소요되고, 公害發生可能性이 높은 業種의 지속적 육성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知識·情報集約的인 尖端産業의 育成을 위한 長期的인 構造調整政策을 推進해야 할 것이다.

기존의 업종은 점진적으로 인접지역으로 이전시키고 大邱市는 이들에 대한 技術研究 開發, 情報提供 및 새로운 知識의 創出 등을 위한 中추도시로서의 기능제고를 해나가야 할 것이다.

#### (2) 지역 주종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한 綜合機能工業團地의 조성

섬유산업의 기술고도화, 고부가가치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기존의 纖維製造機能을 研究 技術開發機能 및 實物·金融去來 決濟機能, 새로운 需要의 創出機能 등과 결합한 綜合機能纖維工業團地로서의 造成을 推進하여야 할 것이다.